

국립박물관 무료화 시범실시에 따른 관람객 분석 및 파급효과 연구

A Study of Visitors Analysis and the Effect of
National Museum's Free Admission on an Experimental Basis

**국립박물관 무료화 시범실시에 따른 관람객 분석 및
파급효과 연구**

A Study of Visitors Analysis and the Effect of
National Museum's Free Admission on an Experimental Basis

발행처 : 국립중앙박물관

발행인 : 최광식

발행일 : 2008년 11월 1일

연구기관 : 경희대학교 부설 현대미술연구소

연구책임자 : 최병식

표지그림 : 국립중앙박물관

목차

머리에

I. 국립박물관 무료화 시범실시 추진배경과 과정 -9

1. 추진배경 및 내용 -10
2. 주요 계획과 추진과정 -11
 - 1) 추진계획과 대비
 - 2) 기대효과
 - 3) 추진과정

II. 국립박물관 무료화 시범실시 실태분석 -17

1. 한국 국립박물관 관람료 무료화 이후 관람객 변화 -18

- 1) 일평균 관람객 수
- 2) 내국인 관람객 수
- 3) 외국인 관람객 수
- 4) 내·외국인 통합 관람객 수

2. 운영 실태 통계 및 분석 -33

- 1) 프로그램 참여자 수(상설전 등)
- 2) 프로그램 참여자 수(교육·행사)
- 3) 프로그램 참여자 수(유료특별전)
- 4) 프로그램 참여자 수(통합)

3. 관련매출현황 -41

- 1) 1인당 매출액
- 2) 문화상품
- 3) 식·음료
- 4) 주차장
- 5) 공연기타
- 6) 통합매출

4. 통계비교 및 변동률 -48

- 1) 전체 통계변동률
- 2) 국립·공립·사립박물관·미술관 통계 및 비교

Ⅲ. 외국의 뮤지엄 관람료 무료화 제도와 비교분석 -71

1. 주요국가의 무료관람제도 -72

- 1) 영국
- 2) 프랑스
- 3) 중국
- 4) 미국

2. 한국과 주요국가 관람료 비교분석 -192

- 1) 국내 박물관·미술관 관람료 현황
- 2) 주요 외국의 박물관·미술관 관람료 현황
- 3) 국내외 박물관·미술관 관람료 주요 통계
- 4) 한국 박물관·미술관의 관람료 할인·면제혜택
- 5) 외국 박물관·미술관의 관람료 할인·면제혜택

Ⅳ. 국립박물관 무료화 정책에 따른 반응 및 영향 -227

1. 국립박물관 관람객 설문분석 -228

- 1) 내국인
- 2) 외국인

2. 박물관직원 설문분석 -238

- 1) 국립 박물관
- 2) 공립 박물관·미술관
- 3) 사립 박물관·미술관
- 4) 중복설문 내용분석

3. 현장 심층인터뷰 결과 -267

Ⅴ. 국립박물관 관람료 무료화 성과 및 향후 실시방안 -269

1. 관람료 무료화의 성과와 문제점 -270

- 1) 관람료 무료화의 주요성과
- 2) 관람료 무료화가 공·사립박물관에 미친 영향
- 3) 관람료 무료화의 문제점

2. 2009년 이후 국립박물관 관람료 제도의 방향 -305

- 1) 검토되는 제도 및 내용
- 2) 유료화 복귀
- 3) 관람료제도 보완점

VI. 결론 -329

부록

- 부록1 : 국립박물관 무료관람 및 관람료 안내내용
- 부록2 : 국립박물관 관람료 무료화 진행 과정(언론보도 중심)
- 부록3 : 세계박물관·미술관 관람료 세부내용
- 부록4 : 박물관직원 대상 설문 주관식 답변 내용
- 부록5 : 통계조사표 및 설문양식

일러두기

- 이 연구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연구용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용어는 거시적으로는 박물관이라는 용어에 미술관이 포함되는 의미로 사용된 사례가 있다.
- 통계수치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으나 구체적인 각관별 수치는 자체적으로 통계한 수치를 사용하였다.
- 국립박물관, 사립박물관 수치는 자체적으로 통계한 수치이다.
- 외국의 관람료 통계나 국내 설문 등의 구체적인 자료는 부록으로 수록하였다.
- 국립박물관은 국립중앙박물관, 지방 국립박물관 11개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을 포괄함. 12개 국립박물관은 국립중앙박물관과 지방 국립박물관 11개관을 포괄하는 의미로 구분하여 사용하였음.

머리에

국립박물관은 2008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범사업으로 무료관람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보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이번 사업의 중간성과를 파악하고 심층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하면서도 2009년부터 실시될 제도에 대하여 증대방안과 시행안을 제시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 가장 핵심적인 목적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이명박정부의 국정과제’와 ‘건국60주년을 맞은 국민적 축제행사’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무료화 시범실시를 계기로 관람객 성향을 분석하여 향후 관람객 증대방안을 마련.
- 무료관람 시범실시의 결과와 기대 효과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무료화 정책 실행의 타당성 및 방향성 검토
- 사립박물관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 영국, 프랑스, 미국 등의 박물관 무료관람제도 연구로 비교 및 반영

이를 위해서는 ‘제 2장 국립박물관 무료화 시범실시 실태분석’을 중심으로 주요 분석자료와 함께 1,000명이 넘는 관람객 설문과정과 전국의 국립박물관을 현장 방문하여 심층인터뷰를 실시하고 생생한 시행과정의 장단점을 파악하였다. 통계부분에서는 관람객 변화, 운영실태 통계분석 등을 비롯하여 관련매출현황과 통계비교 및 변동률을 분석하였다.

제 3장에서는 가장 먼저 전국적인 규모로 무료관람제도를 실시한 영국을 비롯하여 2008년 1월부터 6월까지 14개관을 실시한 프랑스, 2008년 3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는 중국 등을 연구하였다. 런던, 파리에서는 객원연구원이 현지 인터뷰를 통한 자료를 보완하여 실제 적용되어지는 사례를 구체화하였다.

워싱턴의 스미소니언 인스티튜션(Smithsonian Institution)을 중심으로 한 미국을 포함하여 이상 4개국의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제도에 대한 객관성과 장단점을 파악해가는데 적극 활용되었다.

이와 함께 역시 제 3장의 한국과 주요국가 관람료 비교분석에서는 국내외 300여 개 박물관 및 미술관의 관람료조사, 할인과 면제혜택 등의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박물관들의 관람료가 위치하는 적정수준을 파악하였다.

‘제 4장 국립박물관 무료화 정책에 따른 반응 및 영향’에서는 운영주체인 국립박물관 직원, 공립관, 사립관, 전문가들의 견해 등이 심층 인터뷰와 함께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입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제 5장 국립박물관 관람료 무료화 성과 및 향후 실시방안’에서는 위의 자료들을 토대로 관람료 무료화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2009년 이후 국립박물관 관람료 제도의 방향과 관람객 개발증대를 위한 안을 제시하였다.

분석범위는 연구기간의 한계로 인하여 2008년도 5-8월까지로 설정하였으며, 통계방식은 전체 국립박물관통계는 국립중앙박물관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자료에 의거하면서도 객관성 확보와 조사항목의 구체화로 인하여 12개 국립박물관으로 나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연구과정에서 통계된 결과들을 활용하였다. 양 통계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으나 집계항목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정도로 판단된다.

전체 연구 및 분석결과로서 2008년 5-8월 4개월간의 성과는 긍정적인 수준으로 판단되었으며, 이 과정에는 정성적인 성과로서 관람객과 박물관 주체, 공립, 대학, 사립관의 평가 등이 종합적으로 집합되어있다. 정량적인 성과로서는 4개월간 97만 7,981명이 입장하여 2007년 같은 시기의 66만 2,969명에 비하여 31만 5,012명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으로서 관람객에서는 47.5%의 증가세를 보여주었다. 매출수입과 관람료 비교에서 2007년 관람료 수입액인 약 9억 6,650만원보다 약 2억 4,781만 3천원의 이익이 더 남은 것으로 통계되었다.

2009년도 이후 관람료책정에 대하여는 2008년의 비교적 긍정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1안으로 ‘유료화’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2안으로 유료화를 하되, 1-2개관은 무료화를 연장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더불어서 외국의 관람료와 비교하였을 때 턱없이 낮은 수준의 우리나라 관람료에 대하여 정부나 국민들의 재인식이 필요하다는 점과 사립관들이 연간 추산 120만명, 약 60억원에 해당하는 관람료 면제,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면을 고려하여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기하였다.

아울러 유료화 이후에도 소외계층과 전문가들에게 면제제도를 실시하고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학생들에게도 개방해가는 대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I. 국립박물관 무료화 시범실시 추진배경과 과정

1. 추진배경 및 내용

국립박물관 관람료 무료화의 추진배경에는 제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국가비전과 국정과제에서도 언급되다시피 ‘국민 문화향유권 신장’과 ‘건국 60주년’을 맞아 국민적인 축제행사로 실시되었다. 아래에서는 추진과정에서 언급되었던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였다.¹⁾

① 추진배경 및 목적

추진배경으로서는 ‘국민 문화향유권 확대’라는 대전제가 우선되었으며, ‘건국 60주년’을 기념하는 국민적인 축제의 일환으로서 실시되었다. 특히나 문화향수권은 생활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누릴 권리라는 인식이 우선하였다. 이에따라 관람료가 국민의 문화시설 관람욕구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였던 부분을 상설전에 한하여 전면 개방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다가설 수 있는 박물관의 의미를 부여하자는데 있었다. 그 근거는 제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이명박 정부의 국가비전과 국정과제』(2008. 2)이다.

② 추진방향 및 과제

무료화 대상관은 최종적으로 국립박물관 및 미술관 14개관을 우선 실시하며, 국립박물관·미술관에 대한 무료화 확대는 차후 검토하는 방안으로 결정되었다. 올해 사업에 대하여는 ‘시범실시’에 대한 종합분석 평가 후 미비점을 반영하면서 사립박물관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대책을 마련해가도록 하는 안이 검토된 바 있다. 전반적으로 검토된 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고객지원 서비스 인프라구축 및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관람료 무료화에 따른 고객 증가가 만족도 저하로 연결되지 않도록 강화된 서비스인프라 구축 및 철저한 시설관리 대책 필요. 편의시설 확충, 관람객 질서유지 확보 등
- 증가된 고객에 대한 부가 서비스와 프로그램의 제공을 통해 새로운 부가시장 확대방안 적극 모색. 관람객 유치강화로 부가서비스 확대 및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대체 수익 창출
- 사립박물관·미술관의 경영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 분석 용역 실시
- 쾌적하고 안전한 전시 관람을 위한 관련제도 보완
- 부가수익 실태, 외국인 관람객 현황, 사립박물관에 미치는 영향 등 분석 후 '09년도 추진방향 설정

1) 이하 무료화 일정에 대한 부분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자료를 바탕으로 재정리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국가비전과 국정과제-제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2008. 2)

2. 주요 계획과 추진과정

1) 추진계획과 대비

(1) 추진계획

① 추진내용

- 실시시기 : 2008년 5월 1일 - 12월 31일
- 대상기관 : 국립박물관(중앙 및 지방 11개), 국립민속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등 14개관
- ※ 등대박물관(국토해양부), 고궁박물관·해양유물전시관(문화재청)은 시범실시 예정, 경찰박물관(경찰청) 등은 무료관람 시행 중

② 관련법규 개정

-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전시품 관람규칙 개정 완료까지는 최소 2개월 소요-노숙자 및 범죄 예방차원의 단속행위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법규개정전이라도 전시품 관람규칙에 의거 무료관람 실시 가능

③ 추진일정

- 서비스 인프라 및 관람객 편의시설 확충('08년 3월-12월)
- 대국민 홍보 강화, 부가서비스 및 프로그램 개발('08년 4월-12월)
- 무료화 세부추진계획 언론브리핑('08년 4월 3일-4주)
- 박물관·미술관 무료관람 시범운영 실시('08년 5월 1일)
- 무료관람에 따른 연구용역 실시 및 보고('08년 8월-11월)
- '09년도 추진방향 등 결정('08년 11월말)

(2) 대비사항

무료화 사업의 대비사항으로는 국립박물관 고객지원 서비스 인프라 구축, 단체 관람객 사전예약제 도입(전산시스템 개편 등), 외곽경비, 전시실내 보안요원 등 관람안전 및 질서유지, 시설관리 인력 확보, 보안시스템 강화(전시실 CCTV, 출입통제 시스템 기능보강 등)를 비롯하여 관람객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국립박물관 및 미술

관 무료화 대국민 홍보 강화, 국립박물관 및 미술관 부가서비스 및 프로그램 적극 개발 등이 주요 사항으로 부각되었다.

또한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교육서비스 강화, 기획전 연계프로그램 운영, 대강당, 으뜸홀, 열린마당 등 시설활용 프로그램 운영, 문화상품 및 식·음료장 메뉴개발·판매(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단), 미술관 교육·문화 특화프로그램 운영, 2008년의 경우 자체 예산 조정 지출, 2009년 이후 신규예산 확보(편의시설 확충, 전산시스템 개선사업 등은 기존 예산 활용) 등이 제시되었다. 구체적인 대비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홍보

- 축제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 국민홍보강화(건국60주년 행사와 연계), 보도자료 배포 및 각 학교, 기관 등 홍보공문 발송
- 홈페이지 온라인 홍보, 브로슈어, 홍보 리플릿 제작 등
- UCC제작, 박물관·미술관 운영 블로그 및 싸이타운 활용
- 무료관람 안내를 위한 홍보자료 제작 배포, 리플릿, 무료티켓 광고유치

② 고객서비스 및 방호

· 서비스 인프라 확충

- 관람객 안전관리 강화, 안전관리요원 보강 : 총 67명, 국립중앙박물관 : 57명/ 국립민속박물관 : 2명/ 국립현대미술관 : 8명, 보안 시스템 강화 : CCTV 증설 등(총 23개)
- 관람질서 유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 학생단체 관람 사전예약제 도입
- 홈페이지 메뉴 개설
- 각급 학교 지도교사 초청 설명회 개최, 관람예절 자료제작 및 배포(리플릿 등)
- 편의시설 지속 확충, 전시실 내 카페테리아 설치(국립중앙박물관), 매수표실 별도 설치(국립민속박물관), 매점 설치, 공조시설 등 개선(국립현대미술관)

· 관람객 편의시설 확충 및 개선

- 국립중앙박물관 으뜸홀 카페테리아 설치
- 국립현대미술관 주차환경 및 노후 편의시설 개선
- 국립민속박물관·경복궁 통합징수체계 개선(경복궁 측 별도 매수표실 설치)

· 관람객 안전관리 및 관람질서 유지

- 적정 관람인원 운용대책, 관람동선 합리화 등 비예산 과제 우선추진
- 고객지원·질서유지·시설관리 인력의 단계적 보강

- 고객안전 시스템 보강(CCTV 및 관람객 영상인식기 설치 등)
- 홈페이지 보완(「학생단체관람 예약」 메뉴 등 개설)

• 부가서비스 창출 확대

- 문화상품 지속 개발
- 기획전시 및 상설전시의 획기적 개선 및 연계프로그램 강화
- 외국인 관람객 유치강화로 문화상품 수요 확대-인바운드 여행사 대상 홍보(대형사 위주 개별 접촉)
- 대중성 있는 프로그램 확대로 복합문화공간 조성

(3) 사립박물관에 대한 대책

국립박물관 무료화는 공공재인 박물관 소장유물을 보다 많은 국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긍정적인 측면과 사립박물관의 관람객 감소에 이은 경영난 심화 등의 부작용도 생각할 수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또한 사립박물관의 서비스 개선, 문화상품 개발, 다양한 연계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한 자생력과 경쟁력을 확보하고, 다양한 세제혜택 지원책 마련과 기부문화 활성화 측면 지원을 통해 차별화되고 특성 있는 박물관 육성 방안이 논의되었다.

한국박물관협회 및 사립박물관협회 등과 2회에 걸친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의 입장을 설명한 바 있으며, 현장과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정책추진의 공감대를 넓혀나가는 과정을 계획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대안을 기획하였다.

- 국립박물관 무료화가 사립박물관 경영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 대영박물관 무료화(2001) 이후 관람객증가율 연평균 2%이내
 - 특별전은 기존대로 유료유지→특성화된 사립박물관 파급영향은 미미
- 사립박물관 지원 사업은 지속 추진 : 복권기금지원사업, 인력지원(학예, 교육, 해설, 청년인턴 등)사업, 박물관협력망사업 등
- 장기적 사립박물관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 방안 별도 검토
- 입장 수입 감소분에 대한 국고 예산 보전이 아니라, 사립박물관 활성화와 경제적 파급효과 창출을 통한 대책 마련 추진
- 사립박물관의 서비스 개선, 전시물 차별화, 문화상품 개발, 다양한 연계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한 자생력과 경쟁력 확보 위주
- 다양한 세제혜택 지원책 마련, 기부문화 활성화로 측면지원
- 박물관 진흥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TF 및 연구용역을 통해 동 사안을 조치

2) 기대효과

① 손익분석

8개월간 무료화 추진 시 연 780만명 이상의 국민에게 관람기회를 제공하고, 입장료 수입에 대한 국민부담 경감 효과는 50억원 이상일 것으로 통계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아래와 같은 손익분석이 제시되었다.

국립박물관 무료관람 실시 관련 손익 분석(2008. 3. 13)

- 입장료 수입 손실(①) : 연간 45억원
- 박물관 매출 증대(②) : 연간 23억 6천만원
- 손익 총계 : -21억 4천만원(③=②-①)

※ 외국인의 경우 무료관람으로 인한 매출 증대 효과가 세수 손실액 상쇄 예상
- 20% 증가 시, 외국인 매출 증가액(1억8800만원)이 '07년 외국인 입장료 수입(1억 8700만원)초과

입장료 수입 손실액 : 연간 45억원('07년 기준)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립박물관·미술관의 입장료 징수를 통한 세수 약 45억원

- 입장료 수입('07결산기준) : 4,509백만원
 - 국립중앙박물관 : 2,747백만원/ 국립민속박물관 : 923백만원/ 국립현대미술관 : 839백만원
- 1인당 관람료(성인기준)
 - 국립중앙박물관 : 2,000원/ 국립현대미술관 : 1,000원/ 국립민속박물관 : 3,000원

매출증대액 : 연간 23.6억원('07년 기준)

- '08년도 관람객 증가 70만명 목표 시

- 2001년 대영박물관 무료화 이후 관람객 증가율 최대치 9.3%(2007년도)적용
- '07년 결산기준 관람객수 : 7,544천명
 - 국립중앙박물관 : 5,018천명/ 국립민속박물관 : 1,750천명/ 국립현대미술관 : 776천명

- 문화상품 및 식음료 매출 증대 효과(23.6억원)

70만명(순증고객)×1인당 예상 매출액 3,372원=23.6억원

- 07년 1인당 평균매출액(③=①/②) : 2,705원('07 국립중앙박물관 기준)
- 총매출액(①) : 5,872백만원=1,931백만(문화상품)+ 3,941백만(식음료)/관람객수(②) :

217만명

- 무료관람 시 소비증가예상(④) : 667원(3인 가족 관람객이 생수(1,000원)2병 추가지출시)
- 무료관람이후 1인당 평균매출예상액(③+ ④) : 3,372원

외국인 무료관람의 경제적 효과 : 관람료 수익손실 상쇄

- 외국인 1인당 매출액 : 10,000원 예상

- 외국인 1인당 문화상품 매출액 : 6,290원(07년 기준)
- 문화상품 총매출액 : 589백만원/ 외국인 관람객 93,628명
- 비통계부분인 식음료를 포함하면 외국인 1인당 최소 10,000원 이상 매출 예상

- 외국인 20% 증가 시 매출증대액이 관람료 수입손실을 초과

- 07년도 외국인 관람객 : 93,628명/ 입장료 수입 : 1.87억원
- 고객증가율 9.3% 적용 시 : 관람객 8,707명 증가, 매출 0.87억원 증대 예상
- 고객증가율 20% 적용 시 : 관람객 18,726명 증가, 매출 1.87억원 증대 예상
(수입손실 1.87억원 초과)

※ 외국인 무료관람의 비경제적 효과

- 박물관을 통한 외국인의 한국문화 정체성 및 국가이미지 홍보 효과는 입장료 수입의 경제적 가치 이상으로 봄

② 외국인 관람객 전망

외국인들의 관람객 전망은 여행사를 통한 외국인 단체관람 증가를 예상했다. 외국인 관람객 무료화는 인바운드 여행업체의 관광경비 절감 요인으로 작용하여 외국인의 관광투어 일정에 국립중앙박물관을 포함하는 사례가 있어 관람객 증가에 긍정적인 예측을 하였다. 특히나 2007년 12월 17일 국립중앙박물관과 한국일반여행업협회의 협정체결 등 이 부분에 노력을 기울여왔다.

3) 추진과정

2008년 1월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무료화제도는 초기에는 시범실시 계획이 구체화 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단계적으로 국립박물관까지 실시한다는 계획이 검토된 바 있었지만 삭제되는 등 다소간의 수정을 거쳐 4월 17일 업무보고를 거쳐 5월 1일부터 실시되었다.

국립박물관 관람료무료화 추진과정

일시	내용
2008.1.1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주재 실국장회의 - 현실의 여건 등을 냉정하게 검토, 조심스럽게 접근 바람직
2008.1.16	문화체육관광부인수위 보고 - 국립박물관·미술관 무료관람제 확대시행에 따른 후속대책
2008.1.18	문화체육관광부인수위 보고(후속대책 추가 요구) - 외국사례, 관람객 폭증대책
2008.1.	국정과제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무료관람 실시’
2008.2.1	국정과제 조정회의(인수위 문화 분야) - 공립박물관 삭제
2008.2.12	국정과제 ‘국립박물관 및 미술관 무료관람 실시’선정
2008.2월말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이명박 정부의 국가비전과 국정과제』 발간 (국립박물관·미술관 무료관람 포함)
2008.3.4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국 업무보고 시 장관지시(조속추진)
2008.3.6	무료관람 조속추진 검토보고(4.15시범실시안→국장)
	무료화관련 박물관 관계자 간담회 - 한국박물관협회회장 등 박물관계 인사 참석
2008.3.7	무료관람 실시 및 관련 현황조사협조요청(외통부 등 11개 부처)
2008.3.11	박물관 무료관람 추진계획 검토회의(기획운영단장 주재)
2008.3.13	박물관 무료관람 추진계획 보고 및 주요 쟁점 토의(박물관 간부회의)
	국립박물관 무료관람제 추진계획 수립·보고, 시행
2008.3.14	대통령업무 보고 시 지시(건국 60주년기념 한시적 시행)
2008.3.18	청와대 문화예술비서관실 협의(‘08시범실시, ‘09 평가 후 확정)
2008.3.19	대통령지시사항 이행계획 제출(‘08.5.1 시범실시→청와대)
2008.3.20	기획재정부 협의(박물관 기획총괄과)
	- 불가안정부분 이견 없음. 세입감소부분 별도 협의 예정
2008.3.21	무료관람실시 현황조사 마감(타부처 17개관 회신완료)
	- 무료실시 14개관, 무료관람협조 예정 3개관 상황TF보고(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고자료)
2008.3.24	무료화관련 박물관 관계자 간담회(2차)
	- 한국박물관협회 회장단 참석
2008.3.31	국립중앙박물관 업무보고
2008.4.15	보도자료 배포
2008.4.17	국립박물관·미술관 무료관람 실시계획 보고(4.10-17)
2008.5.1	국립박물관·미술관 무료관람 실시(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2008.6.2	국립등대박물관 무료관람 시범실시

II. 국립박물관 무료화 시범실시 실태분석

1. 한국 국립박물관 관람료 무료화 이후 관람객 변화

국립박물관 무료화 이후 전반적인 통계분석은 새로운 통계방식 적용이 어려운 관 계로 아래와 같이 국립박물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체계를 활용하여 집계하였다. 내 용은 개관, 관람객 등으로 나누어지며, 개관부분에서는 개관일수와 일평균고객으로 분석되었다. 관람객에서는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나뉘어 2007년도와 비교하여 통계 되었다.

국립박물관 무료관람 고객 실적(전년동기 대비)

단위 : 명

구분			중앙박물관		지방박물관		합계	
			'08	'07	'08	'07	'08	'07
개 관	5	개관일수	28	28	28	28	28	28
		일평균고객	10,112	7,897	21,640	17,204	31,752	25,101
	6	개관일수	25	26	25	26	25	26
		일평균고객	6,473	3,659	12,006	8,618	18,479	12,277
	7	개관일수	27	26	27	26	27	26
		일평균고객	7,089	4,563	10,723	8,897	17,812	13,460
	8	개관일수	27	27	27	27	27	27
		일평균고객	12,653	8,447	16,483	14,554	29,136	23,001
	계	개관일수	27	27	27	27	27	27
		일평균고객	9,140	6,196	14,873	12,221	24,013	18,417
관 람 객	5	내국인	276,627	213,960	562,916	451,246	839,543	665,206
		외국인	6,500	7,160	8,680	8,047	15,180	15,207
		합 계	283,127	221,120	571,596	459,293	854,723	680,413
	6	내국인	153,983	87,945	292,540	216,659	446,523	304,604
		외국인	7,847	7,195	7,611	7,433	15,458	14,628
		합 계	161,830	95,140	300,151	224,092	461,981	319,232
	7	내국인	180,849	110,421	280,765	225,300	461,614	335,721
		외국인	10,550	8,206	8,757	6,028	19,307	14,234
		합 계	191,399	118,627	289,522	231,328	480,921	349,955
	8	내국인	331,301	219,107	437,298	385,706	768,599	604,813
		외국인	10,324	8,975	7,745	7,254	18,069	16,229
		합 계	341,625	228,082	445,043	392,960	786,668	621,042
	계	내국인	942,760	631,433	1,573,519	1,278,911	2,516,279	1,910,347
		외국인	35,221	31,536	32,793	28,762	68,014	60,298
		합 계	977,981	662,969	1,606,312	1,307,673	2,584,293	1,970,645

문화체육관광부 14개 국립박물관 미술관 전체 통계(2008.5-8)

단위 : 명

구분			중앙박물관		지방박물관		현대미술관		민속박물관		합계	
			'08	'07	'08	'07	'08	'07	'08	'07	'08	'07
개관	5	개관일수	28	28	28	28	30	30	27	26	28	28
		일평균고객	10,112	7,897	21,640	17,204	1,751	1,895	6,570	6,469	40,073	33,465
	6	개관일수	25	26	25	26	25	26	26	26	25	26
		일평균고객	6,473	3,659	12,006	8,618	1,428	1,131	4,868	4,071	24,775	17,479
	7	개관일수	27	26	27	26	27	26	26	27	27	26
		일평균고객	7,089	4,563	10,723	8,897	1,984	1,774	5,034	4,453	24,830	19,687
	8	개관일수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일평균고객	12,653	8,447	16,483	14,554	3,484	1,652	7,132	4,792	39,752	33,465
	계	개관일수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일평균고객	9,140	6,196	14,873	12,221	2,180	1,702	5,919	4,938	32,236	25,044
관람객	5	내국인	276,627	213,960	562,916	451,246	54,093	65,190	113,026	87,824	1,006,662	818,220
		외국인	6,500	7,160	8,680	8,047	176	228	65,217	80,360	80,573	95,795
		합 계	283,127	221,120	571,596	459,293	54,269	65,418	178,243	168,184	1,087,235	914,015
	6	내국인	153,983	87,945	292,540	216,659	35,550	29,173	57,098	44,146	539,171	377,923
		외국인	7,847	7,195	7,611	7,433	138	225	69,235	61,688	84,831	76,541
		합 계	161,830	95,140	300,151	224,092	35,688	29,398	126,333	105,834	624,002	454,464
	7	내국인	180,849	110,421	280,765	225,300	53,337	45,917	52,953	59,129	567,904	440,767
		외국인	10,550	8,206	8,757	6,028	224	215	77,345	61,103	96,876	75,552
		합 계	191,399	118,627	289,522	231,328	53,561	46,132	130,298	120,232	664,780	516,319
	8	내국인	331,301	219,107	437,298	385,706	93,948	44,448	114,807	59,493	977,354	708,754
		외국인	10,324	8,975	7,745	7,254	113	166	77,700	69,714	95,882	86,109
		합 계	341,625	228,082	445,043	392,960	94,061	44,614	192,507	129,207	1,073,236	794,863
	계	내국인	942,760	631,433	1,573,519	1,278,911	236,928	184,728	337,884	250,592	3,091,091	2,345,664

	외국인	35,221	31,536	32,793	28,762	651	834	289,497	272,865	358,162	333,997
	합 계	977,981	662,969	1,606,312	1,307,673	237,579	185,562	627,381	523,457	3,449,253	2,679,661

1) 일평균 관람객 수

아래의 도표는 2007년과 2008년 5-8월까지의 기간동안 국립중앙박물관을 비롯한 11개 지방 국립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국립민속박물관 등 총 14개 국립박물관의 일평균 관람객 수를 비교한 것이다.

이들 국립박물관의 2008년 5-8월까지 4개월간의 일평균 관람객 수는 3만 2,236명으로 전년도 동기간에 비해 28.7%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월별 비교수치에서는 연도와 상관없이 5월에 가장 많은 관람객이 방문하였고, 6월에 가장 적은 수치를 보였다가 점차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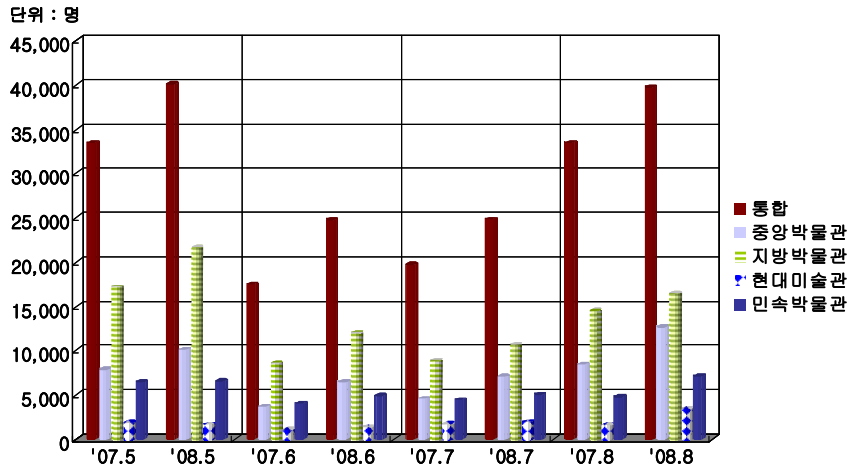
특기할만한 점은 전년도 대비 2008년 국립중앙박물관의 일평균 관람객 수는 47.5% 증가함으로써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11개 지방 국립박물관은 21.7%, 국립현대미술관은 28%가 증가되었으며, 가장 소폭 증가치를 보인 국립민속박물관은 19.9%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요인에는 5월이 ‘가정의 달’로서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의 행사가 개최되는 시기임을 감안할 때 어느 해나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7-8월은 방학 중으로 6월에 비하여 상승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14개 국립박물관·미술관 일평균 관람객 수

단위 : 명

구분	통합		중앙박물관		지방박물관		현대미술관		민속박물관	
	2008	2007	2008	2007	2008	2007	2008	2007	2008	2007
5월	40,073	33,465	10,112	7,897	21,640	17,204	1,751	1,895	6,570	6,469
6월	24,775	17,479	6,473	3,659	12,006	8,618	1,428	1,131	4,868	4,071
7월	24,830	19,687	7,089	4,563	10,723	8,897	1,984	1,774	5,034	4,453
8월	39,752	33,465	12,653	8,447	16,483	14,554	3,484	1,652	7,132	4,792
평균	32,236	25,044	9,140	6,196	14,873	12,221	2,180	1,702	5,919	4,938
변동	+ 28.7%	-	+ 47.5%	-	+ 21.7%	-	+ 28%	-	+ 19.9%	-

14개 국립박물관·미술관 일평균 관람객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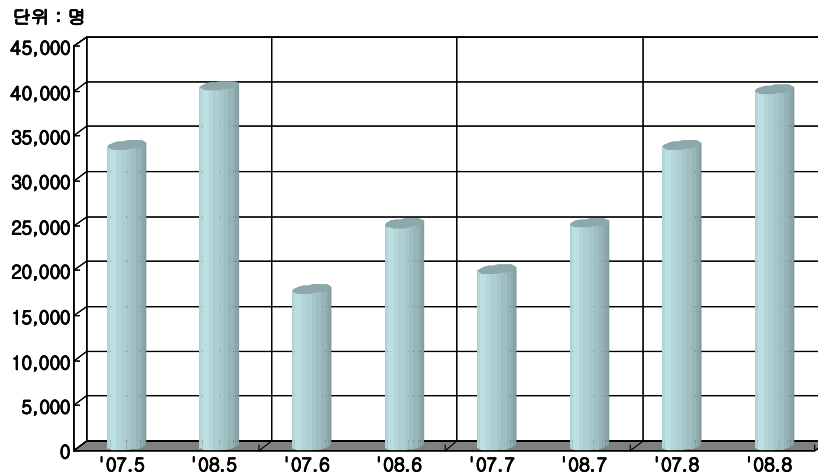
2008년 5-8월까지 국립중앙박물관과 11개 지방 국립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민속박물관의 일평균 관람객 수를 모두 합한 수치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장 많은 관람객이 관람한 5월에는 2007년 3만 3,465명에서 2008년 4만 73명으로 전년 대비하여 19.7%가 증가하였다.

연도와 상관없이 6월에는 5월에 비하여 관람객이 절반 가까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08년 6월은 5-8월의 기간 중 2007년 동기간에 비교해 41.7%라는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7월에는 2007년 1만 9,687명에서 2008년 2만 4,830명으로 26.1%가 증가하였고, 8월에는 2007년 3만 3,465명에서 2008년 3만 9,752명으로 18.8%가 증가하였다.

14개 국립박물관·미술관 일평균 관람객 수(통합)

구분	통합			
	2008		2007	
	관람객 수	변동률	관람객 수	변동률
5월	40,073	+ 19.7%	33,465	-
6월	24,775	+ 41.7%	17,479	-
7월	24,830	+ 26.1%	19,687	-
8월	39,752	+ 18.8%	33,465	-
평균	32,236	+ 28.7%	25,044	-

국립박물관·미술관 일평균 관람객 수(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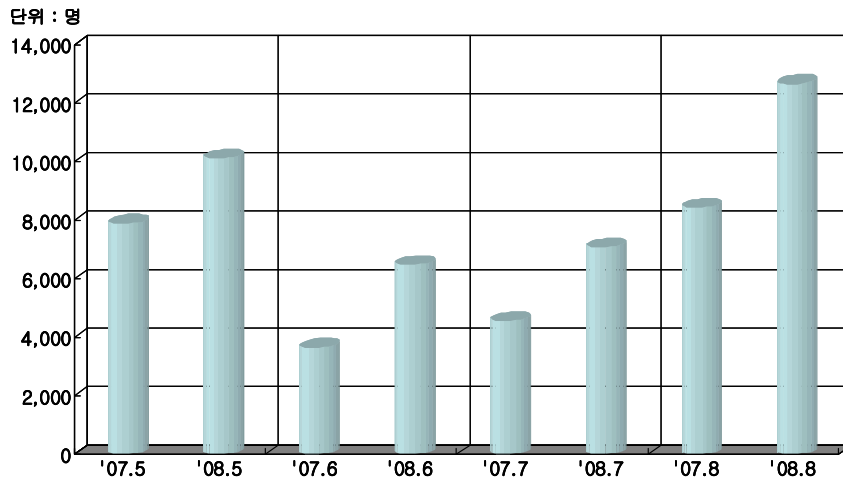
아래의 그래프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일평균 관람객 수에 관한 것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은 2008년 8월 가장 많은 1만 2,653명의 관람객이 관람하였다. 이는 전년도 대비 49.8%가 증가한 것이다.

5월에는 2007년 7,897명에서 2008년 1만 112명으로 27.7%가 증가하였고, 6월에는 2007년 3,659명에서 2008년 6,473명으로 76.9%가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7월에는 2007년 4,563명에서 2008년 7,089명으로 55.3%가 증가하였다. 이번 시범 실시관의 전관을 통틀어 국립중앙박물관의 관람객 수가 가장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일평균 관람객 수

구분	국립중앙박물관			
	2008		2007	
	관람객 수	변동률	관람객 수	변동률
5월	10,112	+ 27.7%	7,897	-
6월	6,473	+ 76.9%	3,659	-
7월	7,089	+ 55.3%	4,563	-
8월	12,653	+ 49.8%	8,447	-
평균	9,140	+ 47.5%	6,196	-

국립중앙박물관 일평균 관람객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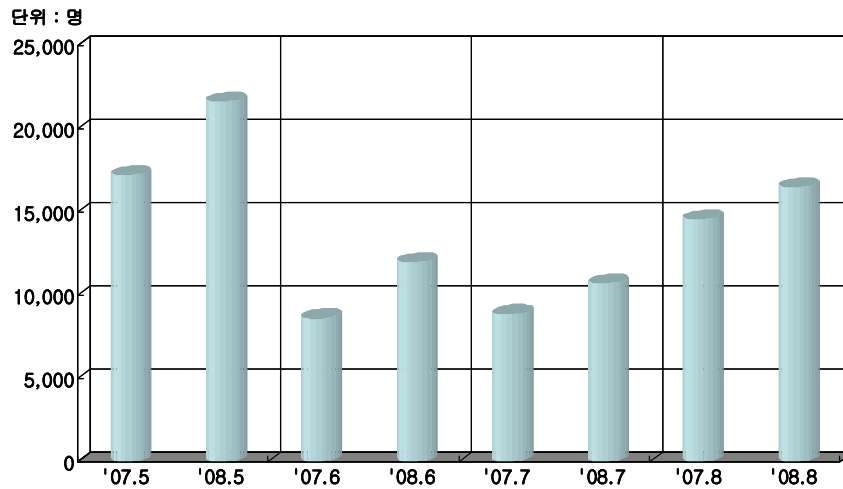
아래의 그래프는 11개 지방 국립박물관의 일평균 관람객 수에 관한 것이다. 지방 국립박물관의 관람객은 2007년과 2008년 모두 5월이 가장 많았으며, 2007년 1만 7,204명에서 2008년 2만 1,640명으로 25.8%가 증가하였다.

2008년 5-8월 기간 중 가장 큰 상승폭을 보인 달은 6월로 전년동기 대비 39.3%의 증가율을 보였다. 7월에는 2007년 8,618명에서 2008년 1만 2,006명으로 20.5%가 증가하였으며, 8월에는 2007년 1만 4,554명에서 2008년 1만 6,483명으로 13.3%가 증가하였다.

11개 지방 국립박물관 일평균 관람객 수

구분	지방박물관			
	2008		2007	
	관람객 수	변동률	관람객 수	변동률
5월	21,640	+ 25.8%	17,204	-
6월	12,006	+ 39.3%	8,618	-
7월	10,723	+ 20.5%	8,897	-
8월	16,483	+ 13.3%	14,554	-
평균	14,873	+ 21.7%	12,221	-

11개 지방 국립박물관 일평균 관람객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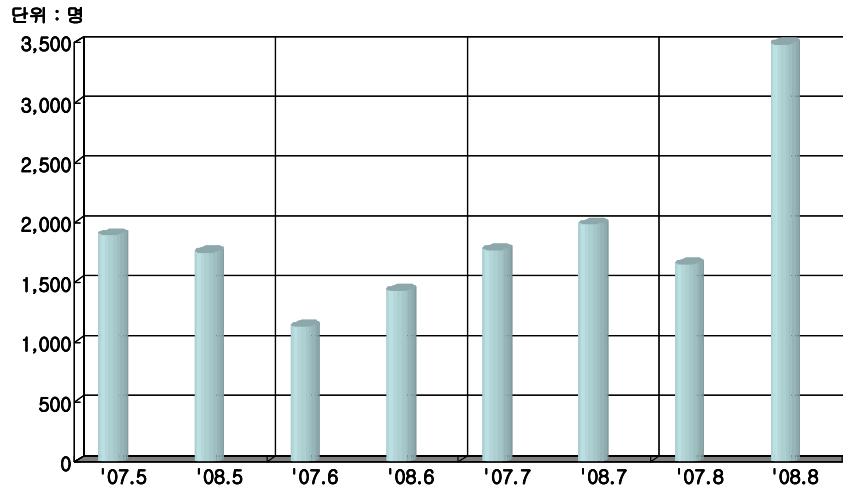
아래의 그래프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일평균 관람객 수에 관한 것이다. 국립현대미술관은 2008년 8월 가장 많은 관람객인 3,484명이 관람하였다. 이는 1,652명이 관람한 2007년에 비해 110.9%가 증가한 것이다. 관람객 수가 급격히 증가한 2008년 8월을 제외하고, 국립현대미술관은 매월 비슷한 관람객 수가 관람함으로써, 다른 관들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월별 증가율을 살펴보면, 무료관람을 시작한 2008년 5월, 전년도 동기간에 비해 7.6%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 6월과 7월에는 각각 26.3%와 11.8%의 증가율을 보였다.

국립현대미술관 일평균 관람객 수

구분	현대미술관			
	2008		2007	
	관람객 수	변동률	관람객 수	변동률
5월	1,751	-7.6%	1,895	-
6월	1,428	+ 26.3%	1,131	-
7월	1,984	+ 11.8%	1,774	-
8월	3,484	+ 110.9%	1,652	-
평균	2,180	+ 28%	1,702	-

국립현대미술관 일평균 관람객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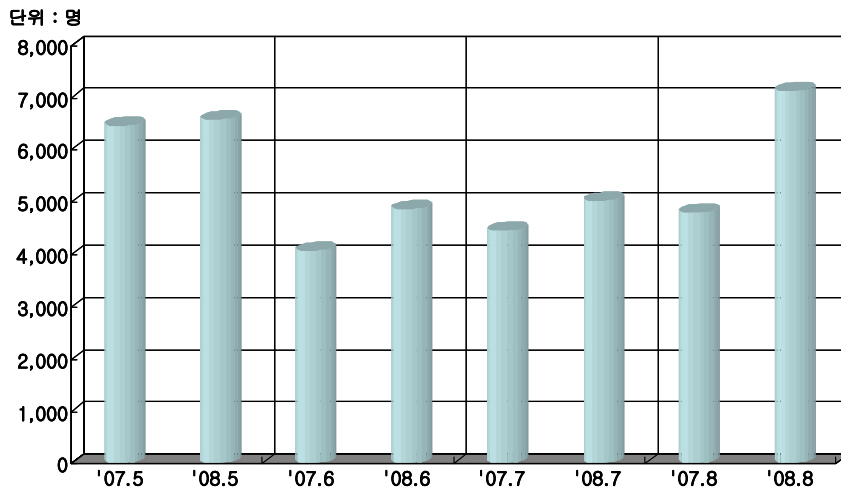
국립민속박물관의 경우, 2008년 5-8월까지 평균 5,919명이 관람하였고, 이는 전년도 동기간에 비해 19.9% 상승한 수치였다. 2008년 8월 7,132명으로 가장 많은 수의 관람객이 관람하였으며, 2007년 4,792명에 비하여 48.8%가 증가하였다.

2007년 동기간과 비교해 2008년 5월의 일평균 관람객 수는 1.6%, 6월에 19.6%, 7월에 13% 상승하여 전체적으로 그 수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8년 8월을 제외하고는 다른 관에 비해 크게 상승한 것은 아니다.

국립민속박물관 일평균 관람객 수

구분	민속박물관			
	2008		2007	
	관람객 수	변동률	관람객 수	변동률
5월	6,570	+ 1.6%	6,469	-
6월	4,868	+ 19.6%	4,071	-
7월	5,034	+ 13%	4,453	-
8월	7,132	+ 48.8%	4,792	-
평균	5,919	+ 19.9%	4,938	-

국립민속박물관 일평균 관람객 수



아래의 도표는 2008년 5-8월까지 국립중앙박물관을 비롯한 11개 지방 국립박물관 등 12개 국립박물관의 개관일수와 일평균 관람객수를 무료화를 시행하기 이전인 2007년의 동기간과 비교한 것이다. 전국 12개 국립박물관의 일평균 관람객 수는 2007년 동기간에 비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립박물관 전체의 2008년 5-8월까지 4개월 동안의 일평균 관람객 수는 2,008명이었고, 이는 2007년 동기간의 1,549명보다 29.6% 상승한 수치였다.²⁾

12개 국립박물관 중 2008년 5-8월까지 일일 평균 가장 많은 관람객을 유치하는 곳은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경주박물관으로 각각 9,142명과 5,120명이 관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인 곳은 국립춘천박물관으로 일일 평균 554명이 방문하였다. 이외에 국립부여박물관과 김해박물관, 공주박물관이 일일 평균 1천여 명 이상이 방문하였고, 나머지 6개 박물관은 740-990여명이 다녀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중앙박물관의 경우 2007년 동기간에 비해 46.2% 상승하였고, 국립경주박물관은 7.2%가 증가하였다.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인 관은 국립진주박물관으로 2007년에 비해 68.5%가 상승하였고, 국립춘천박물관이 50.1%로 그 다음을 잇고 있다.

12개 국립박물관의 2007년과 2008년 동기간의 월별 일평균 관람객 수 변화를 살펴보면, 2008년 6월의 일평균 관람객 수가 1,533명으로 전년도 동기간에 비해 50.7%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5, 7, 8월에는 각각 20.8%, 33%, 2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국립중앙박물관과 지방국립박물관 총괄자료는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자료를 바탕으로 하였으나 세부적인 12개관 자료는 이번 연구 통계에 의하여 작성되었음.

12개 국립박물관의 일평균 관람객 수 통계(전년 동기 대비)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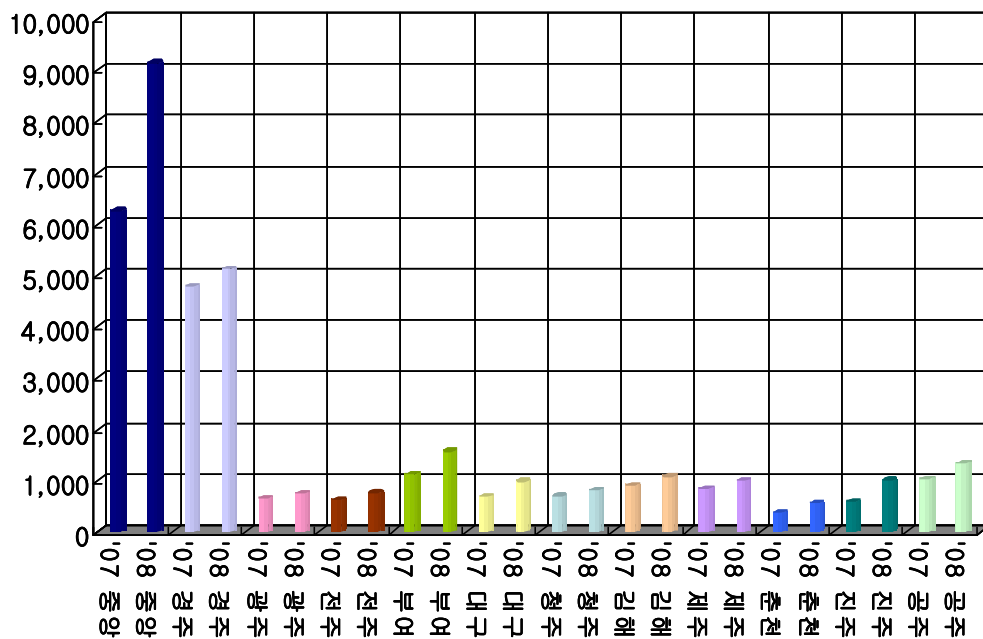
구분		5월		6월		7월		8월		합계		변동 률 (%)
		'07년	'08년	'07년	'08년	'07년	'08년	'07년	'08년	'07년	'08년	
중앙	개관	27	28	26	25	26	27	27	27	27	27	-
	일평균	8,190	10,112	3,659	6,473	4,563	7,089	8,447	12,660	6,254	9,142	+ 46.2
경주	개관	27	29	26	25	26	27	27	27	27	27	-
	일평균	7,204	7,613	3,096	4,352	3,069	3,025	5,601	5,247	4,774	5,120	+ 7.2
광주	개관	27	28	26	26	26	27	27	27	27	27	-
	일평균	547	654	515	536	570	612	984	1,166	656	743	+ 13.3
전주	개관	27	28	25	24	26	27	27	27	26	27	-
	일평균	618	712	524	706	505	705	811	914	617	760	+ 23.2
부여	개관	27	28	26	25	26	27	27	27	27	27	-
	일평균	1,798	2,078	630	1,146	812	1,363	1,227	1,652	1,124	1,572	+ 39.9
대구	개관	26	28	26	26	26	27	27	27	26	27	-
	일평균	686	1,117	529	746	537	841	959	1,220	680	984	+ 44.7
청주	개관	27	29	26	25	26	27	27	27	27	27	-
	일평균	1,277	1,590	485	541	452	412	540	642	693	816	+ 17.7
김해	개관	27	28	26	25	26	27	27	27	27	27	-
	일평균	1,153	1,202	721	673	764	795	951	1,600	900	1,076	+ 19.6
제주	개관	27	27	26	25	26	27	27	27	27	27	-
	일평균	749	1,025	574	674	743	1,123	1,300	1,133	845	995	+ 17.8
춘천	개관	27	28	26	25	26	27	27	27	27	27	-
	일평균	593	763	320	429	278	457	278	551	369	554	+ 50.1
진주	개관	27	28	26	25	26	27	27	27	27	27	-
	일평균	915	1,794	450	959	393	438	612	793	596	1,004	+ 68.5
공주	개관	27	28	26	25	26	27	27	27	27	27	-
	일평균	1,421	1,572	678	1,202	719	967	1,233	1,564	1,019	1,331	+ 30.6
계	개관	27	28	26	25	26	27	27	27	27	27	-
	일평균	2,10	2,53	1,01	1,53	1,11	1,48	1,91	2,42	1,549	2,008	+ 29.6

		0	6	7	3	7	6	2	9			
	변동률 (%)	-	+20.8	-	+50.7	-	+33	-	+27	-	+29.6	-

※ 국립제주박물관은 통계자료에 일평균 관람객 수를 기입하지 않아 자체적으로 계산하여 기입. 《국립박물관 무료화 시범실시에 따른 관람객 분석 및 파급효과 연구》통계설문. 2008.10

12개 국립박물관의 일평균 관람객 수 통계(전년동기 대비)

단위 : 명



아래의 도표는 2007년 동기간 대비 2008년 5-8월까지의 월별 변동률에 관한 것이다.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무료관람을 시행하기 시작한 5월에는 모든 국립박물관의 일평균 관람객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관은 진주박물관과 대구박물관으로 각각 96.1%와 62.8%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6월 국립김해박물관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것을 비롯해 7월에는 다시 한관이 늘어나 국립경주박물관과 국립청주박물관이, 그리고 8월에도 국립경주박물관을 포함한 국립제주박물관 등 2개관의 일평균 관람객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립경주박물관의 경우 2008년 7, 8월에 걸쳐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무료화 이후 국립박물관 일평균 고객 변동률(2007.5-8. 2008.5-8)

단위 : %

구분	5월	6월	7월	8월	2008년 5-8월 변동률
국립중앙박물관	+ 23.5	+ 76.9	+ 55.4	+ 49.9	+ 46.2
국립경주박물관	+ 5.7	+ 40.6	- 1.4	- 6.3	+ 7.2
국립광주박물관	+ 19.6	+ 4.1	+ 7.4	+ 18.5	+ 13.3
국립전주박물관	+ 15.2	+ 34.7	+ 39.6	+ 12.7	+ 23.2
국립부여박물관	+ 15.6	+ 81.9	+ 67.9	+ 34.6	+ 39.9
국립대구박물관	+ 62.8	+ 41	+ 56.6	+ 27.2	+ 44.7
국립청주박물관	+ 24.5	+ 11.5	- 8.8	+ 18.9	+ 17.7
국립김해박물관	+ 4.2	- 6.7	+ 4.1	+ 68.2	+ 19.6
국립제주박물관	+ 36.8	+ 17.4	+ 51.1	- 12.8	+ 17.8
국립춘천박물관	+ 28.7	+ 34.1	+ 64.4	+ 98.2	+ 50.1
국립진주박물관	+ 96.1	+ 113.1	+ 11.5	+ 29.6	+ 68.5
국립공주박물관	+ 10.6	+ 77.3	+ 34.5	+ 26.8	+ 30.6
합계	+ 20.8	+ 50.7	+ 33	+ 27	+ 29.6

※ 《국립박물관 무료화 시범실시에 따른 관람객 분석 및 파급효과 연구》통계설문. 2008.10

2) 내국인 관람객 수

2008년 5-8월까지 14개 국립박물관과 미술관의 내국인 관람객 수는 총 309만 1,091명으로 2007년 동기간에 비해 31.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중앙박물관이 2007년 63만 1,433명에서 2008년 94만 2,760명으로 49.3% 증가함으로써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11개 지방 국립박물관이 2007년 127만 8,911명에서 2008년 157만 3,519명으로 23% 증가, 국립현대미술관이 18만 4,728명에서 2008년 23만 6,928명으로 28.3% 증가, 국립민속박물관이 2007년 25만 592명에서 2008년 33만 7,884명으로 34.8% 증가하였다.

무료관람 시범 실시관을 모두 합하여 가장 많은 관람객이 관람한 5월은 2007년 81만 8,220명에서 2008년 100만 6,662명으로 증가하여, 23%가 증가하였다. 또한 가장 적은 관람객이 관람한 6월은 2007년 37만 7,923명에서 2008년 53만 9,171명으로 42.7%가 증가하였다. 5월은 모든 관들의 관람객 수가 전년도 대비하여 증가하였으나, 국립현대미술관은 2007년 5월 6만 5,190명에서 2008년 5월 5만 4,093명으로 오히려 17%가 감소하였다.

국립민속박물관은 2008년 7월 전년도 대비 10.4% 감소하였다. 그러나 8월은 2007년 5만 9,493명에서 2008년 11만 4,807명으로 93%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전관을 통틀어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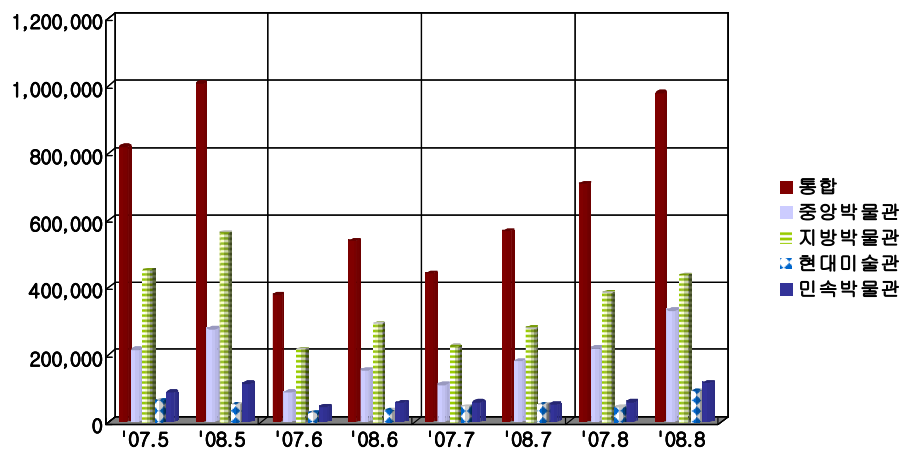
14개 국립박물관·미술관 내국인 관람객 수

단위 : 명

구분	통합		중앙박물관		지방박물관		현대미술관		민속박물관	
	2008	2007	2008	2007	2008	2007	2008	2007	2008	2007
5월	1,006,662	818,220	276,627	213,960	562,916	451,246	54,093	65,190	113,026	87,824
6월	539,171	377,923	153,983	87,945	292,540	216,659	35,550	29,173	57,098	44,146
7월	567,904	440,767	180,849	110,421	280,765	225,300	53,337	45,917	52,953	59,129
8월	977,354	708,754	331,301	219,107	437,298	385,706	93,948	44,448	114,807	59,493
합계	3,091,091	2,345,664	942,760	631,433	1,573,519	1,278,911	236,928	184,728	337,884	250,592
변동	+ 31.8 %	-	+ 49.3 %	-	+ 23%	-	+ 28.3 %	-	+ 34.8 %	-

14개 국립박물관·미술관 내국인 관람객 수

단위 : 명



3) 외국인 관람객 수

내국인은 5월에 가장 많은 관람객 수가 관람하고 6월에 감소하였다가 7, 8월에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외국인 관람객은 기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특이할만한 점은 외국인의 경우 국립민속박물관을 많이 관람한다는 것이다. 한 예로 2008년 국립현대미술관에는 651명의 관람객이 관람한 반면, 국립민속박물관에는 28만 9,597명의 관람객이 관람하여, 국립현대미술관에 비해 약 445배 가량 많은 외국인이 관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민속박물관은 2007년 외국인 관람객 수가 전체 관람객 수의 52.1%를 차지하였고, 2008년에는 46.1%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국립현대미술관은 2007년 전체관람객의 0.4%를 차지하였고, 2008년에는 그보다 적은 0.3%를 차지하여 미미한 수준이었다.

5월에는 대부분 관들의 외국인 관람객 수가 감소하였다. 국립중앙박물관은 2007년 7,160명에서 2008년 6,500명으로 9% 감소하였고, 국립현대미술관은 2007년 228명에서 2008년 176명으로 22%가 감소하였으며, 국립민속박물관은 2007년 8만 360명에서 2008년 6만 5,217명으로 18.8%가 감소하였다. 단, 11개 지방 국립박물관은 2007년 8,047명에서 2008년 8,860명으로 10.1%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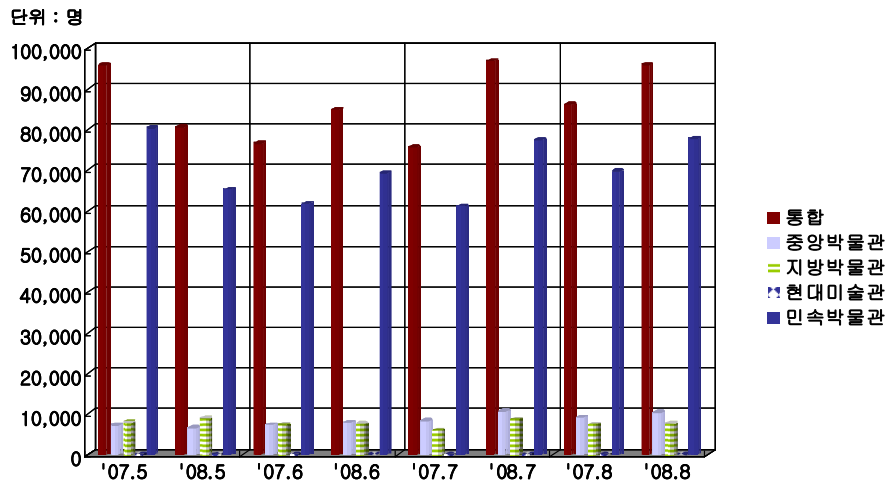
2007년도에 비해 2008년의 외국인 관람객 수는 국립중앙박물관이 11.7% 증가하였고, 지방 국립박물관이 14%, 국립민속박물관이 6.1% 증가하였으나 국립현대미술관은 21.9% 감소하였다. 국립현대미술관은 2007년 7월 215명에서 2008년 7월 224명으로 4.2%가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년도 대비 외국인 관람객 수가 모두 감소하였다.

14개 국립박물관·미술관 외국인 관람객 수

단위 : 명

구분	통합		중앙박물관		지방박물관		현대미술관		민속박물관	
	2008	2007	2008	2007	2008	2007	2008	2007	2008	2007
5월	80,573	95,795	6,500	7,160	8,860	8,047	176	228	65,217	80,360
6월	84,831	76,541	7,847	7,195	7,611	7,433	138	225	69,235	61,688
7월	96,876	75,552	10,550	8,206	8,757	6,028	224	215	77,345	61,103
8월	95,882	86,109	10,324	8,975	7,745	7,254	113	166	77,700	69,714
합계	358,162	333,997	35,221	31,536	32,793	28,762	651	834	289,497	272,865
변동	+7.2%	-	+11.7%	-	+14%	-	+21.9%	-	+6.1%	-

14개 국립박물관·미술관 외국인 관람객 수



4) 내·외국인 통합 관람객 수

전체적으로 2008년 14개 국립박물관과 미술관의 관람객 수는 2007년에 비해 2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중앙박물관이 47.5%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으며, 11개 지방 국립박물관은 22.8%, 국립현대미술관은 28%, 국립민속박물관은 19.9%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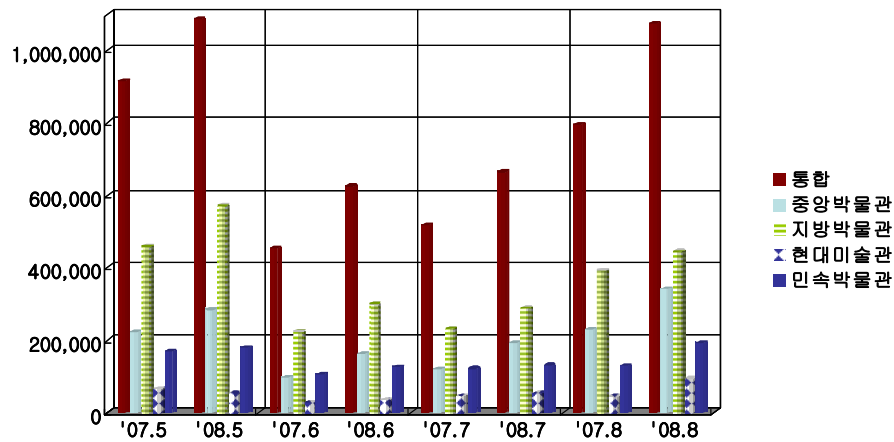
14개 국립박물관·미술관 내·외국인 통합 관람객 수

단위 : 명

구분	통합		중앙박물관		지방박물관		현대미술관		민속박물관	
	2008	2007	2008	2007	2008	2007	2008	2007	2008	2007
5월	1,087,235	914,015	283,127	221,120	571,596	459,293	54,269	65,418	178,243	168,184
6월	624,002	454,464	161,830	95,140	300,151	224,092	35,688	29,398	126,333	105,834
7월	664,780	516,319	191,399	118,627	289,522	231,328	53,561	46,132	130,298	120,232
8월	1,073,236	794,863	341,625	228,082	445,043	392,960	94,061	44,614	192,507	129,207
합계	3,449,253	2,679,661	977,981	662,969	1,606,312	1,307,673	237,579	185,562	627,381	523,457
변동	+ 28.7%	-	+ 47.5%	-	+ 22.8%	-	+ 28%	-	+ 19.9%	-

14개 국립박물관·미술관 내·외국인 통합 관람객 수

단위 : 명



2. 운영 실태 통계 및 분석

12개 국립박물관 무료관람 고객 실적(전년동기 대비)

단위 : 명

구분			중앙박물관		지방박물관		합계	
			'08	'07	'08	'07	'08	'07
프로그램	5	상설전 등	207,096	221,120	505,717	418,713	712,813	639,833
		교육·행사	17,688	-	65,870	40,742	83,558	40,742
		유료특별전	58,343	-	-	-	58,343	0
		합 계	283,127	221,120	571,587	459,455	854,714	680,575
	6	상설전 등	108,735	95,140	264,141	206,176	372,876	301,316
		교육·행사	14,879	0	36,010	17,916	50,889	17,916
		유료특별전	38,216	0	0	0	38,216	0
		합 계	161,830	95,140	300,151	224,092	461,981	319,232
	7	상설전 등	111,122	108,848	252,426	210,166	363,548	319,014
		교육·행사	28,027	9,779	37,096	21,162	65,123	30,941
		유료특별전	52,250	0	0	0	52,250	0
		합 계	191,399	118,627	289,522	231,328	480,921	349,955
	8	상설전 등	202,231	208,945	383,724	368,320	585,955	577,265
		교육·행사	26,809	19,137	61,319	24,640	88,128	43,777
		유료특별전	112,585	0	0	0	112,585	0
		합 계	341,625	228,082	445,043	392,960	786,668	621,042
	계	상설전 등	629,184	634,053	1,406,008	1,203,375	2,035,192	1,837,428
		교육·행사	87,403	28,916	200,295	104,460	287,698	133,376

	유료특별전	261,394	0	0	0	261,394	0
	합 계	977,981	662,969	1,606,303	1,307,835	2,584,284	1,970,804
	변 동	+ 47.5%	-	+ 22.8%	-	+ 31.1%	-

국립박물관·미술관 무료관람 고객 실적 14개관 전체 통계(2008.5-8)

단위 : 명

구분			중앙박물관		지방박물관		현대미술관		민속박물관		합계	
			'08	'07	'08	'07	'08	'07	'08	'07	'08	'07
프로그램	5	상설전 등	207,096	221,120	505,717	418,713	32,268	23,362	176,052	166,764	921,133	829,959
		교육·행사	17,688	-	65,870	40,742	2,736	19,003	1,335	1,420	87,629	61,165
		유료특별전	58,343	-	-	-	17,530	14,479			75,873	14,479
		합 계	283,127	221,120	571,587	459,455	52,534	56,844	177,387	168,184	1,084,635	905,603
	6	상설전 등	108,735	95,140	264,141	206,176	27,451	13,739	126,118	105,834	526,445	420,889
		교육·행사	14,879	0	36,010	17,916	1,735	8,574	215	0	52,839	26,490
		유료특별전	38,216	0	0	0	8,237	15,659	0	0	46,453	15,659
		합 계	161,830	95,140	300,151	224,092	35,688	29,398	126,333	105,834	625,737	463,038
	7	상설전 등	111,122	108,848	252,426	210,166	8,510	12,270			372,058	331,284
		교육·행사	28,027	9,779	37,096	21,162	5,585	14,758	575	0	71,283	45,699
		유료특별전	52,250	0	0	0	39,466	19,104			91,716	19,104
		합 계	191,399	118,627	289,522	231,328	53,561	46,132	575	0	535,057	396,087
	8	상설전 등	202,231	208,945	383,724	368,320	60,779	6,749	192,447	129,027	839,181	713,041
		교육·행사	26,809	19,137	61,319	24,640	8,561	10,062	60	180	96,749	54,019
		유료특별전	112,585	0	0	0	24,721	27,803	0	0	137,306	27,803
		합 계	341,625	228,082	445,043	392,960	94,061	44,614	192,507	129,207	1,073,236	794,863
	계	상설전 등	629,184	634,053	1,406,008	1,203,375	129,008	56,120	494,617	401,625	2,658,817	2,295,173
		교육·행사	87,403	28,916	200,295	104,460	18,617	52,397	2,185	1,600	308,500	187,373
		유료특별전	261,3	0	0	0	89,95	77,04	0	0	351,3	77,04

	별전	94				4	5			48	5
	합 계	977,981	662,969	1,606,303	1,307,835	235,844	176,988	496,802	403,225	3,318,665	2,559,591
	변 동	+47.5%	-	+22.8%	-	+33.3%	-	+23.2%	-	+29.7%	-

1) 프로그램 참여자 수(상설전 등)

국립중앙박물관과 11개 지방 국립박물관 및 국립현대미술관, 국립민속박물관 등 14개관을 합한 상설전 참여자 수는 2007년 대비 2008년도에 15.8%가 증가하였으며, 5월에 가장 많은 관객이 참여하였고, 7월에 가장 적은 관객이 참여하였다. 가장 큰 상승폭을 보인 곳은 국립현대미술관으로 2007년에 비해 2008년에 129.9%가 증가하였다. 그 이유는 월별 참여자 수를 보면 알 수 있다. 2008년 7월에는 전년도 대비 30.6% 감소하였으나 2007년 8월에는 6,749명에 비해 2008년 8월에는 6만 779명으로 약 9배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관람객 수는 6월이 7월보다 더 적었으나, 상설전 참여자 수는 2007년, 2008년 모두 오히려 6월이 7월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모든 관을 합한 상설전 참여자 수는 2007년 6월 42만 889명에서 2008년 6월 52만 6,445명으로 전년도 대비 25%가 증가하였으며, 7월에는 2007년 33만 1,284명에서 2008년 37만 2,058명으로 12.3% 증가하였다.

국립중앙박물관의 경우, 2008년 5, 8월 상설전 참여자 수가 소폭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 6, 7월에는 전년도 동기간에 비해 각각 14.3%와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5-8월까지의 기간 중 소폭의 감소와 증가를 반복한 것으로 기록되었다.

11개 지방 국립박물관은 2007년 대비 2008년에 16.8% 증가하였으며, 5월에 2007년 41만 8,713명에서 2008년 50만 5,717명으로 20.8% 증가하여 5, 6, 7, 8월을 통틀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국립민속박물관은 2007년 대비 2008년 23.2% 증가하였고, 8월에 2007년 12만 9,027명에서 2008년 19만 2,447명으로 월별 가장 높은 증가율인 49.2%가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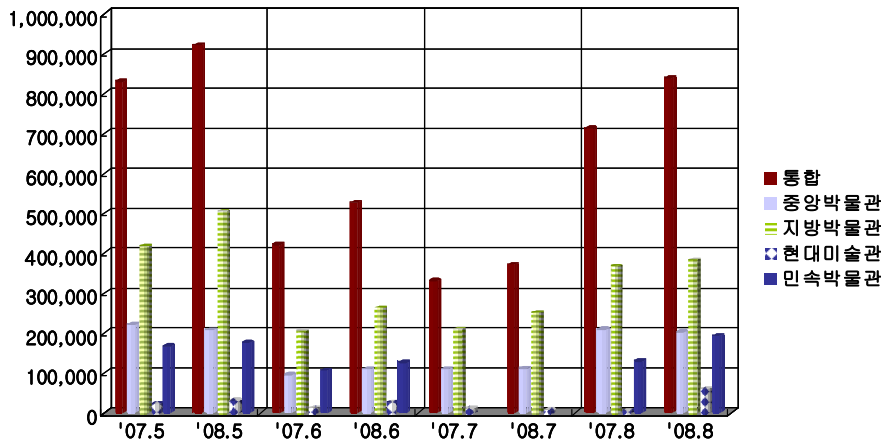
14개 국립박물관·미술관 프로그램 참여자 수(상설전 등)

단위 : 명

구분	통합		중앙박물관		지방박물관		현대미술관		민속박물관	
	2008	2007	2008	2007	2008	2007	2008	2007	2008	2007
5월	921,133	829,959	207,096	221,120	505,717	418,713	32,268	23,362	176,052	166,764
6월	526,445	420,889	108,735	95,140	264,141	206,176	27,451	13,739	126,118	105,834
7월	372,058	331,284	111,122	108,848	252,426	210,166	8,510	12,270	-	-
8월	839,181	713,041	202,231	208,945	383,724	368,320	60,779	6,749	192,447	129,027
합계	2,658,817	2,295,173	629,184	634,053	1,406,008	1,203,375	129,008	56,120	494,617	401,625
변동	+ 15.8%	-	-0.8%	-	+ 16.8%	-	+ 129.9%	-	+ 23.2%	-

14개 국립박물관·미술관 프로그램 참여자 수(상설전 등)

단위 : 명



2) 프로그램 참여자 수(교육·행사)

교육·행사의 프로그램은 8월에 가장 많은 참여자 수를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전년도 대비 2008년에는 64.6%가 증가한 수치이다. 참고로 국립중앙박물관은 2007년 5, 6월의 수치가 없고, 국립민속박물관은 2007년 6, 7월의 수치가 없어 전체 통계에서는 제외되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7년에 비해 2008년에 6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월은 2007년 1만 9,003명에서 2008년 2,736명으로 85.6%가, 7월은 2007년 1만 4,758명에서 2008년 5,585명으로 62.2%가 감소하였다. 2008년도에 가장 많은 수의 관람객이 참여한 8월의 경우도 8,561명으로 2007년 가장 적은 수의 관람객이 참여한 6월의 8,574명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11개 지방 국립박물관은 2007년 대비 2008년에 91.7%가 증가하여 많은 변화폭을 보여주었다. 2008년은 5월과 8월에 가장 많은 관람객이 참여하였다. 5월은 2007년 4만 742명에 비해 2008년 6만 5,870명으로 61.7%가 증가하였으며, 8월은 2007년 2만 4,640명에서 2008년 6만 1,319명으로 148.9%가 증가하였다. 국립민속박물관은 전년도에 비해 2008년 8월 36.6%가 증가하였다.

14개 국립박물관·미술관 프로그램 참여자 수(교육·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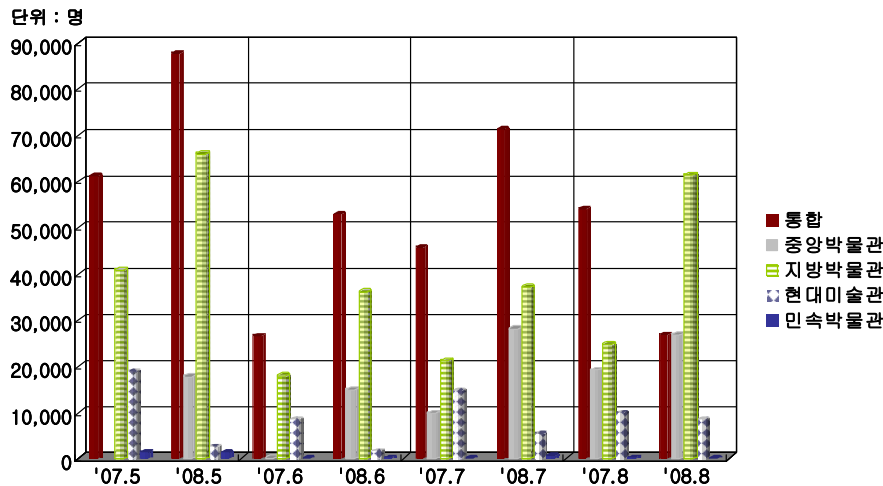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통합		중앙박물관		지방박물관		현대미술관		민속박물관	
	2008	2007	2008	2007	2008	2007	2008	2007	2008	2007
5월	87,629	61,165	17,688	-	65,870	40,742	2,736	19,003	1,335	1,420
6월	52,839	26,490	14,879	0	36,010	17,916	1,735	8,574	215	0
7월	71,283	45,699	28,027	9,779	37,096	21,162	5,585	14,758	575	0
8월	96,749	54,019	26,809	19,137	61,319	24,640	8,561	10,062	60	180
합계	308,500	187,373	87,403	28,916	200,295	104,460	18,617	52,397	2,185	1,600
변동	+ 64.6%	-	+ 89.6%	-	+ 91.7%	-	-64.5%	-	-12.8%	-

※ 국립중앙박물관은 2007년 5, 6월의 수치가 없어 전체 합계에 반영되지 않음. 7, 8월은 전년도 대비 89.6%가 증가하였음.

※ 국립민속박물관은 2007년 6, 7월의 수치가 없어 전체 합계에 반영되지 않음. 5, 8월은 전년도 대비 12.8%가 감소하였음.

14개 국립박물관·미술관 프로그램 참여자 수(교육·행사)



3) 프로그램 참여자 수(유료특별전)

유료특별전은 부정기적인 전시개최로 인하여 정확한 대비가 불가능한 부분이다. 특히 11개 지방 국립박물관과 국립민속박물관의 수치가 없으며, 국립중앙박물관 역시 2007년도의 수치가 없어 전체적으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8월에 11만 2,585명으로 가장 많은 관람객이 관람하였으며, 이는 7월의 5만 2,250명에 비하여 115.5%가 증가한 것이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전년도 대비 16.8%가 증가하였다. 2007년도에 가장 많은 관람객이 참여한 8월은 2만 7,803명에서 2008년 2만 4,721명으로 11% 감소하였다. 2008년도에는 7월에 가장 많은 수의 관람객이 참여하였으며, 2007년 1만 9,104명에서 106.6% 증가한 3만 9,466명이 참여하였다. 6월은 가장 많이 감소한 달로써, 2007년 1만 5,659명에서 2008년 8,237명으로 47.4%가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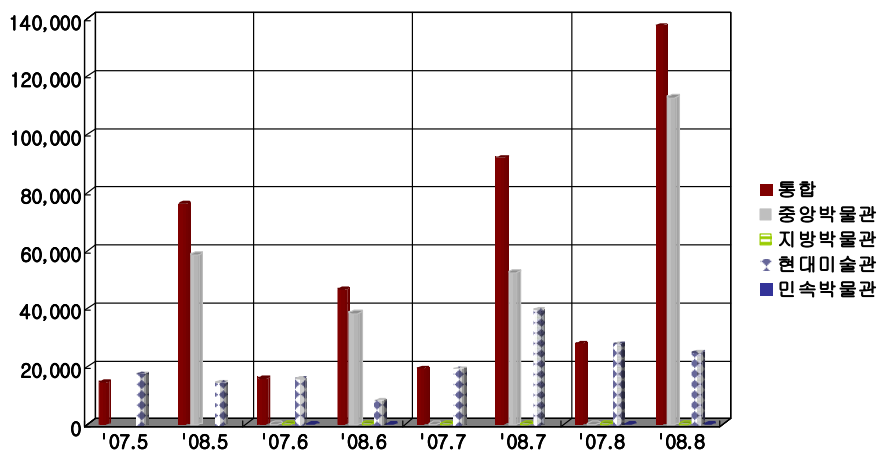
14개 국립박물관·미술관 프로그램 참여자 수(유료특별전)

단위 : 명

구분	통합		중앙박물관		지방박물관		현대미술관		민속박물관	
	2008	2007	2008	2007	2008	2007	2008	2007	2008	2007
5월	75,873	14,479	58,343	-	-	-	17,530	14,479	-	-
6월	46,453	15,659	38,216	0	0	0	8,237	15,659	0	0
7월	91,716	19,104	52,250	0	0	0	39,466	19,104	-	-
8월	137,306	27,803	112,585	0	0	0	24,721	27,803	0	0
합계	351,348	77,045	261,394	0	0	0	89,954	77,045	0	0
변동	+ 356%	-	-	-	-	-	+ 16.8%	-	-	-

14개 국립박물관·미술관 프로그램 참여자 수(유료특별전)

단위 : 명



4) 프로그램 참여자 수(통합)

상설전, 교육·행사, 유료특별전 등 프로그램 전체의 참여자 수를 살펴보면, 12.3%가 증가하였다. 가장 많은 관람객이 참여한 5월의 경우, 2007년 90만 5,603명에서 2008년 108만 4,635명으로 19.8%가 증가하였고, 가장 적은 관람객이 참여한 7월은 2007년 39만 6,087명에서 2008년 53만 5,057명으로 35.1%가 증가하였다.

국립중앙박물관의 2007년 전체 참여자 수는 66만 2,969명이었으나 2008년에는 97만 7,981명으로 47.5%가 증가하였다.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인 달은 6월로 2007년 9만 5,140명에서 2008년 16만 1,830명으로 70.1%가 증가하였고, 가장 많은

관람객이 참여한 8월은 2007년 22만 8,082명에서 2008년 34만 1,625명으로 49.8%가 증가하였다.

11개 지방 국립박물관은 2007년 130만 7,835명에서 2008년 160만 6,303명으로 22.8%가 증가하였고, 2008년 5월에 57만 1,587명으로 가장 많은 관람객이 참여하였다. 이는 2007년의 45만 9,455명에 비해 24.4%가 증가한 것이다.

국립현대미술관은 2007년 17만 6,988명에서 2008년 23만 5,844명으로 33.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에는 8월에 가장 많은 관람객이 관람하였으며, 이는 2008년 가장 적은 관람객이 관람한 6월의 3만 5,688명에 비해 2.6배가량 많은 숫자이며, 2007년 8월에 비해 110.8%가 증가한 것이었다.

국립민속박물관은 2007년 40만 3,225명에 비해 2008년 49만 6,802명으로 23.2%가 증가하였다. 또한 2008년 7월은 교육·행사 이외의 다른 참여자 수가 없어, 다른 달에 비해 매우 적은 수인 575명이 참여하였다. 2007년 7월의 경우는 집계된 모든 참여자 수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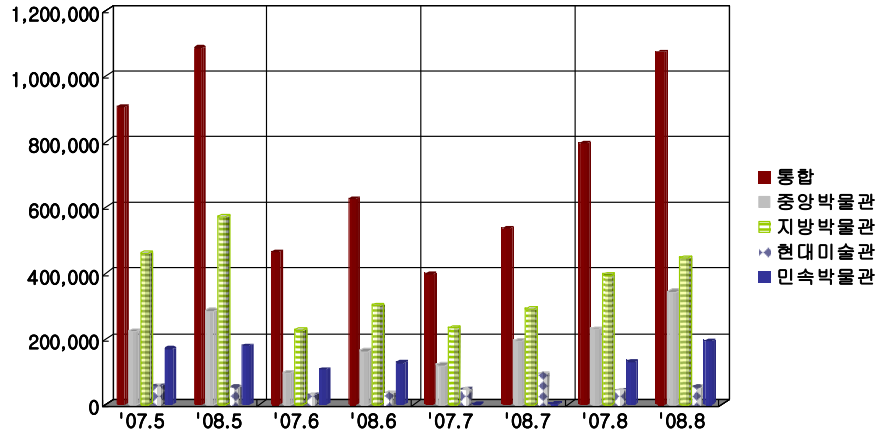
14개 국립박물관·미술관 프로그램 참여자 수(통합)

단위 : 명

구분	통합		중앙박물관		지방박물관		현대미술관		민속박물관	
	2008	2007	2008	2007	2008	2007	2008	2007	2008	2007
5월	1,084,635	905,603	283,127	221,120	571,587	459,455	52,534	56,844	177,387	168,184
6월	625,737	463,038	161,830	95,140	300,151	224,092	35,688	29,398	126,333	105,834
7월	535,057	396,087	191,399	118,627	289,522	231,328	53,561	46,132	575	0
8월	1,073,236	794,863	341,625	228,082	445,043	392,960	94,061	44,614	192,507	129,207
합계	3,318,665	2,559,591	977,981	662,969	1,606,303	1,307,835	235,844	176,988	496,802	403,225
변동	+ 29.7%	-	+ 47.5%	-	+ 22.8%	-	+ 33.3%	-	+ 23.2%	-

14개 국립박물관·미술관 프로그램 참여자 수(통합)

단위 : 명



3. 관련매출현황

월간 관련 매출 현황(전년동기 대비)

단위 : 천원

구분		중앙박물관		현대미술관		
		‘08	‘07	‘08	‘07	
1인당매출액	5	6,623원	5,291원	1,821원	1,619원	
	6	4,422원	3,477원	2,093원	2,566원	
	7	4,016원	4,571원	1,029원	1,580원	
	8	5,234원	5,346원	1,146원	1,529원	
	계	20,295원	18,685원	6,089원	7,294원	
매출유형	5	문화상품	173,951	128,213	46,000	45,000
		식·음료	426,331	304,755	48,961	47,004
		주 차 장	57,859	44,603	-	-
		공연기타	193,449	116,810	685	-
		합계	851,590	594,381	95,646	92,004
	6	문화상품	217,686	57,601	34,000	38,000
		식·음료	313,487	202,496	39,996	37,439
		주 차 장	36,320	25,182	-	-
		공연기타	148,107	45,479	685	-
		합계	715,600	330,758	74,681	75,439
	7	문화상품	174,714	120,133	17,990	38,992
		식·음료	410,982	279,370	37,100	33,900
		주 차 장	48,377	33,388	-	-
		공연기타	134,600	109,425	-	-
		합계	768,673	542,316	55,090	72,892

	8	문화상품	226,709	166,018	50,000	44,900
		식·음료	669,067	535,115	57,831	23,300
		주 차 장	0	62,015	-	-
		공연기타	146,648	130,161	-	-
		합계	1,042,424	893,309	107,831	68,200
	계	문화상품	793,060	471,965	147,990	166,892
		식·음료	1,819,867	1,321,736	183,888	141,643
		주 차 장	142,556	165,188	0	0
		공연기타	622,804	401,875	1,370	0
		합계	3,378,287	2,360,764	333,248	308,535
		변동	+ 43.1%	-	+ 8%	-

※ 현대미술관의 매출액(주차장) 부분과 매출액(공연기타)부분, 중앙박물관의 8월 주차장 등 기록이 없어 변동률 총계는 정확한 수치가 아님

1) 1인당 매출액

국립중앙박물관의 2008년 5-8월까지 1인당 평균 매출액은 5,074원으로 이는 전 년도의 동기간에 비해 8.6% 상승한 금액이었다. 이와 달리 이 기간 중 국립현대미 술관의 1인당 평균 매출액은 1,522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6.6% 감소하였다.

국립중앙박물관은 2008년 가장 높은 매출액을 보인 5월은 2007년 5,291원에서 2008년 6,623원으로 25.1%가 증가하였으며, 6월은 2007년 3,477원에서 2008년 4,422원으로 27.2%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7, 8월에는 각각 12.1%와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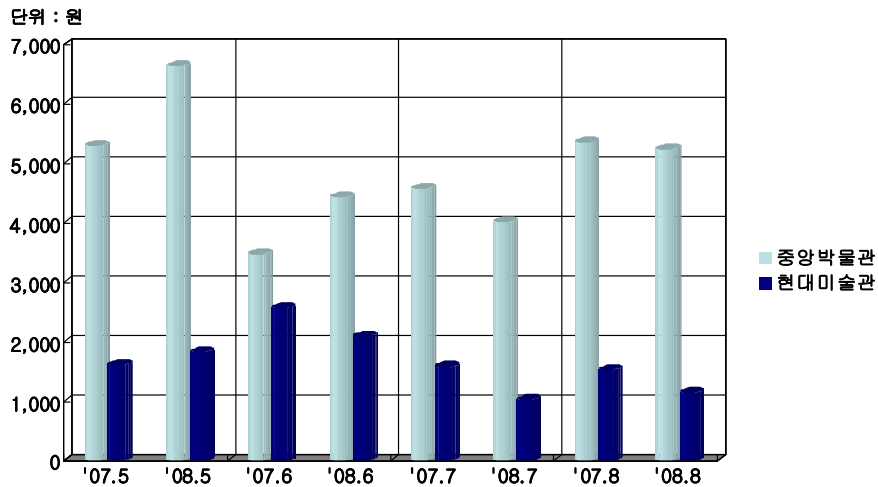
국립현대미술관은 2007년과 2008년 모두 6월의 1인당 매출액이 가장 많았지만 2008년 6월은 전년도 동기간의 2,566원보다 18.4% 감소한 것이었다. 2008년 7, 8월 역시 전년도에 비해 각각 34.9%와 25%의 감소율을 보였다. 단, 5월은 2007년 1,619원에서 2008년 1,821원으로 12.5%가 증가하였다.

국립중앙박물관 · 국립현대미술관 1인당 매출액

단위 : 원

구분	중앙박물관		현대미술관	
	2008년	2007년	2008년	2007년
5월	6,623	5,291	1,821	1,619
6월	4,422	3,477	2,093	2,566
7월	4,016	4,571	1,029	1,580
8월	5,234	5,346	1,146	1,529
평균	5,074	4,671	1,522	1,824
변동	+ 8.6%	-	-16.6%	-

국립중앙박물관 · 국립현대미술관 1인당 매출액



2) 문화상품

국립중앙박물관은 2008년 6월에 2억 1,768만 6천원으로 2007년 5,760만 1천원에 비해 277.9%가 증가해 가장 많은 상승폭을 보였고, 5-8월을 통틀어 68%가 증가하였다. 문화상품 관련 매출액은 2007년과 2008년 모두 8월이 가장 높았고, 2007년 1억 6,601만 8천원에서 2008년 2억 2,670만 9천원으로 36.6%가 증가하였다.

이와 달리 국립현대미술관은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는 수치가 있었다. 2007년 1억 6,682만 2천원에서 2008년 1억 4,799만원으로 11.3% 감소하였다. 특히 7월에는 2007년 3,892만 2천원에서 2008년 1,799만원으로 53.8%가 감소하였으며, 6월에는 2007년 3,800만원에서 2008년 3,400만원으로 10.5%가 감소하였다.

5월과 8월에는 증가하였는데 5월에는 2007년 4,500만원에서 2008년 4,600만원으로 2.2%가, 8월에는 2007년 4,490만원에서 2008년 5천만원으로 11.4%가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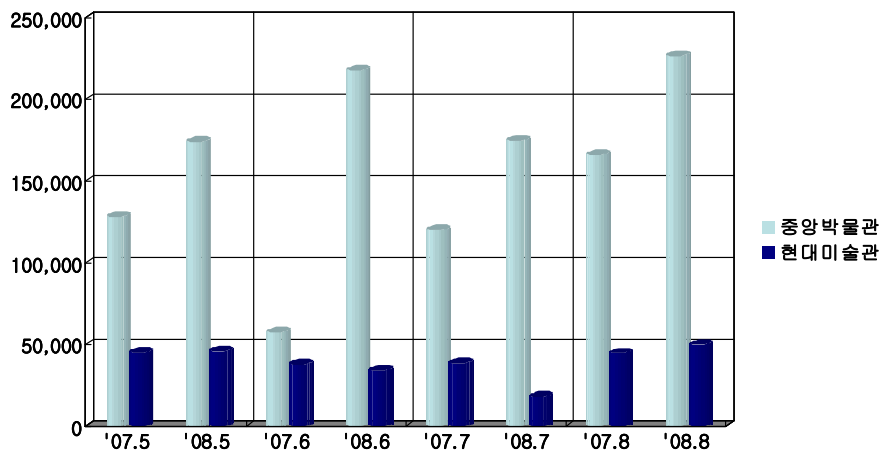
국립중앙박물관 · 국립현대미술관 무료관람 매출액(문화상품)

단위 : 천원

구분	중앙박물관		현대미술관	
	2008년	2007년	2008년	2007년
5월	173,951	128,213	46,000	45,000
6월	217,686	57,601	34,000	38,000
7월	174,714	120,133	17,990	38,922
8월	226,709	166,018	50,000	44,900
합계	793,060	471,965	147,990	166,822
변동	+ 68%	-	-11.3%	-

국립중앙박물관 · 국립현대미술관 무료관람 매출액(문화상품)

단위 : 천원



3) 식 · 음료

2008년도 국립중앙박물관의 식·음료 매출액은 18억 1,986만 7천원으로 2007년 13억 2,173만 6천원에 비해 37.7% 상승하였다. 2007년과 2008년 모두 8월의 매출액이 가장 높았고, 2007년 5억 3,511만 5천원에서 2008년 6억 6,906만 7천원으로 25%가 증가하였다. 가장 낮은 매출액을 보인 6월은 2007년 2억 249만 6천원에서 2008년 3억 1,348만 7천원으로 54.8%가 증가하였다.

국립현대미술관은 2007년 1억 4,164만 3천원에서 2008년 1억 8,388만 8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9.8%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8년 7월의 식·음료 매출액은 3,71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9.4% 감소하였다. 2008년도 8월의 매출액이 5,783만 1천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2007년 8월 2,330만원에 비하여 148.2%가 증가한 것이었다. 전년도 대비 5월에는 4.1%, 6월에는 6.8%가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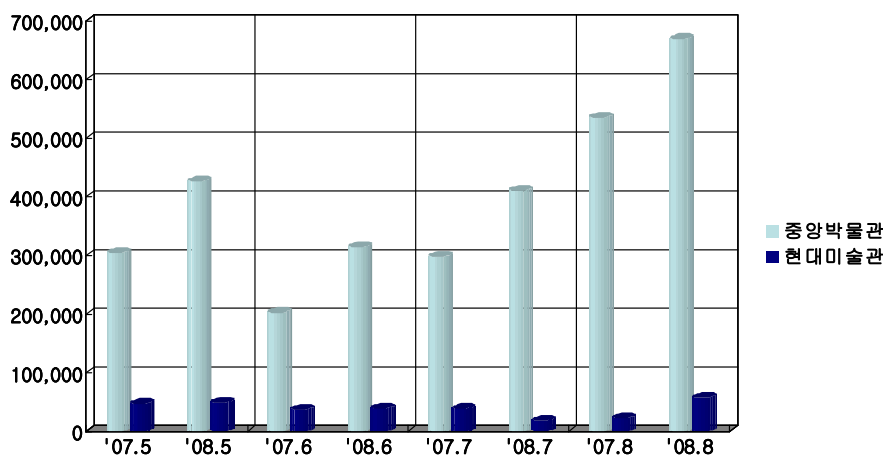
국립중앙박물관 · 국립현대미술관 무료관람 매출액(식·음료)

단위 : 천원

구분	중앙박물관		현대미술관	
	2008년	2007년	2008년	2007년
5월	426,331	304,755	48,961	47,004
6월	313,487	202,496	39,996	37,439
7월	410,982	279,370	37,100	33,900
8월	669,067	535,115	57,831	23,300
합계	1,819,867	1,321,736	183,888	141,643
변동	+ 37.7%	-	+ 29.8%	-

국립중앙박물관 · 국립현대미술관 무료관람 매출액(식·음료)

단위 : 천원



4) 주차장

국립중앙박물관의 2008년도 8월 주차장 수입이 없는 관계로 5, 6, 7월과 전년도 동기간의 수입을 비교해 보면, 2007년의 1억 317만 3천원에서 38.2% 상승한 1억 4,255만 6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5월에는 2007년 4,460만 3천원에서 2008년 5,785만 9천원으로 29.7%가 증가하였고, 6월에는 2007년 2,518만 2천원에서 2008년 3,632만원으로 44.2%가 증가하였다. 7월에는 2007년 3,338만 8천원에서 2008년 4,837만 7천원으로 44.9%가 증가하였다.

국립중앙박물관 · 국립현대미술관 무료관람 매출액(주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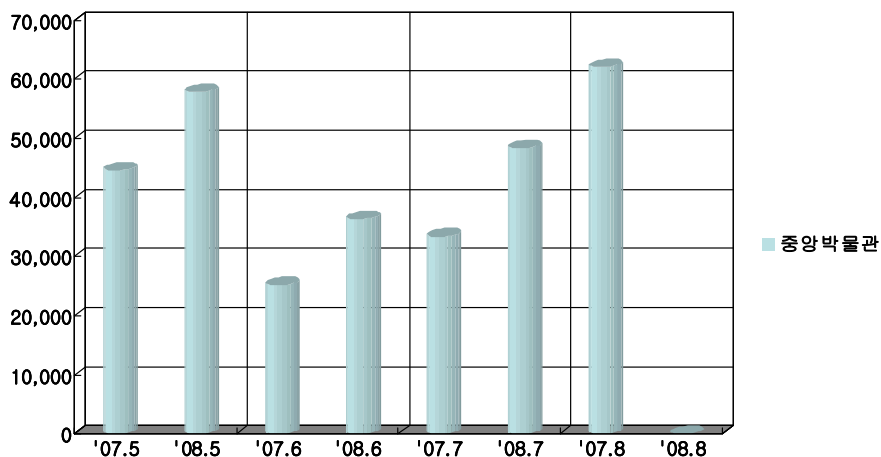
단위 : 천원

구분	중앙박물관		현대미술관	
	2008년	2007년	2008년	2007년
5월	57,859	44,603	-	-
6월	36,320	25,182	-	-
7월	48,377	33,388	-	-
8월	0	62,015	-	-
합계	142,556	165,188	-	-
변동	+38.2%	-	-	-

※ 국립중앙박물관은 2008년 8월의 수치가 없어 전체 합계에 반영되지 않음. 5, 6, 7월은 전년도 대비 38.2%가 증가하였음.

국립중앙박물관 · 국립현대미술관 무료관람 매출액(주차장)

단위 : 천원



5) 공연기타

국립중앙박물관의 공연 등과 같은 기타 매출액은 2007년 4억 187만 5천원에서 2008년 6억 2,280만 4천원으로 55%가 증가하였다. 2008년 6월에 1억 4,810만 7천원으로 2007년 6월 4,547만 9천원에 비하여 225.7%가 증가함으로써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2008년에는 5월에 1억 9,344만 9천원으로 가장 큰 매출액을 보였는데 이는 2007년의 1억 1,681만원에 비하여 65.6%가 증가한 것이다.

국립현대미술관은 2007년의 수치는 없고, 2008년 5월과 6월에 각각 68만 5천원의 매출수입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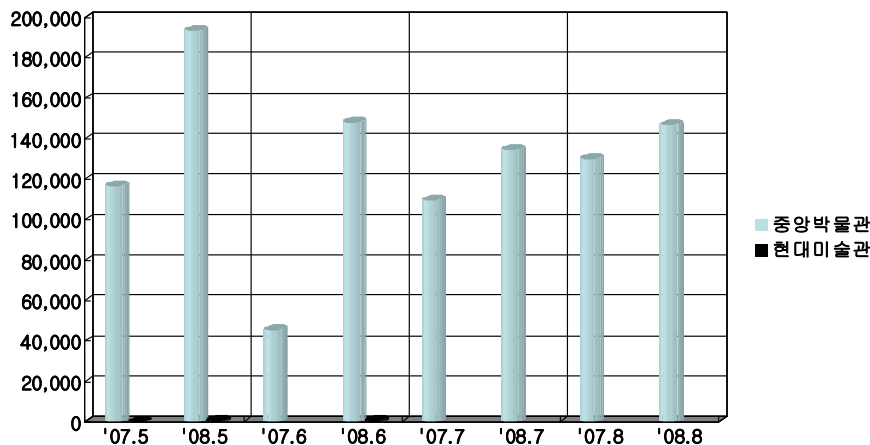
국립중앙박물관 · 국립현대미술관 무료관람 매출액(공연기타)

단위 : 천원

구분	중앙박물관		현대미술관	
	2008년	2007년	2008년	2007년
5월	193,449	116,810	685	-
6월	148,107	45,479	685	-
7월	134,600	109,425	-	-
8월	146,648	130,161	-	-
합계	622,804	401,875	1,370	-
변동	+ 55%	-	-	-

국립중앙박물관 · 국립현대미술관 무료관람 매출액(공연기타)

단위 : 천원



6) 통합매출

국립중앙박물관의 총매출액은 2007년 23억 6,076만 4천원에 비해 2008년에는 33억 7,828만 7천원으로 43.1%가 증가하였다. 2008년 8월의 매출액이 가장 높았는데, 2007년 8억 9,330만 9천원에서 2008년 10억 4,242만 4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6.7%가 증가한 것이다. 2007년 6월은 3억 3,075만 8천원으로 가장 적은 매출액을 보였으나, 2008년 6월에는 7억 1,560만원으로 116.4%가 증가하였다.

국립현대미술관은 2007년 3억 853만 5천원에서 2008년 3억 3,324만 8천원으로 8% 증가하였다. 가장 높은 매출액을 보인 8월은 2007년 6,820만원에서 2008년 1억 783만 1천원으로 58.3%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8년 6월은 7,468만 1천원으로 2007년 7,543만 9천원에 비해 1%가 감소하였고, 2008년 7월은 5,509만원으로 2007년 7,289만 2천원에 비해 24.4%가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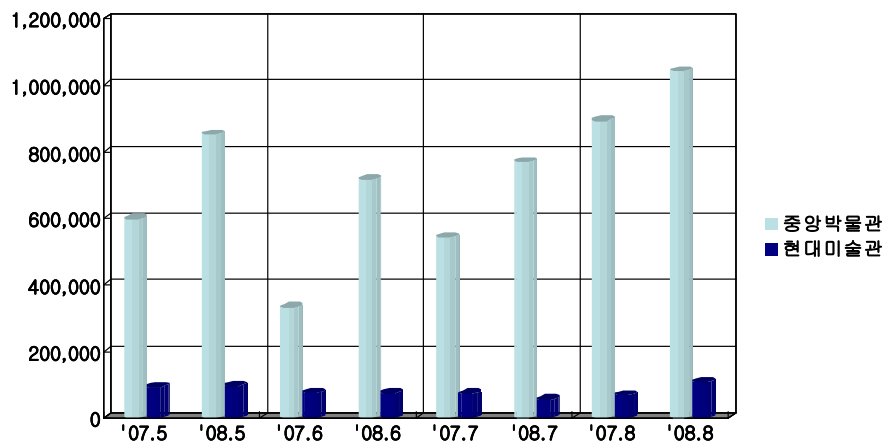
국립중앙박물관 · 국립현대미술관 무료관람 매출액(통합)

단위 : 천원

구분	중앙박물관		현대미술관	
	2008년	2007년	2008년	2007년
5월	851,590	594,381	95,646	92,004
6월	715,600	330,758	74,681	75,439
7월	768,673	542,316	55,090	72,892
8월	1,042,424	893,309	107,831	68,200
합계	3,378,287	2,360,764	333,248	308,535
변동	+ 43.1%	-	+ 8%	-

국립중앙박물관 · 국립현대미술관 무료관람 매출액(통합)

단위 : 천원



4. 통계비교 및 변동률

1) 전체 통계변동률

무료화 이후 전체 변동률(2007.5-8. 2008.5-8)

구분	통합	중앙박물관	지방박물관	현대미술관	민속박물관
일평균 관람객 수 총계	+ 28.7%	+ 47.5%	+ 21.7%	+ 28%	+ 19.9%

내국인 관람객 수	+ 31.8%	+ 49.3%	+ 23%	+ 28.3%	+ 34.8%
외국인 관람객 수	+ 7.2%	+ 11.7%	+ 14%	+ 21.9%	+ 6.1%
고객 실적(국립박물관)총계	+ 31.1%	+ 47.5%	+ 22.8%	-	-
고객 실적 14개관 전체 총계	+ 29.7%	+ 47.5%	+ 22.8%	+ 28%	+ 23.2%
프로그램 참여자 수(상설전 등)	+ 15.8%	-0.8%	+ 16.8%	+ 129.9%	+ 23.2%
프로그램 참여자 수(교육·행사)	+ 64.6%	+ 89.6%	+ 91.7%	-64.5%	-12.8%
프로그램 참여자 수(유료특별전)	-	-	-	+ 16.8%	-
월간 매출 현황 총계	+ 39%	+ 43.1%	-	+ 8%	-
1인당 매출액	+ 1.6%	+ 8.6%	-	-16.6%	-
매출액(문화상품)	+ 47.3%	+ 68%	-	-11.3%	-
매출액(식·음료)	+ 36.9%	+ 37.7%	-	+ 29.8%	-
매출액(주차장)	-	+ 38.2%	-	-	-
매출액(공연기타)	-	+ 55%	-	-	-

※ 국립중앙박물관, 지방 국립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은 2007년도 프로그램 참여자 수(유료특별전) 수치가 없음. 지방 국립박물관 및 국립민속박물관은 매출액 통계자료가 없으므로, 매출액 통계는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을 기준으로 작성됨. 국립현대미술관의 매출액(주차장)의 수치가 없으며, 국립중앙박물관은 매출액(주차장)의 2008년 8월의 수치가 없음. 따라서 국립중앙박물관의 5-7월의 변동률만 작성됨. 국립현대미술관은 매출액(공연기타)의 수치가 없어 국립중앙박물관의 변동률만 작성됨.

일평균 관람객 월별 변동률(2007.5-8. 2008.5-8)

구분	통합	중앙박물관	지방박물관	현대미술관	민속박물관
5월	+ 19.7%	+ 27.7%	+ 25.8%	-7.6%	+ 1.6%
6월	+ 41.7%	+ 76.9%	+ 39.3%	+ 26.3%	+ 19.6%
7월	+ 26.1%	+ 55.3%	+ 20.5%	+ 11.8%	+ 13%
8월	+ 18.8%	+ 49.8%	+ 13.3%	+ 110.9%	+ 48.8%
평균	+ 28.7%	+ 47.5%	+ 21.7%	+ 28%	+ 19.9%

2) 국립·공립·사립박물관·미술관 통계 및 비교

국립박물관 통계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집계한 수치와 이번 연구설문을 통해 집계한 수치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 아래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집계 수치를 기준으로 하였다. 일평균 관람객 수는 7명(2008년 8월 설문 집계 수치 2만 9,143명)에서 많게는 901명(2007년 5월 설문 집계 수치 2만 4,200명)까지의 차이가 있으며, 총 관람객 수는 180명(2008년 8월 설문 집계 수치 78만 6,848명)에서 많게는 2만 7,009명(2007년 5월 설문 집계 수치 65만 3,407명)까지의 차이가 있다.

(1) 일평균 관람객 통계

아래의 도표는 전국의 국립박물관 12개관과 공립박물관·미술관 9개관, 사립박물관·미술관 100개관을 대상으로 작성된 것으로, 무료화 이후 일평균 관람객 수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12개 국립박물관은 가장 많은 수의 관람객들이 관람하였을 뿐 만 아니라, 전년동기 대비 상승률도 가장 높다. 6월에 2007년 그해 가장 적은 수의 관람객인 1만 2,277명에서 2008년 1만 8,479명으로 증가하여 50.5%가 증가하였다. 이는 모든 박물관·미술관을 통틀어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가장 많은 수의 관람객이 관람한 5월은 2007년 2만 5,101명에서 2008년 3만 1,752명으로 26.5%가 증가하였고, 7월은 2007년 1만 3,460명에서 2008년 1만 7,812명으로 32.3%가 증가하였다. 8월에는 2007년 2만 3,001명에서 2008년 2만 9,136명으로 26.6%가 증가하였다.

공립박물관·미술관은 소폭 증가하거나 감소하였다. 5월은 2007년 9,065명에서 2008년 8,389명으로 7.5%가 감소하였고, 6월은 2007년 4,256명에서 2008년 4,403명으로 3.5%가 증가하였다. 이는 국립박물관이 6월에 전년동기 대비 50.5%가 증가한 것에 미하면 미미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7월은 2007년 3,827명에서 2008년 3,544명으로 7.4%가 감소하였고, 8월은 2007년 6,219명에서 2008년 6,871명으로 10.5%가 증가하였다.

사립박물관·미술관은 박물관·미술관들 중 증가폭이 가장 적었으며, 역시 소폭 증가하거나 감소하였다. 5월은 2007년 6,615명에서 2008년 6,903명으로 4.4% 증가하였고, 6월은 5,407명에서 5,102명으로 5.6% 감소하였다. 7월은 2007년 5,494명에서 2008년 5,701명으로 3.8% 증가하였으며, 8월은 2007년 8,329명에서 2008년 7,893명으로 5.2% 감소하였다.

무료화 이후 일평균 관람객 통계(전년동기 대비)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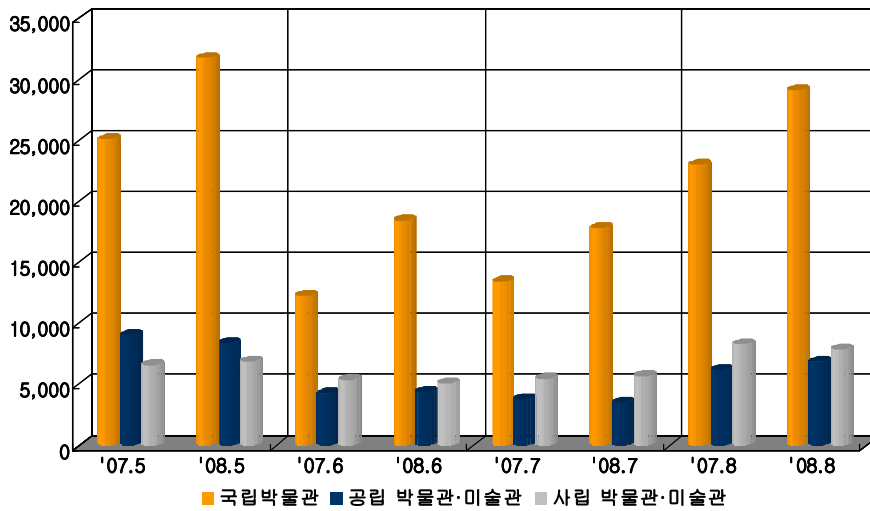
구분		5월		6월		7월		8월	
		'07	'08	'07	'08	'07	'08	'07	'08
국립 박물관	개관일 수(일)	28	28	25	26	27	26	27	27
	일평균 관람객	25,101	31,752	12,277	18,479	13,460	17,812	23,001	29,136
	변동률	-	+26.5%	-	+50.5%	-	+32.3%	-	+26.7%
공립 박물관 · 미술관	개관일 수(일)	26	26	26	23	25	26	26	26
	일평균 관람객	9,065	8,389	4,256	4,403	3,827	3,544	6,219	6,871
	변동률	-	-7.5%	-	+3.5%	-	-7.4%	-	+10.5%

사립 박물관 · 미술관	개관일 수(일)	27	27	25	25	26	27	26	26
	일평균 관람객	6,615	6,903	5,407	5,102	5,494	5,701	8,329	7,893
	변동률	-	+4.4%	-	-5.6%	-	+3.8%	-	-5.2%

※ 국립박물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2008년 10월 집계 수치를 기준으로 하였음.

무료화 이후 일평균 관람객 통계(전년동기 대비)

단위 : 명



(2) 내·외국인 관람객 통계

① 통합

무료화 이후 내·외국인 1관당 평균 관람객 통계(전년동기 대비)

단위 : 명

구분				5월		6월		7월		8월	
				'07	'08	'07	'08	'07	'08	'07	'08
내 국 인	일반 (경노 포함)	국립 박물관	관람객수	18,480	26,379	10,981	16,141	14,692	21,517	26,548	35,418
			대상관수	12	12	12	12	12	12	12	12
		공립 박물관· 미술관	관람객수	6,567	8,056	5,204	5,053	5,759	4,950	9,147	9,427
			대상관수	9	8	9	9	9	9	9	9
	일반 단체	국립 박물관	관람객수	2,293	5,025	1,983	3,442	2,109	3,308	2,672	2,576
			대상관수	12	12	12	12	12	12	12	12

		국립 박물관· 미술관	관람객수	1,105	829	427	607	405	434	301	648
			대상관수	4	6	6	6	5	6	5	5
	청소 년(어 린이 포함 유료)	국립 박물관	관람객수	7,591	13,714	5,267	6,637	8,392	9,536	17,902	22,508
			대상관수	12	12	12	12	12	12	12	12
		국립 박물관· 미술관	관람객수	1,874	2,156	1,369	1,118	1,385	1,361	3,912	3,268
			대상관수	9	8	9	9	9	9	9	9
	청소 년단 체 (어린 이포 함 유료)	국립 박물관	관람객수	25,884	25,814	7,400	12,047	3,063	5,390	3,599	4,778
			대상관수	12	12	12	12	12	12	12	12
		국립 박물관· 미술관	관람객수	35,971	19,016	4,077	3,773	595	918	492	646
			대상관수	3	4	4	4	4	4	3	2
	어린 이 및 유아(무료)	국립 박물관· 미술관	관람객수	5,953	7,104	4,002	3,294	3,298	3,636	5,045	7,313
			대상관수	8	7	8	8	8	8	8	8
외국인	국립 박물관		관람객수	1,267	1,265	1,219	1,288	1,186	1,609	1,352	1,506
			대상관수	12	12	12	12	12	12	12	12
	국립 박물관· 미술관		관람객수	130	110	261	428	523	294	245	363
			대상관수	4	4	3	3	3	3	4	3
합계	국립 박물관		관람객수	56,701	71,227	26,603	38,498	29,163	40,077	51,754	65,556
			대상관수	12	12	12	12	12	12	12	12
	국립 박물관· 미술관		관람객수	26,271	27,620	12,314	11,323	10,739	10,338	17,983	19,964
			대상관수	9	8	9	9	9	9	9	9

※ 청주고인쇄박물관에서 내국인의 기타 항목은 일반(20-64세)항목으로 포함함.

※ 국립박물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집계 수치를 기준으로 하였음.

② 내·외국인 분류

아래의 도표는 각 박물관들의 무료화 이후 내·외국인 관람객 통계이다. 12개 국립박물관의 경우, 모든 달에 전년동기 대비 관람객 수가 증가하였으나 사립박물관·미술관은 소폭 증가하거나, 감소하였다.

12개 국립박물관은 6월의 경우 2007년 31만 9,232명에서 2008년 46만 1,981

명으로 44.7%가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으나, 사립박물관·미술관은 6월에 2007년 13만 5,186명에서 12만 7,554명으로 오히려 5.6%가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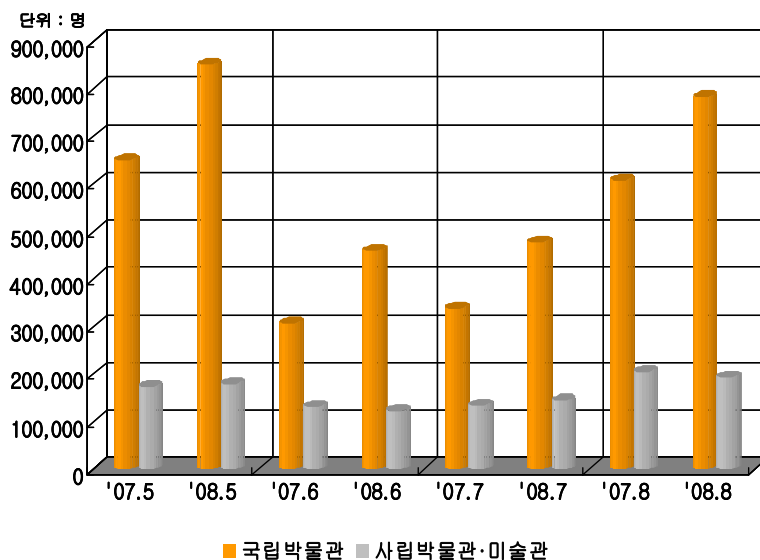
사립박물관·미술관에 2007년 8월에 21만 6,541명으로 가장 많은 수의 관람객이 관람하였다. 그러나 이는 국립박물관에 가장 적은 수의 관람객이 관람한 2007년 6월 31만 9,232명에 비해 64.3%정도에 그치는 수치이다. 이는 각 국립박물관 12개관, 사립박물관·미술관 100개관을 대상으로 한 총 관람객 수이므로, 상대적으로는 더 많은 차이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무료화 이후 내·외국인 관람객 통계(전년동기 대비)

단위 : 명

구분		국립박물관		사립박물관·미술관	
		관람객 수	변동률	관람객 수	변동률
5월	'07	680,416	-	178,612	-
	'08	854,723	+ 25.6%	186,381	+ 4.3%
6월	'07	319,232	-	135,186	-
	'08	461,981	+ 44.7%	127,554	-5.6%
7월	'07	349,955	-	142,846	-
	'08	480,921	+ 37.4%	153,916	+ 7.7%
8월	'07	621,042	-	216,541	-
	'08	786,668	+ 26.6%	205,224	-5.2%

무료화 이후 내·외국인 관람객 통계(전년동기 대비)



아래의 도표는 각 박물관들의 무료화 이후 1관당 내·외국인 관람객 통계이다. 이 역시 국립박물관은 모든 달의 1관당 관람객 수가 전년동기 대비 증가하였으나, 국립박물관·미술관은 소폭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12개 국립박물관의 경우 모든 달을 통틀어 6월에 가장 많은 관람객이 관람하고 있으며, 2007년 2만 6,603명에서 2008년 3만 8,498명으로 44.7%가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국립박물관·미술관은 2007년 5월 2만 6,271명에서 2008년 5월 2만 7,620명으로 5.1%가 증가하여 국립박물관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6월은 12개 국립박물관이 2007년 2만 6,603명에서 2008년 3만 8,498명으로 41%가 상승한 것에 비해 국립박물관·미술관은 2007년 1만 2,314명에서 2008년 1만 1,323명으로 오히려 8%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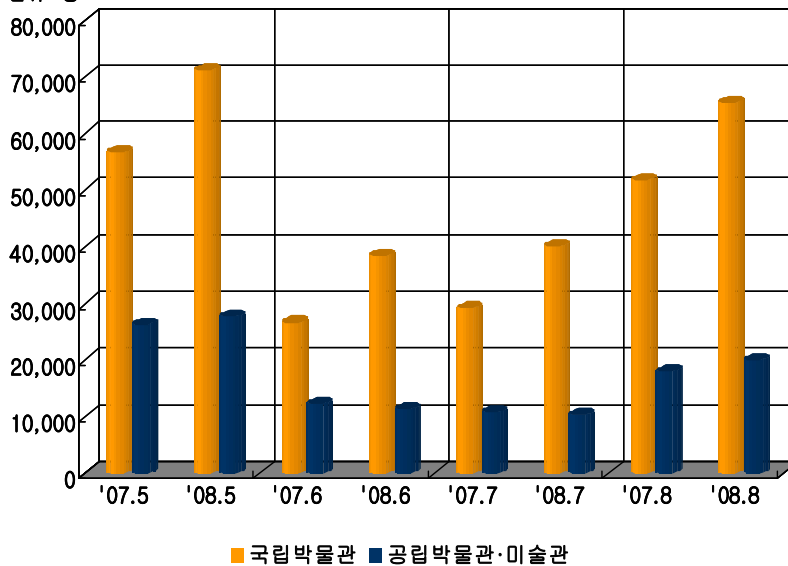
무료화 이후 1관당 내·외국인 관람객 통계(전년동기 대비)

단위 : 명

구분		국립박물관		국립박물관·미술관	
		관람객 수	변동률	관람객 수	변동률
5월	'07	56,701	-	26,271	-
	'08	71,227	+ 25.6%	27,620	+ 5.1%
6월	'07	26,603	-	12,314	-
	'08	38,498	+ 44.7%	11,323	-8%
7월	'07	29,163	-	10,739	-
	'08	40,077	+ 37.4%	10,338	-3.7%
8월	'07	51,754	-	17,983	-
	'08	65,556	+ 26.7%	19,964	+ 11%

무료화 이후 1관당 내·외국인 관람객 통계(전년동기 대비)

단위 : 명



아래의 도표는 각 박물관들의 무료화 이후 내국인 관람객 통계이다. 내국인 관람

객 역시 내·외국인 관람객 수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12개 국립박물관은 모든 달의 관람객이 전년동기 대비 증가하였고, 특히 가장 적은 수의 관람객이 관람한 6월에 2007년 30만 7,572명에서 2008년 45만 9,200명으로 49.2%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사립박물관·미술관의 경우, 2007년 13만 1,197명에서 2008년 12만 3,060명으로 6.2%가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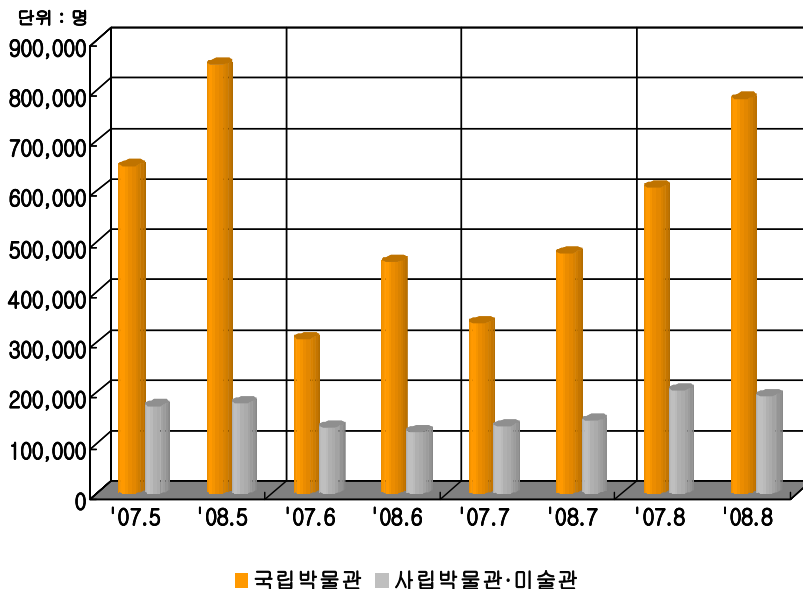
무료화 이후 내국인 관람객 통계(전년동기 대비)

단위 : 명

구분		국립박물관		사립박물관·미술관	
		관람객 수	변동률	관람객 수	변동률
5월	'07	650,973	-	173,913	-
	'08	851,184	+ 30.7%	179,468	+ 3.1%
6월	'07	307,572	-	131,197	-
	'08	459,200	+ 49.2%	123,060	-6.2%
7월	'07	339,067	-	134,593	-
	'08	477,026	+ 40.6%	143,743	+ 6.7%
8월	'07	608,645	-	205,828	-
	'08	783,347	+ 28.7%	193,616	-5.9%

※ 국립박물관 12관, 사립박물관·미술관 100관 대상

무료화 이후 내국인 관람객 통계(전년동기 대비)



아래의 도표는 각 박물관들의 무료화 이후 1관당 내국인 관람객 통계이다. 이 역시 12개 국립박물관은 모든 달에 전년동기 대비 증가하였으나, 국립박물관·미술관의 경우 소폭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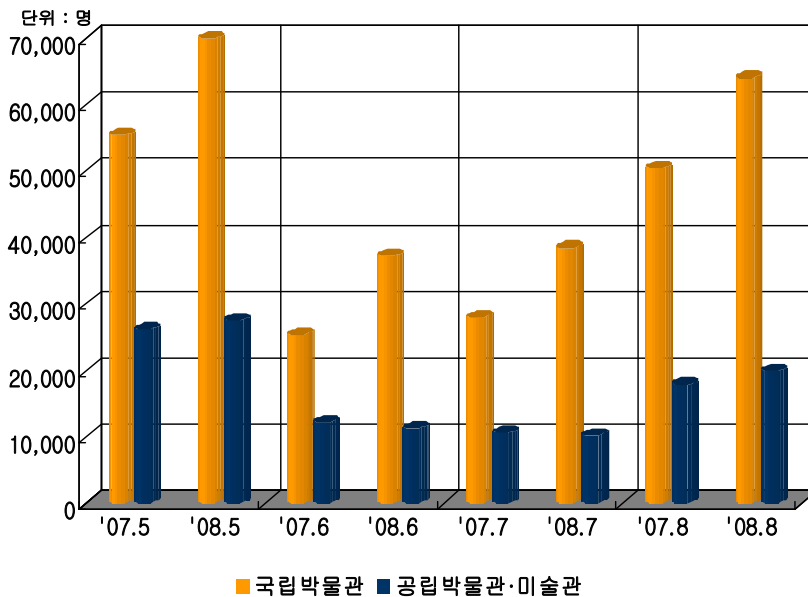
12개 국립박물관은 6월에 2007년 2만 5,384명에서 2008년 3만 7,210명으로 46.6%가 증가하였으나, 국립박물관·미술관은 2007년 1만 2,227명에서 2008년 1만 1,180명으로 8.7%가 감소하였다.

무료화 이후 1관당 내국인 관람객 통계(전년동기 대비)

단위 : 명

구분		국립박물관		국립박물관·미술관	
		관람객 수	변동률	관람객 수	변동률
5월	'07	55,434	-	26,129	-
	'08	69,962	+ 26.2%	27,565	+ 5.5%
6월	'07	25,384	-	12,227	-
	'08	37,210	+ 46.6%	11,180	-8.7%
7월	'07	27,977	-	10,564	-
	'08	38,468	+ 37.5%	10,240	-3%
8월	'07	50,402	-	17,874	-
	'08	64,050	+ 27%	19,843	+ 11%

무료화 이후 1관당 내국인 관람객 통계(전년동기 대비)



아래의 도표는 각 박물관들의 무료화 이후 외국인 관람객 통계이다. 역시 사립박물관·미술관에 가장 많은 수의 외국인 관람객이 관람한 2008년 8월의 1만 1,608명이 12개 국립박물관에 가장 적은 수의 외국인 관람객이 관람한 2007년 7월의 1만 4,234명에 못 미치는 것은, 내국인 관람객에 비해 많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사립박물관·미술관의 5월 외국인 관람객 수는 2007년 4,699명에서 2008년 6,913

명으로 47.1%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12개 국립박물관이 가장 많이 증가한 7월의 35.6%보다 더 큰 증가율이다.

12개 국립박물관의 경우, 대부분 증가하였으나 5월에는 2007년 1만 5,207명에서 2008년 1만 5,180명으로 0.1%가 감소하였다.

무료화 이후 외국인 관람객 통계(전년동기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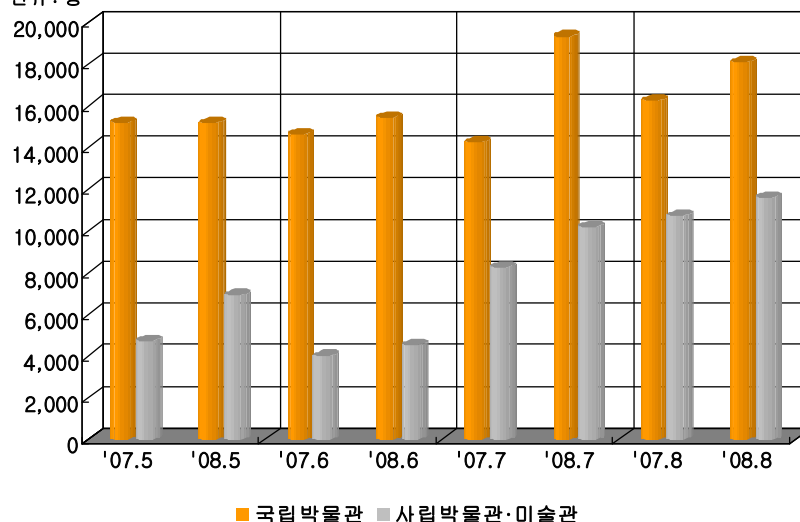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국립박물관		사립박물관·미술관	
		관람객 수	변동률	관람객 수	변동률
5월	'07	15,207	-	4,699	-
	'08	15,180	-0.1%	6,913	+ 47.1%
6월	'07	14,628	-	3,989	-
	'08	15,458	+ 5.6%	4,494	+ 12.6%
7월	'07	14,234	-	8,253	-
	'08	19,307	+ 35.6%	10,173	+ 23.2%
8월	'07	16,229	-	10,713	-
	'08	18,069	+ 11.3%	11,608	+ 8.3%

※ 국립박물관 12관, 사립박물관·미술관 100관 대상

무료화 이후 외국인 관람객 통계(전년동기 대비)

단위 : 명



아래의 도표는 각 박물관들의 무료화 이후 1관당 외국인 관람객 통계이다. 국립박물관·미술관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월의 경우, 2007년 261명에서 2008년 428명으로 64%가 증가하였으나, 7월에는 2007년 523명에서 2008년 294명으로 다시 43.8%가 감소하였다. 그러나 8월에는 다시 2007년 245명에서 2008년 363명으로 48.2%가 증가하였다.

12개 국립박물관은 7월에 2007년 1,186명에서 2008년 1,609명으로 35.7%가 증가해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또한 2008년 7월의 경우, 모든 달을 통틀어 가장 많은 수의 외국인 관람객이 관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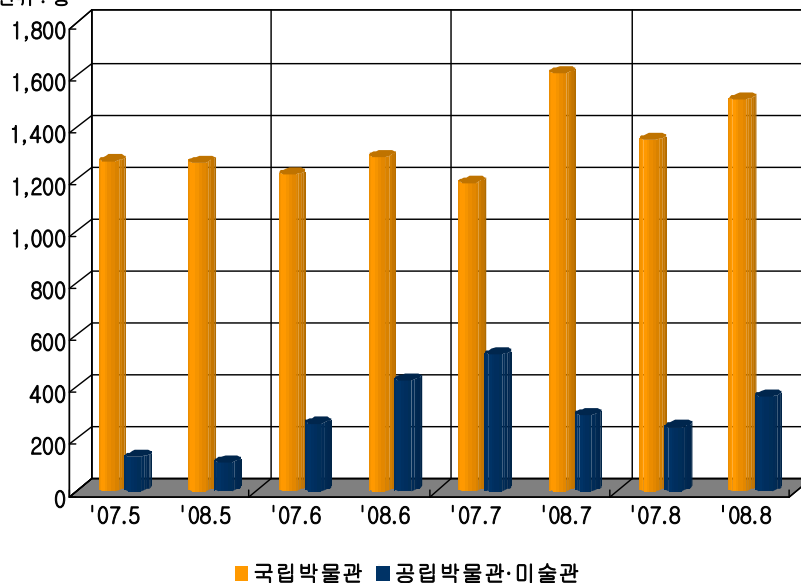
무료화 이후 1관당 외국인 관람객 통계(전년동기 대비)

단위 : 명

구분		국립박물관		공립박물관·미술관	
		관람객 수	변동률	관람객 수	변동률
5월	'07	1,267	-	130	-
	'08	1,265	-0.1%	110	-15.4%
6월	'07	1,219	-	261	-
	'08	1,288	+ 5.6%	428	+ 64%
7월	'07	1,186	-	523	-
	'08	1,609	+ 35.7%	294	-43.8%
8월	'07	1,352	-	245	-
	'08	1,506	+ 11.4%	363	+ 48.2%

무료화 이후 1관당 외국인 관람객 통계(전년동기 대비)

단위 : 명



(3) 연도별 유·무료 관람객 통계(2005-2008)

연도별 유·무료 관람객 통계(2005-2008)

단위 : 명

구분			'05	'06	'07	'08.1-4
유료 관람 자	국립박물관	관람객수	823,421	4,459,511	3,434,406	522,950
		비율	13.1%	62.6%	47.6%	48.2%
		대상관수	12	12	12	10
	공립박물관·미술관	관람객수	831,962	805,813	700,280	213,381
		비율	56%	55%	43%	52%
		대상관수	7	7	6	6
	사립박물관·미술관	관람객수	1,101,219	1,549,369	1,830,893	498,971
		비율	69%	75%	75%	76%
		대상관수	47	54	68	65
유료 관람 자 평 균	국립박물관	관람객수	68,618	371,626	286,201	52,295
		대상관수	12	12	12	10
	공립박물관·미술관	관람객수	118,852	115,116	116,713	35,564
		대상관수	7	7	6	6
	사립박물관·미술관	관람객수	23,430	28,692	26,925	7,676
		대상관수	47	54	68	65
무료 관람 자	국립박물관	관람객수	5,454,192	2,664,118	2,522,936	562,694
		비율	86.9%	37.4%	42.4%	41.8%
		대상관수	12	12	12	10
	공립박물관·미술관	관람객수	650,520	669,049	933,008	209,820
		비율	44%	45%	57%	51%
		대상관수	7	7	6	6
	사립박물관·미술관	관람객수	493,126	513,244	615,217	136,833
		비율	31%	25%	25%	21%
		대상관수	68	71	79	77
무료 관람 자 평 균	국립박물관	관람객수	454,516	222,010	210,245	51,154
		대상관수	12	12	12	11
	공립박물관·미술관	관람객수	92,931	83,631	103,668	26,228
		대상관수	7	8	9	8
	사립박물관·미술관	관람객수	7,252	7,229	7,788	1,777
		대상관수	68	71	79	77
총 관람 객수	국립박물관	관람객수	6,277,613	7,123,629	5,957,342	1,085,644
		대상관수	12	12	12	12
	공립박물관·미술관	관람객수	1,482,482	1,474,862	1,633,288	411,525
		대상관수	7	8	9	8
	사립박물관·미술관	관람객수	1,598,545	2,059,483	2,448,097	657,209

		대상관수	72	78	89	88
1관 당 평균 관람 객	국립박물관	관람객수	523,134	593,636	496,445	90,470
		대상관수	12	12	12	12
	공립박물관·미술관	관람객수	211,783	184,358	181,476	52,900
		대상관수	7	8	9	8
	사립박물관·미술관	관람객수	22,202	26,404	27,507	7,468
		대상관수	72	78	89	88

※ 사립박물관은 정확한 수치가 없을 경우 근접한 추산으로 표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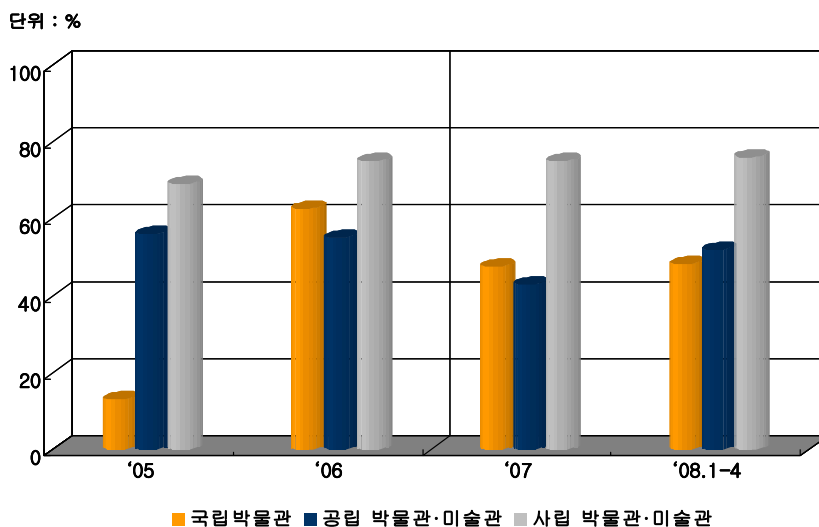
※ 국립박물관은 《국립박물관 무료화 시범실시에 따른 관람객 분석 및 파급효과 연구》의 2008년 10월 통계 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하였음.

아래의 그래프는 각 박물관의 유료관람자와 무료관람자의 수와 비율을 비교한 것이다. 12개 국립박물관의 2005년 유료관람자 수는 82만 3,421명으로 전체의 13.1%를 차지하였으나, 2006년에는 445만 9,511명으로 그 수도 5배가량 증가하였을 뿐 만 아니라, 전체의 62.6%를 차지하였다.

공립박물관·미술관의 유료관람객 수는 2005년 83만 1,962명으로 전체의 56%를 차지하였고, 2006년 80만 5,813명으로 55%, 2007년 70만 280명으로 43%, 2008년 1월에서 4월까지의 21만 3,381명으로 52%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사립박물관·미술관의 경우, 유료관람객의 비율이 대부분 70%를 넘어 다른 관에 비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2005년 유료관람객 수가 110만 1,219명으로 전체의 69%를 차지한 것을 제외하고, 2006, 2007년에는 각각 75%를, 2008년 1월에서 4월까지의 49만 8,971명으로 76%를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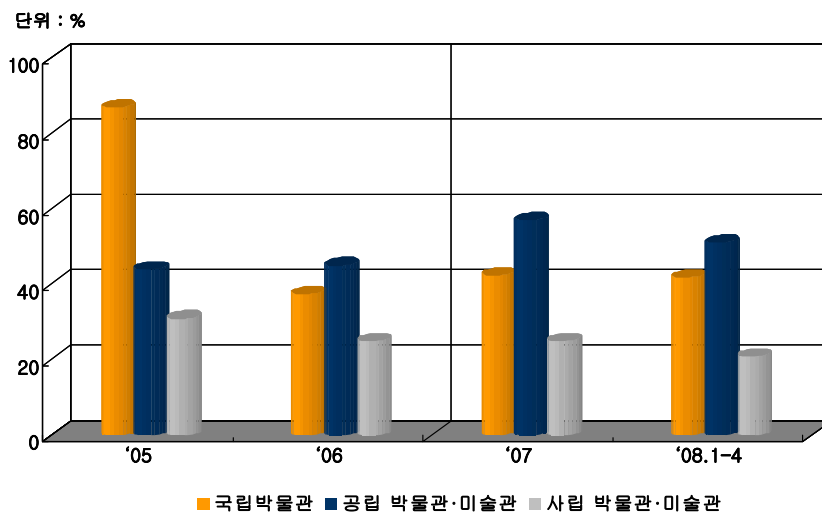
연도별 유·무료 관람객 통계(2005-2008)

유료관람자 비율



연도별 유·무료 관람객 통계(2005-2008)

무료관람자 비율



(4) 연도별 1관당 평균 관람객 및 관람료 통계

아래의 도표와 그래프는 연도별 1관당 평균 관람객 및 관람료 통계에 관한 것이다. 2008년 1월부터 4월의 경우 1년 전체 수치가 아니라 형평성 면에서 변동률은 배제하였다.

12개 국립박물관의 1관당 평균 관람객은 2005년 52만 3,134명에서 2006년 59만 3,636명으로 13.5% 증가하였다가, 2007년 49만 6,445명으로 다시 16.4%가 감소하였다. 그러나 관람료의 경우, 2005년 유료관람객 수가 전체의 13.1%만을 차지한 이유도 있겠지만, 2005년 3억 66만 5,600원에서 2006년 40억 241만 4,800원으로 1,231.2%의 큰 증가율을 보였다.

국립박물관·미술관은 2005년 21만 1,783명에서 2006년 18만 4,358명으로 12.9%가 감소하였고, 다시 2007년 18만 1,476명으로 1.5%가 감소하였다. 관람료 총액은 2005년 7억 6,350만 7,860원에서 2006년 7억 2,470만 9,270원으로 5%가 감소하였다가, 2007년 7억 7,168만 7,530원으로 6.4%가 증가하였다.

사립박물관·미술관은 2005년 2만 2,202명에서 2006년 2만 6,404명으로 18.9%가 증가하였고, 2007년 2만 7,507명으로 4.2%가 증가하였다. 관람료 총액은 관람객 증가율보다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 2005년 34억 3,740만 8,180원에서 2006년 55억 3,749만 2,100원으로 61%가 증가하였고, 2007년에는 74억 2,183만 4,384원으로 34%가 증가하였다.

연도별 1관당 평균 관람객 및 관람료 통계(2005-2008)

단위 : 명, 원

구분			'05	'06	'07	'08.1-4
1 관 당 평 균 관 람 객	국립 박물관	관람객수	523,134	593,636	496,445	90,470
		대상관수	12	12	12	12
		변동률	-	+ 13.5%	-16.4%	-
	공립 박물관·미술관	관람객수	211,783	184,358	181,476	52,900
		대상관수	7	8	9	8
		변동률	-	-12.9%	-1.5%	-
	사립 박물관·미술관	관람객수	22,202	26,404	27,507	7,468
		대상관수	72	78	89	88
		변동률	-	+ 18.9%	+ 4.2%	-
관 람 료 총 액	국립 박물관	관람객수	300,665,600	4,002,414,800	2,747,598,100	684,791,400
		대상관수	12	12	12	12
		변동률	-	+ 1,231.2%	-31.4%	-
	공립 박물관·미술관	관람객수	763,507,860	724,709,270	771,687,530	303,812,950
		대상관수	7	7	6	6
		변동률	-	-5%	+ 6.4%	-
	사립 박물관·미술관	관람객수	3,437,408,180	5,537,492,100	7,421,834,384	2,125,897,600
		대상관수	40	50	64	62
		변동률	-	+ 61%	+ 3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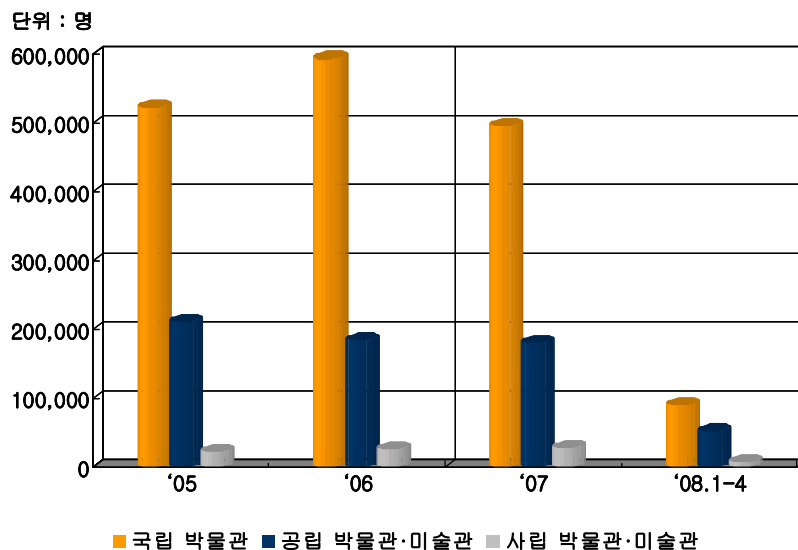
※ 국립박물관은 《국립박물관 무료화 시범실시에 따른 관람객 분석 및 과급효과 연구》의 2008년 10월 통계 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하였음.

※ 국립중앙박물관은 2008년 1-4월까지의 유·무료 관람객 수를 기재하지 않음.

※ 국립박물관의 2005년 관람료 총액 합계는 국립중앙박물관의 관람료 총액을 포함하지 않은 수치임.

연도별 1관당 평균 관람객 및 관람료 통계(2005-2008)

1관당 평균관람객



(5) 무료관람 및 유료특별전 고객 실적

아래의 도표와 그래프는 박물관별 무료관람 및 유료특별전의 고객 실적에 관한 것이다.

12개 국립박물관은 상설전의 관람객 수가 가장 많으며, 모든 해를 통틀어 5월에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2007년 63만 9,833명으로 교육·행사 참여자수인 4만 742명에 비해 약 16배 가량이 많다. 가장 차이가 적은 2008년 7월의 경우에도, 상설전 관람객 수는 36만 3,548명이고, 교육·행사 참여자 수는 6만 5,123명으로 약 6배 가량이 차이가 난다.

국립박물관·미술관 역시 교육·행사 참여자 수에 비해 상설전의 수가 월등히 많다. 5월은 2007년 상설전 관람객 수가 20만 46명인 것에 비해 교육·행사 참여자 수는 40명에 불과하였고, 2008년 역시 상설전 관람객 수는 16만 5,345명인 것에 비해 교육·행사의 참여자 수는 50명에 불과했다.

사립박물관·미술관 또한 상설전 등의 관람객 수가 가장 많으며, 2008년 8월에 8만 4,591명으로 가장 많은 수의 관람객이 관람하였다. 그러나 역시 상설전 등의 관람객 수에 비해 교육·행사 참여자 수는 1만 4,233명으로 약 6배 가량 적었고, 유료특별전 관람객 수 역시 9,285명으로 약 9배 가량이 적은 수였다.

무료관람 및 유료특별전 고객 실적(전년동기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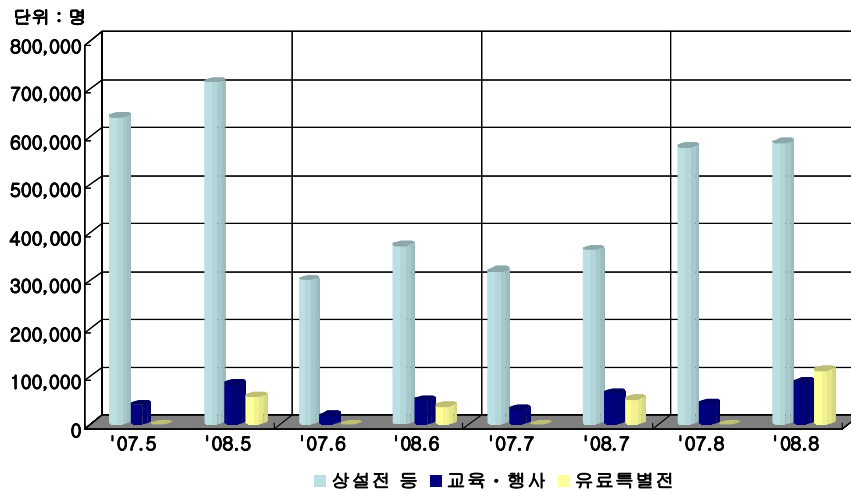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5월		6월		7월		8월	
			'07	'08	'07	'08	'07	'08	'07	'08
국립박물관	상설전 등	관람객수	639,833	712,813	301,316	372,876	319,014	363,548	577,265	585,955
	교육·행사	관람객수	40,742	83,558	17,916	50,889	30,941	65,123	43,777	88,128
	유료특별전	관람객수	0	58,343	0	38,216	0	52,250	0	112,585
	합계	관람객수	680,575	854,714	319,232	461,981	349,955	480,921	621,042	786,668
	평균	관람객수	56,715	71,226	26,603	38,498	29,163	40,077	51,754	65,556
		대상관수	12	12	12	12	12	12	12	12
국립박물관·미술관	상설전 등	관람객수	200,046	165,345	79,763	71,090	61,665	50,287	100,715	99,583
	교육·행사	관람객수	40	50	40	1,290	0	3,416	0	40
	유료특별전	관람객수	-	-	-	-	-	-	-	-
	합계	관람객수	200,086	165,395	79,803	72,380	61,665	53,703	100,715	104,822
	평균	관람객수	22,232	20,674	8,867	8,042	6,852	5,967	11,191	11,647
		대상관수	9	8	9	9	9	9	9	9
사립박물관·미술관	상설전 등	관람객수	73,990	75,755	55,641	54,427	54,511	64,103	80,192	84,591
	교육·행사	관람객수	22,333	16,794	14,259	9,903	11,295	9,201	21,170	14,233
	유료특별전	관람객수	5,611	4,610	4,299	2,536	6,649	6,499	17,395	9,285
	합계	관람객수	101,934	97,159	74,199	66,866	72,455	79,803	118,757	108,109

※ 국립박물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2008년 10월 집계 수치를 기준으로 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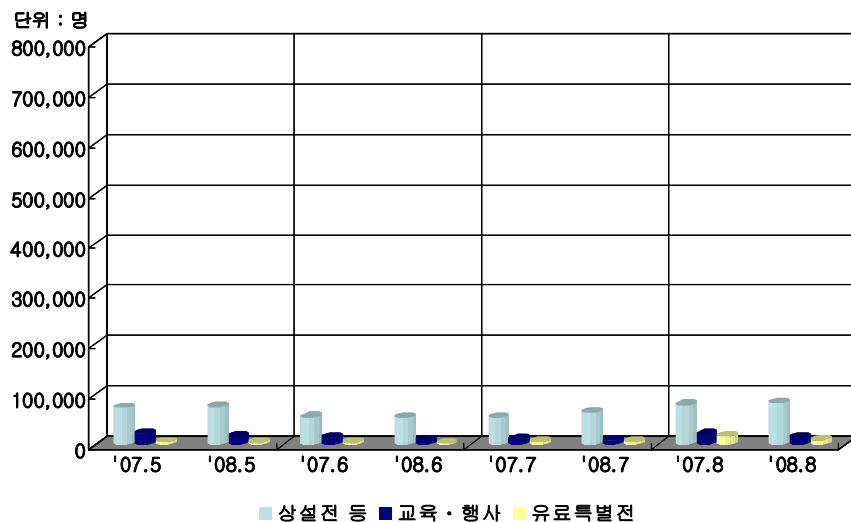
무료관람 및 유료특별전 고객 실적(전년동기 대비)

국립박물관



무료관람 및 유료특별전 고객 실적(전년동기 대비)

사립박물관·미술관



아래의 도표 및 그래프는 상설전 등의 고객 실적 변동률에 관한 것이다. 12개 국립박물관은 모든 해가 전년도 동기간과 비교해 증가하였다. 특히 6월에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2007년 30만 1,316명에서 2008년 37만 2,876명으로 23.7%가 증가하였다. 8월에는 1.5%로 가장 적은 증가율을 보였다.

공립박물관·미술관은 모든 해에 전년동기 대비 변동률이 감소하였으며, 가장 많이 감소한 7월의 경우 2007년 6만 1,665명에서 2008년 5만 287명으로 18.5%가 감소하였고, 가장 적게 감소한 8월의 경우 2007년 10만 715명에서 2008년 9만 9,583명으로 1.1%가 감소하였다.

사립박물관·미술관은 7월에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2007년 5만 4,511명에서

2008년 6만 4,103명으로 17.6% 증가하였다. 그러나 6월에는 2007년에 비해 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설전 등 고객 실적 변동률(전년동기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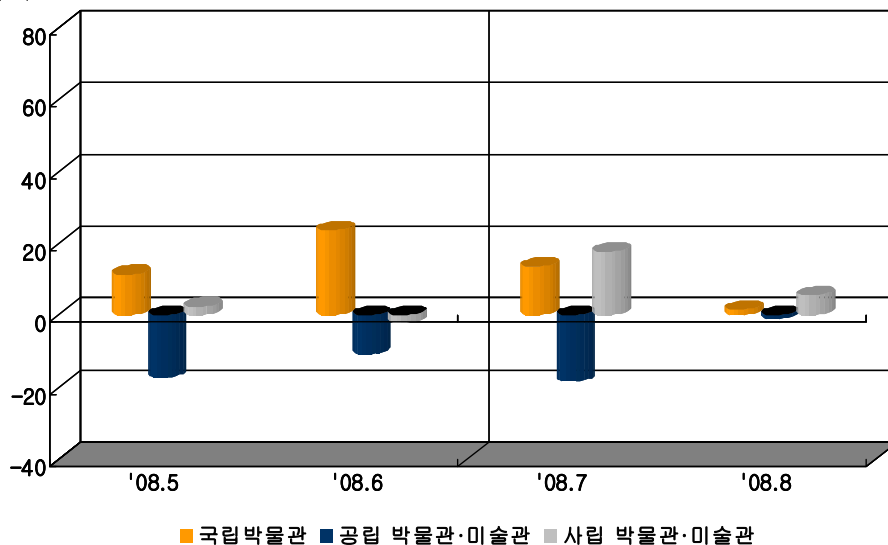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국립박물관		공립박물관·미술관		사립박물관·미술관	
		관람객 수	변동률	관람객 수	변동률	관람객 수	변동률
5월	'07	639,833	-	200,046	-	73,990	-
	'08	712,813	+ 11.4%	165,345	-17.3%	75,755	+ 2.4%
6월	'07	301,316	-	79,763	-	55,641	-
	'08	372,876	+ 23.7%	71,090	-10.9%	54,427	-2.2%
7월	'07	319,014	-	61,665	-	54,511	-
	'08	363,548	+ 14%	50,287	-18.5%	64,103	+ 17.6%
8월	'07	577,265	-	100,715	-	80,192	-
	'08	585,955	+ 1.5%	99,583	-1.1%	84,591	+ 5.5%

※ 국립박물관 12관, 공립박물관·미술관 9관, 사립박물관·미술관 100관 대비

상설전 등 고객 실적 변동률(전년동기 대비)

단위 : %



아래의 도표 및 그래프는 교육·행사 참여자 수에 관한 것이다. 12개 국립박물관은 전년동기 대비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6월은 2007년 1만 7,916명에서 2008년 5만 889명으로 184%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고, 가장 적은 증가율을 보인 8월 역시 2007년 4만 3,777명에서 2008년 8만 8,128명으로 101.3%가 증가하였다.

공립박물관·미술관은 2007년도 참여자 수가 워낙 미미하였고, 2007년 7-8월에는

참여자 수의 수치가 없기 때문에 변동률을 논한다는 것이 무리가 있겠지만, 2008년 6월의 경우, 2007년 40명에 비해 많은 수치인 1,290명이 참여하여 전년동기 대비 3,125%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사립박물관·미술관은 전년동기 대비 모든 해의 참여자 수가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8월은 2007년 2만 1,170명에서 2008년 1만 4,233명으로 32.8%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5, 6, 7월에는 각각 24.8%, 30.5%, 18.5% 감소하였다. 특히 7월에는 9,201명이 참여하여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교육·행사 등 고객 실적 변동률(전년동기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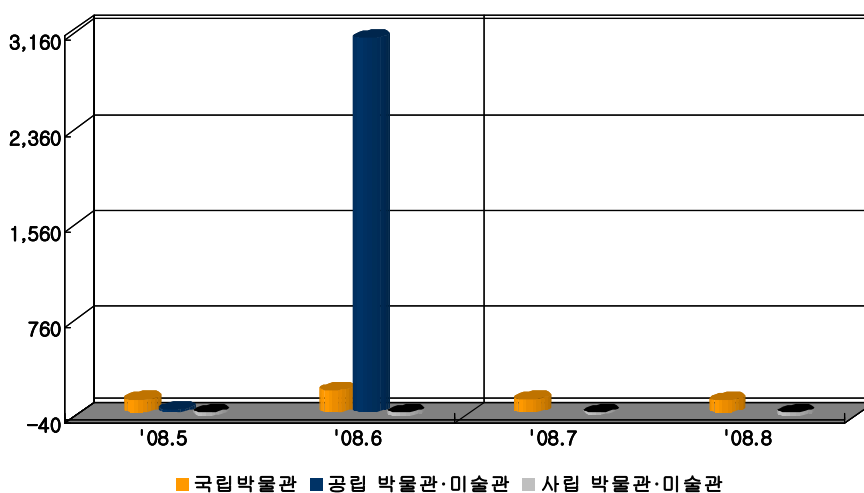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국립박물관		공립박물관·미술관		사립박물관·미술관	
		관람객 수	변동률	관람객 수	변동률	관람객 수	변동률
5월	'07	40,742	-	40	-	22,333	-
	'08	83,558	+105.1%	50	25%	16,794	-24.8%
6월	'07	17,916	-	40	-	14,259	-
	'08	50,889	+184%	1,290	3,125%	9,903	-30.5%
7월	'07	30,941	-	0	-	11,295	-
	'08	65,123	+110.5%	3,416	-	9,201	-18.5%
8월	'07	43,777	-	0	-	21,170	-
	'08	88,128	+101.3%	40	-	14,233	-32.8%

※ 국립박물관 12관, 공립박물관·미술관 9관, 사립박물관·미술관 100관 대상

교육·행사 등 고객 실적 변동률(전년동기 대비)

단위 : %



아래의 도표는 유료특별전 참여자 수에 관한 것이다. 이 경우, 12개 국립박물관은 2007년도의 수치가 없으며, 공립박물관·미술관의 경우는 수치 자체가 없다. 사

립박물관·미술관은 모든 해에 전년동기 대비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는데, 8월의 경우 2007년 1만 7,395명에서 2008년 9,285명으로 46.6%의 가장 큰 감소율을 보였다. 6월에는 2007년 4,299명에서 2008년 2,536명으로 41%가 감소하였고, 5월은 2007년 5,611명에서 2008년 4,610명으로 17.3%, 7월은 2007년 6,649명에서 2008년 6,499명으로 2.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료특별전 등 고객 실적 변동률(전년동기 대비)

단위 : 명

구분		국립박물관		공립박물관·미술관		사립박물관·미술관	
		관람객 수	변동률	관람객 수	변동률	관람객 수	변동률
5월	'07	0	-	-	-	5,611	-
	'08	58,343	-	-	-	4,610	-17.3%
6월	'07	0	-	-	-	4,299	-
	'08	38,216	-	-	-	2,536	-41%
7월	'07	0	-	-	-	6,649	-
	'08	52,250	-	-	-	6,499	-2.3%
8월	'07	0	-	-	-	17,395	-
	'08	112,585	-	-	-	9,285	-46.6%

※ 국립박물관 12관, 공립박물관·미술관 9관, 사립박물관·미술관 100관 대상

아래의 도표 및 그래프는 프로그램 통합 관람객 수에 관한 것이다. 공립박물관·미술관과 사립박물관·미술관의 경우 대부분 감소하였고, 12개 국립박물관은 모두 증가하였다.

6월에 12개 국립박물관은 2007년 31만 9,232명에서 2008년 46만 1,981명으로 44.7%가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인 반면, 공립박물관·미술관의 경우 2007년 7만 9,803명에서 2008년 7만 2,380명으로 9.3%가 감소하였고, 사립박물관·미술관 역시 9.9% 감소하였다.

사립박물관·미술관의 경우 가장 크게 증가한 달은 7월로 2007년 7만 2,455명에서 2008년 7만 9,803명으로 10.1%가 증가하였으나, 이는 12개 국립박물관이 가장 적게 증가한 5월보다 낮은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12개 국립박물관은 2007년 5월 68만 575명에서 2008년 5월 85만 4,714명으로 25.6%가 증가하였다.

프로그램 통합 고객 실적(전년동기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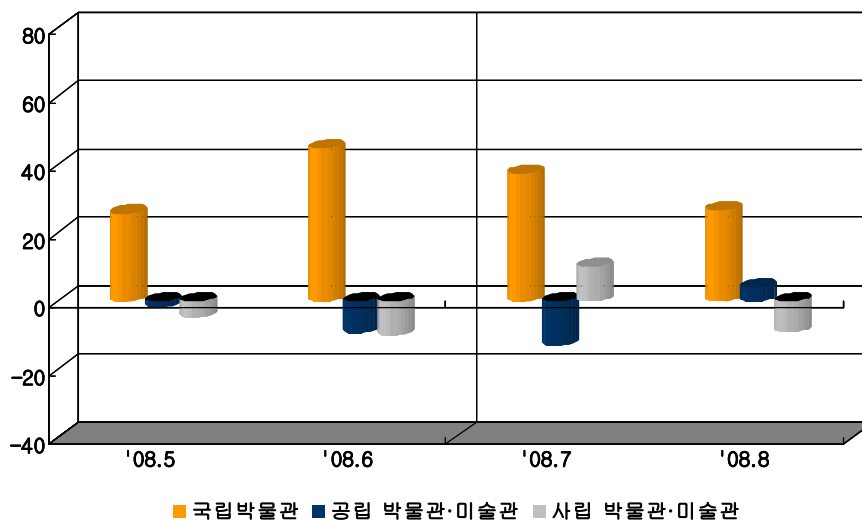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국립박물관		공립박물관·미술관		사립박물관·미술관	
		관람객 수	변동률	관람객 수	변동률	관람객 수	변동률
5월	'07	680,575	-	200,086	-	101,934	-
	'08	854,714	+ 25.6%	165,395	-1.7%	97,159	-4.7%
6월	'07	319,232	-	79,803	-	74,199	-
	'08	461,981	+ 44.7%	72,380	-9.3%	66,866	-9.9%
7월	'07	349,955	-	61,665	-	72,455	-
	'08	480,921	+ 37.4%	53,703	-12.9%	79,803	+ 10.1%
8월	'07	621,042	-	100,715	-	118,757	-
	'08	786,668	+ 26.7%	104,822	+ 4%	108,109	-9%

※ 국립박물관 12관, 공립박물관·미술관 9관, 사립박물관·미술관 100관 대상

교육·행사 등 고객 실적 변동률(전년동기 대비)

단위 : %



III. 외국의 뮤지엄 관람료 무료화 제도와 비교분석

1. 주요국가의 무료관람제도

1) 영국

(1) 영국 뮤지엄의 무료관람제도 시행 배경

① 무료관람제도 시행 범위

문화·미디어·스포츠부(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DCMS)가 지원하는 뮤지엄의 무료관람제도는 1999년 4월 어린이들에게, 2000년 4월에는 6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그리고 2001년 12월에는 이를 전면적으로 확대 적용하였다.

테이트 모던(Tate Modern)은 2000년 5월 1일부터 무료 개방되었고, 웨이크필드(Wakefield)의 국립석탄박물관(National Coal Mining Museum)은 2002년 4월 8일부터, 맨체스터(Manchester)의 제국전쟁박물관(Imperial War Museum North)은 2002년 7월에, 프레스턴(Preston)의 국립축구박물관(National Football Museum)은 2003년 4월에, 맨체스터(Manchester)의 인간역사박물관(People's History Museum)은 2005년 7월에, 국제노예박물관(International Slavery Museum)은 2007년 8월에 무료화 되었다. 신설될 리버풀박물관(Museum of Liverpool)은 2010/2011년에 무료로 개관된다.³⁾

2001년 12월 1일 무료관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2006년 12월까지 아래의 뮤지엄과 갤러리들에 대한 무료관람이 가능해졌다.⁴⁾

무료관람을 시행한 영국의 뮤지엄(2001년 12월 1일 이후)

지역	박물관 명	비고
런던	과학박물관(Science Museum)	
	자연사박물관(Natural History Museum)	
	빅토리아 앤 앨버트 뮤지엄(Victoria & Albert Museum/ V&A)	커벤트 가든의 시어터 뮤지엄(Theatre Museum in Covent Garden) 포함, 2001년 11월 22일부터 무료 관람시행.
	제국전쟁박물관(Imperial War Museum)	
	그리니치 국립해양박물관(National Maritime Museum)	그리니치의 왕립 천문대와 퀸스 하

3) 'Three new free museums to 'grace' Liverpool as part of European Capital of Culture', 1 July 2008. http://www.culture.gov.uk/reference_library/media_releases/5233.aspx

4) http://www.culture.gov.uk/reference_library/media_releases/2603.aspx

	me Museum in Greenwich)	우스(Royal Observatory and Queen's House, Greenwich) 포함.
	런던박물관(Museum of London)	
지방	요크 국립철도박물관(National Railway Museum in York)	
	리즈와 포트 넬슨의 왕립무기고박물관(Royal Armouries in Leeds and Fort Nelson)	
	맨체스터 과학산업박물관(Museum of Science and Industry in Manchester)	
	하트퍼드셔 트링 동물박물관(Zoological Museum in Tring, Hertfordshire)	
	국립리버풀뮤지엄(National Museums Liverpool)	리버풀세계뮤지엄(World Museum Liverpool), 워커 아트 갤러리(Walker Art Gallery), 메르사이드 해양박물관(Merseyside Maritime Museum), 레이디 레버 아트갤러리(Lady Lever Art Gallery), 수들리 하우스(Sudley House) 등을 포함.
	웨이크필드 국립석탄박물관(National Coal Mining Museum for England in Wakefield)	2002년 4월 8일부터 무료관람시행.
	맨체스터 노스 제국전쟁박물관(Imperial War Museum North in Manchester)	2002년 7월에 개관하면서 무료관람시행.
	프레스톤 국립축구박물관(National Football Museum in Preston)	2003년 3월 19일부터 무료관람시행.
	맨체스터 인간역사박물관(People's History Museum in Manchester)	2005년 10월 15일부터 무료관람시행.

정부의 지원을 받는 국립박물관들은 이러한 정책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이미 무료관람을 시행하고 있었다.⁵⁾

무료관람 시행이전부터 무료였던 국립박물관

- 대영박물관(British Museum)
- 제프리뮤지엄(Geffrye Museum)
- 호니만뮤지엄과 정원(Horniman Museum and Gardens)
- 내셔널갤러리(National Gallery)
- 바스널 그린의 빅토리아 앤 앨버트 뮤지엄 어린이관(V&A Museum of Childhood)

5) http://www.culture.gov.uk/reference_library/media_releases/2603.aspx

od, Bethnal Green)

- 브래드퍼드의 내셔널미디어뮤지엄(National Media Museum, Bradford)
- 국립초상화갤러리(National Portrait Gallery)
- 존 손경 뮤지엄(Sir John Soane's Museum)
- 테이트 브리튼, 테이트 모던⁶⁾과 테이트 리버풀(Tate Britain, Tate Modern and Tate Liverpool)
- 타인 앤 웨어 뮤지엄(Tyne & Wear Museums)⁷⁾
- 월리스 컬렉션(Wallace Collection)

2005년 니콜라스 구디슨 경(Sir Nicholas Goodison)의 ‘뮤지엄을 위한 가장 좋은 지원 : 개인 기부와 정부 지원(Securing the Best for our Museums : Private Giving and Government Support)’이라는 보고에 따라, 정부는 무료관람제도는 대학박물관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⁸⁾

이로써 전국의 48개 대학 박물관과 갤러리는 2005년 8월 10일부터 정부의 무료관람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당시 문화부 장관(Culture Secretary)이었던 데이비드 래미(David Lammy)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무료관람제도가 캠브리지(Cambridge)의 피츠윌리엄뮤지엄(Fitzwilliam Museum)과 옥스퍼드(Oxford)의 애슈몰린뮤지엄(Ashmolean Museum), 뉴캐슬(Newcastle)에 헨콕뮤지엄(Hancock Museum), 맨체스터뮤지엄(Manchester Museum)과 같은 대학박물관으로 확대되었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며, 영국의 문화유산을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들 대학 박물관과 갤러리도 부가가치세(VAT)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⁹⁾

2008년 7월 1일에는 리버풀뮤지엄과 국립노예박물관 및 리버풀대학의 빅토리아 갤러리와 뮤지엄(University of Liverpool's Victoria Gallery and Museum)이 뮤지엄의 영구 소장품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뮤지엄과 갤러리 리스트에 추가되었다.

이 무료관람제도는 정부문화정책의 기초인 동시에, 투자 증가와 세금 변경을 통하여 박물관이 그들의 운영비에서 지불했던 부가가치세(VAT) 환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발표에 대해 문화부 장관인 앤디 번햄(Andy Burnham)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는 매우 놀라운 성과로 리버풀(Liverpool)을 유럽의 문화 수도로 만드는 계기

6) 테이트 모던은 2000년 5월에 무료로 오픈되었음.

7) 서그더넘(Segedunum)의 한 개 분관만 유료였다가 2006년 4월 어린이들에게 무료로 개방됨.

8) http://www.culture.gov.uk/reference_library/media_releases/5233.aspx

9) http://www.culture.gov.uk/reference_library/media_releases/3076.aspx

가 되는 해이며, 지역사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약속하게 될 것이다. 국립박물관들을 위한 이 무료관람제도는 매우 성공적이었으며, 최근 통계에 따르면 과거 관람료를 받았을 때보다 관람객 수가 무료관람을 시행한 2001년 12월 이후 두 배가 되었다. 370만명의 추가 관람객이 무료관람시행 이후 6년 동안 국립박물관과 갤러리를 방문했다. 이는 관람객을 위한 관람료 폐지의 영향임을 입증한다. 또한 이 무료관람 리스트에 3개의 박물관이 추가됨으로써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이 세계적인 수준의 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수집품을 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¹⁰⁾

또한 재무부 장관(Financial Secretary to the Treasury)인 제인 케네디(Jane Kennedy MP)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이 계획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이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영국의 뛰어난 뮤지엄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 이러한 변화는 메르사이드(Merseyside) 지역의 국립 및 대학 박물관과 갤러리가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VAT refund scheme)로 영국 국세청(HMRC)의 부가가치세(VAT)를 환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다.”¹¹⁾

가. 스코틀랜드와 웨일스, 북부 아일랜드의 관람료 정책

• 웨일스(Wales)

2001년 4월부터 웨일스의 모든 국립박물관에 대해 무료관람제도가 시행되었다. 스완지(Swansea)의 국립해안박물관(National Waterfront Museum)은 2005년 10월에 무료로 개관하였다.

• 스코틀랜드(Scotland)

스코틀랜드의 국립갤러리들은 그들의 소장품에 한해 이전부터 무료관람제도를 시행하고 있었고 기획전에는 관람료를 징수한다. 스코틀랜드 국립박물관들(National Museums of Scotland)은 왕립뮤지엄(Royal Museum)과 스코틀랜드뮤지엄(Museum of Scotland)에 대해 1998년 1월 5일부터 관람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스코틀랜드 행정부(Scottish Executive)의 추가지원을 통해 2001년 4월 1일부터 무료관람제도를 재시행하였다.

그러나 국립비행박물관(National Museum of Flight)과 국립복식박물관(National Museum of Costume) 등의 다른 국립박물관들은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다. 국립전쟁박물관(National War Museum)의 관람료는 에든버러 캐슬(Edinburgh Castle)의 관람료로 충당된다.

10) http://www.culture.gov.uk/reference_library/media_releases/5233.aspx

11) http://www.culture.gov.uk/reference_library/media_releases/5233.aspx

• 북아일랜드(Northern Ireland)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에도 불구하고, 북아일랜드의 뮤지엄들은 무료관람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북아일랜드의 5개 뮤지엄 중 4개 뮤지엄이 유료이다. 단, 본래 관람료가 무료였던 얼스터뮤지엄(Ulster Museum)만이 여전히 무료관람을 시행하고 있다.¹²⁾

영국 주요지역의 국립 뮤지엄 관람객수

단위 : 100만명

구분	200 0/0 1	변 화 율 (%)	200 1/0 2	변 화 율 (%)	200 2/0 3	변 화 율 (%)	200 3/0 4	변 화 율 (%)	200 4/0 5	변 화 율 (%)	200 5/0 6	변 화 율 (%)	200 6/0 7
과거 유료였던 잉글랜드의 뮤지엄들	7.7 3	24	9.5 5	36	12. 96	7	13. 85	-1	13. 75	-5	13. 07	15	15. 07
이미 무료였던 잉글랜드의 뮤지엄들	19. 94	-3	19. 41	0	19. 35	3	19. 90	4	20. 78	-7	19. 35	15	22. 21
잉글랜드의 모든 뮤지엄들 ¹³⁾	28. 90	5	30. 25	11	33. 61	4	35. 05	3	36. 09	-6	33. 98	14	38. 72
스코틀랜드의 국립 박물관들	1.0 0	25	1.2 5	6	1.3 3	-3	1.2 9	12	1.4 5	10	1.5 9	-11	1.4 2
스코틀랜드의 국립 갤러리들	1.0 0	10	1.1 0	-18	0.9 0	33	1.2 0	8	1.2 9	9	1.4 0	9	1.5 3
스코틀랜드의 모든 뮤지엄들	2.0 0	18	2.3 5	-5	2.2 3	12	2.4 9	10	2.7 4	9	2.9 9	-1	2.9 5
웨일스의 모든 뮤지엄들	0.6 7	113	1.4 3	-10	1.2 8	-5	1.2 2	7	1.3 1	2	1.3 4	14	1.5 3
북아일랜드의 뮤지엄들	0.4 7	60	0.7 5	-7	0.7 0	7	0.7 5	8	0.8 1	-8	0.7 5	-7	0.6 9 ¹⁴⁾

※ 출처 : 영국 문화·미디어·스포츠부(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DCM S)의 자료 제공.

12) 영국 문화·미디어·스포츠부(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DCMS)의 사이마 미르자(Saima Mirza)(relationship Manager/ Museums Culture Directorate DCMS)와의 인터뷰에서 자료제공. 2008. 8. 유은복.

13) 유료관람제도를 시행하는 뮤지엄도 포함함.

14) 얼스터뮤지엄(Ulster Museum)은 2006년 10월부터 시설 수리로 인해 휴관함.

②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

1998년 정부는 주요 국립뮤지엄과 갤러리에 전시되고 있는 소장품에 대한 무료 관람을 약속한 바 있으며, 이는 노동당 정권이 집권할 때마다 내세운 정책이었다.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과 무료화 하는 과정에서의 하나의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 징수 문제였다.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많은 박물관과 갤러리가 그들이 사업 활동에 종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들이 매입할 때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가 관람료 징수가 폐지될 때는 없어지게 된다. 왜냐하면 부가가치세를 허용하는 사업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환급 권리 자체가 무효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보상하기 위해 2001년 박물관과 갤러리에 대해 ‘특별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special VAT refund scheme)’가 도입되어 무료관람을 시행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하였다.

문화·미디어·스포츠부의 지원을 받는 21개 국립박물관과 갤러리 중 9개관은 관람객들 모두에게 혹은 일부에게만 관람료를 받아왔다. 정부는 부가가치세라는 장벽을 제거하고 뮤지엄과 갤러리로 하여금 그 관람료 수입의 손실을 보상해줌으로써 무료관람이 가능하게 하였다. 무료관람제도에 참여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VAT refund scheme)의 혜택을 받게 될 뮤지엄의 리스트는 공공부문 정보실 웹사이트에서 검색된다.¹⁵⁾

이 제도는 이전부터 항상 무료였던 대영박물관과 국립초상화갤러리, 그리고 내셔널갤러리와 같이 문화·미디어·스포츠부의 지원을 받는 박물관과 갤러리에까지 확산되었으며, 무료관람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수입부분을 회복함으로써 이를 지속하기로 하였다. 국립박물관들의 이사회와 집행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계속해서 무료관람을 시행할지 또는 관람료를 징수할지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각 기관의 이사회에 의존한다.

2003년 4월부터 무료관람제도를 시행해온 프레스톤의 국립축구박물관은 2005년 7월 19일부터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가 적용되었다. 맨체스터의 인간역사박물관도 2005년부터 무료관람을 시행하였다.¹⁶⁾

③ 정부보조금 지원

문화·미디어·스포츠부는 주요 국립뮤지엄과 갤러리들이 그들의 재정 상태에 차질 없이 무료관람제도를 실행하도록 하기 위해 그들이 지원하는 뮤지엄과 갤러리의 연간 예산가운데 약 4천만 파운드(한화 약 741억 8,600만원)를 책정하고 있다.

2008년 7월 현재 문화·미디어·스포츠부는 뮤지엄과 갤러리를 위해 연간 지원

15) http://www.culture.gov.uk/reference_library/media_releases/5233.aspx

16) http://www.culture.gov.uk/reference_library/media_releases/2250.aspx

하는 3억 4천만 파운드(한화 약 6,305억 8천만원)의 예산한도 내에서, 연간 4,200만 파운드(한화 약 778억 9,6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

문화·미디어·스포츠부는 14개 국립박물관을 포함해 22개 뮤지엄과 갤러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타인 앤 위어 뮤지엄과 맨체스터의 과학산업박물관(Museum of Science and Industry in Manchester)은 2006-2007년 정부보조금 약 3억 2천만 파운드(한화 약 5,934억 9천만원)를 지원받았다. 2000/01에서 2007/08년까지 비정부 기구로 분리되고, 문화·미디어·스포츠부가 지원하는 22개 뮤지엄과 갤러리 중 17개에 분배된 정부보조금은 다음과 같다.

2000/01부터 2007/08년 문화·미디어·스포츠부의 국립뮤지엄 정부보조금

단위 : 100만 파운드

	2000-1	2001-2	2002-3	2003-4	2004-5	2005-6	2006-7	2007-8
백만 파운드	226.29	241.46	264.96	275.37	280.37	291.99	314.93	335.66
증가율 (%)	+3.65%	+8.0%	+9.7%	+4.0%	+1.7%	+4.1%	+7.9%	+6.6%

문화·미디어·스포츠부는 1997년과 2008년 사이에 국립뮤지엄과 갤러리에 대한 정부보조금이 63%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위의 도표에서 알 수 있지만 2000/01년부터 5년 동안 제공된 13억 파운드(한화 약 2조 4,110억 6천만원)는¹⁷⁾ 과거 관람료를 징수했던 박물관의 무료관람제도 시행에 따른 약 1억 4천만 파운드(한화 약 2,596억 5천만원)의 보상금이 포함된 것이다. 문화·미디어·스포츠부가 지원하는 ‘국립뮤지엄과 갤러리’는 ‘국립’이라는 말을 가진 모든 박물관과 갤러리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¹⁸⁾

2000-2011년 문화·미디어·스포츠부가 각 뮤지엄에 지원하는 정부보조금

단위 : 100만 파운드

박물관 명	구분	2000-01	2001-02	2002-03	2003-04	2004-05	2005-06	2006-07	2007-08	2008-09	2009-10	2010-11
대영박물관 (British Museum)	합계	34.94	36.07	36.87	37.67	37.92	39.61	42.85	44.82	49.88	51.03	53.22
	현금	34.9	35.9	35.9	35.3	35.4	37.5	40.3	41.5	42.7	43.8	45.0

17) 5년간의 정부보조금을 더하면 12억 8,845만 파운드가 되어 표에 기록된 금액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18) <http://www.publications.parliament.uk/pa/cm200607/cmselect/cmcmums/176/176i.pdf> ‘2000-2011년 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가 각 뮤지엄에 지원한 정부보조금’은 사이마 미르자(Saima Mirza)(relationship Manager/ Museums Culture Directorate, DCMS)와의 인터뷰에서 자료제공. 2008. 8. 유은복.

		4	7	7	7	2	9	2	7	0	5	3
	현물	-	0.10	0.90	2.30	2.50	2.01	2.53	3.25	7.18	7.18	8.19
디자인박물관 (Design Museum)	합계	0.00	0.20	0.20	0.20	0.59	0.34	0.48	0.50	0.41	0.43	0.44
	현금	0.00	0.20	0.20	0.20	0.29	0.34	0.38	0.40	0.41	0.43	0.44
	현물	0.00	0.00	0.00	0.00	0.30	0.00	0.10	0.10	0.00	0.00	0.00
제프리뮤지엄 (Geffrye Museum)	합계	1.18	1.17	1.27	1.26	1.81	1.43	1.69	1.86	1.75	1.79	1.84
	현금	1.18	1.15	1.17	1.26	1.35	1.33	1.39	1.46	1.60	1.64	1.69
	현물	거래 없음	0.02	0.10	0.00	0.46	0.10	0.30	0.40	0.15	0.15	0.15
호니만뮤지엄 (Horniman Museum)	합계	3.33	3.11	3.25	3.28	3.66	3.68	3.93	4.35	4.76	4.57	4.68
	현금	3.33	3.09	3.17	3.28	3.51	3.53	3.73	3.95	4.06	4.17	4.28
	현물	거래 없음	0.01	0.08	0.00	0.15	0.15	0.20	0.40	0.70	0.40	0.40
제국전쟁박물관 (Imperial War Museum)	합계	11.74	13.12	16.35	16.54	17.49	18.54	20.61	22.18	23.59	24.16	24.75
	현금	11.74	12.87	15.99	16.24	16.89	17.82	18.36	18.93	19.44	19.96	20.50
	현물	거래 없음	0.25	0.36	0.30	0.60	0.73	2.25	3.25	4.15	4.20	4.25
런던박물관 (Museum of London)	합계	4.48	4.95	6.29	6.57	6.51	6.63	7.93	8.81	-	-	-
	현금	4.48	4.92	5.59	6.27	6.51	6.63	6.93	7.21	-	-	-
	현물	거래 없음	0.03	0.70	0.30	0.00	0.00	1.00	1.60	-	-	-
맨체스터 과학산업박물관 (Museum of Science & Industry in Manchester)	합계	2.68	2.74	3.41	3.30	3.51	3.74	4.13	4.17	4.80	4.99	5.10
	현금	2.68	2.51	3.06	3.10	3.41	3.44	3.78	3.77	3.87	3.98	4.09
	현물	거래 없음	0.23	0.35	0.20	0.10	0.30	0.35	0.40	0.93	1.01	1.01
잉글랜드 국립석탄박물관 (National Coal Museum)	합계	1.15	1.33	2.07	2.41	2.41	2.54	2.53	2.66	2.73	2.81	2.88
	현금	1.15	1.33	2.05	2.41	2.41	2.43	2.53	2.66	2.73	2.81	2.88

Coal Mining Museum of England)	현물	거래 없음	0.00	0.02	0.00	0.00	0.11	0.00	0.15	0.00	0.00	0.00
국립축구박물관(National Football Museum)	합계	-	-	-	0.10	0.10	0.10	0.10	0.10	0.10	0.11	0.11
	현금	-	-	-	0.10	0.10	0.10	0.10	0.10	0.10	0.11	0.11
	현물	-	-	-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내셔널갤러리(National Gallery)	합계	19.22	19.95	20.45	20.45	21.23	21.99	24.04	25.57	26.87	27.29	29.22
	현금	19.22	18.10	19.45	19.45	19.53	20.99	21.79	22.32	22.92	23.54	24.17
	현물	거래 없음	1.85	1.00	1.00	1.70	1.00	2.25	3.25	3.95	3.75	5.05
국립해양박물관(National Maritime Museum)	합계	11.66	12.59	13.68	14.01	15.73	15.24	17.09	18.41	19.31	18.98	19.42
	현금	11.66	11.78	13.14	13.46	14.13	14.54	15.34	15.41	15.56	15.98	16.42
	현물	거래 없음	0.81	0.54	0.55	1.60	0.70	1.75	3.00	3.75	3.00	3.00
국립과학산업박물관(National Museum of Science & Industry)	합계	24.35	26.70	31.25	34.75	33.12	34.11	35.70	38.48	39.16	40.61	41.58
	현금	24.35	26.60	29.15	31.30	31.52	32.41	33.45	34.23	35.16	36.11	37.08
	현물	거래 없음	0.10	2.10	3.45	1.60	1.70	2.25	4.25	4.00	4.50	4.50
국립리버풀뮤지엄(National Museums Liverpool)	합계	14.01	15.47	16.57	17.33	17.33	18.16	21.20	21.83	22.49	22.97	24.56
	현금	14.01	15.07	15.52	16.28	16.93	17.61	18.65	19.23	19.49	20.02	21.96
	현물	거래 없음	0.40	1.05	1.05	0.40	0.55	2.55	2.60	3.00	2.95	2.60
국립초상화갤러리(National Portrait Gallery)	합계	5.14	5.64	5.73	5.71	6.11	6.45	6.76	7.17	7.69	7.74	7.88
	현금	5.14	5.16	5.46	5.46	6.01	6.35	6.54	6.87	7.05	7.24	7.44
	현물	거래 없음	0.30	0.27	0.25	0.10	0.10	2.20	0.30	0.64	0.50	0.44
자연사박물관(Natural History)	합계	30.41	32.38	38.09	39.60	39.65	41.47	43.14	45.09	51.12	51.08	50.32
	현금	30.41	32.38	35.59	36.10	37.55	39.37	40.84	41.89	43.22	44.78	46.32

Museum)		1	8	9	0	5	7	9	4	7	3	2
	현물	거래 없음	0.00	2.50	3.50	2.10	2.10	2.25	3.25	7.85	6.35	4.00
인간역사박물관(People's History Museum)	합계	-	-	-	0.15	0.15	0.15	0.16	0.16	0.17	0.17	0.18
	현금	-	-	-	0.15	0.15	0.15	0.16	0.16	0.17	0.17	0.18
	현물	-	-	-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왕립무기고박물관(Royal Armouries)	합계	5.23	5.95	6.16	6.29	6.89	7.28	7.65	8.31	8.11	8.32	8.53
	현금	5.23	5.45	5.66	6.29	6.54	6.78	7.05	7.41	7.61	7.82	8.03
	현물	거래 없음	0.50	0.50	0.00	0.35	0.50	0.60	0.90	0.50	0.50	0.50
존 손경 뮤지엄 (Sir John Soane's Museum)	합계	0.59	0.70	0.70	1.05	0.78	1.09	1.18	1.01	1.28	1.18	1.21
	현금	0.59	0.70	0.70	1.05	0.78	1.09	0.98	1.01	1.10	1.13	1.16
	현물	거래 없음	0.00	0.00	0.00	0.00	0.00	0.20	0.00	0.18	0.05	0.05
테이트 갤러리(Tate Gallery)	합계	24.8 8	26.7 6	27.7 8	30.2 8	29.8 8	31.8 0	33.9 7	35.9 3	46.7 8	57.6 6	58.5 7
	현금	24.8 8	26.7 6	27.1 8	29.3 8	28.5 8	29.8 0	30.7 2	31.6 8	32.5 3	33.4 1	34.3 2
	현물	거래 없음	0.00	0.60	0.90	1.30	2.00	3.25	4.25	14.2 5	24.2 5	24.2 5
타인 앤 웨어 뮤지엄(Tyne & Wear Museums)	합계	0.99	1.00	1.00	1.10	1.20	1.71	1.86	2.33	2.36	2.40	2.94
	현금	0.99	0.98	1.00	1.10	1.20	1.21	1.26	1.33	1.36	1.40	1.44
	현물	거래 없음	0.02	0.00	0.00	0.00	0.50	0.60	1.00	1.00	1.00	1.50
빅토리아 앤 앨버트 뮤지엄(V&A)	합계	30.4 5	32.4 9	34.6 2	34.8 4	36.1 9	38.2 3	39.6 1	41.7 8	43.6 5	44.7 6	45.9 0
	현금	30.4 5	30.7 4	33.4 7	33.8 4	34.9 4	36.2 3	37.3 6	38.5 3	40.2 5	41.3 6	42.5 0
	현물	거래 없음	1.75	1.15	1.00	1.25	2.00	2.25	3.25	3.40	3.40	3.40
월리스 컬렉션 (Wallace Collection)	합계	2.07	2.16	2.61	3.01	2.59	2.58	3.53	4.16	4.23	4.30	4.38
	현금	2.07	2.01	2.08	2.61	2.44	2.43	2.53	2.66	2.73	2.80	2.88
	현물	거래	0.15	0.53	0.40	0.15	0.15	1.00	1.50	1.50	1.50	1.50

		없음										
합계 (무료관람보 상 포함)	합계	228. 49	244. 46	268. 34	279. 91	284. 84	296. 86	320. 15	339. 68	361. 24	377. 33	387. 68
	현금	228. 49	237. 76	255. 59	264. 71	270. 18	282. 16	294. 25	302. 73	304. 12	312. 64	322. 89
	현물	거래 없음	6.52	12.7 5	15.2 0	14.6 6	14.7 0	27.8 8	37.1 0	57.1 3	64.6 9	64.7 9
무료관람 보상	-	13.0 0	19.0 0	33.0 0	35.0 0	40.0 0	40.0 0	41.0 0	42.0 0	43.0 0	-	-

※ 출처 : 영국 문화·미디어·스포츠부(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DCM S)의 자료 제공.

이와 같은 정부의 지원액수들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이어졌다. 테이트 뮤지엄의 캐롤라인 콜리어(Caroline Collier)는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정부의 직접지원과 복권기금을 언급하고 있다.

정부의 테이트 뮤지엄의 지원은 매우 괄목할만합니다. 테이트모던의 새로운 자본금 개발 프로젝트(New Capital Project of Tate Modern)에 정부는 큰 투자를 했지요. 이것은 직접적인 정부 지원이며 그 덕분에 크기만 해도 두 배 가량 커진 셈입니다. 복권기금도 테이트 자본금 개발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많은 뮤지엄들의 주요 컬렉션들이 몇 백만 밀리언 파운드의 복권기금에 의존하고 있고 매우 중요하게 작용했지만, 앞으로는 2012년 올림픽에 투자 방향이 전환될 것이 예측되면서 점점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예견되고 있습니다.¹⁹⁾



런던의 테이트 브리튼 뮤지엄



테이트 뮤지엄 캐롤라인 콜리어
(Caroline Collier) 디렉터

19) 테이트 뮤지엄, 캐롤라인 콜리어(Caroline Collier) 디렉터, Tate National 현지인터뷰. 2008년 8월 28일

(2) 무료관람제도 시행 결과

① 무료화 이후 관람객수의 변화

영국 뮤지엄들의 무료관람제도는 정부 문화정책의 일환으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영국의 문화·미디어·스포츠부가 2001년 12월부터 시행한 국립뮤지엄과 갤러리에 대한 무료관람제도 이후 2년 동안 이들 뮤지엄의 관람객 수는 약 1,100만명 정도 증가하였다. 2002년 관람객 수는 530만명이 증가하였으며, 2003년에는 560만명이 증가하였다. 2001년과 비교해 2003년의 관람객 수는 7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²⁰⁾

이러한 결과는 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이마 미르자(Saima Mirza) 영국 문화·미디어·스포츠부의 뮤지엄, 문화 담당 디렉터(Relationship Manager/ Museums Culture Directorate, DCMS) 역시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관람객수에서 증명되듯이 매우 성공한 정책으로 판단하고 있다.²¹⁾

2001년 12월 무료관람제도를 시행하기 이전부터 무료관람을 실시해왔던 박물관들의 관람객수는 같은 기간 총 8% 증가하였고, 이들 박물관 중 하나인 테이트 브리튼의 관람객수는 57% 늘어났다. 그러나 이들 14개의 박물관 중 세 곳의 관람객수는 감소하였다.²²⁾



사이마 미르자(Saima Mirza) 영국 문화·미디어·스포츠부의 뮤지엄, 문화 담당 디렉터(Relationship Manager/ Museums Culture Directorate, DCMS)



런던의 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 건물

2004년, 유료인 뮤지엄의 경우 정부지원금으로 인해 관람료를 저렴하게 책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약 600만명 이상의 관람객들이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영박물관

20) http://www.culture.gov.uk/Reference_library/Press_notices/archive_2004/dcms025_04.htm

21) 사이마 미르자(Saima Mirza) 영국 문화 미디어 스포츠 부의 뮤지엄, 문화 담당 디렉터레트(Relationship Manager/ Museums Culture Directorate, DCMS)와의 현지인터뷰. 2008년 8월 20일. 유은복

22) <http://www.mlawestmidlands.org.uk/assets/documents/100003ABCaringforCollectionsFullReportJune2007.pdf>

이나 내셔널갤러리, 테이트 갤러리와 같이 항상 무료로 관람하는 뮤지엄의 관람객수는 같은 기간 동안 9% 이상 증가하였다.

뮤지엄들은 계절별로 변동되는 관람객수에 따라 전시주제를 설정할 수도 있다. 일반적인 경향은 학기가 있는 동안과 학기 중 짧은 방학기간 동안 관람객수가 증가하였다. 몇몇 특별 전시는 많은 관람객을 유도하였고, 이는 그 달의 관람객수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외에도 뮤지엄의 건물 개조나 신축 등 시설 정비 후 개관한 달의 관람객수는 전체 관람객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2006년 12월 통계에 따르면, 2001년 12월 무료관람제도를 시행한 후 과거 유료였던 박물관의 총 관람객 수는 83% 상승하였고, 2006년 650만명의 추가 관람객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유료였던 런던의 국립박물관들은 관람객 수가 86% 증가하였다. 빅토리아 앤 앨버트 뮤지엄은 122% 증가하였고, 자연사박물관은 112%, 과학박물관은 81% 증가하였다.

문화·미디어·스포츠부가 지원하는 런던 외의 타지방 뮤지엄의 관람객 수는 75% 증가하였다. 예를 들어, 국립리버풀뮤지엄(National Museums Liverpool)은 138%, 트링(Tring)의 동물박물관(Zoological Museum)은 81%, 요크(York)의 국립철도박물관(National Railway Museum)은 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부 장관이었던 테사 조엘(Tessa Jowell)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의 뮤지엄과 갤러리들은 국제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나는 정부투자의 도움으로 3천만명에 달하는 관람객이 추가되었다는 사실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또한 이 숫자는 같은 사람이 계속 방문한 결과가 아니고 전체 관람객의 절반은 새로운 관람객이었다.”

내셔널갤러리와 대영박물관과 같이 이미 무료였거나 또는 항상 무료였던 국립뮤지엄의 관람객 수는 같은 기간 8%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표는 관람료를 폐지하고 무료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정부가 투자를 제공한 국립박물관과 갤러리의 관람객 수가 어떻게 증가해왔는가를 보여준다.²³⁾

무료관람제도 시행 이전 유료였던 뮤지엄의 관람객 수

단위 : 명

박물관 명	2000.12- 2001.11	2000-2001년 사이의 증가율 (%)	2000-2005년 사이의 증가율 (%)	2005.12- 2006.11
제국전쟁박물관 (Imperial War Museum)	633,498	11	12	708,137
런던박물관 (Museum of London)	303,305	28	30	392,840
맨체스터 과학	292,952	64	224	363,802

23) http://www.culture.gov.uk/reference_library/media_releases/2603.aspx

산업박물관(Museum of Science & Industry)				
국립해양박물관(National Maritime Museum)	907,337	34	72	1,557,249
국립리버풀뮤지엄(National Museums Liverpool)	694,197	80	138	1,650,392
국립철도박물관(National Railway Museum, York)	543,359	36	55	840,387
런던 과학박물관(Science Museum London)	1,308,763	101	81	2,363,432
자연사박물관(Natural History Museum)	1,657,124	81	112	3,509,195
트링의 자연사박물관(Natural History Museum, Tring)	65,153	29	81	113,986
리즈와 포트넬슨의 왕립무기고박물관(Royal Armouries) ²⁴⁾	296,654	29	2	303,542
빅토리아 앤 앨버트 뮤지엄(V&A)	1,117,336	112	122	2,481,051
총계	7,817,678	69	83	14,327,693

※ 2001년 12월 1일부터 전면적인 무료관람제도 시행.

※ 2000년 4월 1일부터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무료관람제도 시행.

※ 1999년 4월 1일부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무료관람제도 시행.

무료관람제도 시행 이전부터 무료였던 뮤지엄의 관람객 수

단위 : 명

박물관 명	2000.12- 2001.11	2000-2001년 사이의 증가율(%)	2000-2005년 사이의 증가율(%)	2005.12- 2006.11
대영박물관 (British Museum)	4,637,439	-1	1	4,843,384
제프리뮤지엄 (Geffrye Museum)	83,353	-3	-11	74,553
호니만뮤지엄 (Horniman Museum)	112,540	87	220	360,341
맨체스터 노스	-25)	-	-	232,907

24) 리즈 왕립무기고박물관(Royal Armouries Leeds)은 2000년 4월 1일부터 어린이와 60세 노인들에게 무료관람제도를 시행하였다.

제국전쟁박물관 (Imperial War Museum North, Manchester)				
내셔널갤러리 (National Gallery)	5,022,000	-20	-13	4,380,000
내셔널미디어뮤지엄 (National Media Museum)	888,383	-10	-25	662,409
국립초상화갤러리(National Portrait Gallery)	1,260,029	18	25	1,570,802
존 손경 뮤지엄 (Sir John Soane's Museum)	85,754	0	4	89,329
테이트 브리튼(Tate Britain)	994,324	18	57	1,562,761
테이트 모던(Tate Modern)	3,619,613	27	31	4,741,617
테이트 리버풀 (Tate Liverpool)	621,419	-19	-12	552,107
타인 앤 위어 뮤지엄 (Tyne & Wear Museums)	1,407,153	-8	6	1,485,405
빅토리아 앤 앨버트 뮤지엄 어린이관(V&A Museum of Childhood)	174,711	11	-26)	-
월리스 컬렉션 (Wallace Collection)	227,702	-1	1	230,848
총계	19,129,420	2	8	20,786,463

25) 맨체스터 노스 제국전쟁박물관(Imperial War Museum North, Manchester)은 2002년 7월 무료로 오픈하였다.

26) 빅토리아 앤 앨버트 뮤지엄 어린이관(V&A Museum of Childhood)은 2005년 1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보수를 위해 문을 닫았다.

과거 유료였던 박물관과 항상 무료였던 뮤지엄의 총 관람객 수

단위 : 명

박물관 명	2000.12- 2001.11	2000-2001 년 사이의 증가율 (%)	2000-2005 년 사이의 증가율 (%)	2005.12- 2006.11
과거 유료였던 뮤지엄의 총 관람객수	7,817,678	69	83	14,327,693
항상 무료였던 뮤지엄의 총 관람객수	19,129,420	2	8	20,786,463
총계 ²⁷⁾	26,947,098	21	30	35,114,156

1997년부터 1998년까지 1년간 영국 국립박물관들의 관람객 수는 2,400만명에서 3,900만명으로 증가했으며, 2006년 과거 유료였던 뮤지엄의 관람객 수가 무료관람 시행 이후 5년 전에 비해 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부 장관이었던 테사 조엘(Tessa Jowell)은 “국립박물관과 갤러리의 무료관람 제도는 1997년 이후 정부문화정책의 일환으로 누구도 근엄하기만 한 문화유산에 관심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무료관람제도의 시행으로 관람객들이 몰려들었다”고 말했다.²⁸⁾

가. 주요 뮤지엄의 관람객 수 현황

2005년부터 2008년 3월 사이 영국의 주요 뮤지엄들의 관람객 수 현황을 보면, 관람객을 가장 많이 유치한 곳은 대영박물관과 내셔널갤러리였다.

2005-06년도 영국 주요 뮤지엄 관람객수 현황²⁹⁾

단위 : 명

박물관 명 월	대영박물관	테이트갤러리 (4개분관전체) 30)	내셔널갤러리	국립초상화 갤러리	빅토리아 앤 앨버트 뮤지엄
4월	372,676	599,020	455,000	125,340	247,750
5월	414,362	530,301	417,000	129,486	175,716
6월	390,743	517,768	276,000	106,701	171,937
7월	400,081	534,737	332,000	126,975	216,452
8월	359,917	522,412	268,000	121,926	166,711

27) 이는 관람료를 계속 징수했던 4개 뮤지엄 분관의 관람객수 120만명이 포함된 통계이다.

28) http://www.culture.gov.uk/reference_library/media_releases/2250.aspx

29) http://www.culture.gov.uk/museums_and_galleries

30) 이는 테이트 브리튼(Tate Britain) 및 테이트 모던(Tate Modern)과 테이트 리버풀(Tate Liverpool) 등 4개

9월	320,651	515,925	276,839	129,882	133,337
10월	405,798	676,923	299,000	157,600	237,201
11월	373,371	536,323	330,000	123,400	162,173
12월	377,357	450,180	297,000	113,000	171,206
1월	360,700	491,014	291,000	141,000	141,217
2월	328,462	482,463	316,000	120,000	186,378
3월	388,734	513,236	395,000	133,000	181,879
합계	4,492,852	6,395,440	3,557,839	1,528,310	2,191,957

2001년 12월 무료관람을 시행하기 이전부터 항상 무료였던 대영박물관의 2005-06년도 관람객 수는 약 450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4개 분관 전체를 합한 테이트 갤러리를 제외하고 단일관으로는 최대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6-07년도 영국 주요 뮤지엄 관람객 수 현황³¹⁾

단위 : 명

박물관 명 월	대영박물관	테이트갤러리 (4개분관전체)	내셔널갤러리	국립초상화 갤러리	빅토리아 앤 앨버트 뮤지엄
4월	431,430	591,088	385,000	124,000	221,774
5월	443,157	521,653	344,000	119,000	195,721
6월	442,917	523,589	268,000	100,000	175,315
7월	484,378	663,637	411,000	130,000	272,293
8월	473,701	743,149	440,000	153,530	235,599
9월	363,569	620,196	284,000	110,000	187,363
10월	399,860	872,815	452,000	157,000	301,506
11월	354,909	682,876	505,000	170,000	227,724
12월	366,105	603,918	473,000	143,994	254,088
1월	351,099	538,958	435,000	169,205	205,934
2월	368,636	646,083	324,000	169,205	307,396
3월	422,498	699,878	414,000	148,130	283,756
합계	4,902,254	7,707,836	4,735,000	1,665,449	2,868,469

2006-07년 한 해 동안 대영박물관을 비롯한 국립초상화갤러리와 내셔널갤러리 등 영국의 주요 뮤지엄의 관람객 수는 2005-06년도에 비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영박물관의 관람객 수는 전년도에 비해 9% 상승해 500여만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였다. 내셔널갤러리는 그 뒤를 이어 4,700여만명이, 테이트 갤러리는 4개관으로서 무려 7,700여만명을 기록하였다.

관을 합한 수치로 뮤지엄이 하나 이상의 분관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전체 관람객수가 먼저 기록되고, 각관별로 나누어 기록한다.

31) <http://www.dcms.gov.uk/4196.aspx>

2007-08년도 영국 주요 뮤지엄 관람객 수 현황³²⁾

단위 : 명

박물관 명 월	대영박물관	테이트갤러리 (4개분관전체)	내셔널갤러리	국립초상화 갤러리	빅토리아 앤 앨버트 뮤지엄
4월	400,735	684,842	387,000	112,839	236,137
5월	431,701	557,464	406,000	132,335	214,431
6월	401,792	576,471	303,000	115,701	205,730
7월	470,926	674,884	377,000	139,595	245,919
8월	500,509	740,130	382,000	150,499	193,663
9월	481,784	532,849	259,000	108,060	214,547
10월	555,695	780,283	282,000	133,057	239,950
11월	509,191	686,494	307,000	135,824	221,166
12월	523,699	558,155	285,000	121,932	237,210
1월	546,448	572,863	251,000	136,375	191,288
2월	580,093	641,559	286,000	163,280	227,929
3월	635,357	698,835	389,000	196,183	195,102
합계	6,037,930	7,704,829	3,914,000	1,645,680	2,623,072

2007년 4월부터 2008년 3월 사이 대영박물관의 관람객 수는 전년도에 비해 약 113만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 뮤지엄들의 관람객 수는 전년도와 비슷하거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12월 1일은 영국이 무료관람제도를 시행한 지 6년이 되는 해인 동시에 무료관람시행 이후 가장 성공적인 해로 2007년 한 해 동안 박물관의 추가 관람객 수는 7,700만명인 것으로 통계되었다.

런던지역에서 과거 유료였던 뮤지엄의 관람객 수는 94% 이상 증가하였다. 빅토리아 앤 앨버트 뮤지엄의 관람객 수는 151% 상승하였고, 자연사박물관은 117%, 과학박물관은 105% 상승하였다. 런던지역을 제외한 타지방에서 무료관람을 시행하는 박물관의 관람객 수는 109%상승하였다. 국립리버풀뮤지엄은 188% 상승하였고, 맨체스터 과학산업박물관은 136%가, 트링의 자연사박물관(Natural History Museum)은 87% 상승하였다.³³⁾

나. 전체 관람객수 기록에 미친 영향

2006년 12월 1일은 전면 무료관람을 도입한지 5주년이 되는 해로 문화·미디어·스포츠부는 무료관람제도가 관람객수에 미친 영향을 발표하였다. 전면 무료화를 시행한 2001년 12월 1일 이전 12개월 동안 문화·미디어·스포츠부가 지원한 뮤지엄의 관람객 수는 2,690만명인 것에 반해, 2005년 12월 1일부터 2006년 11월 30일까지의 관람객 수는 3,510만명을 기록하였다.

32) <http://www.dcms.gov.uk/4196.aspx>

33) <http://www.culture.gov.uk/3380.aspx>

과거 관람료를 징수했던 뮤지엄들은 유료관람제도를 폐지한 2001년 12월 1일 이후 5년 동안 연간 총 관람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880만명의 추가 관람객이 뮤지엄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11월의 통계결과에 따르면, 관람객 수는 2,910만명으로 나타났고, 문화·미디어·스포츠부가 지원하는 뮤지엄의 관람객 수는 1998-99년 2,400만명에서 2006-07년에는 60% 이상 늘어나 3,900만명이 되었다.

과거 관람료를 징수했던 뮤지엄들은 2001년 무료화 이후 관람객 수가 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1년 이미 무료였던 뮤지엄들의 관람객 수가 8% 증가한 것과 비교되는 수치이기도 하다. 과거 유료였던 런던 지역의 박물관 중 2001년 이후 5년 동안 거의 90% 정도가 증가하였다.

빅토리아 앤 앨버트 뮤지엄은 139% 증가하였고, 자연사박물관이 126%, 과학박물관이 83% 상승하였다. 런던 외의 타 지역 박물관들은 2001년 이후 관람객 수가 76% 상승하였다. 국립리버풀뮤지엄이 139%로 가장 큰 성장을 보였고, 요크의 국립철도박물관이 64%를, 트링의 자연사박물관이 91%를 기록하였다.

아래 표는 2000년 12월 1일부터 2001년 11월 30일 까지를 기준연도로 하고, 2006년까지 1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2개월 동안 관람객 수의 변화와 기준연도와 비교한 연간 추가 관람객 수를 보여준다.³⁴⁾

문화·미디어·스포츠부가 지원한 뮤지엄의 관람객 수(2000-2006년)

단위 : 명

	2000. 12.1- 2001. 11.30	2001. 12.1- 2002.1 1.30	2002. 12.1- 2003. 11.30	2003. 12.1- 2004. 11.30	2004. 12.1- 2005. 11.30	2005. 12.1- 2006. 11.30	총 추가 관람객 수
2001년 12월 1일부터 무료관람을 시행한 뮤지엄들 ³⁵⁾	7,817, 980	13,224 ,705	13,496 ,158	13,826 ,460	13,038 ,857	14,640 ,714	
2000년 12월 1일-2001년 11월 30일까지의 기준 연도와 비교한 추가 관람객수		5,406, 725	5,678, 178	6,008, 480	5,220, 877	6,822, 734	29,136 ,994
2001년 12월 1일 이미 무료였던 뮤지엄들 ³⁶⁾	19,273 ,627	19,606 ,126	18,836 ,287	21,014 ,915	19,863 ,217	20,869 ,702	
2000년 12월 1일-2001년 11월 30일까지의 기준연도와 비교한 추가		332,49 9	-437,3 40	1,741, 288	589,59 0	1,596, 075	4,259, 452

34) Ben Cowell, 'Measuring the Impact of Free Admission', pp. 203-224. Cultural Trends, Vol. 16, No. 3, September 2007.

관람객수							
------	--	--	--	--	--	--	--

※ 출처 : 벤 카우웰(Ben Cowell)의 ‘무료관람시행의 영향 측정(Measuring the Impact of Free Admission)’자료, 2007년 9월.

아래 표는 문화·미디어·스포츠부가 지원하는 각 뮤지엄의 2000/01년부터 2005/06년까지의 관람객수 변화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2000/01-2005/06년 문화·미디어·스포츠부가 지원하는 뮤지엄의 관람객 수

단위 : 명

박물관 명	2000/01 년	2001/02 년	2002/03 년	2003/04 년	2004/05 년	2005/06 년
대영박물관 (British Museum)	4,589,000	4,813,119	4,623,500	4,622,169	4,778,200	4,485,482
제프리뮤지엄 (Geffrye Museum)	85,676	82,639	81,194	86,529	79,959	79,408
호니만뮤지엄 (Horniman Museum)	116,286	130,581	250,387	272,220	303,428	282,856
제국전쟁박물관 (Imperial War Museum)	1,609,000	1,607,929	1,980,000	1,966,000	2,056,446	1,906,510
런던박물관 (Museum of London)	370,664	311,900	362,685	381,528	556,545	481,866
맨체스터 과학산업박물관 (Museum of Science and Industry in Manchester)	287,814	389,582	434,055	381,932	481,039	411,547
내셔널갤러리 (National Gallery)	4,780,000	4,859,000	4,100,000	4,648,000	4,909,000	3,953,000
국립해양박물관	799,777			1,365,26	1,532,69	1,512,19

35) 여기에는 런던 제국전쟁박물관(IWM London), 런던박물관(Museum of London), 맨체스터 과학산업박물관(Museum of Science and Industry in Manchester/ MSIM), 국립해양박물관(National Maritime Museum), 국립리버풀뮤지엄(National Museums Liverpool), 국립철도박물관(National Railway Museum/ NMSI), 과학박물관(Science Museum/ NMSI), 자연사박물관(Natural History Museum), 트링 자연사박물관(NHM Tring), 왕립무기고박물관(Royal Armouries), 빅토리아 앤 앨버트 뮤지엄(V&A), 영화박물관(Theatre Museum)이 포함된다.

36) 여기에는 대영박물관(British Museum), 제프리뮤지엄(Geffrye Museum), 호니만뮤지엄(Horniman Museum), 노스 제국전쟁박물관(IWM North), 내셔널갤러리(National Gallery), 국립 텔레비전 영화 사진박물관(NM PFT), 국립초상화갤러리(National Portrait Gallery), 존 손경 뮤지엄(Sir John Soane's Museum), 테이트 브리튼(Tate Britain), 테이트 모던(Tate Modern), 테이트 리버풀(Tate Liverpool), 타인 앤 웨어 뮤지엄(Tyne & Wear Museums), 바스널 그린 빅토리아 앤 앨버트 뮤지엄(V&A Bethnal Green), 윌리스 컬렉션(Wallace Collection)이 포함된다.

(National Maritime Museum)		1,004,604	1,208,000	4	0	1
국립리버풀뮤지엄 (National Museums Liverpool)	710,210	823,000	1,240,000	1,525,520	1,537,590	1,608,133
국립과학산업박물관 (National Museum of Science and Industry)	2,822,486	3,061,148	4,260,468	4,270,255	3,815,850	3,576,679
국립초상화갤러리 (National Portrait Gallery)	1,219,167	1,479,179	1,319,527	1,425,655	1,468,875	1,528,628
자연사박물관 (Natural History Museum)	1,691,738	2,196,416	2,893,337	3,143,935	3,328,478	3,281,810
왕립무기고박물관 (Royal Armouries)	235,000	337,626	398,000	380,000	432,755	394,720
존 손경 뮤지엄 (Sir John Soane's Museum)	83,827	86,548	86,461	94,054	87,165	84,624
테이트 갤러리 (Tate Gallery)	6,733,691	5,528,219	6,332,787	6,214,869	6,293,000	6,412,000
빅토리아 앤 앨버트 뮤지엄(Victoria and Albert Museum)	1,342,000	1,862,500	2,532,500	2,689,500	2,471,600	2,195,500
월리스 컬렉션 (Wallace Collection)	255,993	228,991	233,918	236,255	288,009	219,214
총계	27,732,329	28,802,981	32,336,819	33,703,685	34,420,629	32,414,168

※ 출처 : 벤 카우웰(Ben Cowell)의 '무료관람시행의 영향 측정(Measuring the Impact of Free Admission)'자료, 2007년 9월.

이러한 통계 자료를 통해 무료관람이 뮤지엄의 관람객 층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린이에 한해 무료관람을 도입한 1999년 4월부터 2년 동안 관람객 수는 32% 증가하였고, 1999년 이후 약 1,650만명의 추가 어린이 관람객이 방문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2000년 4월 1일 6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무료관람시행 이후, 처음 두 달 동안 관람객 수가 40% 증가하였다.

② 재관람과 새로운 관람객

아래의 자료는 '관람객 수'가 아닌 관람횟수를 측정했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다.

즉, 2,910만명이 과거 유료였던 뮤지엄에 추가로 방문하기는 했으나, 이 추가 관람객 수가 기존에 뮤지엄을 방문하던 관람객이 더 자주 뮤지엄을 방문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새로운 관람객을 창출했다고는 말하기는 어렵다.

이 자료는 각 뮤지엄 사이트에서 관람객들을 표본화하여 방문한 경험을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문화·미디어·스포츠부가 지원하는 뮤지엄들은 이를 보고한다. 이는 새로운 관람자에 비해 재관람 숫자가 안정적임을 보여준다. 아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2001년 이후 재관람 숫자는 거의 5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관람객에게 과거 12개월 동안 그 뮤지엄에 방문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질문으로 즉, 새로운 관람객에 대한 정의가 뮤지엄을 방문한지 18개월이 지난 관람객이거나 혹은 뮤지엄을 자주 방문하는 관람객임에도 불구하고, 문화·미디어·스포츠부가 지원하는 국립뮤지엄 중 한 곳을 처음 방문하는 관람객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뮤지엄을 새로 방문한 관람객이 무료관람으로 인한 것이라고 결론짓기는 어렵다. 관람객 조사에서는 이런 질문을 잘 하지 않고, 이는 사람들의 과거 경험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의 조사형태로만 답해질 수 있다.

자료 조사는 응답자가 2001년 이후로 방문해 온 뮤지엄 등에 대한 기억에 의존한다. 국제시장여론 조사기관인 모리(Market and Opinion Research International / Mori)는 2003년 2천여 명의 15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토대로 무료관람시행에 따른 영향에 관해 초기 분석을 제공하였다. 여기서 무료관람시행으로 뮤지엄과 갤러리의 관람객 수 증가는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15%는 그들이 무료관람제도로 뮤지엄을 더 자주 방문했다고 말했고, 41%는 이러한 정책이 그들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답했으며, 40%는 그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³⁷⁾

문화·미디어·스포츠부가 지원하는 뮤지엄들의 연도별 재관람수

단위 : 명

박물관 명	2000/01 년	2001/02 년	2002/03 년	2003/04 년	2004/05 년	2005/06 년
대영박물관 (British Museum)	1,973,000	2,069,641	1,849,171	1,700,935	1,767,934	1,659,628
제프리뮤지엄 (Geffrye Museum)	-	39,677	38,973	41,534	38,380	38,115
호니만뮤지엄 (Horniman Museum)	-	95,324	180,279	198,721	212,400	220,628
제국전쟁박물관 (Imperial War Museum)	627,510	580,000	750,000	600,100	745,081	787,847

37) Ben Cowell, 'Measuring the Impact of Free Admission', pp. 203-224. Cultural Trends, Vol. 16, No. 3, September 2007.

런던박물관 (Museum of London)	163,092	93,500	101,516	171,687	209,768	43,176
맨체스터 과학산업 박물관(Museum of Science and Industry in Manchester)	179,601	192,500	262,260	248,000	240,000	205,500
내셔널갤러리 (National Gallery)	2,400,00 0	2,900,00 0	2,400,00 0	2,742,00 0	2,842,00 0	2,293,00 0
국립해양박물관 (National Maritime Museum)	247,931	289,422	435,000	540,987	551,513	636,999
국립리버풀뮤지엄 (National Museums Liverpool)	182,000	202,000	489,000	579,698	584,284	755,823
국립과학산업박물관 (National Museum of Science and Industry)	1,704,00 0	1,555,11 0	2,153,00 0	2,308,93 4	1,943,70 0	2,052,21 4
국립초상화갤러리 (National Portrait Gallery)	790,000	945,000	936,000	1,012,00 0	1,064,00 0	1,208,00 0
자연사박물관 (Natural History Museum)	963,000	1,253,36 3	1,562,40 2	1,823,52 0	1,800,00 0	1,050,17 9
왕립무기고박물관 (Royal Armouries)	72,850	72,850	119,400	114,000	157,000	189,000
존 손경 뮤지엄 (Sir John Soane's Museum)	20,300	21,100	22,000	23,100	21,400	23,644
테이트 갤러리 (Tate Gallery)	3,937,40 4	2,861,42 4	3,654,81 0	3,309,97 5	3,136,00 0	3,218,00 0
빅토리아 앤 앨버트 뮤지엄(Victoria and Albert Museum)	557,300	1,115,20 0	1,361,10 0	1,626,60 0	1,339,60 0	1,203,70 0
월리스 컬렉션 (Wallace Collection)	-	-	130,994	132,303	152,645	116,183
합계	13,817,9 88	14,286,1 11	16,445,9 05	17,174,0 93	16,805,7 05	15,701,6 36
총 관람객수에 대한 비율(%)	49.8	49.6	50.9	51.0	48.8	48.4

※ 출처 : 벤 카우웰(Ben Cowell)의 ‘무료관람시행의 영향 측정(Measuring the Impact of Free Admission)’자료, 2007년 9월.

③ 외국인 관람객과 영국인 관람객

유럽에서는 덴마크가 가장 최근인 2006년 초 영국의 무료관람제도를 기초로 주 정부의 지원을 받는 뮤지엄들이 무료화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대부분의 유럽 뮤지엄들은 그들 소장품에 대해 유료관람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특별전에 대한 관람료를 포함하고 있을 것이다.

또한 영국의 무료관람제도에 대해 종종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실질적인 관람료를 징수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기도 한다. 아래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2000년 1월의 외국인 관람객 수는 930만명인 것에 반해 2005년 6월에는 약 1,100만명으로 늘어났으며, 이는 이 기간 중 전체 관람객 수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이었다.

외국인 관람객들에게 무료관람을 허용하는 것은 영국의 관람객 소비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단지 지형적인 이유로 다른 유럽 관람객들을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인 일이 아니라는 여론이 우세한 편이다.³⁸⁾

2000/01-2005/06년 사이 문화·미디어·스포츠부가 지원하는 뮤지엄을 방문한 외국인 관람객 수

단위 : 명

박물관 명	2000/01 년	2001/02 년	2002/03 년	2003/04 년	2004/05 년	2005/06 년
대영박물관 (British Museum)	2,800,000	2,647,215.45	2,404,220	2,495,971.26	2,389,100	2,242,741
제프리뮤지엄 (Geffrye Museum)	-39)	-	-	-	-	-
호니만뮤지엄 (Horniman Museum)	3,150	3,810	9,491	10,129	8,355	7,632
제국전쟁박물관(Imperial War Museum)	560,000	670,000	540,000	588,750	540,025	474,507
런던박물관 (Museum of London)	129,732	109,165	163,208	186,949	210,984	224,291
맨체스터 과학산업박물관 (Museum of Science and Industry in	15,000	16,000	20,000	22,000	20,000	11

38) Ben Cowell, 'Measuring the Impact of Free Admission', pp. 203-224. Cultural Trends, Vol. 16, No. 3, September 2007.

39) 외국인 관람객 수 통계를 적용하지 않음.

Manchester)						
내셔널갤러리 (National Gallery)	2,400,000	2,400,000	2,100,000	2,324,000	1,862,000	1,502,000
국립해양박물관 (National Maritime Museum)	407,886	472,164	480,000	495,125	821,929	801,788
국립리버풀뮤지엄 (National Museums Liverpool)	43,000	41,150	49,600	106,786	107,631	160,813
국립과학산업박물관 (National Museum of Science and Industry)	244,956	380,201	672,392	1,188,510	622,264	612,482
국립초상화갤러리 (National Portrait Gallery)	244,000	444,000	390,000	366,000	271,833	331,000
자연사박물관 (Natural History Museum)	-	-	-	1,068,960	1,065,113	946,772
왕립무기고박물관 (Royal Armouries)	-	-	-	-	-	20,000
존 손경 뮤지엄 (Sir John Soane's Museum)	45,000	41,100	34,600	45,700	42,300	22,829
테이트 갤러리 (Tate Gallery)	2,097,324	1,363,455	1,793,574	1,921,379	1,925,650	2,513,598
타인 앤 위어 뮤지엄(Tyne & Wear Museums Service)	11,661	14,503	19,166	29,654	52,094	39,375
빅토리아 앤 앨버트 뮤지엄(Victoria and Albert Museum)	347,000	537,000	845,900	886,900	862,500	931,600
월리스 컬렉션 (Wallace Collection)	-	-	67,836	68,514	80,642	61,380
총계	9,348,709	9,139,763	9,589,987	11,805,327	10,882,420	10,892,808
총 관람객수에 대한 비율(%)	33.7	31.7	29.7	35.0	31.6	33.6

※ 출처 : 벤 카우웰(Ben Cowell)의 ‘무료관람시행의 영향 측정(Measuring the Impact of Free Admission)’자료, 2007년 9월.

(3) 영국박물관의 관람료 폐지에 따른 영향

2001년부터 시행된 무료관람제도는 기존에 유료였던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및 웨일스의 국립박물관에 재도입되었다. 이후 이들 박물관의 관람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박물관의 무료관람정책은 그 유용성에 대해 오랫동안 논쟁이 되어왔고, 국립박물관들의 무료관람제도 도입은 피할 수 없는 몇 가지 문제점들을 야기시켰다.

1980년대 국립박물관들은 정부로부터 자금지원을 받고 있었고, 보수당 정부(Conservative government)로부터 자금지원 축소를 위해 관람료를 징수하라는 정치적인 압력에 직면하게 되었다. 결국 대영박물관을 비롯한 테이트 및 내셔널갤러리 등 주요 국립 뮤지엄들이 관람료를 징수하게 된다.

이후 15년 동안 유료인 몇몇 박물관들이 관람객 수의 감소로 고통을 겪는 반면, 무료인 국립박물관들의 관람객 수는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빅토리아 앤 앨버트 뮤지엄은 1997년 5파운드의 관람료를 도입하였고, 그 결과 관람객 수가 반으로 감소하게 되었다.

1997년 새롭게 정권을 잡은 노동당 정부(Labour government)는 국립박물관에 대한 무료관람제도를 회복할 것을 약속하였다. 정부 관계자들은 무료관람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박물관 관람객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정부는 1999년 4월 어린이들에 한해 박물관을 무료로 개방하였고, 2000년 4월에는 6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무료관람을 시행하였으며, 이에 따른 자금지원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부가가치세가 무료관람제도 도입에 방해가 되었고, 결국 재무성이 2001년 회계연도부터 부가가치세제도를 변경하기로 하였다.

관람료를 징수하던 국립박물관들은 티켓을 판매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입 감소 부분에 대해 정부가 특별 자금지원을 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무료관람제도에 동의하였다. 이들 박물관들은 특별전을 제외한 영구 소장품에 대한 관람료를 2001년 12월 1일부터 폐지하였다. 스코틀랜드와 웨일스 정부는 그들이 지원하는 국립박물관들의 무료관람에 대한 자금지원에 동의하였고, 무료관람은 2001년 4월 모든 지역에 도입되었다.

모든 사람들에게 전면적인 무료관람을 실시한 국립박물관들은 평균 70%의 관람객 수 증가를 보였다. 무료관람제도 시행 첫해의 빅토리아 앤 앨버트 뮤지엄의 관람객 수는 111% 상승하여 110만명에서 230만명으로 증가하였다. 관람객 수는 계속해서 증가해 2001년과 비교하여 2002년에는 530만명으로 증가하였고, 2003년에는 560만명, 2004년에는 6백만명이 박물관을 방문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러한 박물관의 대다수가 같은 기간 동안에 문화재 복권기금(Heritage Lottery Fund/ HLF)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는 것이며 이것이 박물관 관람객 수 증가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최근 뮤지엄협회(MA)와 시립대학(City University)의 사라 셀우드(Sara Selwoo

d)가 함께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박물관 관람객 수에 있어 가장 성공한 박물관은 무료관람제도를 도입하면서 새롭게 시설을 개조한 박물관이었다.⁴⁰⁾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관람객 수의 증가 원인

정부 무료관람제도의 시행은 관람객 수의 증가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뮤지엄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범위를 좀 더 확대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하고 있었다. 따라서 관람객 층이 약간씩 변화하고 있다.

관람객 수가 증가한 또 하나의 이유는 이전부터 박물관을 방문해왔던 사람들이 더 자주 박물관을 방문한 결과이며, 이는 박물관의 무료관람제도가 폭넓게 받아들여지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가. 박물관에 대한 복권기금 지원

2000년 이후 런던의 주요 박물관과 갤러리의 관람객이 급상승하였다. 이는 국립복권기금(National Lottery)의 투자와 노동당 정부의 무료관람제도가 가져온 결과였다. 가장 성공적인 박물관은 복권기금으로 새롭게 개관한 건물들과 무료관람을 도입한 박물관이었다. 건물개조나 무료관람을 시행하지 않은 박물관들의 관람객 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료관람정책으로 런던의 주요 뮤지엄과 갤러리에 대한 자금지원이 크게 증가하였고, 건물 개조 및 신축 등을 위한 자금지원으로 수억 파운드에 달하는 국립복권기금을 지원하였다. 1994년 국립복권기금을 통한 지원이 시작될 때까지 영국의 뮤지엄과 갤러리는 유럽과 북미지역의 뮤지엄과 비교하여 낡은 건물을 개조하고 신축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다.

이를 위해 1994년부터 2003년까지 20억 파운드(한화 약 3조 7,955억 2천만원) 이상의 국립복권기금이 투입되었다. 문화재 복권기금(HLF)은 박물관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제도였으며, 1994년부터 2004년 사이 600개 이상의 뮤지엄에 막대한 자금이 지원되었다. 박물관과 갤러리들은 이러한 기금 외에도 밀레니엄 위원회(Millennium Commission/ MC)와 잉글랜드와 웨일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예술위원회(Arts Councils of England, Wales, Scotland and Northern Ireland) 등과 같은 다른 기금 혜택도 받았다.

이러한 자금지원은 많은 뮤지엄과 갤러리들로 하여금 대규모 시설확장과 개조를 가능하게 하였고, 몇몇 신설된 뮤지엄과 갤러리 역시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개관하였다. 관람객 수는 복권기금에 의한 자금지원이 정당한 것임을 보여주었고, 거의 모든 뮤지엄들이 관람객 증가를 위한 복권기금신청을 계획하였다. 복권기금 프로젝트를 계획한 뮤지엄 중 몇몇은 관람료 징수로 인한 수입증가를 제안하였고, 또 다

40) <http://www.museumsassociation.org/ma/8120>

른 뮤지엄들은 관람객들이 아트샵과 식당 등에서 지출하는 소비량 증가를 통한 수입증가를 제안하였다.

실제로 몇몇 복권기금 프로젝트는 국립초상화갤러리의 초상화 레스토랑(Portrait Restaurant)과 테이트 브리튼의 아트샵과 같이 식당이나 관련 상점 등의 시설 개조를 제안하고 있었다. 그러나 수백만 파운드의 복권기금을 이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졌다.

2000년은 특히 복권기금의 대부분을 지원받은 런던 소재 뮤지엄들에게는 괄목할 만한 해였다. 당시의 문화부 장관은 이 시기를 ‘전례 없는 발전을 한 해(unprecedented season of openings)’라고 발표하였다. 이 해에는 8개의 복권기금 프로젝트가 9,300만 파운드(한화 약 1,764억 9천만원)의 복권기금 대부분인 총 7,900만 파운드(한화 약 1,499억 2천만원)를 런던 주요 뮤지엄과 갤러리에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템즈(Thames) 강변에 위치한 테이트 모던(Tate Modern)으로 3,400만 파운드(한화 약 645억 2,400만원)를 지원받았고, 대영박물관 중심의 새로운 대중 공간인 그레이트 코트(Great Court)에 1천만 파운드(한화 약 189억 7,800만원)를 사용하였다.⁴¹⁾

2003년 3월 이전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개조해 개관한 런던의 주요 뮤지엄들

단위 : 파운드

	개관일	복권 기금 지원 기관	프로젝트 시행부분	복권기금지원 금액	총 프로젝트 비용
2000년 4월에서 2001년 3월 사이 복권기금으로 시설을 개조한 기존의 뮤지엄					
대영박물관 (British Museum) ⁴²⁾	2000.12	MC 43)	그레이트 코트 (Great Court)	30,000,000	110,000,000
		HLF 44)		15,750,000	
덜위치 사진갤러리 (Dulwich Picture Gallery)	2000.5	HLF	건물 개조, 신축 (Refurbishment and new building)	5,000,000	9,000,000
제국전쟁박물관 (Imperial War Museum)	2000.6	HLF	준공 직전의 건물 (Final stage of Redevelopm)	12,624,000	16,966,000

41) Sara Selwood and Maurice Davies 'Museums: after the Lottery boom', 2005. 9. 2.
<http://www.spiked-online.com/Articles/0000000CAD38.htm>

			ent)		
국립초상화갤러리(National Portrait Gallery)	2000.5	HLF	온다체 건물(On daatje Wing)	11,900,000	15,900,000
과학박물관 (Science Museum)	2000.7	HLF	웰컴 건물(Well come Wing)	23,000,000	50,000,000
월리스 컬렉션 (Wallace Collection) ⁴⁵⁾	2000.6	HLF	100년 계획 건축 중(Centenar y Developmen t)	7,743,000	12,100,000
합계				106,017,000	213,966,000
2000년 4월에서 2001년 3월 사이 복권기금을 지원받은 신설 뮤지엄					
길버트 컬렉션 (Gilbert Collection) ⁴⁶⁾	2000.5	HLF	박물관 전체(En tire museum)	30,750,000	30,750,000
테이트 모던(Tate Modern)	2000.5	MC	박물관 전체(En tire museum)	50,000,000	134,500,000
		ACE ⁴⁷⁾		6,200,000	
합계				86,950,000	165,250,000
2000년 4월 이전에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시설을 개조한 기존의 뮤지엄					
코털드갤러리 (Courtauld Gallery)	1998.10	HLF	개조(Refurbish ment)	1,800,000	2,500,000
제프리뮤지엄 (Geffrye Museum) ⁴⁸⁾	1998.11	HLF	확장(Extensio n)	3,750,000	5,500,000
자연사박물관(Natural History Museum)	1998.7	HLF	어스 갤러리 재 건(Earth Galle ries redevelop ment)	6,000,000	12,000,000
국립해양박물관(National Maritime Museum)	1999.5	HLF	넵툰 프로젝트 (Neptune Proj ect)	12,050,000	24,000,000
합계				23,600,000	44,000,000
2001년 3월과 2003년 4월 사이 복권기금으로 시설을 개조한 기존의 뮤지엄					
호니만뮤지엄 (Horniman Museum)	2002.6	HLF	100년 계획 건축 중(Centenar y Developmen t)	10,000,000	13,400,000
테이트 브리튼 (Tate Britain) ⁴⁹⁾	2001.11	HLF	100년 계획 건축 중(Centenar y Developmen t)	19,000,000	32,000,000

			t)		
빅토리아 앤 앨버트 뮤지엄(V&A) ⁵⁰⁾	2001.11	HLF	브리티쉬 갤러 리(British Gall eries)	16,000,000	31,000,000
합계				45,000,000	76,400,000
주요 뮤지엄들이 지출한 총액				261,567,000	499,616,000

※ 출처 : 사라 셀우드(Sara Selwood)와 모리스 데이비스(Maurice Davies)의 ‘복권기금 지원 이후 뮤지엄들(Museums : after the Lottery boom)’조사 연구 자료, 2005년 9월 2일.

문화·미디어·스포츠부가 후원한 뮤지엄은 주요 시설개조가 새로운 관객들을 유도하는데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고 간주하였다. 그러나 기금지원을 국립 및 지역 뮤지엄과 갤러리로 확대할 것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미디어·스포츠부는 공개적으로 복권기금 프로젝트가 어떻게 차별화 되었으며, 또 실제로 어느 계층이 혜택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았다.⁵¹⁾

나. 복권기금지원으로 인한 관람객 수의 영향

아래 표에 따르면, 1999/00년의 관람객수를 2001/02년, 2002/03년의 것과 비교한 것으로 이 기간은 여러 국립 박물관들이 무료관람을 도입한 해이기도 하다. 1999/00과 2001/02년 사이 런던 지역의 뮤지엄과 갤러리의 관람객수는 21% 상승해 510만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증가는 2002/03년에도 계속되어 1999/00년에 비해 32% 증가한 760만명이 증가하였다.

42) 대영박물관(British Museum) 웹사이트에는 문화재 복권기금(HLF)에서 1,575만 파운드를 지원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문화재 복권기금(HLF) 웹사이트에는 1,519만 8,860파운드를 지원했다고 되어있음.

43) 밀레니엄 위원회(Millennium Commission/ MC).

44) 문화재 복권기금(Heritage Lottery Fund/ HLF).

45) 윌리스 컬렉션(Wallace Collection)은 100년 계획 건축(centenary development)의 총 비용을 1,060만 파운드에서 약 1,200만 파운드로 변경되었음.

46) 길버트 컬렉션(Gilbert Collection)의 지원금은 1996년 5월 1,825만 파운드를, 1999년 12월 250만 파운드, 2000년 4월 기부로 1천만 파운드를 지원받음.

47) 잉글랜드 예술위원회(Arts Councils of England/ ACE).

48) 문화재 복권기금(HLF) 웹사이트에는 제프리뮤지엄(Geffrye Museum)에 382만 7,500파운드를 지원한 것으로 기록됨.

49) 문화재 복권기금(HLF) 웹사이트에는 테이트 브리튼(Tate Britain)에 18,447,102파운드를 지원한 것으로 기록됨.

50) 문화재 복권기금(HLF) 웹사이트에는 빅토리아 앤 앨버트 뮤지엄(V&A)에 1997년 5월 1,083만 파운드를 지원하였고 1998년 6월 1,500파운드를 지원한 것으로 기록됨.

51) 이 연구는 복권기금으로 인한 건물개조 및 신축과 뮤지엄 관람객 수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으로, 조사대상은 런던지역과 2000년에 오픈한 프로젝트를 조사대상으로 선택하고 있다. 조사의 목적은 런던의 주요 뮤지엄과 갤러리의 관람객수 데이터를 분석하고 관람객 층의 차이점을 알아보기 위해 복권기금을 받은 기관과 그렇지 않은 기관간의 분포가 어디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이를 위해 31개 뮤지엄과 갤러리, 그리고 5개의 작품 전시공간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Sara Selwood and Maurice Davies ‘Museums: after the Lottery boom’, 2005. 9. 2. <http://www.spiked-online.com/Articles/0000000CAD38.htm>

이러한 추가 관람객은 대부분은 무료관람제도에 영향을 받은 것이었고, 또한 복권기금으로 건물개조 및 신축을 시행한 뮤지엄과 그렇지 않은 뮤지엄의 관람객 수는 분명한 차이를 보였다.

1999/00-2002/03년 런던 주요 뮤지엄의 관람객수 변화

단위 : 명

	1999/00년 관람객 수	2000/01년 관람객 수	2001/02년 관람객 수	2002/03년 관람객 수	1999/00-2000/01 관람객 수 변화	1999/00-2001/02 관람객 수 변 동 율 (%)	1999/00-2001/02 관람객 수 변 동 율 (%)	1999/00-2002/03 관람객 수 변 동 율 (%)		
2000년 4월-2001년 3월까지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개조한 뮤지엄과 갤러리	2000년 4월-2001년 3월까지 복권기금으로 시설을 개조한 기존의 뮤지엄과 갤러리									
	7,498,056	8,270,958	8,921,606	9,644,725	772,902	10	1,423,550	19	2,146,669	29
	2000년 4월-2001년 3월까지 복권기금으로 시설을 개조한 신설된 뮤지엄과 갤러리									
		5,004,877	3,867,452	4,440,344	5,004,877		3,867,452		4,440,344	
	총계 : 2000년 4월-2001년 3월까지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개조한 모든 뮤지엄과 갤러리									
	7,498,056	13,275,835	12,789,058	14,085,069	5,777,779	77	5,291,002	71	6,587,013	88
2000년 4월-2001년 3월까지 복권기금을 지원받지 않고 개관한	2000년 4월 이전 복권기금으로 시설을 개조한 기존의 뮤지엄과 갤러리									
	2,827,984	2,730,324	3,408,366	4,233,126	-97,660	-3	580,382	21	1,405,142	50
	2001년 3월 이후 복권기금으로 시설을 개조한 기존의 뮤지엄과 갤러리									
	2,725,	2,185,	2,521,	3,581,	-540,5	-20	-204,	-8	855,62	31

뮤지엄과 갤러리	904	336	123	531	68		781		7	
	복권기금으로 시설을 개조하지 않은 기존의 뮤지엄과 갤러리									
	10,615,479	10,268,734	9,872,063	9,275,840	-346,745	-3	-743,416	-7	-1,339,639	-13
	2000년 3월-2001년 4월 복권기금으로 시설을 개조하지 않고 신설된 뮤지엄과 갤러리									
		79,148	156,394	73,761	79,148		156,394		73,761	
	총계 : 2000년 4월-2001년 3월까지 복권기금지원과 시설개조 없이 개관한 모든 뮤지엄과 갤러리									
	16,169,367	15,263,542	15,957,946	17,164,258	-905,825	-6	-211,421	-1	994,891	6
전체 총계	23,667,423	28,539,377	28,747,004	31,249,327	4,871,954	21	5,079,581	21	7,581,904	32

※ 출처 : 사라 셀우드(Sara Selwood)와 모리스 데이비스(Maurice Davies)의 ‘복권기금 지원 이후 뮤지엄들(Museums : after the Lottery boom)’조사 연구 자료, 2005년 9월 2일.

이러한 관람객의 증가는 2000년 4월과 2001년 3월 사이에 복권기금에 따른 건물개조 및 신축을 시작한 뮤지엄과 갤러리들에 힘입은 바가 크다. 2001/02년 뮤지엄과 갤러리들은 1999/00과 비교하여 뮤지엄을 방문한 관람객 수는 530만명으로 증가하였고, 2002/03년에는 1999/00년에 비해 660만명의 추가 관람객을 기록하여 88%의 증가를 보였다.

이는 복권기금을 통한 건물 개조 및 신축이 없었던 박물관들과 현저한 대비를 보이는 것으로 같은 해 이러한 박물관의 관람객 수는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여 2001/02년 7%에서 2002/03년에는 13%로 감소하였다.⁵²⁾

다. 테이트 모던(Tate Modern)의 영향

아래의 표는 2001/02년 런던 지역의 뮤지엄들의 추가 관람객 510만명 중에서 390만명은 2000년 4월부터 2001년 3월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신설된 새로운 뮤지엄에 대한 관람객의 증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중 테이트 모던 한 곳에만 총 관람객 수의 74%인 380만명의 추가 관람객이 방문하였다. 2002/03년까지의 추가 관람객은 760만명인데 이 중 관람객 수의 57%인 440만명이 테이트 모던의 관람객이었다.⁵³⁾

52) Sara Selwood and Maurice Davies ‘Museums: after the Lottery boom’, 2005. 9. 2.
<http://www.spiked-online.com/Articles/0000000CAD38.htm>

53) Sara Selwood and Maurice Davies ‘Museums: after the Lottery boom’, 2005. 9. 2.
<http://www.spiked-online.com/Articles/0000000CAD38.htm>

2000년 4월-2001년 3월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개조해 개관한 런던 주요 뮤지엄의 관람객 수 변화

단위 : 명

	1999/00 년 관람객수	2000/01 년 관람객수	2001/02 년 관람객수	2002/03 년 관람객수	1999/00년부터 2001/02년까지 관람객 수 변화	1999/00년부터 2001/02년까지 관람객 수 변화 율 (%)	1999/00년부터 2002/03년까지 관람객 수 변화 율 (%)	1999/00년부터 2002/03년까지 관람객 수 변화 율 (%)
기존의 뮤지엄들								
대영박물관 (British Museum)	4,454,265	4,648,090	4,812,399	4,626,225	358,134	8	171,960	4
덜위치 사진 갤러리 (Dulwich Picture Gallery)	0	119,025	105,695	102,405	105,695		102,405	
제국전쟁박물관 (Imperial War Museum)	495,308	661,804	646,978	655,989	151,670	31	160,681	32
국립초상화갤러리 (National Portrait Gallery)	996,712	1,219,167	1,478,189	1,319,257	481,477	48	322,545	32
과학박물관(Science Museum)	1,379,904	1,366,879	1,649,354	2,725,008	269,450	20	1,345,104	97
월리스 컬렉션 (Wallace Collection)	171,867	255,993	228,991	215,841	57,124	33	43,974	26
합계	7,498,0	8,270,9	8,921,6	9,644,7	1,423,5	19	2,146,6	29

	56	58	06	25	50		69	
신설된 뮤지엄들								
길버트 컬렉션 (Gilbert Collection)		185,408	92,939	81,894	92,939		81,894	
테이트모던 (Tate Modern)		4,819,469	3,774,513	4,358,450	3,774,513		4,358,450	
합계		5,004,877	3,867,452	4,440,344	3,867,452		4,440,344	
전체 총계	7,498,056	13,275,835	12,789,058	14,085,069	5,291,002	71	6,587,013	88

※ 출처 : 사라 셀우드(Sara Selwood)와 모리스 데이비스(Maurice Davies)의 ‘복권기금 지원 이후 뮤지엄들(Museums : after the Lottery boom)’조사 연구 자료, 2005년 9월 2일.

2000년 4월과 2001년 3월 사이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오픈한 기존 뮤지엄들의 관람객 수는 안정적인 상승세를 나타냈다. 1999/00년과 2001/02년 사이 관람객 수는 19% 늘어나 140만명이 증가하였다. 2002/03년에는 1999/00과 비교해 29% 상승하여 210만명이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시설개조나 신축에 투자하지 않은 뮤지엄들의 관람객 수가 13%나 감소한 것에 비하면 이는 상당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⁵⁴⁾

라. 무료관람제도의 영향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2000년 4월과 2001년 3월 사이 복권기금으로 시설을 정비한 후 오픈한 뮤지엄의 관람객 수는 현저한 변화를 보였다. 1999/00년 보다 2002/03년에 더 많은 관람객들이 방문한 것으로 발표했지만, 실제로 이는 2001/02년보다는 낮은 수치였다. 2001/02년과 2002/03년 사이 시설 정비와 무료관람제도를 동시에 도입한 제국전쟁박물관과 과학박물관 등 몇 개관의 관람객 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유료였으나 2001년 국가의 지원을 받아 무료로 개관한 박물관의 경우 무료관람제도가 관람객 수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모든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전면적인 무료관람제도는 2001년 11월 빅토리아 앤 앨버트 뮤지엄과 영화박물관에 도입되었고, 2001년 12월에는 제국전쟁박물관, 국립해양박물관(National Maritime Museum), 자연사박물관, 과학박물관 및 런던박물관(Museum of London)에 도입되었다. 왕립공군박물관(Royal Air Force Museum)도 2001년 12월 전면무료 개방되었다.

아래의 표는 과거 유료였던 박물관과 이미 무료였던 뮤지엄의 관람객 수를 비교해주고 있다. 이 표는 새롭게 무료화 된 뮤지엄의 관람객 수가 급격하게 상승한 것

54) Sara Selwood and Maurice Davies ‘Museums: after the Lottery boom’, 2005. 9. 2.
<http://www.spiked-online.com/Articles/0000000CAD38.htm>

을 보여준다. 과거 유료였던 국립뮤지엄으로는 제국전쟁박물관, 런던박물관, 국립해양박물관, 자연사박물관, 왕립공군박물관, 과학박물관, 영화박물관, 빅토리아 앤 앨버트 뮤지엄 등이 있다.

이미 무료관람을 시행하고 있었던 뮤지엄은 대영박물관, 내셔널갤러리, 국립초상화갤러리, 테이트 브리튼, 바스널 그린의 어린이뮤지엄(Bethnal Green Museum of Childhood), 존 손경 뮤지엄, 윌리스 컬렉션, 호니만뮤지엄 등이 있다.

이들 박물관 중 과거 유료였다가 2001년 11월 이후 무료관람을 도입한 박물관들은 2001년 11월과 2002년 3월 사이 관람객 수는 전년도의 같은 달에 비해 72%에서 8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2003년 2월까지 계속 상승세를 보였다.

2001년 11월과 2002년 1월 사이 무료관람제도를 도입한 뮤지엄과 이미 무료였던 뮤지엄의 관람객수 비교

단위 : 명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2001년 11월과 2002년 1월 사이 무료관람제도를 도입한 뮤지엄들												
1999/00년	570,554	455,446	510,137	625,906	696,195	387,708	539,950	439,181	337,535	370,837	532,311	474,498
2000/01년	641,476	449,040	463,437	676,028	617,620	403,407	554,519	415,929	324,806	392,814	580,682	539,538
2001/02년	684,041	419,255	456,396	656,025	690,568	369,715	509,015	421,475	591,959	701,423	996,231	979,726
2002/03년	853,647	766,842	844,846	1,001,280	1,200,925	679,525	1,043,145	852,194	714,841	723,929	818,803	760,588
2000/01년부터 2001/02년의 변화	42,565	-29,785	-7,041	-20,003	72,948	-33,692	-45,504	5,546	267,153	308,609	415,549	440,188
2000/01년부터 2001/02년까지 변화율(%)	7	-7	-2	-3	12	-8	-8	1	82	79	72	82
이미 무료관람제도를 시행했던 주요 뮤지엄들												
1999/00년	1,152,825	1,008,642	988,284	1,192,155	1,349,631	960,792	1,118,072	1,067,001	861,784	924,229	944,395	1,244,998
2000/01년	1,293,36	1,100,26	874,779	1,191,99	1,185,15	910,295	928,558	1,008,59	923,044	968,441	896,092	1,098,23

	1	2		8	8			4				2
2001/02년	1,12 7,26 3	935, 185	1,04 6,24 2	1,38 9,75 2	1,49 8,05 6	1,06 4,71 5	880, 456	881, 674	798, 492	840, 566	1,06 2,30 3	1,19 9,01 6
2002/03년	973, 561	981, 977	887, 998	1,19 8,51 9	1,20 8,91 9	874, 022	926, 409	1,03 1,35 2	943, 654	826, 184	1,02 0,42 8	1,06 2,75 4
2000/01년 부터 2001/02년의 변화	-166 ,098	-16 5,07 7	171, 463	197, 754	312, 898	154, 420	-48, 102	-12 6,92 0	-12 4,55 2	-12 7,87 5	166, 211	100, 784
2000/01년 부터 2001/02년까지 변화율(%)	-13	-15	20	17	26	17	-5	-13	-13	-13	19	9

※ 출처 : 사라 셀우드(Sara Selwood)와 모리스 데이비스(Maurice Davies)의 ‘복권기금 지원 이후 뮤지엄들(Museums : after the Lottery boom)’조사 연구 자료, 2005년 9월 2일.

무료관람제도에 따른 영향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 빅토리아 앤 앨버트 뮤지엄의 경우, 2000년 11월 관람객 수가 7만 5,773명인데 반해, 2001년 11월 13만 2,882명이 증가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이 75%의 증가가 11월 22일까지는 무료관람이 도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성과라는 점이다. 또한 빅토리아 앤 앨버트 뮤지엄은 이 기간 중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신설한 브리티쉬 갤러리(British Galleries)를 오픈하였다. 빅토리아 앤 앨버트 뮤지엄의 관람객 수는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01년 12월에는 159%, 2002년 3월에는 270% 증가하였다.

2001년 11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무료관람제도를 시행한 첫해에는 이를 도입한 모든 박물관의 관람객 수가 증가하였다. 그 증가 범위를 보면, 제국전쟁박물관이 11% 상승한 것에서부터 빅토리아 앤 앨버트 뮤지엄이 11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과학박물관의 관람객은 100% 상승하였고, 자연사박물관은 81% 상승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문화·미디어·스포츠부가 관할하고 있는 런던지역과 그 외 지역에서 무료관람을 도입한 뮤지엄의 관람객 수는 69% 상승하였다.

2002년 11월부터 2003년 12월에는 과거 유료였던 뮤지엄의 관람객 수는 72% 증가하였다. 이는 2001년보다 560만명이 더 늘어난 숫자였다. 과학박물관의 관람객 수는 120%로 증가하였고, 빅토리아 앤 앨버트 뮤지엄은 117%, 자연사박물관은 74% 증가하였다.

마. 무료관람과 복권기금의 복합적인 영향

아래의 표는 과거 유료였던 박물관 중 2001년 11월과 12월 사이 무료관람제도

를 도입한 박물관의 관람객 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건물개조나 신축 등을 시행한 박물관의 경우, 관람객 수가 1999/00년에서 2002/03년 사이 32%에서 156%까지의 상승률을 보였다.

왕립공군박물관의 관람객 수는 상당히 증가해 1999/00년의 13만 4천여 명에서 계속 상승세를 유지해 2002/03년에는 20여만명을 넘어 5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든 박물관들이 이러한 결과를 얻은 것은 아니다. 런던박물관의 관람객 수는 1999/00년부터 2002/03년까지 2%만이 상승하였고, 영화박물관의 경우 5% 감소하였다.⁵⁵⁾

2001년 11월과 2002년 1월 사이 무료관람제도를 도입하고 동시에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개조했거나 그렇지 않은 런던 뮤지엄의 관람객 수 변화

단위 : 명

	1999/00년 관람객 수	2000/01년 관람객 수	2001/02년 관람객 수	2002/03년 관람객 수	1999/00년부터 2001/02년까지 관람객 수 변화	1999/00년부터 2002/03년까지 관람객 수 변화	1999/00년부터 2001/02년까지 관람객 수 변화 율 (%)	1999/00년부터 2002/03년까지 관람객 수 변화 율 (%)
2000년 4월 - 2001년 3월까지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개조한 뮤지엄들								
제국전쟁박물관 (Imperial War Museum)	495,308	661,804	646,978	655,989	151,670	31	160,681	32
과학박물관 (Science Museum)	1,379,904	1,366,879	1,649,354	2,725,008	269,450	20	1,345,104	97
2000년 4월 이전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개조해 오픈한 뮤지엄들								

55) Sara Selwood and Maurice Davies 'Museums: after the Lottery boom', 2005. 9. 2.
<http://www.spiked-online.com/Articles/0000000CAD38.htm>

자연사박물관 (Natural History Museum)	1,702,410	1,600,622	2,123,457	2,812,120	421,047	25	1,109,710	65
국립해양박물관 (National Maritime Museum)	867,981	792,220	998,008	1,207,996	130,027	15	340,015	39
2001년 3월 이후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개관한 뮤지엄								
빅토리아 앤 앨버트 뮤지엄(V&A)	828,953	936,652	1,451,621	2,123,430	622,668	75	1,294,477	156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개조하지 않은 뮤지엄들								
런던박물관 (Museum of London)	337,085	370,664	290,407	343,403	-46,678	-14	6,318	2
왕립공군박물관 (RAF Museum)	134,096	134,843	161,900	208,151	27,804	21	74,055	55
영화박물관 (Theatre Museum)	194,521	195,612	154,104	184,468	-40,417	-21	-10,053	-5

※ 출처 : 사라 셀우드(Sara Selwood)와 모리스 데이비스(Maurice Davies)의 ‘복권기금 지원 이후 뮤지엄들(Museums : after the Lottery boom)’조사 연구 자료, 2005년 9월 2일.

② 유료인 다른 박물관들

국립박물관에 대한 무료관람제도는 관람료를 징수하는 다른 박물관, 특히 사립박물관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무료관람정책이 정부의 불공평한 보조금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논쟁을 일으켰다.

박물관의 관람료 징수가 관람객 수의 감소를 초래하며, 무료관람제도는 영국 전역의 뮤지엄에 골고루 혜택을 주지 않고, 이미 자금이 풍부한 런던의 뮤지엄에게만 많은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왔다.⁵⁶⁾

(4) 유료관람제도 재도입에 대한 논쟁들

영국의 주요 뮤지엄과 갤러리의 무료관람정책 시행 6년만인 2007년, 뮤지엄과 갤러리들에 대한 무료관람제도를 폐지하고, 유료관람을 재도입하자는 제안이 등장하게 되었고 이 새로운 논쟁의 중심에는 보수당 정부가 있었다. 이에 대해 정계와 교육계, 및 예술계의 대표자들은 영국의 유명 뮤지엄과 갤러리들이 무료관람을 지속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문화부 담당 대표(Shadow Culture Secretary)인 휴고 스와이어(Hugo Swire)는

56) <http://www.museumsassociation.org/ma/8120>

6년 전 노동당 정부에 의해 도입된 무료관람제도를 폐지하고 관람료 유료화를 회복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료제도가 시행되면 뮤지엄 운영과 재정에 도움이 되며 관람료수입을 통한 추가 자금으로 새로운 작품을 구입하고 전시개최 및 시설 확충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노동당 정부는 유료관람제도로 대중들이 예술 문화를 향유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하게 될 것이며, 보수당이 다른 모든 공공서비스에 요금을 부과하는 시초가 될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관람객 수의 변화, 찬반 이론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그 이후에는 빠르게 뮤지엄들이 부가가치세(VAT)와 정부자금(Government Fund) 등의 법적 해결과 지원 등 취해야 할 입장이 무엇인지를 알아나갔기 때문에 곧 정착 되었다. 물론 이러한 정책은 예산과 정치적인 방향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정치적으로도 크게 지원되고 있는 분위기이다.⁵⁷⁾

라고 말한데서 잘 나타나고 있지만 담당부서 역시 매우 고무적인 성과로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의견은 대영박물관의 인터뷰에서도 마찬가지로의 긍정적인 답변이었다.

현재는 무료화제도가 매우 안정이 되었기 때문에 1년 전 쯤에 어느 보수당 당원이 무료화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했을 때 보수당 내에서조차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그 발언으로 인해 당에서 제명되는 사례가 있었다. 때문에 노동당 정권일 경우는 당연히 적극 지원하고 있지만 보수당이 정권을 잡는다고 해도 역시 무료화제도는 매우 안정적인 지원이 보장될 것이라고 생각한다.⁵⁸⁾

57) 사이마 미르자(Saima Mirza) 영국 문화 미디어 스포츠 부의 뮤지엄, 문화 담당 디렉터레트(Relationship Manager/ Museums Culture Directorate, DCMS)와의 현지인터뷰. 2008년 8월 20일. 유은복

58) 대영박물관의 세계컬렉션 프로그램 코-코디네이터, 디렉터(World Collections Programme Co-ordinator, Directorate) 케이티 차일즈(Katie Childs)디렉터레트와 현지인터뷰. 2008년 8월 27일. 유은복



대영박물관 전경



대영박물관의 세계컬렉션 프로그램 코-코디네이터, 디렉터(World Collections Programme Co-ordinator, Directorate) 케이티 차일즈(Katie Childs)



대영박물관의 기부함



대영박물관의 기부함

그는 이어서 무료화가 일반화된 후 기부금도 더 잘 걷히고, 뮤지엄 숍의 경영 역시 매우 긍정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의견은 여러 형태로 나뉘었다. 휴고 스와이어(Hugo Swire)는 ‘선데이 뉴스페이퍼(Sunday newspaper)’의 메일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무료관람제도의 철폐를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일 그들이 원한다면 뮤지엄과 갤러리들은 관람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그들은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데 돈을 사용할 수도 있고,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는 계속해서 무료 관람을 시행하는 특별 제도를 사용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⁵⁹⁾

59) <http://www.dailymail.co.uk/news/article-462508/Well-let-museums-charge-admission-say-Tories.html>

그러나 내셔널갤러리 개발부의 전 대표이자 예술품 경매회사인 소더비(Sotheby's)의 이사였던 스와이어(Swire)씨는 교육계와 예술계의 여러 인사들의 압력에 의해 자신의 주장을 번복해야했다. 국제교사연합(National Union of Teachers)의 스티브 시넛(Steve Sinnott)은 다시 유료 관람으로 되돌아가자는 발언을 불쾌해 하며, 이는 특히 어린이들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뮤지엄의 무료관람제도는 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들에게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뮤지엄에 방문해 전시회를 직접 보고 경험하면서 역사, 예술, 지리학 등 다양한 주제들을 더욱 생동감 있게 배울 수 있다. 관람료 유료화를 다시 시행하는 것은 이러한 교육의 기회와 풍부한 경험을 제한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문화·미디어·스포츠부의 테사 조웰(Tessa Jowell) 역시 스와이어(Swire)씨의 발언을 비난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보수당이 주장한 대로 한다면 반드시 후회할 일이 생기게 될 것이며, 이러한 제안은 사람들의 삶을 마비시키는 것과 같다. 우리의 뮤지엄과 갤러리는 영국 전역의 가족들에게 매우 유용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역할이 돈을 지불하는 사람에게만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무료관람제도는 우리의 문화정책 중에서 가장 자랑스럽고 뛰어난 업적이 중 하나이다.”⁶⁰⁾

자민당(Liberal Democrat)의 대변인인 돈 포스터(Don Foster)는 “보수당정부는 다시 대처수상의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국립뮤지엄과 갤러리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무료로 개방되는 무료관람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커다란 문화적 퇴보를 의미 한다”고 말했다.

보수당은 재빨리 스와이어(Swire)의 발언이 단지 선거 공약일 뿐이었다고 정정했고, 스와이어는 이후 다음과 같이 말했다. “뮤지엄과 갤러리에 대한 유료관람제도를 다시 실시하는 것은 우리의 정책이 아니다. 우리는 무료관람의 원칙을 준수하고 받아들인다.”

① 무료화에 대한 반대 입장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스와이어(Swire) 씨의 발표를 반대한 것은 아니다. 터너상(Turner)에 노미네이트되었던 챔프만 형제(Chapman Brothers) 중 한명인 다이노스 챔프만(Dinos Chapman, 1962-)은 우리 사회가 왜 문화의 한 부분이 무료가 되어야 한다고 기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뮤지엄과 갤러리에 무료관람제도를 시행한다면 영화나 축구경기에도 무료관람제도를 시행해야 하며, 즐거움을 누리는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60) Ben Russell and Jerome Taylor, Why museums must stay free, Monday, 18 June 2007.
<http://www.independent.co.uk/news/uk/politics/why-museums-must-stay-free-453620.html>

2001년 12월 1일 국립 박물관들의 무료관람제도가 공식적으로 시행되었고, 이는 새 노동당 정부의 선거 공약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1997년 대영박물관을 포함한 몇몇 뮤지엄은 뮤지엄의 높은 운영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상설전에 대한 관람료 징수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내셔널 아트 컬렉션 펀드(National Arts Collections Fund)는 박물관과 갤러리들의 무료관람제도는 더 많은 돈이 생기지 않는 한 ‘무너져 내리는 카드 집처럼(like a falling house of cards)’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무료관람제도는 뮤지엄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LSE의 2006년 보고에 따르면, 무료관람시행 이전 뮤지엄의 관람객 수는 약 2,700만명이었는데 2005년에는 4,200만명까지 증가하였다고 발표했다. 이는 프리미어십 경기(Premiership matches)의 관람객 수보다도 많고 웨스트 앤드(West End)와 브로드웨이 극장(Broadway theatre)의 관람객을 합한 것보다 50% 이상 많은 수치였다. 무료관람제도의 도입 이후 뮤지엄들의 연간 관람객 수는 눈에 띄게 늘어나 2001년 이후 관람객 수가 평균 83% 증가하였다.

그러나 무료관람제도 시행에 따른 정부보조금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립박물관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그들의 수입은 직원급여와 물가상승만큼 빠르게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 LSE의 보고에 따르면, 국립 박물관들은 시설개조나 보수를 위한 투자는 줄어 들고, 정부의 자금지원 의존도는 늘어났다고 발표했다.⁶¹⁾

일부 뮤지엄의 관장들은 정부가 무료관람제도 시행에 따른 관람료 손실부분을 보상해 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한다. 또한 뮤지엄·도서관·문서고 위원회(Museums, Libraries and Archive Council/ MLAC)에 따르면, 뮤지엄과 갤러리의 주요 관람객 층은 중산층이며 추가된 관람객들 중 일부는 과거 뮤지엄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더 자주 방문한 결과라고 말했다.

한 번도 유료관람제도를 시행하지 않았던 대영박물관과 런던의 내셔널갤러리는 무료관람제도로 자신들의 지원금 일부가 다른 뮤지엄들을 지원하기 위해 빠져나가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불평하였다.⁶²⁾

② 무료화에 대한 찬성론

맨체스터의 과학산업박물관은 무료관람제도 도입 이후 관람객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이 박물관의 관장인 이안 그리피스(Ian Griffith) 박사는 무료관람이 어떠한 차이를 만들었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무료관람은 현대 뮤지엄의 혁명이며 이는 박물관과 대중들의 장벽을 진정하게 허무는 사건이었다. 나는 우리가 이 제도를 될 수 있는 한 오랫동안 유지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무료관람을 시행하기 이전에는 어린이 4파운드, 성인 6파운드의 관람

61) Ben Russell and Jerome Taylor, Why museums must stay free, Monday, 18 June 2007.

<http://www.independent.co.uk/news/uk/politics/why-museums-must-stay-free-453620.html>

62) <http://www.dailymail.co.uk/news/article-462508/Well-let-museums-charge-admission-say-Tories.html>

료를 받았고, 관람료를 낮게 책정했지만 관람객들은 오지 않았다. 그러나 무료관람 제도를 도입한 첫 해에는 관람객이 두 배가 되었다. 과거 무료관람제도를 시행하기 이전에는 연 평균 관람객이 21만명인 것에 비해 2007년에는 41만명이 방문하였다.”

“대다수의 관람객들은 차로 두 시간 거리에 거주하고 있지만 맨체스터의 관람객 수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2007년에는 학교의 단체 관람으로 6만 7천명의 어린이들이 방문하였다. 사람들은 다음세대에도 과학자나 예술가가 탄생할 지 의문을 가지지만 뮤지엄은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장소로서 충분히 역할을 수행한다고 확신한다.”⁶³⁾

무료관람제도 도입으로 대형 뮤지엄과 갤러리의 관람객들은 연간 4,200만명을 기록하게 되었다. 무료관람제도 시행이전에는 관람할 때마다 가족 네 명의 관람비용으로 25파운드 정도가 지출되었다.

빅토리아 앤 앨버트 뮤지엄과 런던 사우스 켄싱턴(South Kensington)의 자연사 박물관과 과학박물관의 관람객 수는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리버풀의 8개 국립 뮤지엄과 갤러리들의 관람객 수는 두 배 이상 늘어났으며, 맨체스터의 과학산업박물관과 요크의 국립철도박물관은 세 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임 수상 대기자인 고돈 브라운(Gordon Brown)은 잉글랜드의 24개 뮤지엄들에 대한 무료관람제도를 계속 유지할 것을 약속하였다.⁶⁴⁾

2) 프랑스

(1) 무료관람제도 시행 배경

① 무료관람의 역사

1793년 8월 10일 ‘중앙 박물관(Musée Central)’이란 명칭으로 지금의 루브르박물관(Musée du Louvre)을 개관하였다. 그 당시는 프랑스 혁명 세력들이 절대 군주와 귀족들이 향유하던 문화를 시민들에게도 제공하려던 시기였으므로, 박물관 관람은 당연히 무료였다.⁶⁵⁾

단, 예술가들에게 우선 관람권을 주어 일반 시민들은 주말에만 관람이 허용되었다. 학교와 마찬가지로 박물관도 시민들에게 예술을 느끼고 배우게 하는 장소라는 생각으로, 정치체제가 끊임없이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루브르 박물관의 무료관람

63) Ben Russell and Jerome Taylor, Why museums must stay free, Monday, 18 June 2007.

<http://www.independent.co.uk/news/uk/politics/why-museums-must-stay-free-453620.html>

64) <http://www.dailymail.co.uk/news/article-462508/Well-let-museums-charge-admission-say-Tories.html>

65) 혁명정부는 1792년 8월 14일 왕실소장품의 전면적인 파괴를 명령하였다. 그러나 예술품을 보호해야 한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아 마침내 당초의 결정을 번복하고 같은 해 9월 16일에 “자유인민의 여가를 영예롭게 지켜 줄 위엄 있는 예술품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칙령을 발표하게 된다.

은 1922년까지 유지되었다.

19세기는 ‘제2의 르네상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전 유럽에서 고대 문화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늘어났고, 프랑스에서는 중세박물관(Musée du Moyen Âge)과 국립고고학박물관(Musée des Antiquités nationales) 그리고 지방마다 역사박물관이 개관되었다. 당시 개관한 많은 공공박물관들 역시 무료관람이었다. 그러나 박물관의 수가 증가하고 점차 대형화됨에 따라 공적 지원만으로는 박물관 운영이 어렵게 되자 점차 유료관람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프랑스 국립박물관의 무료관람 역사⁶⁶⁾

1793년 : 중앙 박물관(Musée Central)개관 (무료, 시민들은 주말에 관람).

1795년 : 프랑스유물박물관(Musée des monuments français) 개관(무료).

19세기에는 아래 나열한 박물관 이외에도 많은 박물관들이 개관됨.

1824년 : 캉(Caen)을 비롯한 지방도시에 역사박물관 개관(무료).

1844년 : 중세박물관(Musée du Moyen Âge) 개관(무료).

1855년 : 루브르 매일 개방, 주중에도 시민 관람 가능(무료).

1862년 : 국립고고학박물관(Musée des Antiquités nationales) 개관(무료).

1880년 : 카르나발레(Carnavalet)박물관 개관(무료).

1884년 : 장식미술박물관(Musée des Arts Décoratifs) 개관(무료).

1896년 : 역사 유물 금고(Caisse des Monuments historiques) 설립을 위해
의회에서 유료 관람에 대해 토의.⁶⁷⁾

1905년 : 장식미술박물관(Musée des Arts Décoratifs) 관람료 부과⁶⁸⁾(유료).

1908년 : 5개 파리시립박물관 관람료 부과(유료).

1919년 : 로댕미술관 개관과 관람료 부과(유료).

1922년 : 국립박물관 관람료 부과(유료), 목요일 오후와 일요일은 무료.

1929년 : 16세 이하와 학생은 국립박물관 무료. 목요일 오후 무료관람 폐지.

1935년 : 국립박물관 일요일 무료관람 대신 할인요금제 시행.

루브르는 일요일 무료관람 유지.

1960년 : 유네스코가 ‘누구나 박물관을 관람할 수 있도록 1주일에 하루는
무료관람을 실시하라’고 권고.⁶⁹⁾

1977년 :龐피두센터 개관과 일요일 무료관람.

1982년 : 국립박물관 수요일 오후 무료관람.

1984년 : 국립박물관 수요일 오후 무료관람 폐지.

1990년 : 루브르 일요일 무료관람 폐지.

1995년 :龐피두센터 일요일 무료입장 폐지.

1996년 : 루브르에서 매월 첫 번째 일요일 무료관람 2년간 시범실시.

1998년 : 루브르에서 매월 첫 번째 일요일 무료관람 제도화.⁷⁰⁾

2000년 : 국립박물관에서 매월 첫 번째 일요일 무료관람 실시.
 2001년 : 파리지립박물관에서 상설전시 무료관람.
 2002년 : 1월 4일자 법 제7조 ‘프랑스박물관’의 관람료는 관람을 장려하는 방식으로 결정하고, 18세 미만은 상설전시를 무료관람 할 수 있게 함.⁷¹⁾
 2005년 : 루브르에서 25세 이하는 야간관람(nocturnes) 무료.

위의 도표에서 알 수 있듯이, 19세기말 역사 유물 금고(Caisse des Monuments historiques)가 설립되기 전까지 모든 국립박물관은 무료 관람이었다. 19세기말부터 유료 관람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서 프랑스 박물관 요금제도는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 1905년 장식미술박물관(Musée des Arts Décoratifs)에서 유료 관람이 시작되면서 1922년에는 모든 국립박물관 관람을 유료화하게 되며, 그 후 계속해서 무료관람이 축소되는 추세였다. 단, 목요일 오후와 일요일은 무료관람을 고수했다.

1929년부터 16세 또는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학생들에게는 무료관람을 허용하는 박물관들이 생겨났으며, 결국 2002년에는 법령을 제정하여 미성년자 무료관람을 합법화했다. 한편, 일주일 중 하루 또는 오후 시간에만 무료관람을 허용하려는 시도가 반복되면서 프랑스 박물관 요금제는 변화를 거듭해갔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 프랑스 정부는 1996년부터 2년간 루브르에서 매월 첫 번째 일요일에 무료관람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유료관람이었던 일요일에 비해 관람객 수가 1.5배 증가했음을 확인하고, 2000년 다른 국립박물관에서도 매월 첫 번째 일요일에 무료관람을 허용하였다.

프랑스에서 무료관람의 부활은 영국의 영향이 크다고 보아야 한다. 1997년에 보수당 집권을 종식시키고 등장한 토니 블레어(Anthony Charles Lynton Blair) 전 영국 총리는 대영박물관(British Museum)과 내셔널갤러리(National Gallery)에서 정착된 무료관람의 확대 적용을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2001년 당시 문화부 장관의 주도로 국립뮤지엄의 상설전을 무료로 개방하는데 성공하였다.⁷²⁾

② 2008년 무료관람제도 시행 배경

가. 주요 박물관의 관람 집중 현상

2008년 프랑스 문화통신부(Ministè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

66) 정보통신부(Département de l'information et de la communication)보고서, 2007년 10월 28일, ‘박물관 무료관람 시행 계획서(Projet d'expérimentation pour la gratuité des musées)’.

67) www.senat.fr/cra/s20080326/s20080326_1.html#par_11

68) www.culture.gouv.fr/culture/actualites/index-gratuite.htm

69) www.senat.fr/cra/s20080326/s20080326_1.html#par_11

70) www2.culture.gouv.fr/culture/deps/pdf/etudes/CE_2008-1_gratuite.pdf, p.3. 참조.

71) www.legifrance.com(2002-5호 법) 참조.

72) www2.culture.gouv.fr/culture/deps/pdf/etudes/CE_2008-1_gratuite.pdf, p. 3. 참조.

에서 발표한 ‘문화 관련 주요 통계자료’⁷³⁾에 따르면, 2006년 약 1,200여개의 ‘프랑스박물관(Musée de France)’⁷⁴⁾의 관람객 수는 4,830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34개 국립박물관의 2006년 관람객 수는 2,200만명이었으며, 이는 전체 프랑스 박물관 관람객 수의 40%이상을 차지하는 숫자였다. 프랑스에서 최고의 관람객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루브르박물관의 경우, 2006년 관람객이 830만명이 넘어 전체 프랑스 박물관 관람객 수의 5분의 1에 육박하고 있다.

2006년 관람객 수 현황 : 국립박물관(그랑 팔레 포함)⁷⁵⁾

단위 : 명

박물관 명	관람객	유료관람객	무료관람객
루브르박물관(Musée du Louvre)	8,314,000	5,667,000	2,647,000
베르사유 궁전 박물관 (Musée des châteaux de Versailles)	4,741,758	3,830,231	911,527
오르세미술관(Musée d'Orsay)	3,009,203	1,823,052	1,185,251
퐁피두센터 내 국립현대미술관 (Musée national d'Art moderne du Centre Georges Pompidou)	1,119,525	-	-
계브랑리박물관(Musée Quai Branly)	952,070	585,211	366,759
로댕미술관(Musée Rodin)	617,316	351,066	266,250
피카소미술관(Musée Picasso)	501,060	290,281	210,770
오랑주리미술관(Musée de l'Orangerie)	447,093	293,676	153,417
퐁텐블로 성의 박물관 (Musée du château de Fontainebleau)	345,369	223,607	121,762
중세박물관 (Musée du Moyen Age)	289,958	165,910	124,048
장식 및 패션, 섬유 미술관 (Musée d'arts décoratifs, mode et textile, publicités)	288,179	201,725	86,454
기메아시아미술관 (Musée des Arts asiatiques-Guimet)	263,933	170,694	93,230
쁘르 도레-열대아쿠아리움(Palais de la Porte Dorée - Aquarium tropical)	217,673	134,029	83,644
샤갈미술관	131,973	98,073	33,000

73) www2.culture.gouv.fr/deps/pdf/chiff-cles/chiffres-cles-2008.pdf

74) 2002년 1월 4일자 법(2002-5호)에 따라, 공공법인이나 사단법인에 의해 설립되고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박물관에 한하여, ‘프랑스 박물관 고등심의위원회(Haut Conseil des musées de France)’의 심의를 거친 후, 문화통신부 장관의 명령 또는 박물관이 소속되어 있는 부서의 장관의 명령에 의해 ‘프랑스박물관(Musée de France)’이란 명칭을 부여하게 되었다. www.legifrance.com 참조.

75) www2.culture.gouv.fr/deps/pdf/chiff-cles/chiffres-cles-2008.pdf

(Musée Message Biblique Marc Chagall)			
포 성 박물관 (Musée du château de Pau)	195,971	62,148	43,823
선사박물관 (Musée de Préhistoire)	86,008	47,952	38,056
국립고고학박물관 (Musée d'Archéologie nationale)	78,250	18,085	60,165
컴피엔느 성 (Musée du château de Compiègne)	71,048	30,238	40,810
나폴레옹의 집 (Musée de la Maison Bonaparte)	61,457	40,113	21,344
말메종 성 박물관 (Musée des châteaux de Malmaison)	57,447	34,509	22,938
르네상스박물관 (Musée de la Renaissance)	55,497	17,315	38,182
대중예술, 전통박물관 (Musée des Arts et Traditions populaires)	45,776	-	-
피카소미술관(Musée Picasso)	41,310	28,005	13,305
니심 드 카몽도(Nissim de Camondo)	39,062	27,031	12,031
도자기박물관(Musée de Céramique)	34,437	20,092	14,345
들라크루아미술관(Musée Eugène-Delacroix)	34,044	24,154	9,800
귀스타브 모로미술관 (Musée Gustave-Moreau)	29,633	17,595	12,038
나폴레옹과 아프리카 박물관 (Musée napoléonien et africain)	23,091	12,145	10,946
자기박물관(Musée de la Porcelaine)	21,049	12,105	8,944
포르 로알 박물관 (Musée de Port-Royal des Champs)	19,575	7,264	12,311
마냉미술관(Musée Magnin)	14,021	6,031	7,990
클레망소(Musée Clemenceau)	3,862	1,722	2,140
에베르(Musée Hébert) 페르난드 레제(Musée Fernand-Léger) 프랑스계미국인(Musée franco-américain)	2006년 공사로 폐관		
합계	22,060,648	-	-

그랑 팔레(Grand Palais : 파리의 국립 전시관) 관람객 수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유료 관람객	646,576	572,328	798,861	1,026,000	837,000	987,021	-
무료 관람객	81,104	67,649	127,167	133,000	108,000	129,844	-
합계	727,680	639,977	926,028	1,159,000	945,000	1,116,865	890,431

관람객 수는 기록적이지만 관람객이 루브르박물관, 베르사유 궁전박물관(Musée des châteaux de Versailles), 오르세미술관(Musée d'Orsay) 등 몇몇 주요 뮤지엄에 한정되어 있다. 1,200개가 넘는 '프랑스박물관' 중에서 연간 관람객 수가 10만 명이 넘는 곳은 66개관, 5만명 이상은 70개관에 지나지 않는다. 루브르, 베르사유, 오르세 등 3대 뮤지엄이 1,200개가 넘는 '프랑스박물관'의 총 관람객 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며, 34개 국립박물관 관람객의 무려 72%를 차지하고 있다.

2006년 관람객 수 현황 : 관람객 숫자별 해당 박물관 수¹⁾

1년 동안 관람객 수	박물관 수
500,000 이상	12
250,000-500,000	10
100,000-250,000	44
50,000-100,000	70
20,000-50,000	187
10,000-20,000	189
10,000 이하	484
폐관한 박물관	156
합계	1,152

나. 프랑스인들의 관람률 저조 현상

프랑스는 세계적인 주요 관광국으로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다. 이들 관광객들은 대부분 루브르, 오르세, 베르사유,龐피두센터(Centre Pompidou) 등과 같은 뮤지엄 중 몇 곳을 관람한다. 2006년 조사 결과를 보면, 루브르박물관의 경우 외국인 관람객이 내국인보다 훨씬 많아 전체 관람객의 67%를 차지하였다.⁷⁶⁾

76) www2.culture.gouv.fr/deps/pdf/chiff-cles/chiffres-cles-2008.pdf

2006년 루브르박물관의 관람객 분류

구분	세부구분	백분율
내/외국인	내국인	33%
	외국인	67%
성별	남자	47%
	여자	53%
나이	26세 미만	38%

2005년 프랑스인 관람객들을 나이와 직업별로 박물관 관람 현황 통계를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70세 이상 고령을 제외하고 1년 동안 약 40%정도가 박물관 및 전시회를 관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나머지 60%가 1년 동안 한 번도 박물관 관람을 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소위 ‘문화의 대국’이라 일컬어지고 ‘박물관의 나라’라 지칭되고 있는 프랑스에서 이 정도의 낮은 관람률은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이다. 한편, 직업별 관람객을 분류해보면, 간부들이나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관람횟수를 기록해 결국 교육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수준이 높은 사람들만이 자주 박물관을 관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⁷⁷⁾

연령별 박물관 및 전시회 관람 현황(2005년)

연령	최근 1년간 적어도 한번이상 박물관 또는 전시회 관람자
15-29세	100명 중 41명
30-39세	100명 중 41명
40-49세	100명 중 43명
50-59세	100명 중 41명
60-69세	100명 중 43명
70-79세	100명 중 31명
80세 이상	100명 중 17명
남자	100명 중 38명
여자	100명 중 41명
합계	100명 중 39명

직업별 박물관 및 전시회 관람 현황(2005년)

직업	최근 1년간 박물관 또는 전시회 관람객 수
----	----------------------------

77) www.senat.fr/cra/s20080326/s20080326_1.html#par_11

관람횟수	0회 관람	1-2회 관람	3회 이상 관람
농업 종사자	100명 중 66명	25명	9명
상업 종사자	100명 중 60명	23명	16명
간부 및 전문직 종사자	100명 중 34명	25명	49명
중개업자	100명 중 48명	26명	26명
종업원	100명 중 62명	24명	14명
노동자	100명 중 75명	18명	7명
퇴직자	100명 중 66명	18명	16명
기타 실업자	100명 중 59명	22명	18명
평균	100명 중 61명	22명	18명

다. 수도권 박물관에 관람객 편중

2006년 한 해 동안 지역별 관람객 수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조사에 참여한 박물관은 총 1,140개관이고, 이 중 파리를 포함한 수도권지역(일르드프랑스 : Ile-de-France)의 123개 박물관에는 약 2,800만명의 관람객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140개 박물관의 총 관람객 수가 약 4,830만명인데 반해 수도권 지역의 관람객수가 반을 넘고 있는 것이다.

평균 관람객 수를 살펴보면, 전국 박물관을 기준으로 할 때 일 년에 4만 9,100명인데 비해, 수도권 지역 박물관의 평균 관람객 수는 27만 4,318명이었다. 지방 박물관에 비해 수도권 박물관에 평균 5배 많은 관람객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수도권 지역 박물관 관람 집중현상’에 대비해 프랑스 정부는 ‘지방 박물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2008년 박물관 무료관람제도도 이를 위한 대책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2006년 프랑스 지역별 박물관 관람 현황⁷⁸⁾

지방	답변한 박물관 수	폐관	관람객 수	평균 관람객 수
알자스(Alsace)	46	4	1,325,982	31,571
아키텐(Aquitaine)	56	12	1,139,606	25,900
오베르뉴(Auvergne)	27	1	263,196	10,123
부르고뉴(Bourgogne)	66	11	923,916	16,798
부르타뉴(Bretagne)	34	2	898,595	28,081
성트르(Centre)	59	8	985,000	19,315

78) www2.culture.gouv.fr/deps/pdf/chiff-cles/chiffres-cles-2008.pdf

샹파뉴아르덴(Champagne-ardenne)	31	6	408,700	16,348
코르스(Corse)	8	3	197,750	39,550
프랑스콩테(Franche-Comté)	32	4	718,037	25,644
일르드프랑스(Ile-de-France)	123	20	28,254,770	274,318
랑그독루시용 (Languedoc-Roussillon)	50	5	1,060,070	23,557
리무쟁(Limousin)	9	-	173,208	19,245
로렌(Lorraine)	36	1	600,752	17,164
미디피레네(Midi-Pyrénées)	69	11	1,087,548	18,751
노르파드칼레(Nors-Pas de-Calais)	46	8	1,149,426	30,248
바스노르망디(Basse-Normandie)	49	3	1,287,788	27,995
오트노르망디(Haute-Normandie)	40	4	521,867	13,396
페이드라르와르(Pays-de la Loire)	51	7	888,636	20,196
피카르디(Picardie)	35	4	422,596	13,632
프와투샤랑트(Poitou-Charentes)	41	8	396,961	12,029
프로방스알프스코트다쥬르 (Provence-Alpes-Côte d'Azur)	113	16	3,126,497	32,232
론알프스(Rhone-Alpes)	101	13	2,291,039	26,035
해외영토(DOM-TOM)	18	5	192,176	14,783
총계	1,140	156	46,314,215	49,100

③ 프랑스 박물관 요금 체제

문화적 민주화를 내세우며 오랫동안 무료관람제도를 시도해왔던 프랑스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박물관 요금 제도가 체계화되어 있다. ‘미성년자와 학생, 교사, 예술 종사자 및 실업자와 연금수여자에 대한 할인제’ 또는 ‘무료 관람제’와 더불어 ‘요일별 시간별 요금 차별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다.

즉, 빈부 차이나 직업의 차이를 뛰어 넘어 프랑스인들이면 누구나 박물관 관람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예술 전공자들에게 할인 또는 무료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박물관을 교육적인 장소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2006년 프랑스 박물관 요금 체제(상설전, 강연, 아뜰리에)⁸⁰⁾

개별 관람 (매달 첫 일요일은 무료)		
18세미만	무료	신분증

18-25세	할인	신분증
특별한 상황		
에콜 루브르(Ecole du Louvre) 학생, 에콜 샤르트르의 국립 문화 연구소 학생(청강생은 제외)	무료	학생증
공립예술학교학생, 예술사, 문화유산, 고고학, 건축, 그래픽, 조형예술, 복원, 조경, 디자인, 산업예술, 공예, 사진, 영화, 오디오비주얼, 연극, 무용, 음악, 패션학과 등 관련 학생들(청강생 제외)	무료	학생증
국립경매물평가연합(ANECF) 연수생	무료	연수생 증명 카드
실직자	무료	실직자 증명서
각종연금수여자(최소 임금소득자, ASS 및 API연금수여자, 고령 연금수여자)	무료	CAF, 시청, 관련 기관 증명서
상이군인(동반자 포함)		80%이상 장애 증명서
대가족	할인	대가족 증명 카드
회의장 및 아틀리에 입장료 지불한 자	할인	
전문인		
교육단체 현재 활동가	무료	재직증명서
문화부 공무원 및 퇴직자(1인 동반자 포함)	무료	증명 카드
국립박물관 학예사(감독관 포함)	무료	재직증명서
기자	무료	증명 카드
현재 예술 비평회 소속인	무료	증명 카드
전문예술인 - 화가, 조각가 등 예술가의 집(Maison des artistes) 또는 국립조형예술학회(CNFAP) 소속인	무료	증명 카드
파리 국제 예술도시(Cité internationale des Arts de Paris) 거주자(조형예술가)	무료	파리 국제예술도시 거주 증명카드
국가 또는 지방 소속 강연자 또는 통역관	무료	증명 카드
국회의원	무료	증명 카드
유럽의회(Conseil de l'Europe) 의원	무료	증명 카드
국립미술사 학예원 직원	무료	증명 카드
도제양성소(CFA) 교육자가 도제들과 동반하거나 교육적 목적으로 관람	무료	재직증명서
문화재 불법거래 투쟁 본부(OCBC) 직원	무료	증명 카드
국제박물관협회(ICOM)와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직원	무료	증명 카드
에콜 루브르 협회 회원	할인	증명 카드
고고학회, 프랑스예술보호협회, 프랑스예술사학회, 프랑스골동품협회 소속자들	할인	증명 카드

문화 관련 기관 또는 협회		
박물관 후원협회(Amis du musée) 후원자 및 회원 ⁷⁹⁾	할인	증명 카드
그룹(30명까지) 요금 : 의무 예약제, 무료 예약		
18세 미만 또는 초중고 재학생들		무료
학생 동반자(탁아소어린이 3명, 유치원생 5명, 초중고 7명마다 1명)		무료
CFA에서 활동 중인 교육자(동반자1명 포함)		무료
그룹과 함께 온 버스 기사		무료
- musée du Message biblique Marc Chagall, Nice - musée du château de Compiègne		할인 혜택 : 상설전 99유로 특별전 121유로
- musée de la Préhistoire, Les Eyzies-de-Tayac - musée national du château de Pau - musée des châteaux de Malmaison et Bois-Préau - Maison Bonaparte, Ajaccio		할인 혜택 : 상설전 77유로 특별전 99유로
- musée de la Porcelaine -Adrien Dubouché, Limoges - musée d'Archéologie nationale, Saint-Germain-en-Laye - musée de la Céramique, Sèvres - musée Fernand-Léger, Biot - musée de la Renaissance, Ecouen - Musées napoléonien et africain, île d'Aix - Aquarium tropical de la Porte Dorée - Musée de Port --Royal-des-Champs, Magny-les-Hameaux		할인 혜택 : 상설전 66유로 특별전 88유로
- musée de la Coopération franco-américaine, Blérancourt - musée des deux Victoires Clemenceau-de Lattre - musée Magnin, Dijon		할인 혜택 : 상설전 55유로 특별전 77유로

79) Amis du musée Adrien Dubouché, Amis du musée d'Archéologie nationale, Amis du musée de Blérancourt, American Friends of Blérancourt, Amis du musée de Céramique, Amis du château de Compiègne, Amis du musée de la voiture et du tourisme de Compiègne, Association des amis du musée Fernand Léger, Amis de l'île d'Aix, Amis du musée Message Biblique Marc Chagall, Amis du musée d'Orsay, Amis du musée de Dijon, du château de Pau, Amis du musée de Port-Royal, Amis des Granges de Port-Royal des Champs, Amis du musée de la Préhistoire, Amis du musée d'Ecouen, Amis du musée de Rueil-Malmaison, Amis du musée de Versailles, Association pour le rayonnement du musée du Moyen Age, Association L'Institut vendéen Clemenceau - De Lattre, Amis et mécènes du château de Fontainebleau, Association européenne pour les Théâtres de cour et théâtres privés

80) http://www.rmn.fr/IMG/pdf_V_mus_tarif-spec.doc.pdf

박물관 고유의 요금제 적용
- Cité nationale de l'histoire de l'immigration, Paris - Galeries nationales du Grand Palais, Paris - Galerie des Gobelins, Paris - musée des Arts asiatiques-Guimet, Paris - musée Eugène-Delacroix, Paris - musée d'Ennery, Paris(fermé pour rénovation) - musée Gustave-Moreau, Paris - musée Hébert, Paris(fermé pour rénovation) - musée du Louvre, Paris - musée d'Orsay, Paris - musée Picasso La Guerre et la Paix, Vallauris - musée Rodin, Paris - musée et domaine des châteaux de Versailles et de Trianon - Palais de la Porte Dorée

(2) 2008년 무료관람제도 시행 과정

① 무료관람제도 시행령 공포

1922년 국립박물관이 유료화가 된 이후부터 프랑스 박물관의 관람료는 유료화 되는 추세였다. 문화적 민주화를 내세우며 무료관람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았으나, 이에 반대하는 주장들도 많아 끊임없는 논쟁이 계속되어 왔다.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어느 정권도 감히 전면적인 무료관람제도를 시행하지 못했다.

1980년경 전 세계적으로 박물관 무료관람에 대한 논의가 격렬해졌다. 미국과 캐나다는 앞장서서 무료관람제도를 공포했으며, 1990년에는 영국마저 무료관람제도를 공포했으므로 이제는 프랑스가 결정할 차례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6년 루브르박물관을 대상으로 2년간 매달 첫 번째 일요일에 무료관람을 시행하였다. 이는 기대 이상의 좋은 결과를 얻어 관람객이 1.5배 이상 증가하였고, 프랑스에서 박물관 무료관람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된 셈이다. 이후 2000년에는 모든 국립박물관에서 매달 첫 번째 일요일에 무료관람을 시행하는 시행령을 공포하였다.

2002년, ‘가능한 많은 관람객들이 박물관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박물관법이 제정되어, 파리 시립미술관들 및 지자체에 속하는 지방의 일부 박물관들⁸¹⁾이 상설전을 무료로 관람하게 하였다. 그러나 국립박물관에 대한 전면적인 무료관람은 시행되지 못했으며, 몇몇 박물관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하루 또는 오후시간을 이용하여 무료관람을 허용하거나, 미성년자나 학생, 예술가, 실업자, 사회보조금 수여자 등에 한해 무료 또는 할인 혜택을 제공하게 되었다.

2007년 사르코지 대통령(Nicolas Paul Stephane Sarkozy)은 대통령 선거에 나

81) 파리의 시립박물관들로 이제르(Isère)의 12개 박물관, 디종(Dijon)의 5개 박물관, 캉(Caen)의 2개 박물관 및 보르도(Bordeaux)의 박물관들.

오면서 국립박물관 무료관람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했으며, 대통령에 선출되자마자 바로 시행하도록 추진했다. 2007년 8월 1일, 몇몇 박물관의 무료관람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라고 지시하여, 2007년 10월 23일 알바넬(Christine Albanel) 문화통신부 장관은 파리와 지방의 10개 국립박물관과 4개 역사기념물(monument historique)에 대해 200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무료관람을 시범 실시한다고 발표했다.⁸²⁾

2004년의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173개 ‘프랑스박물관’의 15%가 무료관람을 실시하고 있다.⁸³⁾ 그러나 이와 같이 14개 국립박물관과 역사기념물의 상설전에 대한 전면적인 무료관람 실시는 파격적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모든 박물관 관계자들은 물론이고 전체적인 여론 역시 부정적이라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이번 시범실시는 사르코지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실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르코지의 의견은 아래와 같이 정리되었다.⁸⁴⁾

국립박물관의 무료관람은 본인의 대선공약입니다. 무료관람이 다른 나라에서 성공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프랑스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무료관람이 문화계 내부에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므로, 우선 몇몇 박물관들을 견본으로 선정하여 시범실시를 하기 바랍니다. 해당 박물관들의 관람료 수입은 국가에서 보상해줄 것입니다. 이 시범실시의 모든 결과들을 평가하여 무료관람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조건들이 무엇인지 밝혀내길 기대합니다.⁸⁵⁾

이 지시에 따라 알바넬(Christine Albanel)은 2007년 10월 23일, 클뤼니 중세박물관(Musée du Moyen Age-Thermes et Hôtel de Cluny)에서의 기자회견을 통해 시범실시 계획을 발표했다. 200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4개 국립박물관과 역사기념물의 상설전시를 무료로 개방하는 이 계획은, 관람객 증가와 관람객층 형성에 끼치는 영향을 측정하여 무료관람이 박물관에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유치하는 장치가 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08년 박물관 무료관람 정책 시행⁸⁷⁾

구분	내용
목적	무료관람이 관람객 증가와 관람객의 구성에 끼치는 영향을 측정
기간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결과보고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정밀 분석 결과를 8월경 발표
시행기관 선정 기준	- 국립미술관(지자체 미술관 제외) - 상설전(특별전은 제외) ⁸⁶⁾

82) www.culture.gouv.fr/culture/actualites/index-gratuite.htm 참조.

83) www.la-croix.com/article/index.jsp?docId=2303062&rubId=5548 참조.

84) 송기형(2008), 〈프랑스 박물관 관람 정책〉, 《한국프랑스학논집》 참고.

85) www.culture.gouv.fr/culture/actualites/index-lettre2mission07.htm 참조.

	- 지리적 분포 고려(파리6개, 각 지방 9개) - 다양한 주제 고려(미술, 역사, 민속, 항공 등) - 관람객수가 많은 곳과 적은 곳 모두 포함
14개 박물관 및 유적지 (지방)	- 고고학박물관(Musée d'archéologie nationale - Château de Saint-Germain-en-Laye)(파리) - 클뤼니 중세박물관(Musée national du Moyen Age - Musée de Cluny)(파리) - 에쿠앙 르네상스미술관(Musée national de la Renaissance - Château d'Ecouen)(파리) - 기메아시아미술관(Musée national des arts asiatiques - Guimet)(파리) - 항공우주박물관(Musée de l'air et de l'espace du Bourget)(파리) - 기술과 직업 뮤지엄(Musée national des arts et métiers)(파리) - 해양박물관(Musée national de la Marine - Antenne de Toulon)(툴롱) - 포 성(城)박물관(Musée national du château de Pau)(포) - 토 궁전(Palais du Tau à Reims)(랭스) - 피에르퐁성(城)(Château de Pierrefonds)(피에르퐁) - 자기박물관(Musée national de porcelaine Adrien Dubouché)(리모즈) - 오리옹성(城)(Chateau Orion)(오리옹) - 마냉미술관(Musée Magnin à Dijon)(디종) - 자크 피르 궁전(Palais Jacques Coeur à Bourges)(부르즈)

무료관람을 시행하는 14개 박물관의 2008년 이전 관람료

단위 : 유로

박물관 명	관람료 정상 할인	할인 또는 무료 조건 (매달 첫 번째 일요일은 무료)
고고학박물관 (Musée d'archéologie nationale Saint-Germain-en-Laye)	4,50€ 3€	할인 : 25세미만 무료 : 18세미만, 실직자
클뤼니 중세박물관 (Musée national du Moyen Age - Musée de Cluny)	7,50€ 5,50€	무료 : 18세미만
르네상스미술관 (Musée national de la Renaissance - Château d'Ecouen)	4€ 3,50€	할인 : 18-25세 무료 : 8세 미만, 미술학교 학생, 현직교사, 실업자, ASS API 수여자, RMI 보조금수령 자, 노령자 상의군, 장애인, 예술가, 비평가 기자, 장애인, 그룹 인솔자 및 버스기사
기메아시아미술관 (Musée national des arts asiatiques - Guimet)	6,50€ 4,50€	무료 : 18세 미만, 장애인, 실직자, 생활보 조금수여자, 노인, 상의군인(동반자포함),문 화부 근무자(퇴직자 포함), 공공박물관 학 예사, 기자, 예술학교 재학생, 학생 인솔 선 생, 예술비평단체회원 또는 예술잡지출판회 원, 전문 예술인, 자격증 소유 강사와 통역

86) 상설소장품 없이 기획전시에 의해 운영되는 과학관(Cité des Sciences)과 발견의 궁전(Palais de la découverte)은 그 대중성에도 불구하고 제외함.

87) www.culture.gouv.fr/culture/actualites/communiq/albanel/DPmuseegratuite.pdf 참조.

		인, 국회의원, 유럽의회위원, INHA 위원, 기메뮤지엄 경영위원 또는 소장품구입위원, 세계박물관협회위원
항공우주박물관 (Musée de l'air et de l'espace du Bourget)		할인 : 학생, 대가족, 실직자 무료 : 18세미만, 그룹인솔자(7명당 1명), 교육자, 장애인(동반자포함), 군인 또는 방위군, 항공 메달 소유자, 항공박물관후원회
기술과 직업 뮤지엄 (Musée national des arts et métiers)	6,50€ 4,50€	할인 : 실직자, 교사, 학생, 오픈티켓소지자 무료 : 18세미만, 기자, 박물관후원회, Cnam직원, 파리 뮤지엄 패스(PARIS MUSEUM PASS) 소지자, 학생인솔교사(예약필수), 장애인 등 단체 : 문화단체회원(예약, 가이드없이) 4,50€, (예약, 가이드포함) 100€+ 1인당 4,50€, 교육단체회원(예약, 가이드없이) : 3€, (예약, 가이드포함) 100€+ 1인당 4,50€
툴롱 해양박물관 (Musée national de la Marine - Antenne de Toulon)	6,50€ 4,50€	무료 : 18세 미만, 학자 단체할인 : 성인 단체(20명부터)는 4,5€ 학생 단체 (15명부터)는 1,6€
포 성(城)박물관 (Musée national du château de Pau)	5€ 3,50€	무료 : 18세미만 매달 첫 번째 일요일 뮤지엄의 밤(Nuit des Musées)과 문화유산의날(Journées du Patrimoine), 교사, 장애인, 실직자, 공무원, 박물관 후원회
랭스 토 궁전 (Palais du Tau à Reims)	6,50€ 4,50€	무료 : 18세미만
피에르퐁성(城) (Château de Pierrefonds)	6,50€ 4,50€	할인 : 20명 이상 그룹, 관광요원은 5,30€ 무료 : 18세미만
리모주 아드리앵 뒤부세 자기박물관 (Musée national de porcelaine Adrien Dubouché)	4,50€ 3€	할인 : 18-25세, 대가족, 할인 : 미성년자, 대학생, 실직자 무료 : 매월 첫 일요일
오리옹성(城) ⁸⁸⁾ (Chateau Orion)	6,50€ 4,50€	할인 : 20명 이상 그룹, 관광요원은 5,30€ 무료 : 18세 미만
디종의 마넝미술관 (Musée Magnin à Dijon)	3,50€ 2,50€	할인 : 18세 미만, 예술 전공 학생, 교사, 무료 : 매달 첫 일요일
부르즈의 자크 피르 궁전 (Palais Jacques Coeur à Bourges)	7,50€ 4,50€	할인 : 20명 이상 그룹, 관광요원은 5,30€ 무료 : 18세미만

2008년 무료관람을 시행하는 14개 박물관

박물관 명	위치	2006년 관람객 수	2006년 유료관람	2006년 무료관람
고고학박물관	파리	78,250	18,085	60,165

88) 랭스 토궁전, 부르주 자크 피르궁전, 피에르퐁성, 오리옹성은 역사기념물로 국립기념물센터(Centre des monuments nationaux)에 속한다.

(Musée d'archéologie nationale - Château de Saint-Germain-en-Laye)	(Paris)			77%
중세박물관 (Musée national du Moyen Age - Musée de Cluny)	파리 (Paris)	289,946	165,916	12,4030 43%
에쿠앙 르네상스미술관 (Musée national de la Renaissance - Château d'Ecouen)	파리 (Paris)	55,381	17,199	38,182 69%
기메아시아미술관 (Musée national des arts asiatiques - Guimet)	파리 (Paris)	263,933	142,055	101878 38.6%
항공우주박물관 (Musée de l'air et de l'espace du Bourget)	파리 (Paris)	186,904	-	-
기술과 직업 뮤지엄 (Musée national des arts et métiers)	파리 (Paris)	-	-	-
틀롱 해양박물관 (Musée national de la Marine - Antenne de Toulon)	뚜롱 (Toulon)	-	-	-
포 성(城)박물관 (Musée national du château de Pau)	포 (Pau)	101,128	58,122	37,063 37%
랭스 토 궁전 (Palais du Tau à Reims)	랭스 (Reims)	58,436	-	-
피에르퐁성(城) (Château de Pierrefonds)	-	95,745	-	-
리모주 아드리앵 뒤부세 자기박물관 (Musée national de porcelaine Adrien Dubouché)	리모주 (Limoges)	18,907	11,525	7,382 39%
오리옹성(城)(Chateau Orion)	오리옹 (Orion)	20,743	-	-
디종의 마냉박물관 (Musée Magnin à Dijon)	디종 (Dijon)	-	-	-
부르즈의 자크 피르 궁전 (Palais Jacques Coeur à Bourges)	부르즈 (Bourges)	27,588	-	-

이밖에도 파리의 4개 유명박물관은 매주 하루 저녁을 18-25세에게 무료로 개방하기로 했다.⁸⁹⁾ 이는 2002년 1월 4일자 법령에 의해 18세 미만의 관람자에 대한 국립박물관 상설전 무료관람이 이미 제도화되어 있으므로, 무료관람 시범실시 대상에서 제외된 유명 박물관들에 18-25세의 젊은 세대를 유치하기 위해 ‘맞춤형 무료관람(gratuité ciblé)’을 추가한 것이다.

이와 같이 2008년 1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프랑스의 박

89) 사르코지(Nicolas Paul Stephane Sarkozy) 대통령은 젊은 세대를 문화공간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조치를 프랑스와 피용(François Fillon) 총리에게 주문했고, 피용은 “젊은이들이 국토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문화행사 자유 참가증 (passeport culture) 도입”을 예고한 바 있다. www.connaissancedesarts.com 참조.

물관 무료관람 시범실시는 무엇보다 새로운 관람객 창출과 젊은 관람객 층 유치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⁹⁰⁾

시간별 연령별 무료요금제 실시(저녁 18-20시까지, 18-25세를 대상으로)
• 퐁피두센터 내 국립현대미술관 : 수요일 저녁 (Musée national d'Art moderne du Centre Georges Pompidou) • 오르세미술관(Musée d'Orsay) : 목요일 저녁 • 루브르박물관(Musée du Louvre) : 금요일 저녁 • 꺄브랑리박물관(Musée de Quai Branly)⁹¹⁾ : 토요일 저녁

② 무료관람제도에 대한 논쟁

프랑스에서 박물관 무료관람과 관련된 논쟁은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으며, 새로운 정권이 집권할 때마다 민감한 문제로 대두되어왔다. 문화적 민주주의를 중시하는 정부에서는 박물관 운영을 위한 지원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무료관람을 적극 권장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프랑스 박물관의 수가 증가하고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무료관람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경비가 요구되므로 연령별, 요일별 제한을 두어 무료관람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2007년 사르코지(Nicolas Paul Stephane Sarkozy)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박물관 무료관람에 대한 논쟁이 다시 활기를 띠게 되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대선공약에서 밝힌 대로 집권을 계기로 급속도로 확산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알바넬(Christine Albanel) 문화부 장관이 시범실시 계획을 발표한 2007년 10월 이후에는 거의 모든 언론이 이 문제를 꾸준히 보도하고 있으며, 상원은 2008년 3월 26일자 본회의에서 알바넬 장관을 출석시켜 이 문제를 다루기도 했다.⁹²⁾

프랑스 유명 일간지 ‘르 피가로(Le Figaro)’ 9월 20일자에 간단한 평가에 의하면, 한마디로 결론내리면 ‘어긋난 정책’이었다. 전체 관람객 수는 56%증가했으나, 새로운 관람객을 유치하기 위한 원래 계획에는 어긋났다. 증가한 관람객 수는 ‘새로운 관람객 증가’가 아니고, ‘이미 박물관을 자주 관람하던 사람들’의 반복 관람에 의해 증가한 숫자이다.

단, 규모가 작은 박물관일수록 관람객 수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되어 특히 소규모 박물관들이 매우 만족해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연간 5만명 이하의 관람객 수를 기록하던 박물관은 그 수가 157%까지 증가한 사례가 있었으며, 10만명 이상의 관람객 수를 기록하던 박물관들은 약 47%, 기메뮤지엄과 같이 30만명 이상의 관람객

90) 송기형(2008), <프랑스 박물관 관람 정책> 《한국프랑스학논집》 참고.

91) www.quaibranly.fr/fr/ 참조. 2006년 6월에 개관한 꺄브랑리박물관(Musée du quai Branly)은 국립아프리카·오세아니아예술박물관과 인류박물관(musée de l'Homme) 인류학부의 소장품을 이전시켜 전시하고 있다.

92) 지금까지 진행된 논쟁을 지켜보면 무료관람 반대론이 훨씬 우세하다. 특히 박물관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반대하고 있다. 물론 문화적 민주화라는 무료관람의 취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전면적인 무료관람보다는 ‘맞춤형(ciblé)’ 무료관람 또는 할인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송기형(2008) <프랑스 박물관 관람 정책> 《한국프랑스학논집》 참고.

수를 기록하던 박물관들은 약 17% 증가했다.

그런대로 효과적이었다고 생각되는 정책은 ‘일주일에 하루 야간에 18-25세에게 무료 관람을 허용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덕분에 그동안 박물관을 관람하지 않던 젊은이들의 관람수가 40-60% 증가했다.

프랑스 국립뮤지엄 무료 관람에 대한 찬반 논쟁

찬성	반대
- ‘만인을 위한 문화’ ‘문화적 민주주의’라는 프랑스 혁명 이후의 고귀한 전통 유지.	- 민주화의 핵심은 단순한 관람객 증가가 아니라 새로운 관람객 창출 : 관람료 면제만으로는 새로운 관람객을 유인할 수 없다. - 상설전의 무료관람은 기획전의 관람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또 다른 문화적 차별을 유발함.
-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다른 나라들이 이미 여러 해 전부터 국립박물관의 상설전시를 무료로 개방. ⁹³⁾	- 연령, 재산, 직업, 시간 등 다양한 기준에 부합하는 할인제도가 훨씬 더 효과적임.
- 파리, 디종, 보르도 등의 지자체가 상설전에 한해 무료관람을 실시. ⁹⁴⁾	- 무료관람은 기존의 문화 향유층, 외국관광객, 여행업자들에게만 이로울 뿐임.
- 관람객 숫자의 증가와 더불어, 관람객 구성원의 다변화에도 기여. ⁹⁵⁾	- 관람객 수 증가는 일시적인 현상임(조사결과로 입증). ⁹⁶⁾
- 관람 태도 변화 : 관람을 거둬들임으로써 박물관 작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	- 다양한 행사가 젊은이를 박물관으로 유인하는 데 더 효과적 : ‘박물관의 봄’ ⁹⁷⁾ 이나 ‘박물관의 밤’ ⁹⁸⁾ 을 통해 확인.
- 무료관람으로 인한 박물관의 손실은 메세나와 부대사업(기념품점, 카페테리아, 공간임대 등)으로 보충.	- 전면적 무료관람 실시 비용은 최대 2억 유로(한화 약 2,505억 4,300만원) 정도로 추산되며, ⁹⁹⁾ 이는 2008년 문화부 총예산의 6.8%에 해당함. - 전면적인 무료관람은 국가적으로만이 아니라 박물관에도 치명적인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함. ¹⁰⁰⁾

93) www.senat.fr/cra/s20080326/s20080326_1.html#par_11

94) 설문조사 결과 파리 시민은 이 조치에 대해 만족하고 있으며, 실제로 무료관람으로 인해 관람객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파리에서는 2001년 53만여 명에서 2005년 76만여 명으로 43% 증가하였음.

cultureetloisirs.france2.fr/artetexpositions/actu/32552839-fr.php

95) 루브르는 무료관람을 시행하는 일요일과 다른 일요일들의 관람객을 분석한 결과, 무료관람일에 노동직과 사무직 관람객이 증가했고, 특히 실업자나 최저임금생활자는 거의 2배로 증가하였음.

www.la-croix.com/article/index.jsp?docId=2303062&rubId=5548

96) www2.culture.gouv.fr/culture/deps/pdf/etudes/CE_2008-1_gratuite.pdf, p. 3. 참조.

97) ‘박물관의 봄’은 프랑스 문화부 박물관국이 1999년부터 주관한 행사로, 5월 첫 번째 일요일에 전국의 박물관을 무료로 개방함으로써 인근 주민을 새로운 관람객으로 유입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이 행사는 유럽평의회(Conseil de l'Europe)의 후원을 받아 곧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어 2004년까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printempsdesmusees.culture.fr/fr/html/bilan.htm 참조.

98) ‘박물관의 봄’의 국내외적인 성공에 고무된 프랑스 문화부는 2005년부터 더욱 다양한 부대행사를 추가한 ‘박물관의 밤’을 유럽평의회와 함께 유럽 전역에서 개최하기 시작한다. ‘박물관의 봄’의 개정판이라고 볼 수 있는 이 행사는 국제박물관협회(ICOM)의 ‘세계 박물관의 날’에 가장 가까운 5월의 한 토요일 밤(때로는 새벽까지)에 박물관을 무료로 개방하고 서커스, 시식회 같은 이벤트도 수용하여 박물관 축제 또는 ‘난장’을 벌임으로써 엘리트주의적이라고 인식되기도 하는 박물관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박물관 상을 정립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2007년 행사는 프랑스에서만 956개의 박물관이 참가하여 130만의 관람객을 기록했다고 한다. ‘박물관의 밤’은 2008년 5월 17일 밤에 유럽 전역에서 개최되었다.

③ 박물관 운영을 위한 정부의 지원

프랑스의 국립박물관에서 무료관람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최대 2억 유로(한화 약 2,505억 4,300만원) 정도로 추산된다. 구체적인 비용 책정을 위해 박물관의 운영자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박물관 운영을 위한 자금 지원에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는 국가 보조금(subvention), 기증(dation)과 후원제(mécénat)에 의한 지원, 그리고 카탈로그 판매 및 관람료 등의 상업행위를 통한 지원이 있다.¹⁰¹⁾ 국립박물관 경우, 1982년 이전에는 대부분 정부의 지원금에 의존해서 운영되어왔으나, 점차 많은 국립박물관들이 정치적 및 경제적 자율권을 확보하려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부서인 문화부 박물관국(Direction des Musées de France/ DMF)에 속해 있으면서도,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관할서비스(Service à compétence nationale/ SCN)’와 ‘공공기관(Etablissement Public/ EP)’라는 형태가 생겨나게 되었다. 국가관할서비스(SCN)와 공공기관(EP)은 중앙행정조직에서 파생된 하위부서로서 중앙부서의 역할을 분리함으로써 중앙부서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중요한 기관에는 더 집중적인 투자를 가능케 하려는 ‘권력분산(Déconcentration)’ 정책의 일환이라 하겠다.

34개의 프랑스 국립박물관은 문화부 박물관국 소속이거나 국가관할서비스(SCN) 또는 공공기관(EP) 관할이다. 23개가 SCN으로서 독자적으로 예산을 계획하지만, SCN은 법적 지위나 자치권이 없다. 예를 들어, SCN의 대표가 독자적으로 예산을 산정하여 문화부에 요구하면 문화부와 재무부의 동의하에 예산을 배정받게 된다. 그리고 예산은 국가의 보호아래 운영되고 보고서를 문화부와 재무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대해 EP는 SCN과 달리 독자적인 법적 지위를 지니며, 경제적 자율권도 확립한다. EP는 스스로 예산을 확정, 운용하며 문화부나 재무부의 관리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운영한다.

nuitdesmusees.culture.fr/presse/dossier_de_presse.php 참조, 송기형(2008) 〈프랑스 박물관 관람 정책〉, 《한국프랑스학논집》 참고.

99) 프랑스 문화부의 2008년도 총예산(인건비 포함)은 29억 2,800만 유로(한화 약 4조 443억원)이다. 이는 국가 총예산 2,718억 유로의 1%가 조금 넘는 규모이다.

www.lefigaro.fr/debats/20070705.FIG000000045_musees_le_mirage_de_la_gratuite.html 참조.

100) 루브르의 경우 2006년도 관람료 수입이 4천만 유로(한화 약 488억 9천만원)가 넘는데, 국가의 재정적자 때문에 문화부 예산 증액이 불가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무료관람으로 인한 손실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루브르의 자체 수입은 7,200만 유로(한화 약 880억원)이며, 관람료 수입이 60%에 육박하므로 이 또한 불가능하다.

101) 2004년 문화통신부 활동보고서에 의하면, 국가보조금 240만 유로(한화 약 34억 1,500만원), 문화유산펀드 710만 유로(한화 약 101억원), 기증 2,960만 유로(한화 약 421억 2천만원), 메세나 120만 유로 등 총 4,030만 유로(한화 약 573억 5천만원)가 지원되었다. 한편, 다양한 전시를 통하여 많은 관람료를 확보했다. 2004년의 유료 관람객수는 132만 3,579명이었고, 2003년의 112만 8,424명과 비교할 때 17% 증가했다. *Rapport d'activité 2004 du ministè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 참조.
http://www.culture.gouv.fr/culture/actualites/rapport2004/sommaire.html.

EP에 해당하는 기관은 국립박물관연합(RMN), 루브르 학교, 문화재학교 및 루브르 박물관, 베르사유미술관, 로댕미술관, 모로박물관, 에네박물관, 께브랑리박물관, 기메 아시아미술관, 오르세미술관, 퐁피두센터, 라 빌레트 음악도시 등을 포함한 10개의 국립박물관이 있다. 이들은 원래 문화부 박물관국(DMF)의 지도 아래 있던 기관들이었지만, 점차 규모가 커지면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독자적인 기관인 EP로 독립한 것이다. 박물관 운영과 관련된 EP는 대부분 문화부 박물관국의 하위 그룹에 놓여있지만, 문화통신부의 다른 국에 포함된 경우도 있다.

EP 중에서 루브르, 베르사유 등과 같은 몇몇 기관은 더 많은 경제적, 정치적 자율권을 위해 다시 산업적, 상업적 성격의 공공기관(Etablissement Public caractre Industriel et Commercial/ EPIC)으로 성격을 달리하게 되었다. EPIC의 경우, 자체적으로 예산을 결정하며, 국가의 보조 이외에도 관람료, 상품판매, 레스토랑 운영 등과 같은 자체 수입으로 예산을 보충하면서 자체적으로 운영해 나간다. 즉, EPIC은 공공기관의 성격을 유지하지만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 및 상업 회사처럼 관람권 판매와 출판 및 판매, 레스토랑 및 상점 운영 등의 상거래 행위를 통해 스스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며, 메세나의 지원을 직접 유치할 수도 있다.

루브르 대작업의 결과는 루브르박물관 지하에 위치하고 있는 국립박물관연합이 1990년 상업적 성격의 EPIC으로 전환하는 데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하에 마련된 국립박물관연합 서점, 문화 상점, 출판사업 등 각종 상업적 성격들이 국립박물관연합의 성격에 변화를 불러오게 된 것이다.¹⁰²⁾

설립 초기에는 루브르박물관의 소장품 일부를 복사한 제품을 판매하는 등 제한적으로 상업 활동을 진행했지만, 1930년대 이후에는 국립박물관 및 각종 전시회 관련 문화 상품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유통시키고 있다. 도서, 엽서, 카드, 포스터, 문구용품, 비디오, CD-ROM, 멀티미디어 시청각 자료, 복제품, 장신구 및 각종 선물용품을 제작하고 유통시키는 업무를 담당한다.

특히 국립뮤지엄의 소장품 도록을 비롯하여 각종 출판물의 제작과 유통을 관장하고 있으며, 프랑스 최대의 미술 전문 출판사로서 60여개가 넘는 서점-부티크(librairies-boutiques)를 관리하고 있다. 국립박물관연합 사진부는 프랑스 국립박물관 소장품 전시 사진을 50만점 이상 보유하고 있어 문화상품개발 시 활용할 뿐 만 아니라 일반 시민과 연구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멀티미디어 제품 판매도 활성화되었으며, 1999년 3월부터 아트상품들의 인터넷판매를 시작하였다.¹⁰³⁾

결론적으로, 1980년대 이후 프랑스 박물관 운영 형태를 살펴보면, 점차적으로 더 많

102) 산업적, 상업적 성격의 공공기관(Etablissement Public caractre Industriel et Commercial/ EPIC) 개념이 생겨남으로써, 차별적인 개념으로 기존의 공공기관(Etablissement Public/ EP)을 행정적 성격의 공공기관(Etablissement Public Administratif/ EPA)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EP라 하면 EPA와 EPIC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다.

103) <http://www.museesdefrance.com>, <http://boutique.louvre.fr>, <http://boutique.musee-orsay.fr>, <http://boutique.musee-guimet.fr> 참조.

은 국립박물관 및 박물관 관련 기관들이 정치적 및 경제적 자율권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EP), 나아가 산업적 상업적 성격의 공공기관(EPIC)으로 전환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운영 형태(SCN/ EP)에 따른 국립 박물관 및 박물관 관련 기구 분류

국가관할서비스(SCN)	· 23개 국립박물관(EP 이외의 국립 박물관) · 박물관 보존 및 연구센터(Centre de recherche et de restauration des musée de France) · 박물관 자료와 도서 서비스(Service des bibliothèques, des archives et de la documentation des musées de France) · 그랑 팔레 국립 갤러리(Galeries nationales du Grand palais)
공공기관(EP)	- 박물관국(Direction des Musées de France) 소속 · 국립박물관연합(RMN) · 루브르 학교(Ecole du Louvre) · 루브르박물관(Musée du Louvre, 1992년 EP로 전환) · 베르사유미술관(Musée national de Versailles, 1995년 전환) · 로댕미술관(Musée Rodin, 1993년 전환) · 모로미술관(Musée Gustave Moreau) · 오르세미술관(Musée d'Orsay, 2004년 전환) · 기메아시아미술관(Musée national des arts Asiatiques Guimet) · 에네박물관(Musée Henner) · 꺾브랑리박물관(Musée de Quai Branly) - 중앙행정국(Direction de l'administration générale) 소속 · 퐁피두센터(Centre National d'Art et de Culture Georges Pompidou) · 문화재학교(Ecole National du Patrimoine) - 음악, 연극, 공연국(Direction de la musique, de la danse, du théâtre, et des spectacles) 소속 · 음악도시(Cité de la musique)

국립박물관 운영자금 구성

단위 : 백만 유로

2006년 박물관 운영자금	공공기관(EP)	국가관할서비스(SCN)
박물관 재산	11.1	-
정부 지원	-	2.0
문화유산기금	1.5	0.4
기업 메세나	9.2	0.9
그 외의 메세나	0.5	0.1
기타	5.0	0.1
합계	27.3	3.5

(3) 무료관람제도 시행 결과

① 1996년-2000년 루브르의 일요일 무료관람제도 시행 결과

루브르는 1년에 13회, 즉 매월 첫 번째 일요일과 종전기념일인 7월 14일에 무료로 개방 된다. 1990년 2월 거의 200년 만에 루브르의 일요일 무료입장이 폐지됐었다가 이후 1996년 매달 첫 번째 일요일에 무료개방을 실시했다.¹⁰⁴⁾

루브르박물관 일요일 무료개방에 따른 관람객 수(1996-2000년)

단위 : 명

	1996	1997	1998	1999	2000	합계
총 관람객	338,906	331,401	328,002	313,747	387,190	1,699,246
일요일수	11	12	12	10	12	57
평균	30,810	27,617	27,334	31,375	32,266	29,811

일요일의 평균 관람객 수 비교(15세 이하의 어린이 제외)

단위 : 명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평균
유료일요일	16,229	16,216	17,462	17,353	18,048	17,069
무료일요일	27,712	25,150	25,978	29,434	29,336	27,452
비율	1.7	1.6	1.5	1.7	1.6	1.6

이 조사에 따르면, 무료관람 정책이 실시된 이후 일요일에 관람객이 7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유료관람인 일요일에는 관람객이 1만 7천명인데 반해 관람료가 무료인 일요일에는 2만 7천명이 넘는 결과를 볼 수 있다.

그리고 5년에 걸쳐 유료 관람객 1만 1,934명과 무료관람객 1만 1,717명의 설문 조사를 통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런 무료개방의 효과가 외국인들보다도 파리에 살고 있는 프랑스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을 알 수 있다. 프랑스인 관람객의 44%가 무료개방이 아니었으면 박물관을 찾지 않았을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104) Cloude FOURTEAU <La gratuité au bois dormant... Cinq ans de gratuité du dimanche au Louvre 1996-2000>.

루브르박물관 방문객의 지역별 분포

단위 : 명

구분	유료 입장 일요일	무료입장 일요일	비고
파리	1,500	4,950	3.3배 증가
파리근교	1,830	5,410	3배 증가
프랑스 지방	2,870	4,020	1.4배 증가
프랑스 전체	6,200	14,380	2.3배 증가
외국인	10,290	12,280	1.2배 증가

② 2008년 7월 17일 무료관람결과 예측

문화통신부(Ministè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는 이번 시범실시에 대한 평가를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무료관람을 다른 국립박물관들로 확대할 것인지, 어떠한 형태의 맞춤형 또는 영역별 무료관람을 시행할 것인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한다.¹⁰⁵⁾

사르코지(Nicolas Paul Stephane Sarkozy)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박물관 무료관람제도에 대한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예산이다. 유럽연합에서 최악의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 중의 하나인 프랑스가 한정된 문화부 예산의 무려 7%에 육박하는 출혈을 감수하고, 또 모든 박물관 관계자들의 반대를 무릅쓰면서까지 34개 국립박물관 전체의 무료관람을 제도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2008년 1-2월의 통계에 따르면, 시범실시 박물관의 총 관람객 수가 65%나 증가했다고 한다.¹⁰⁶⁾ 하지만 이번 시범실시의 비용이 220만 유로인데 비해, 국립박물관 전체의 상설전시 무료관람에는 매년 2억 유로(한화 약 3천억원)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면적인 무료관람 실시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무료관람제도가 많은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었지만, 그 결과를 분석해보면(8월 정식 결과가 발표되기 이전의 중간 상황을 점검해보면) 무료관람정책의 근본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하고 있다.¹⁰⁷⁾

“무료관람정책 시행 이후 14개의 박물관 관람객 수가 56%정도 증가했다”고 문화부 장관이 언급했다. 그러나 증가된 관람객 수의 75%는 기존에 박물관을 관람해 오던 관람객이 추가로 방문한 것으로, 증가된 관람객 수의 25% 또한 예전부터 문화 활동을 해오던 사람들이 방문한 것이다.

문화부가 무료관람정책을 시행한 근본 목적은 그동안 박물관 관람을 하지 못하던 사람들로 하여금 박물관 관람을 통하여 문화 활동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였다.

105) www.culture.gouv.fr/culture/actualites/index-gratuite.htm

106) www.senat.fr/cra/s20080326/s20080326_1.html#par_11

107) <http://culture.france2.fr/art-et-expositions/actu/44607170-fr.php>

따라서 지금까지의 결과에 의하면, 무료관람정책이 결코 성공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오히려 예상과는 반대의 결과가 도출된 셈이다.

문화부 장관인 알바넬(Christine Albanel)은 모든 사람들에게 무료관람을 허용하지 않고, 몇몇 대상을 정해 무료관람을 허용하기를 원했었는데 성급하게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8월말 발표될 정식 결과(무료관람제도에 의해 증가된 관람객에 대한 다양한 분석 결과)를 기다린 후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한다. 무료관람제도에 의해 정부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이 무려 1억 5천만-2억 유로(한화 약 2,400억-3,200억원)나 되기 때문에 비용 대비 효과를 잘 측정해야 할 것이다.

아직 정식 결과가 나오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무료관람제도 이후 박물관 관람객 수가 박물관 규모와 반비례하여 급격히 증가하였다”고 문화부에서는 언급하고 있다. 즉, 박물관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무료관람제도에 의해 관람객 수가 급격히 증가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평소 연간 관람객수가 5만명 이하이던 박물관은 관람객 수가 2배로 늘었으며, 10만명 이상이던 박물관들의 관람객 수는 약 45% 증가하였다. 파리의 기메뮤지엄(Le musée Guimet)은 14%가 증가했다고 한다. 그러나 2008년 6월 정확한 통계는 나와 있지 않지만 관람객 수의 하락세를 보이는 박물관도 있었다.

문화부 소속이 아니고 국방부 소속인 부르제의 대기와 항공박물관(Le Musée de l'air et de l'espace du Bourget)의 부관장 앙드레 마르크 들로끄(André-Marc Delocque)는 관람객 수가 33% 증가했으며, 지방에서 온 관람객 수만 따져보면 약 2배가 늘어 매우 만족스럽다고 하였다.

18-25세에 한하여 저녁시간에 무료관람제도를 시행한 루브르, 오르세, 퐁피두센터와 께브랑리박물관의 경우 젊은 관람객들의 수가 40-60% 증가했으며, 학생 관람객에 비해 문화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수의 계층들에게 있어서는 ‘괄목할만한 효과’를 보았다고 한다.

그러나 문화부 박물관국(DMF)소속 프랑스와즈 와세르망(Françoise Wasserman)은 이렇게 그동안 문화 활동에 관심이 없다가 새로이 관심을 갖게 된 계층이 형성되는 것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 무료관람제도’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녀는 “새롭게 형성된 관람객들에게 적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중개 역할을 차츰 단계별로 발전시켜 나가야하고, 박물관 요금체제에 대한 정보도 점차 알려야 한다”고 한다.

무료관람제도가 6월 말까지였으므로, 앞으로 프랑스 박물관들은 다시 요금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 부르제박물관(le musée du Bourget)의 경우, 7월과 8월은 관람객이 없는 시기이므로 7, 8월에도 계속 무료관람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 외의 박물관들은 다시 과거의 요금 체제로 서서히 전환하게 되는데, 그들은 국립박물관들이 예전에 하듯이 매달 첫 번째 일요일은 무료개방을 할 예정이다.

3) 중국

(1) 중국 박물관 무료관람제도의 배경

① 무료관람 시행범위

2008년 1월 23일 중공중앙선전부(中共中央宣傳部)와 재정부(財政部), 문화부(文化部), 국가문물국(國家文物局)이 연합하여 《전국 박물관, 기념관의 무료개방에 관한 통지(關於全國博物館, 紀念館免費開放的通知)》를 발표하였고, 전국 각급 문화문물부문이 관리하는 공공박물관, 기념관, 전국의 애국주의 교육 시범기지가 모두 무료로 개방되었다.

따라서 저지양(浙江)과 푸진옌(福建), 후베이(湖北), 지양시(江西), 안후이(安徽), 간수(甘肅), 신장(新疆) 등 7개 성(省) 및 자치구(自治區), 그리고 문화문물기관이 관리하는 성(省), 시(市), 현(縣)급 박물관 전부가 무료관람을 시행하게 되었다.

2009년에는 문물건축(文物建築) 및 유적박물관(遺址博物館)을 제외한 전국 각급 문화문물부문이 관리하는 공공박물관과 기념관, 전국의 애국주의 교육기지 전부가 무료로 개방된다. 문물건축 및 유적박물관은 잠시 전면 무료 개방을 시행하지 않고,¹⁰⁸⁾ 계속해서 미성년과 노인, 현역군인, 장애인 및 기초생활대상자에 한해 관람료 할인 혜택을 시행한다.¹⁰⁹⁾

2008년 3월 국가문물국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에서 무료로 개방된 박물관을 방문한 관람객 수는 유료였을 때보다 5배에서 15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문물국의 부국장(副局長)인 장보(張柏)는 박물관 무료관람 시행에 따른 문제점으로 박물관 서비스 수준의 향상과 화장실 등 시설과 안전설비 등의 개선 및 박물관의 관리 능력 등을 해결해야한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대략 2008년 4월 1일 이전, 2008년 무료관람을 시행하게 될 박물관이 약 600개관에 이를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는 2008년 무료관람정책을 시범 운행한 400개관 외에 200개관이 추가로 참여하게 되고, 2009년에는 800개관이 다시 무료관람에 참여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2008년과 2009년까지, 공공박물관과 전국의 애국주의 교육기지 등을 모두 합쳐 1,400개관이 무료로 개방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¹¹⁰⁾

2008년 7월 28일 다시 그는 무형문화유산보호에 관한 신문 발표회에서 “2008년 4월부터 전국박물관에서 실시한 무료 관람시범정책 시행이후, 관람객 수는 이미 2,300만명을 돌파하였고, 이는 2007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두 배가 많은 수치였다”고 말했다.¹¹¹⁾

108) 문물건축(文物建築) 및 유적박물관(遺址博物館)에는 고궁박물관(故宮博物院), 돈황박물관(敦煌博物院), 병마용박물관(兵馬俑博物館), 금사유적박물관(金沙遺址博物館) 등이 포함된다.

109) http://www.gov.cn/gzdt/2008-01/28/content_871669.htm

110) http://www.ce.cn/kjwh/scpm/zixun/200803/13/t20080313_14823815_1.shtml

111) <http://2008.sohu.com/20080728/n258434003.shtml>

2008년 4월 이후 중국은 거의 700개 박물관이 무료로 개방되었고, 2009년까지 전국에 약 1,500개 박물관이 무료로 개방된다. 이는 2007년을 기준으로 통계한 중국박물관 총수인 2,400여 개관의 반 이상에 해당하는 숫자이다.¹¹²⁾

2008년 1월 29일 기준으로 중국 전역에서 이미 무료관람을 시행하고 있는 주요 박물관은 다음과 같다.

중국 각지 박물관 무료관람 시행관¹¹³⁾

※ 2008년 1월 29일 기준

성(省)/ 시(市)	관 수	박물관 명	무료관람 시행일자
저지양 (浙江)	120여 개관	저지양성박물관(浙江省博物館), 중국비단박물관(中國絲綢博物館), 중국차박물관(中國茶葉博物館), 남송관요박물관(南宋官窯博物館), 장타이옌기념관(章太炎紀念館), 창저우박물관(常州博物館) 등	2004.1.1 ¹¹⁴⁾
푸지엔 (福建)	59개 관	푸지엔성박물관(福建省博物院), 푸저우시박물관(福州市博物館), 천저우 해외교통사박물관(泉州海外交通史博物館), 난안시 정성공기념관(南安市鄭成功紀念館), 고전회의기념관(古田會議紀念館) 등	2008.4.1
안후이 (安徽)	41개 관	안후이성박물관(安徽省博物館), 황산시 휘문화박물관(黃山市徽文化博物館) 등	2008.3.26
신장 (新疆)	37개 관	신장 위구르자치구박물관(新疆維吾爾自治區博物館), 우루무치시 열사능원(烏魯木齊市烈士陵園) 등	2008.3.28
베이징 (北京)	33개 관	중국 인민항일전쟁기념관(中國人民抗日戰爭紀念館), 초장호 지도전유적기념관(焦莊戶地道戰遺址紀念館), 이대소열사능원(李大釗烈士陵園), 중국장성박물관(中國長城博物館), 평북항일전쟁열사기념관(平北抗日戰爭烈士紀念館), 베이징자연박물관(北京自然博物館), 쉬베이홍기념관(徐悲鴻紀念館), 밀운현박물관(密雲縣博物館), 창평구박물관(昌平區博物館), 상택문화진열관(上宅文化陳列館), 문두구박물관(門頭溝區博物館), 중국영화박물관(中國電影博物館), 곽수경기념관(郭守敬紀念館), 조설근기념관(曹雪芹紀念館), 노사기념관(老舍紀念館), 베이징미늑원박물관(北京麋鹿苑博物館) 등	2008.3.28
후난 (湖南)	14개 관	소산 마오쩌둥기념관(韶山毛澤東紀念館)	2008.3.5
		후난성박물관(湖南省博物館), 임필시기념관(任弼時紀念館), 장사시박물관(長沙市博物館), 유소기기념관(劉少奇紀念館), 나영환기념관(羅榮桓紀念館), 팡덕회기념관(彭德懷紀念館), 평강봉기기념관(平江起義紀念館), 하용기념관(賀龍紀念館), 상남 폭동지휘부 옛터기념관(湘南暴動指揮部舊址紀念館), 중국인민항일전쟁승리 옛터기념관(中國人民抗日戰爭勝利芷江洽降舊址紀念館) 등	2008.3.20
쓰촨 (四川)	12개 관	쓰촨성 등시아오팡 고택기념관(四川省鄧小平故居紀念館), 주더 고택 기념관 및 주더 동상기념원(朱德故居紀念館暨朱	2008.4.1

112) <http://news.sc001.com.cn/info/05/20080602/042053.shtml>

113) <http://travel.people.com.cn/GB/41636/41828/6836481.html>

		德銅像紀念園), 노정교 혁명문물진열관(瀘定橋革命文物陳列館), 천섬 혁명근거지박물관(川陝革命根據地博物館) 등	
지앙시 (江西)	11개 관	팔일봉기기념관(八一起義紀念館) 등	2008.1.30
허베이 (河北)	11개 관	허베이성박물관(河北省博物館), 서백과기념관(西柏坡紀念館), 염장지도전기념관(冉莊地道戰紀念館) 등	2008.3.26
광둥 (廣東)	9개관	광둥성박물관(廣東省博物館), 삼원리 인민항영투쟁기념관(三元里人民抗英斗争紀念館), 아편전쟁박물관(鴉片戰爭博物館), 손중산고택기념관(孫中山故居紀念館) 등	2008.3.28
허난 (河南)	8개관	정저우박물관(鄭州博物館), 루어양박물관(洛陽博物館), 허비시박물관(鶴壁市博物館), 시주안현박물관(淅川縣博物館), 허난박물관원(河南博物院) 등	2008.3.
헤이룽 지앙 (黑龍 江)	8개관	1차 시행 : 헤이룽지앙성박물관(黑龍江省博物館), 동북열사기념관(東北烈士紀念館), 헤이룽지앙성 민족박물관(黑龍江省民族博物館), 혁명지도자 헤이룽지앙시찰기념관(革命領袖視察黑龍江紀念館) 등	2008.2.21
		2차 시행 : ‘731’진열관(“七三一”陳列館), 마준기념관(馬駿紀念館) 등	2008.3.29
충칭 (重慶)	8개관	중국삼협박물관(中國三峽博物館), 충칭 홍암혁명기념관(重慶紅岩革命紀念館), 가악산 혁명기념관(歌樂山革命紀念館), 충칭자연박물관(重慶自然博物館), 대한민국임시정부 옛터진열관(大韓民國臨時政府舊址陳列館) 등	2008.3.26
산시 (山西)	6개관	산시박물관(山西博物院), 팔로군태행기념관(八路軍太行紀念館), 산시 국민사범혁명활동 옛터기념관(山西國民師範舊址革命活動紀念館) 등	2008.3.
리아오 닝 (遼寧)	6개관	‘918’역사박물관(“九·一八”歷史博物館), 리아오닝성박물관(遼寧省博物館), 항미원조기념관(抗美援朝紀念館), 요심전역기념관(遼沈戰役紀念館) 등	2008.3.
티엔진 (天津)	5개관	티엔진박물관(天津博物館), 평진전역기념관(平津戰役紀念館), 저우엔라이 등잉차오기념관(周恩來鄧穎超紀念館), 원명청대 천기궁 유적박물관(元明清天妃宮遺址博物館) 등	2007.12.28
산둥 (山東)	5개관	지난전역기념관(濟南戰役紀念館), 화둥혁명열사능원(華東革命烈士陵園), 공판선기념관(孔繁森紀念館), 유공도갑오전쟁기념관(劉公島甲午戰爭紀念館), 산둥성박물관(山東省博物館), 해양지뢰전기념관(海陽地雷戰紀念館) 등	2008.1.1
상하이 (上海)	4개관	상하이박물관(上海博物館), 루쉰기념관(魯迅紀念館), 진운고택 청포혁명역사기념관(陳雲故居暨青浦革命歷史紀念館) 등	2008.3.
신장병 단(新疆 兵團)	4개관	저우엔라이 총리 기념관(周恩來總理紀念館) 등	2008.3.31
지린 (吉林)	4개관	지린성자연박물관(吉林省自然博物館)	2008.1.29
		지린성박물관(吉林省博物院)	2008.3.27
		쓰핑전역기념관(四平戰役紀念館)	2008.3.13

		리아오위엔광부문물관(遼源礦工文物館)	2008.3.25
후베이 (湖北)	1개관	후베이성박물관(湖北省博物館)	2007.11.6
산시 (陝西)	1개관	산시역사박물관(陝西歷史博物館)	2008.3.26
윈난 (雲南)	1개관	윈난성박물관(雲南省博物館)	2008.5.18
간쑤 (甘肅)	1개관	간쑤성박물관(甘肅省博物館)	2008.3.
광시 (廣西)	1개관	광시박물관(廣西博物館)	2008.3.26

가. 베이징시 33개 박물관의 무료관람

서우두박물관(首都博物館)을 포함한 베이징시(北京市)의 33개 박물관은 2008년 3월 28일부터 정식으로 무료관람제도를 시행하였다. 현재 베이징 지역에는 143개 박물관이 있고, 그중 베이징 시(市)와 구(區)에 속하는 박물관은 69개가 있다. 베이징시는 중앙정부에서 무료관람시행을 요구한 12개 박물관 외에 21개 박물관이 추가로 무료화하였다. 이로써 베이징 시(市)와 구(區)에 속하는 박물관 중 반에 가까운 수가 무료로 개방되었다.

베이징시문물국(北京市文物局)의 국장(局長)인 콩관스(孔繁峙)는 “베이징의 33개 박물관이 무료관람을 시행한 이후 소요되는 재정지출, 즉 관람료 수입 감소부분과 증가된 박물관 운영비를 위해 연간 약 1억 2천만 위안(한화 약 170억원)이 투입된다. 그 중 3분의 1 이상의 비용은 새롭게 추가된 21개 무료관람시행기관을 위한 것이며, 이는 전부 베이징시 재정이 부담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외에 무료관람에 필요한 박물관의 시설 개조 및 보수 등을 위해 일회성으로 3천만 위안(한화 약 42억 5천만원)정도를 지원하고 이는 정부재정이 부담한다.¹¹⁵⁾

베이징시의 33개 무료관람 시행관¹¹⁶⁾

※ 2008년 3월 25일 기준

박물관 명칭	1일	무료관람 방식	유료 항목	관람 시간	폐관일
--------	----	---------	-------	-------	-----

114) 2004년 1월 1일 저장양성(浙江省)의 가장 큰 박물관 중 하나인 저장양성박물관(浙江省博物館)이 성(省)급 박물관으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무료관람을 시행하였다. 이는 저장양성(浙江省) 위원회와 정부 그리고 성(省) 재정 부문의 지원에 의한 것으로 저장양성 문물국(浙江省文物局)은 2003년 12월 저장양성박물관(浙江省博物館)과 중국비단박물관(中國絲綢博物館)의 무료관람시행을 발표하였다. 이 발표가 있기 전 2003년 5월에는 저장양성(浙江省) 항저우시(杭州市) 소속의 모든 박물관과 기념관이 이미 무료로 개방되었다. 여기에는 중국차박물관(中國茶葉博物館), 남송관요박물관(南宋官窯博物館), 항저우 역사박물관(杭州歷史博物館), 소동파기념관(蘇東坡紀念館) 등이 포함되었다. 2008년에는 저장양성(浙江省) 문화문물부문이 관리하는 성(省), 시(市), 현(縣)급 박물관이 전면무료개방 되어 이미 무료관람을 시행하고 있는 저장양성(浙江省)의 60여개 국유박물관에 60여개 박물관이 추가로 무료화 된다.

115) http://news.xinhuanet.com/newscenter/2008-03/29/content_7878059.htm

116) <http://www.beijingww.com/2/2008/03/25/82@52885.htm>

	최대 관람객 수				
서우두박물관 (首都博物館)	3,000	단체관람객은 1주일 전에 전화 예약 필요, 사전에 관람권을 수령하여 당일 참관.	• 기획전 및 특별전 • 해설비 • 음성안내기 대여 • 교육 활동 지역 내에서의 활동	9:00-17:00	월요일
중국인민 항일 전쟁기념관(中國人民抗日戰爭紀念館)	5,000	단체 관람 사전 전화 예약.	• 해설비 • 음성안내기 대여 • 영화상영	9:00-16:30	월요일
초장호지도전 유전기념관(焦莊戶地道戰遺址紀念館)	1,000	사전예약, 현장에서 관람권 수령.	없음	8:30-16:30	월요일, 화요일
베이징 자연박물관(北京自然博物館)	3,000	단체관람 1주일 전 전화 예약.	• 기획전 • 음성안내기 대여 • 영화상영	8:30-17:00	월요일
쉬뻬이홍기념관(徐悲鴻紀念館)	500	단체 관람 사전 전화 예약.	• 음성안내기 대여	9:30-17:00	월요일
이대소열사능원(李大釗烈士陵園)	800	단체관람 1주일 전 전화 예약.	없음	8:00-15:00	화요일
베이징 단성 연무청 관리처(北京團城演武廳管理處)	500	수시로 참관.	• 해설비 • 음성안내기 대여 • 관람객이 참여하는 항목	9:00-16:00	월요일
베이징 서주연도 유적박물관(北京西周燕都遺址博物館)	800	현장에서 관람권 수령, 단체 관람은 3일 전에 전화예약.	• 음성안내기 대여	9:00-16:00	월요일
베이징 대보태 서한묘박물관(北京大葆台西漢墓博物館)	600	현장에서 관람권 수령.	• 해설비 • 음성안내기 대여 • 관람객이 참여하는 항목	9:00-16:00	월요일
베이징 요금 성단 박물관(北京遼金城垣博物館)	200	20인 이상의 단체 관람은 사전전화 예약, 유적지 참관은 최대 30인까지만 제한.	• 음성안내기 대여	9:00-16:00	월요일
노사기념관(老舍紀念館)	300	하루 전 전화예약, 현장에서 관람권 수령.	• 음성안내기 대여	9:00-16:00	월요일
베이징 남해자미 녹원박물관(北京南海子麋鹿苑博物館)	2,000	수시로 참관.	• 해설비 • 전동 관람차 • 회의실 사용, 식사와 숙박	9:00-16:00	없음
베이징 복장학원	400	단체관람은 사전	없음	월/화요일	수요일,

민족복식박물관 (北京服裝學院民族服飾博物館)		에 전화 예약.		8:30-11:30 수/목/금요일 13:30-16:30	일요일
베이징 인민예술극장 연극박물관 (北京人民藝術劇院戲劇博物館)	400	현장에서 관람권 수령.	• 해설비	10:30-19:30	월요일
중국영화박물관 (中國電影博物館)	2,000	전화예약, 인터넷 예약, 현장에서 표 구입 등 세 가지 방식.	• 기획전 • 해설비 • 음성안내기 대여 • 관람객이 참여하는 항목 • 영화 상영	9:00-16:30	월요일
베이징시 금청교육기지 (北京市禁毒教育基地)	1,200	전화예약, 인터넷 예약, 현장에서 관람권 수령 등 세 가지 방식 사용 현장 등기 : 신분증, 군관증, 노인증.	• 해설비 • 영화 상영	9:00-16:00	월요일
중국장성박물관 (中國長城博物館)	3,000	단체 관람은 사전 전화 예약.	• 해설비 • 음성안내기 대여	9:00-17:00	월요일
밀운현박물관 (密雲縣博物館)	1,000	단체 관람은 사전 전화 예약.	없음	8:00-17:30	월요일
창평구박물관 (昌平區博物館)	300	전화 예약.	없음	8:30-16:30	월요일
상택문화진열관 (上宅文化陳列館)	500	현장에서 관람권 수령.	없음	9:00-16:00	월요일
문두구박물관 (門頭溝區博物館)	2,000	단체 관람은 사전에 전화 예약.	없음	9:00-16:00	월요일
해전구박물관 (海淀區博物館)	500	단체 관람은 사전에 전화예약, 관람권은 별도 수령하지 않아도 됨.	• 음성안내기 대여	9:00-16:30	월요일
평북항일열사기념원 (平北抗日烈士紀念園)	8,000	전화예약, 현장에서 관람권 수령.	• 음성안내기 대여 • 영화상영	8:30-16:30	없음
베이징 선남문화박물관 (北京宣南文化博物館)	500	단체관람은 3일 전에 전화 예약.	• 음성안내기 대여	9:00-16:30	월요일
향산쌍청별장 (香山雙清別墅)	5,000	수시로 참관 가능.	없음	8:30-16:00	없음
곽수경기념관 (郭守敬紀念館)	2,000	미정. ¹¹⁷⁾	미정	미정	미정
조설근기념관 (曹雪芹紀念館)	5,000	단체 관람은 전화 예약 필요, 관내 관람자수가 500명	• 해설비	8:30-16:30	월요일

		을 초과할 시 현장에서 관람권을 수령해 참관.			
평서인문항일투쟁기념관(平西人民抗日鬪爭紀念館)	5,000	관람권 사전 수령, 현장 수령, 전화예약 모두 가능.	없음	8:30-16:30	월요일
기열차정진 군사령 구유적진열관(冀热察挺進軍司令部舊址陳列館)	1,000	전화예약, 시간대별 접대.	없음	8:00-17:00	없음
어자산 항일전쟁기념관(魚子山抗日戰爭紀念館)	400	수시로 참관 가능.	• 해설비	7:30-17:00	없음
중국항일전쟁기념조소원(中國抗日戰爭紀念雕塑園)	2,000	단체 관람은 사전에 전화 예약.	• 해설비	8:00-17:00	월요일
고북구전역진망장사 공묘(古北口戰役陣亡將士公墓)	1,500	전화예약, 현장에서 관람권 수령.	• 음성안내기 대여	8:00-17:00	수요일
‘공산당 없는 신 중국은 없다’ 곡창작지(房山區霞雲嶺鄉《没有共產黨就没有新中國》詞曲創作地)	2,000	전화예약, 현장에서 관람권 수령.	없음	8:30-17:00	없음

a. 베이징시 무료관람 시행범위

베이징 시(市)와 구(區)에 소속된 69개 박물관과 기념관 중 중앙정부가 규정한 무료관람제도 시행조건에 부합하는 박물관은 모두 12개관이였다. 베이징시는 지속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해 시(市)소속 박물관과 구(區), 현(縣)소속 박물관 중 16개관을 확정하였고, 동시에 5개 애국주의 교육기지 또한 무료개방범위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베이징시는 33개관이 무료로 개방되었고, 이는 다른 성(省), 시(市)의 무료관람시행 박물관수와 비교해 상위에 속하는 것이다.

무료로 개방되는 베이징시의 33개 박물관 중 7개관은 시내 중심에 위치해있고, 10개관은 근교(近郊)에, 16개관은 교외(遠郊)에 위치해있다. 이에 대해 시문물국(市文物局)의 관련 책임자는 베이징시 시내 중심의 박물관들과 연속관계가 복잡하고, 다수의 박물관은 중앙기관이 관할하기 때문에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외곽의 박물관은 일반적으로 면적이 넓고 관람객 수도 비교적 적어 무료관람에 해당하는 박물관 수가 비교적 많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료관람시행 명단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박물관에 대해서는 관람료 할인 혜택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문물부문은 이들 박물관의 점진적인 무료관람시행을 고려하고 있다.¹¹⁷⁾

117) 2008년 7월 개관.

b. 베이징시 박물관 무료관람방법

관람객들은 관람하기 전에 전화나 인터넷 예약을 해야 하고, 예약증명서를 가지고 무료관람권을 배부 받은 후 관람할 수 있다. 이외에 무료관람시행 이후 일부 박물관에서 개최하는 기획전 및 특별전은 별도로 표를 구입해야한다. 일부 박물관의 영화상영이나 음성안내기 등과 관련한 대여료도 따로 지불해야한다.

c. 무료관람시행을 연기한 박물관

2008년 3월 28일 무료개방하기로 한 33개 박물관 중 4개관은 무료관람시행을 연기하였다. 베이징자연박물관(北京自然博物館)의 경우, 정문 앞 도로의 개조로 문을 닫고 수리 중이었으며, 2008년 7월 정식으로 무료개방 되었다. 중국장성박물관(中國長城博物館)은 전시장 개조로 5월 18일 무료 개방되었다. 베이징식물원(北京植物園) 내의 조설근고택(曹雪芹故居) 역시 전시장 개조로 5월 1일 정식으로 무료 개방되었다. 곽수경기념관(郭守敬紀念館)은 내부 수리로 인해 7월초에 무료화 되었다.

d. ‘박물관 전 구간표(博物館通票)’의 처리방식

2007년 말 발행을 시작한 ‘2008년 베이징 지역 박물관 전 구간표(2008年北京地區博物館通票)’¹¹⁹⁾는 베이징시 98개 박물관과 명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 중 무료관람에 포함되는 기관은 모두 22곳 이었다.

이에 대해 시문물국의 관련책임자는 박물관의 무료관람 시행이후에도 ‘박물관 전 구간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고, 환불을 요구하는 시민들에 대해서는 전액 환불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¹²⁰⁾

환불처리는 2008년 4월 8일부터 5월 8일까지 베이징고대건축박물관(北京古代建築博物館)에서 시행되었다. 환불처리는 환불 3일전에 사전예약전화를 해야 하며,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실시하였다.¹²¹⁾

나. 지양수성(江蘇省) 174개관 무료관람 시행

지양수성은 2008년 5월 5일 성(省) 내의 174개 공립박물관과 기념관 및 애국주의 교육기지 무료관람대상관을 발표하였고, 그 숫자나 범위에서 전국에서 최대 규모를 차지하였다. 우화태 열사능원(雨花台烈士陵園), 저우은라이 기념관(周恩來紀念館), 사가병 혁명역사기념관(沙家浜革命歷史紀念館), 모산신사군 기념관(茅山新四軍紀念館) 등 공공문화시설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별전은 무료관람대상에서 제외된다.

118) http://www.china.com.cn/culture/txt/2008-03/26/content_13594377_2.htm

119) ‘박물관 전 구간표(博物館通票)’는 1991년 설립되었고 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박물관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베이징지역의 박물관을 이해하고, 동시에 박물관을 선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10여 년 동안 전 구간표의 가격은 1991년의 50위안에서 2008년 80위안으로 증가하였고 그 범위도 확대되었다.

120) http://www.china.com.cn/culture/txt/2008-03/26/content_13594377_2.htm

121) <http://www.thebeijingnews.com/news/intime/2008/04-03/021@080923.htm>

지양수성은 2004년 일본군난징대학살 재난동포기념관(侵華日軍南京大屠殺遇難同胞紀念館)이 무료 개방된 이후, 66개 성(省)급 애국주의 교육기지가 무료관람을 시행하였다. 무료관람시행으로 인한 수입 감소부분은 중앙재정이 부담하고, 운영경비 증가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재정이 20% 보조하게 된다.¹²²⁾

지양수성 무료관람 시행관

성(省)/ 시(市)	관 수	박물관 명
지양수성 (江蘇省) 직속	7개관	난징박물관(南京博物院), 지양수성 과학기술관(江蘇省科學技術館), 난징 체육학교세계관군원(南京體育學院“世界冠軍園”), 지양수성자료관(江蘇省檔案館), 난징대학교 역사관(南京大學校史館), 중화농업문명박물관(中華農業文明博物館), 수통대교 전람관(蘇通大橋展覽館)
난징시 (南京市)	9개관	일본군난징대학살 재난동포기념관(侵華日軍南京大屠殺遇難同胞紀念館), 정해사 ‘남경조약’ 사료 진열관(靜海寺《南京條約》史料陳列館), 중공대표단 매원신촌 기념관(中共代表團梅園新村紀念館), 우화태 열사능원(雨花台烈士陵園), 난징 구름무늬비단박물관(南京雲錦博物館), 난징시 자료관(南京市檔案館), 난징국방원(南京國防園), 난징시 강녕구 자료관(南京市江寧區檔案館) 등
우시시 (無錫市)	15개관	우시시 혁명열사능원(無錫市革命烈士陵園), 강양 거위공원(江陽鵝鼻嘴公園), 강양천화문화센터(江陽天華文化中心), 이싱 쉬뻬이홍기념관(宜興徐悲鴻紀念館), 장문천 고택(張聞天舊居), 우시 비각진열관(無錫碑刻陳列館), 우시 중국민족 공상업박물관(無錫中國民族工商業博物館), 지방극박물관(錫劇博物館), 토우박물관(泥人博物館), 신사군 육사기념관(新四軍六師紀念館), 안양서원(安陽書院), 우시현 혁명운동기념관(無錫縣革命運動紀念館), 문연방 문물보호소지역(文淵坊文物保護小區), 우시민간남인화포박물관(無錫民間藍印花布博物館) 등
취저우시 (徐州市)	10개관	준해전역 열사기념탑/관(淮海戰役烈士紀念塔/館), 취저우시박물관(徐州市博物館), 취저우시자료관(徐州市檔案館), 전역열사능원(碾庄戰役烈士陵園), 왕결열사사적진열관(王杰烈士事迹陳列館), ‘백장단’진열관(“百將團”團史陳列館), 취저우시 장인방용군 사적진열관(徐州市莊印芳拥軍事事迹陳列館), 왕결열사능원(王杰烈士陵園), 송진중기념관(宋振中紀念館) 등
창저우시 (常州市)	10개관	창저우 ‘삼결’기념관(常州“三杰”紀念館) 구추백고택(瞿秋白故居), 장태뢰고택(張太雷故居) 포함한 창저우 ‘삼결’기념지(常州“三杰”紀念地), 운대영 기념광장(惲代英紀念廣場), 창저우시 혁명열사능원(常州市革命烈士陵園), 창저우시자료관(常州市檔案館), 금단시 화나경기념관(金壇市華羅庚紀念館), 육군예비역통신단역사관(陸軍預備役通信團團史館), 창저우시 화산국방교육훈련센터(常州市花山國防教育訓練中

122) http://rss.xinhuanet.com/newsc/politics/2008-05/06/content_8112925.htm

		心), 무진혁명 열사능원(武進革命烈士陵園), 창저우시박물관(常州市博物館), 구추백기념관(瞿秋白紀念館)
수저우시 (蘇州市)	16개관	사가병 혁명역사박물관(沙家浜革命歷史紀念館), 고염무고택(顧炎武故居), 수저우시박물관(蘇州市博物館), 수저우 혁명박물관(蘇州革命博物館), 수저우시 비각박물관(蘇州市碑刻博物館), 수저우 민속박물관(蘇州民俗博物館), 수저우시 자료관(蘇州市檔案館), 수저우 적양원 원사풍채 전람관(蘇州籍兩院院士風采展覽館), 수저우 황산열사능원(蘇州橫山烈士陵園), 동도원(東渡苑), 창저우시자료관(常熟市檔案館), 창저우시박물관(常熟市博物館), 정화기념관(鄭和紀念館), 쿤산시 곤륜당미술관(昆山市昆侖堂美術館), 수저우 공업원구전시청(蘇州工業園區展示廳), 수저우 희곡박물관(蘇州戲曲博物館)
난통시 (南通市)	23개관	소중칠전칠첩기념관(蘇中七戰七捷紀念館), 난통시 종수산열사능원(南通市鐘秀山烈士陵園), 여고열사능원(如皋烈士陵園), 난통박물관(南通博物苑), 개동시 동남중학(啓東市東南中學), 중국 난통독립지부 기념지(中共南通獨立支部紀念地), 여동현 열사능원(如東縣烈士陵園), 해문장건기념관(海門張謇紀念館), 오아노기념실(吳亞魯紀念室)을 포함한 마당혁명열사기념관(馬塘革命烈士紀念館), 계동시열사능원(啓東市烈士陵園), 난통시자료관(南通市檔案館), 난통시박물관(南通市城市博物館), 중국 난통주산박물관(中國南通珠算博物館), 홍기민병단사적 진열관(角斜紅旗民兵團史績陳列館), 중국 체육박물관 난통관(中國體育博物館南通館), 난통 개이예술관(南通個藝藝術館), 중국인민해방군군사관(中國人民解放軍南通分區軍史館), 난통 연박물관(南通風箏博物館), 중화영지문화관(中華靈芝文化館), 해안박물관(海安博物館), 여고박물관(如皋博物館), 통주 석항 애국주의 교육기념관(通州石港愛國主義教育紀念館), 해문시 과학기술관(海門市科技館)
리엔원항시 (連雲港市)	15개관	간위현 항일산열사능원(贛榆抗日山烈士陵園), 리엔원항시 박물관(連雲港市博物館), 리엔원항시 혁명기념관(連雲港市革命紀念館), 리엔원항 국방교육기지(連雲港國防教育基地), 하이저우지역 초기 당조직활동기지(海州地區早期黨組織活動基地), 동해안봉산 열사능원(東海安峰山烈士陵園), 관원현 열사능원(灌雲縣烈士陵園), 관난현 열사능원/기념관(灌南縣烈士陵園/紀念館), 리엔원항시 민속박물관(連雲港市民俗博物館), 관난현박물관(灌南縣博物館), 관원현박물관(灌雲縣博物館), 동하이현박물관(東海縣博物館), 간위현박물관(贛榆縣博物館) 등
준안시 (淮安市)	12개관	저우은라이 기념관(周恩來紀念館), 유노장 82열사능원(劉老莊八十二烈士陵園), 신안여행단 혁명역사진열관(新安旅行團革命歷史陳列館), 소환변 지역정부기념관(蘇皖邊區政府舊址紀念館), 연수전역기념관(蓮水戰役紀念館), 황화당 신사군군부기념관(黃花塘新四軍軍部紀念館), 관천배사당(關天培祠堂), 우이현 철산사과보원(盱眙鐵山寺科普園), 준안수리중요공사(淮安水利樞紐工程), 차교전역열사능원(車橋戰役烈士陵園), 준안시박물관(淮安市博物館) 등

엔청시 (鹽城市)	9개관	신사군기념관(新四軍紀念館), 염도시태산묘 신사군부엿터(鹽城市泰山廟新四軍軍部舊址), 염도시박물관(鹽城市博物館), 사양현 화중공위기념관(射陽縣華中工委紀念館), 푸닝현 염부구항일전사장병기념관/탑(阜寧縣鹽阜區抗日陳亡將士紀念館/塔), 동타이시 삼창열사능원(東台市三倉烈士陵園), 엔청시 육공사관리처(鹽城市陸公祠管理處), 지엔후현 화중노예항일열사능원(建湖縣華中魯藝抗日烈士陵園), 다평시열사능원(大豐市烈士陵園)
양저우시 (揚州市)	14개관	양저우 혁명열사능원(揚州革命烈士陵園), 일본군 만복교 대학살 재난동포 기념비(侵華日軍萬福橋大屠殺遇難同胞紀念碑), 소중공학기념비(蘇中公學紀念碑), 양저우박물관(揚州博物館), 양저우 중국조각인쇄박물관(揚州中國雕版印刷博物館), 지양두 수리중요공사(江都水利樞紐工程), 양저우시 자료관(揚州市檔案館), 바오잉현 열사능원(寶應縣烈士陵園), 지양두시 열사능원(江都市烈士陵園), 양저우 중학수인당(揚州中學樹人堂), 양저우 물문화박물관(揚州水文化博物館), 바오잉현박물관(寶應縣博物館), 지양두시박물관(江都市博物館), 이증시박물관(儀征市博物館)
즌지양시 (鎮江市)	13개관	모산신사군 기념관(茅山新四軍紀念館), 즈지양시 열사능원(鎮江市烈士陵園), 위강전투 승리기념비(韋崗戰鬥勝利紀念碑), 즈지양 백선공원(鎮江伯先公園), 몽계원(夢溪園), 단양 총전위엿터기념관(丹陽總前委舊址紀念館), 단양혁명진열관(丹陽革命陳列館), 쥐용시박물관(句容市博物館), 즈지양박물관(鎮江博物館), 즈지양시 민간문화예술관(鎮江市民間文化藝術館), 단양시박물관(丹陽市博物館), 냉훤기념관(冷遙紀念館), 신사군사현 항적총회 기념관(新四軍四縣抗敵總會紀念館)
타이저우시 (泰州市)	10개관	태황교 혁명역사기념관(泰興黃橋革命歷史紀念地)(신사군 황교전여기념관(新四軍黃橋戰役紀念館), 신사군 황교전역 혁명열사기념탑(新四軍黃橋戰役革命烈士紀念塔), 신사군 소북지휘부엿터(新四軍蘇北指揮部舊址), 신사군 제삼중군 사령부엿터(新四軍第三縱隊司令部舊址), 양근사열사능원(楊根思烈士陵園), 타이저우시 혁명열사기념관(泰州市革命烈士紀念館), 싱화시박물관(興化市博物館), 신사군 소북지휘부엿터(新四軍蘇北指揮部舊址曲江樓), 중공강절구 태흥 독립지부 엿터기념관(中共江浙區泰興獨立支部舊址紀念館), 징지양시 열사능원(靖江市烈士陵園), 지양옌시 혁명열사능원(姜堰市革命烈士陵園), 지양옌시박물관(姜堰市博物館) 등
수치옌시 (宿遷市)	11개관	숙북대전기념관(宿北大戰紀念館), 설풍묘원(雪楓墓園), 애원열사능원(愛園烈士陵園), 사홍열사능원(泗洪烈士陵園), 쌍구참안기념관(雙溝慘案紀念館), 술양 청소년광장(沭陽靑少年廣場), 술양현 열사능원(沭陽縣烈士陵園), 중국양수박물관(中國楊樹博物館), 주단장군기념관(朱瑞將軍紀念館), 소채집 열사능원(小蔡集烈士陵園), 쓰홍현박물관(泗洪縣博物館)

다. 선양시(沈陽市)의 무료관람과 할인혜택

선양시의 경우에는 2008년 2월 1일부터 28개 공익성 문물 박물관 기관에 대해 전면무료관람과 정기무료관람 및 할인혜택 등의 관람제도를 시행하였다. 예를 들어, ‘918’역사박물관(“九一八”歷史博物館), 중공 만주성 위구지 옛터기념관(中共滿洲省委舊址紀念館), 선양 탑만사리탑 문물관리소(沈陽塔灣舍利塔文物管理所), 선양 항미원조 열사능원기념관(沈陽抗美援朝烈士陵園紀念館), 선양 주조박물관(沈陽鑄造博物館) 등 9개관은 전면 무료관람을 시행하였다.

또한 선양시자료관(沈陽市檔案館), 노용구주박물관(老龍口酒博物館), 동북대학 장학량 업적전시관(東北大學張學良業績展館), 리아오닝대학 자연박물관(遼寧大學自然博物館) 등 9개관은 정기적으로 무료관람을 실시하고, 선양 고궁박물관(沈陽故宮博物院), 장씨사부박물관(張氏師府博物館), 선양 금융박물관(沈陽金融博物館), 선양 신악유적박물관(沈陽新樂遺址博物館), 청복능(淸福陵), 청소능(淸昭陵) 등 10개 기관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¹²³⁾

라. 전국 1급 박물관의 무료관람제도

중국은 국가문물국의 규정에 따라, 전국의 박물관을 1, 2, 3급으로 나누어 이 중 1급에 해당하는 박물관은 연간 최소 60일을 무료로 개방해야한다. 1급 박물관의 평가기준은 소장품의 수량과 종류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야하며 역사, 문화, 과학, 예술적으로 뛰어난 가치가 있고, 국제적으로도 의미 있는 문물을 소장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사회교육기관과 교육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 인원을 보유하고 있어야하며, 관내에 전문교육서비스시설을 갖추고 있어야한다. 이외에도 일정한 수 이상의 자원봉사자를 보유하고 있어야하며, 일정한 교육을 거친 자원봉사자들은 박물관 혹은 관람객들을 위해 매년 4회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

1급 박물관은 연간 개방시간이 300일 이상 이어야하고, 비국유박물관일 경우 240일 이상이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전시기간 중 정기무료관람일은 60일 이상 이어야 하고 할인혜택을 시행해야한다. 또한 연간 무료로 방문하는 청소년 관람객 수는 반드시 총 관람객 수의 일정비율을 차지해야한다.

베이징시는 서우두박물관(首都博物館), 베이징자연박물관(北京自然博物館), 중국인민항일전쟁기념관(中國人民抗日戰爭紀念館), 베이징천문관(北京天文館) 등 5개 시(市) 소속 박물관과 고궁박물관(故宮博物院), 중국과학기술관(中國科學技術館), 중국지질박물관(中國地質博物館), 중국인민혁명군사박물관(中國人民革命軍事博物館), 중국항공박물관(中國航空博物館) 등 6개 중앙부문 소속 박물관 11개관 이 선정되었다. 박물관등급평가 업무는 3년에 한 번씩 실시하게 된다.¹²⁴⁾

2008년 5월 16일 국가문물국은 《전국 박물관 평가방법(全國博物館評估辦法)》에 따라, 박물관의 자체 평가 보고와 성(省)급 문물행정부문이 추천하고, 전문가의

123) <http://www.art-zj.com/sdgc-info.asp?id=102&m=34>

124) <http://news.sina.com.cn/c/2008-05-07/134615494241.shtml>

심의를 거쳐 전국의 83개 박물관을 국가 1급 박물관(國家一級博物館)으로 지정하였다.¹²⁵⁾

국가 1급 박물관 명단

성(省)/ 시(市)	관 수	박물관 명
베이징시 (北京市)	11개관	고궁박물관(故宮博物院), 중국인민혁명군사박물관(中國人民革命軍事博物館), 중국과학기술관(中國科學技術館), 중국지질박물관(中國地質博物館), 중국항공박물관(中國航空博物館), 서우두박물관(首都博物館), 중국인민항일전쟁기념관(中國人民抗日戰爭紀念館), 베이징자연박물관(北京自然博物館), 베이징천문관(北京天文館), 베이징루쉰박물관(北京魯迅博物館), 주구점베이징인유적박물관(周口店北京人遺址博物館)
티엔진시 (天津市)	3개관	티엔진박물관(天津博物館), 저우엔라이 등잉차오기념관(周恩來鄧穎超紀念館), 티엔진자연박물관(天津自然博物館)
허베이성 (河北省)	2개관	허베이성박물관(河北省博物館), 서백파기념관(西柏坡紀念館)
산둥성 (山西省)	3개관	산시박물관(山西博物院), 팔로군태행기념관(八路軍太行紀念館), 중국석탄박물관(中國煤炭博物館)
내몽구자치 구(內蒙古自 治區)	1개관	내몽구박물관(內蒙古博物院)
리아오닝성 (遼寧省)	4개관	리아오닝성박물관(遼寧省博物館), 선양 ‘918’역사박물관(沈陽“九一八”歷史博物館), 뤼순박물관(旅順博物館), 항미원조기념관(抗美援朝紀念館)
지린성 (吉林省)	1개관	지린성자연박물관(吉林省自然博物館)
헤이룽지양 성(黑龍江省)	3개관	동북열사기념관(東北烈士紀念館), 왕진시기념관(王進喜紀念館), 아이후이 역사진열관(愛輝歷史陳列館)
상하이시 (上海市)	3개관	상하이박물관(上海博物館), 중공일대개최지기념관(中共一大會址紀念館), 상하이 루쉰기념관(上海魯迅紀念館)
지양수성 (江蘇省)	5개관	난징박물관(南京博物院), 일본군난징대학살 재난동포기념관(侵華日軍南京大屠殺遇難同胞紀念館), 수저우박물관(蘇州博物館), 난통박물관(南通博物苑), 양저우박물관(揚州博物館)
저지양성 (浙江省)	1개관	저지양성박물관(浙江省博物館)
안후이성 (安徽省)	1개관	안후이성박물관(安徽省博物館)
푸지엔성	5개관	푸지엔박물관(福建博物院), 시아먼화교박물관(廈門華僑博物院), 중

125) <http://www.sach.gov.cn/tabid/343/InfoID/10076/Default.aspx>

(福建省)		국민태연박물관(中國閩台緣博物館), 천저우 해외교통사박물관(泉州海外交通史博物館), 고전회의기념관(古田會議紀念館)
지양시성 (江西省)	4개관	지양시성박물관(江西省博物館), 난창 팔일봉기 기념관(南昌八一起義紀念館), 정강산혁명박물관(井岡山革命博物館), 루이진 중앙혁명근거지기념관(瑞金中央革命根据地紀念館)
산둥성 (山東省)	4개관	칭다오시박물관(青島市博物館), 중국해군박물관(中國海軍博物館), 중국갑오전쟁박물관(中國甲午戰爭博物館), 칭저우시박물관(青州市博物館)
허난성 (河南省)	4개관	허난박물관(河南博物院), 정저우박물관(鄭州博物館), 루어양박물관(洛陽博物館), 난양한화관(南陽漢畫館)
후베이성 (湖北省)	3개관	후베이성박물관(湖北省博物館), 우한시박물관(武漢市博物館), 징저우박물관(荊州博物館)
후난성 (湖南省)	3개관	후난성박물관(湖南省博物館), 소산마오쩌둥기념관(韶山毛澤東同志紀念館), 리우샤오치기념관(劉少奇同志紀念館)
광둥성 (廣東省)	3개관	광둥성박물관(廣東省博物館), 서한남월왕박물관(西漢南越王博物館), 손중산고택기념관(孫中山故居紀念館)
광시장족자치구 (廣西壯族自治區)	1개관	광시장족자치구박물관(廣西壯族自治區博物館)
충칭시 (重慶市)	1개관	충칭 중국삼협박물관(重慶中國三峽博物館)
쓰촨성 (四川省)	5개관	광한삼성퇴박물관(廣漢三星堆博物館), 등시아오팡고택진열관(鄧小平故居陳列館), 즈공 공룡박물관(自貢恐龍博物館), 청두 무후사박물관(成都武侯祠博物館), 청두 두보초당박물관(成都杜甫草堂博物館)
구이저우성 (貴州省)	1개관	준이회의기념관(遵義會議紀念館)
윈난성 (雲南省)	2개관	윈난성박물관(雲南省博物館), 윈난민족박물관(雲南民族博物館)
시장자치구 (西藏自治區)	1개관	시장박물관(西藏博物館)
산시성 (陝西省)	6개관	산시역사박물관(陝西歷史博物館), 진시황 병마용박물관(秦始皇兵馬俑博物館), 연안혁명기념관(延安革命紀念館), 시안비림박물관(西安碑林博物館), 시안반과박물관(西安半坡博物館), 한양능박물관(漢陽陵博物館)
닝시아회족자치구 (寧夏回族自治區)	1개관	고원박물관(固原博物館)
신장위구르자치구 (新疆維吾爾自治區)	1개관	신장위구르자치구박물관(新疆維吾爾自治區博物館)

② 정부지원

문화부의 관련부문 책임자인 저우허핑(周和平)은 박물관 무료관람 시행에 대해 중앙재정은 전국 박물관의 무료관람 지원을 위하여 2억 위안(한화 약 272억 3천만원)을 지출하게 된다고 발표하였다.¹²⁶⁾

중앙급 박물관과 기념관의 무료관람제도 시행에 따른 관련경비는 중앙재정이 부담하고, 지방소속 박물관과 기념관의 관련경비는 중앙과 지방 재정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지방소속 박물관과 기념관의 관람료 수입 감소부분은 모두 중앙재정에서 부담하며, 운영비 증가에 따른 경비에 대해서는 중앙재정이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하게 된다.

중앙재정은 이외에도 주요 박물관의 서비스 능력 제고에 필요한 경비도 지원하게 된다. 이를 위해 중국은 박물관 등급 지정제도를 시행해 박물관의 등급을 구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가급박물관(國家級博物館)으로 확정된 일부 지방소속 주요 박물관은 중앙재정의 지원이 더 확대된다.¹²⁷⁾

박물관 무료 관람정책으로 인한 재정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 재정지원에 관한 세부사항

재정부는 《박물관, 기념관 무료개방 필수항목에 대한 자금관리방법(博物館, 紀念館免費開放專項資金管理辦法)》 제정에 착수하였고, 2007년에는 무료관람시행을 위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공익성 문화시설의 무료개방 정책에 관한 통지(關於落實公益性文化設施向未成年人免費開放財稅政策的通知)》¹²⁸⁾를 발표하였다.

2007년 4월부터 9월까지 재정부는 공익성 문화시설을 대중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기 위한 연구, 조사를 진행하였고, 이에 따른 관련 재정지원정책을 제시하였다.¹²⁹⁾ 2008년 1월 23일 《전국 박물관, 기념관의 무료개방에 관한 통지(關於全國博物館, 紀念館免費開放的通知)》를 발표하였고, 그중 재정지원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각급 재정부문은 박물관과 기념관의 무료관람제도의 시행과 관련한 소요경비에 산을 보장해준다. 중앙재정은 필요한 부분의 자금예산을 계획하고 지방박물관의 무료관람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한다. 전시환경개선과 기획전 개최를 장려하며 중점박물관(重點博物館)의 서비스 능력을 증진시키고, 관람료 할인제도를 시행하는 박물관과 자체적으로 무료관람을 시행하고 있는 박물관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한다. 그중

126) http://www.ce.cn/kjwh/shouye/yw1/200803/13/t20080313_14823221.shtml

127) <http://www.beijingww.com/2/2008/02/14/22@49863.htm>

128) 《关于落实公益性文化设施向未成年人免费开放财税政策的通知》, (财教〔2007〕65号)
http://www.jxcs.gov.cn/tax/statute/display_statute.asp?id=3727

129) http://www.gov.cn/gzdt/2008-02/05/content_884339.htm

박물관과 기념관을 무료로 개방하는 기관의 관람료 수입 감소 부분은 중앙재정이 모두 부담한다. 운영 경비의 증가부분은 중앙정부가 동부 20%, 중부 60%, 서부 80%의 비율로 차등 보조한다.

지방 재정부문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담당해야하고, 현지박물관과 기념관의 무료 관람이나 할인혜택에 따른 자금지원을 보장해야한다. 중앙과 지방 재정의 자금을 총괄하고 시설투자과 개조를 위한 경비를 책임지며, 서비스 수준의 향상과 서비스 개선 및 직원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해야한다. 직원들의 업무시간과 업무량 증가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고 박물관의 정상화와 효율성을 보장해야한다.”

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중앙급 박물관과 기념관의 무료관람에 대한 소요경비는 중앙재정이 부담하고, 지방소속 박물관과 기념관의 경비는 중앙과 지방이 나누어 부담하는 것으로 제정하고 있다. 관련 경비보장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재정 책임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료관람시행 명단에 있는 지방소속 박물관과 기념관의 관람료수입 감소부분은 전부 중앙재정이 부담하고, 운영경비의 증가부분은 중앙재정이 동부 20%, 중부 60%, 서부 80%의 비율로 지급한다.

둘째, 박물관의 등급을 지정하고 중점박물관(重點博物館)의 서비스 능력 강화를 위한 경비를 지원한다. 박물관의 등급은 행정관리부분이 지정하게 되는데 이때 문화유산보호 대상인지, 박물관의 소장품 수량 및 전시실 면적과 직원 수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중앙과 지방이 공동으로 원칙을 정하고, 지방소속의 일부 대표적인 중점박물관은 다시 국가급박물관으로 지정한다. 중앙재정은 이들 박물관의 소장품 확대와 전시수준 향상 및 박물관의 교류전 개최 등을 장려한다.

셋째, 지방소속 박물관과 기념관의 전시환경 개선과 기획전 개최를 위한 소요경비는 지방재정이 부담하며, 중앙재정은 이에 대해 표창과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러한 조치는 중, 서부 지역의 박물관과 기념관에 집중된다.

넷째, 관람료 할인과 자체적으로 무료관람을 시행한 박물관들의 소요경비는 지방재정이 부담하고, 중앙재정은 성적이 우수한 성(省)에 대해 표창한다. 관람료 할인제도를 시행하거나 이미 무료관람제도를 시행해온 박물관과 기념관들이 필요한 경비는 지방재정이 책임진다.¹³⁰⁾

③ 무료관람제도 시행 규정

《전국 박물관, 기념관의 무료개방에 관한 통지(關於全國博物館, 紀念館免費開放的通知)》

130) http://www.gov.cn/gzdt/2008-02/05/content_884339.htm

2008년 1월 23일 중공중앙선전부와 재정부, 문화부, 국가문물국은 전국 박물관과 기념관의 무료관람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였다.¹³¹⁾

가. 박물관, 기념관 무료관람의 중요한 의의

박물관, 기념관은 인류 문화유산을 전시하고 국민 교육을 위한 중요한 부분이다. 박물관, 기념관을 대중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것은 사회주의 문화 발전과 번영의 체계적인 실천이며, 사회주의의 핵심적인 가치와 사상을 세우는데 효과적인 수단이다. 또한 이는 대중문화서비스 수준의 제고를 위한 정부의 중요한 조치인 동시에 대중들의 기본적인 문화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실천이기도 하다.

박물관, 기념관의 무료 개방은 박물관의 세계적인 추세와도 부합하는 것이고, 박물관과 기념관을 통한 대중들의 교육적인 기능을 강화하고, 공익을 위한 문화기구로서의 사회적 가치를 발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국제적인 문화 교류 사업을 강화하고 중화민족의 우수한 문화를 널리 알리며, 각 지역과 문화부문은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대중들에게 더 좋은 공공문화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나. 박물관과 기념관의 무료 개방 시행 범위와 절차

a. 시행 범위

전국 각급 문화문물부문이 관리하는 공공박물관과 기념관, 전국 애국주의 교육 시범기지는 전부 무료 개방된다. 그 중 문물건축 및 유적박물관은 잠시 무료관람을 시행하지 않고 미성년과 노인, 현역군인, 장애인, 기초생활대상자 등에게 관람료 할인제도를 계속 시행한다. 박물관과 기념관이 개최하는 기획 특별전은 상황에 따라 관람료를 결정한다.

b. 시행 절차

2008년 중앙급 문화문물부문이 관리하는 박물관은 전면 무료관람을 시행한다. 각 성(省)급 종합박물관과 각급 선전부와 문화문물부문이 관리하는 전국 애국주의 교육 시범기지의 박물관과 기념관은 전면 무료 개방된다. 저지양, 푸지엔, 후베이, 지양시, 안후이, 간쑤 및 신장 등 7개 성(省) 및 구(區)의 문화문물부문이 관리하는 성(省), 시(市), 현(縣)급 박물관은 전면 무료 개방된다. 이 외 자격조건을 갖추고 있는 성, 구, 시의 박물관과 기념관의 전면 무료 개방을 장려한다.

2009년 문물건축 및 유적류박물관을 제외한 전국 각급 문화문물부문이 관리하는 공공 박물관과 기념관 및 전국 애국주의 교육 시범기지도 전면 무료로 개방된다. 잠시 무료개방을 시행하지 않는 박물관과 기념관은 관람료 할인제도를 시행하여 미

131) 《关于全國博物館、紀念館免費開放的通知》，中宣发[2008]2号
http://www.gov.cn/gzdt/2008-02/01/content_877540.htm

성년, 노인, 현역군인, 장애인 등에 대해 무료관람이나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정기 무료 관람일과 가족 할인권 및 특정기간에 적용하는 할인우대권 등 다양한 관람료 혜택 제도를 제정해 대중들의 박물관과 기념관 관람을 장려한다.

c. 박물관과 기념관의 무료관람시행을 위한 기능 보장

박물관, 기념관의 무료 개방을 계기로 ‘세 가지 요소의 결합’을 실현하려 한다. 첫째, 공익을 위한 문화 사업의 개혁과 박물관 운영경비 확대를 추구한다. 둘째, 공공재정의 상호 결합과 재정투입방식의 개선 및 박물관의 서비스 능력과 수준을 제고하고, 셋째, 박물관의 운영규칙에 근거하여 박물관의 개혁을 추진한다.

- 각급 재정부문은 박물관과 기념관의 무료관람제도의 시행과 관련한 소요경비에 산을 보장해준다. 중앙재정은 필요한 부분의 자금예산을 계획하고 지방박물관의 무료관람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한다. 전시환경개선과 기획전 개최를 장려하며 중점박물관의 서비스 능력을 제고한다. 관람료 할인제도를 시행하는 박물관과 자체적으로 무료관람을 시행하고 있는 박물관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한다. 그중 박물관과 기념관을 무료로 개방하는 기관의 관람료 수입 감소부분은 중앙재정이 모두 부담한다. 운영경비의 증가부분은 중앙정부가 동부 20%, 중부 60%, 서부 80%의 비율로 차등 보조한다.

지방 재정부문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담당해야하고, 현지박물관과 기념관의 무료 관람이나 할인혜택에 따른 자금지원을 보장해야한다. 중앙과 지방 재정의 자금을 총괄하고 시설투자과 개조를 위한 경비를 책임지며, 서비스 수준의 향상과 개선 및 직원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해야한다. 직원들의 업무시간과 업무량 증가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고 박물관의 정상화와 효율성을 보장해야한다.

- 박물관과 기념관의 문화상품 판매 수입에 따른 세수혜택제도를 제정해야한다. 이는 문화상품을 개발하고 관련 문화를 전달하는 기능으로 확대해야한다. 박물관과 기념관에 대한 기증문화를 확대해 사회적 기능을 장려하는 한편, 박물관의 운영경비를 확보해야한다.

- 문화유산 보호와 확산의 중요도에 따라 박물관의 등급을 지정하고 일부 지방소속의 대표적인 중화민족역사의 중점박물관에 대해서 중앙정부는 더 많은 자금 투자와 관리 책임을 부담해야한다. 성(省)급 혹은 성(省)급 이하 박물관도 이러한 원칙을 참조하여야 하고, 시(市)급과 현(縣)급의 중점박물관에 대한 중복투자를 피해야한다.

다. 박물관, 기념관 무료관람시행에 대한 관련업무 요청

a. 박물관의 관리기능과 서비스를 개선하고 대중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야한다. 각

관련 박물관은 이미 무료관람을 시행하고 있는 박물관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참고하여 무료관람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 무료관람시행 직후 관람객 수의 급격한 증가를 충분히 고려해 박물관, 기념관의 관리 제도와 운영 체계를 개선하고, 1일 관람객 수를 제한해야 한다.

무료관람시행에 따른 서비스 관리제도와 돌발 상황에 대한 응급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관련 기구들을 완비해야 한다. 동시에 문물의 안전한 보호를 책임져야 하고 대중 서비스를 위해 경비나 해설사, 안내원 등 필요한 직원들을 확충해야 한다. 내부관리와 안전설비 등을 강화하고 무료 개방의 안전함과 질서체계, 관련규범 등을 보장해야 한다.

b. 전시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각 관련 박물관과 기념관은 대중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하고, 무료관람시행 이후 관람객 수를 증가시켜야 한다. 전시내용과 형식을 개선하여 문화교육을 전달하는 장으로써 전문성과 학술성을 적절하게 결합하여야 한다.

지속적으로 새로운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다양한 전시 주제를 개발하여 관람객의 관심을 높여야 한다. 박물관과 기념관의 사회, 교육적 기능을 충분히 발휘해야 하며, 박물관의 서비스 영역을 지속적으로 개발, 발전시키고 서비스 설비 항목을 증가하여 문화 흡입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c. 박물관과 기념관을 활성화해야 한다. 각 관련 박물관과 기념관은 무료관람을 계기로 박물관의 운영규정과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인사제도를 개혁하고 내부조직을 재구성하여 운영방식을 개혁하여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박물관의 무료개방 업무를 지지하고, 사회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되도록 한다.

d. 박물관과 기념관의 관리를 강화하고 무료관람제도 시행에 협조해야 한다.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의 지도아래 각급 선전부와 재정부, 문화문물부문은 각지의 무료관람에 따른 관련 업무를 지도해야 한다.

각 기관의 무료관람제도 시행 상황을 감독하고 심의하여 무료개방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어려움에 대해 수시로 소통하고 협조한다. 각급 문물행정부문은 박물관과 기념관을 관리하고, 이를 위한 관련 법률 및 법규를 정비하고 박물관 관리 시스템을 수립하며, 박물관의 전시 교육과 서비스 등급의 평가 및 분류를 심의한다.¹³²⁾

(2) 무료관람시행을 위한 준비

132) 《关于全國博物館、紀念館免費開放的通知》，中宣发[2008]2号
http://www.gov.cn/gzdt/2008-02/01/content_877540.htm

중국의 무료관람제도는 일부 대상자들에게 관람료 할인혜택을 부여하거나 혹은 일부 성(省), 시(市)에서 무료관람을 시행하는 등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다. 2008년 1월 23일 정식으로 발표한 《전국 박물관, 기념관 무료개방에 관한 통지(關於全國博物館, 紀念館免費開放的通知)》의 <박물관, 기념관 무료관람시행에 대한 관련업무요청>에는 “각 관련 박물관은 이미 무료관람을 시행하고 있는 박물관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참고하여 무료관람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2004년 1월 1일부터 전국의 성(省)급 박물관 중에서 처음으로 무료관람을 시행해 온 저지양성박물관(浙江省博物館)과 베이징시에서 처음으로 무료관람을 시행한 해정구박물관(海澱區博物館)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① 무료관람시행 전부터 무료였던 저지양성박물관

가. 관람객 수 증가

통계에 따르면, 무료관람시행 이후 저지양성박물관은 연간 관람객 수가 약 5-6배 증가하였다. 2004년 105만 6천명이 방문하였고, 2005년에는 박물관의 수리로 관람객이 소폭 감소하여 95만 5천명이, 2006년에는 108만 5천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 2007년에는 128만 5천명에 이르러 박물관 설립이후 최고기록을 세웠다.

무료관람 이후 관람객 층에도 변화가 일어나 타지역 관람객들이 크게 증가하여 원래 관람객 수의 20%를 차지하던 것이 40-50%로 증가하였다. 이외에도 저소득층의 농민이나 노인 등의 관람객 수가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들도 약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 시설정비와 서비스 수준 향상

무료관람에 따른 관람객들의 관람 태도 및 소장품과 관람객의 안전 등에 대한 문제로 박물관은 무료관람에 따른 관리규범과 조치 등을 정비하였다. 예를 들어, 《안전한 무료관람을 위한 응급방지책(關於確保免費開放安全的應急預案)》을 제정하였다. 여기에는 관람객수 통제와 무료개방 중 발생할 수 있는 정전사태 등에 대한 응급대응책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의외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박물관 측은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긴급구조대를 조성하였고, 해설사의 교대근무제도 시행을 규정하였다. 이외에도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화장실과 표지판, 전자 광고판, 보관함, 장애인 전동차, 해설기기 등 관련시설을 확충하였다. 10명의 전문 해설요원 모집하여 교육을 강화하고 자원봉사 해설사를 조직하여 2006년과 2007년 모두 84명을 추가로 모집하였다.

다. 재정 지원

2003년 중앙에서 저지양성(浙江省)을 전국문화시스템 개혁시범지역 중 하나로 확정하였고, 저지양성박물관을 문화사업 개혁시범기관으로 선정하였다. 2003년 12월

성 정부(省政)는 정식으로 《문물업무발전에 관한 의견(關於進一步加強文物工作的意見)》을 발표하였고, 저지양성박물관을 2004년부터 무료개방하기로 결정하였다. 무료관람으로 인한 박물관의 관람료 수입 감소부분은 성 재정부(省財政部)에서 보조하기로 하였다.

성 재정부는 연간 120만 위안(한화 약 1억 6천만원)의 관람료수입을 보조하였고, 이외에 기획전 개최를 위한 경비와 문물보호 및 시설정비, 홍보자료인쇄비 등 관련 경비의 지원을 강화하였다. 저지양성박물관의 연간 재정지출은 무료관람시행이전의 624만 위안(한화 약 8억 2천만원)에서 2007년 2,007만 위안(한화 약 26억 4천만원)으로 증가하였다.

2005년에는 관람객 증가에 따른 전시관 확장수리를 위해 1억 위안(한화 약 131억 6천만원)의 경비를 지원하였고, 2007년 전시개최를 위한 경비로 250만 위안(한화 약 3억 3천만원)을 보조하였다.¹³³⁾

② 베이징시의 관람권 할인제도와 무료관람

가. 베이징시의 관람권 할인혜택

베이징시의 경우, 2001년 1월 1일 전국 최초로 박물관 관련 법규인 《베이징시 박물관조례(北京市博物館條例)》를 발표해 “박물관은 노인과 장애인들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해야한다. 또한 청소년과 학생들에게 무료관람을 시행하거나 정기무료관람권 혹은 저가할인권을 제공해야한다”고 규정하였다. 2001년 베이징시의 일부 박물관은 6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무료로 개방되었고, 2004년 2월 베이징지역 대부분의 박물관은 “중, 소학생들의 단체관람예약에 대한 무료관람”을 시행하였다.¹³⁴⁾

베이징 문물국에 따르면, 무료관람시행 이전인 2007년 하반기부터는 베이징의 7개 박물관 및 12개 시(市) 소속 공원이 무료로 개방되었다. 이 7개 박물관에는 베이징서주연도유적지박물관(北京西周燕都遺址博物館), 베이징대보태서한묘박물관(北京大葆台西漢墓博物館), 베이징요금성단박물관(北京遼金城垣博物館), 베이징 단성연무청(北京團城演武廳), 해정구박물관(海澱區博物館), 베이징미녹원(北京麋鹿苑) 및 선남문화박물관(宣南文化博物館)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서우두박물관(首都博物館), 쉬뻬이홍기념관(徐悲鴻紀念館), 대중사고종박물관(大鐘寺古鍾博物館), 베이징예술박물관(北京藝術博物館), 문박교류관(文博交流館), 고대화폐전시관(古代錢幣展覽館), 석각예술박물관(石刻藝術博物館), 노사기념관(老舍紀念館), 정양문(正陽門), 베이징서산대각사(北京西山大覺寺), 베이징시 백탑사(北京市白塔寺), 공묘국자감(孔廟國子監), 베이징고대건축박물관(北京古代建築博物館) 등 13개 시(市)소속 박물관은 매주 수요일 200명의 관람객들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방안을 시행했었다.¹³⁵⁾

133) <http://www.zjww.gov.cn/culture/2008-01-30/116851476.shtml>

134) <http://culture.people.com.cn/GB/22219/7096852.html>

135) <http://www.beijingww.com/2/2008/01/28/22@48896.htm>

나. 베이징시 최초의 무료관람시행 박물관

베이징시 해정구박물관(北京市海澱區博物館)은 베이징시에서 처음으로 무료관람을 시범 운행한 박물관 중 하나다. 이 박물관은 2006년부터 무료관람을 시작하였고 이외에 14개 박물관이 당시 무료관람제도 시범운행에 참여하였다. 2006년 이후 해정구박물관은 해정구 정부(海澱區政府)가 재정을 전액 지원하는 기관이 되었다.

해정구박물관의 한 관계자는 해정구박물관은 지역성 종합박물관으로 전시내용이 한정되어 있고, 무료관람의 시행은 박물관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박물관 직원과 업무량 변화도 그렇게 크지 않았다. 평일 관람객 수는 40-50여명으로 과거에 비해 큰 증가는 없었고, 무료관람시행 이후 주요 관람객이었던 중, 소학생 외에 시민들도 방문했다고 말했다.¹³⁶⁾

다. 베이징시 무료관람시행 이후

베이징시문화국의 통계에 따르면, 2008년 무료관람제도 시행 이후 4월 13일까지 2주 동안 총 24만 4,835명이 박물관을 찾았다. 서우두박물관(首都博物館)이 3만 5,715명으로 가장 많은 관람객 수를 기록했고, 이외 항일전쟁기념관(抗日戰爭紀念館)은 3만 4,919명, 남해자미록원(南海子麋鹿苑)이 2만 5,440명, 초장호지도전유 기념관(焦莊戶地道戰遺址紀念館)이 2만 96명, 영화박물관(電影博物館)이 1만 8,298명 순이었다. 이 기간 중 청명절(清明節) 연휴였던 4월 4일, 가장 많은 관람객이 박물관을 방문하였고, 29개 전체박물관에 3만 2,132명이 방문하였다.¹³⁷⁾

베이징 지역의 29개 박물관이 무료로 개방된 지 한 달 동안 주말이나 명절에 관람객이 급격하게 상승한 것 외에 다른 주말에는 관람객 수의 증가가 두드러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료관람시행 이후 서우두박물관과 항일전쟁기념관은 무료개방 초기에는 줄을 서서 입장하는 등 관람객 수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¹³⁸⁾

③ 무료관람시행에 따른 세부 조치

중국각지의 박물관들은 먼저 무료관람을 시행한 다른 박물관들의 예를 기초로 증가한 관람객 수를 통제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과 관련 조치를 마련해 시행하였다.

가. 사전예약제와 무료관람권 배부

중국은 무료관람제도의 순조로운 진행과 쾌적한 관람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사전예약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무료지만 무료관람권을 배부 받도록 함으로써 관람객수를 통제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무료관람제도를 시

136) <http://news.mzyfz.com/times/2/20080225/142954.shtml>

137) <http://www.beijingww.com/2/2008/04/16/182@54589.htm>

138) http://rss.xinhuanet.com/newsc/politics/2008-04/21/content_8018284.htm

행하는 각 박물관들은 박물관의 최대 수용관람객 수에 근거해 대부분 1일 관람객 수를 제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서우두박물관(首都博物館), 쉬뻬이홍기념관(徐悲鴻紀念館), 초장호지도전유적기념관(焦莊戶地道戰遺址紀念館)의 무료관람시행 며칠 전에 1일 최대 관람예약수를 초과하였다. 그중 서우두박물관의 28일 예약 관람객은 5천여 명에 이르렀고, 이는 최대 수용 관람객수의 두 배에 이르는 수치였다. 섬서역사박물관(陝西歷史博物館)의 1일 최대 관람객 수는 4천명으로 제한하였다.¹³⁹⁾

티엔진(天津)의 시(市)급 공공박물관은 2007년 12월 28일부터 정식으로 무료관람을 시행하였고, 사전에 무료관람권을 배부 받도록 하였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티엔진 전체 시(市)와 각 구(區), 현(縣)의 문화관, 도서관, 영화관 등에 19개 관람권배부처를 설치하였고, 신분증을 가지고 관람권을 배부 받을 수 있다.¹⁴⁰⁾

a. 서우두박물관



2008년 3월 28일 서우두박물관(首都博物館) 무료관람시행 첫날의 장면

베이징시가 발표한 33개 무료관람 시행 박물관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서우두박물관(首都博物館)은 베이징시의 중요한 기관 중 하나로 박물관무료관람제도 시행 이후 예약 관람 방식을 채택하고, 일일 최대 수용 관람객 수는 3천명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하였다. 서우두박물관의 연간 적정 관람객수는 100만명으로 1일 3천명의 관람객을 이상적인 것으로 설정하였고, 박물관 내부의 서비스 시설도 이에 맞게 설계되어 있다.

서우두박물관의 부관장인 한용(韓永)은 “관람객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현재 박물관은 전시실 확장 및 개조를 진행하고 있으며, 2008년 하반기부터 더 많은 관

139) http://news.xinhuanet.com/newscenter/2008-03/29/content_7878059.htm

140) http://www.ln.xinhuanet.com/xwzx/2008-02/15/content_12456972_3.htm

람객을 수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물관 측은 일일 관람객 수를 엄격하게 통제하기 위해 무료개방 이후 관람객들이 관람하기를 원하는 날로부터 5일 전에 전화 예약이나 인터넷 예약을 해야 하며, 무료 관람권 예약은 한 사람이 한번에 10장 이상을 예약할 수 없다. 예약 후에는 예약번호와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무료 관람권을 배부 받아야 한다. 사전예약 없이는 누구도 관람할 수 없다.¹⁴¹⁾

서우두박물관에서 개최하는 기획전과 특별전은 관련규정에 따라 별도로 표를 구입해야하고, 해설비나 음성안내기 대여료, 교육 활동구역 내 관련 항목은 기존대로 비용을 받는다. 이외에 2008년 올림픽기간 중 서우두박물관은 중요한 전시를 개최하게 되며, 올림픽위원들이나 운동선수 및 언론매체기자 등을 접대하기 위해 잠시 폐관하게 된다.¹⁴²⁾

서우두박물관의 부관장인 한용(韓永)은 “관람객 수가 안정되면 관람객들이 직접 현장에 와서 당일 예약하고 관람할 수 있도록 해 사전예약보다 수속이 간단해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¹⁴³⁾

b. 중국인민혁명 군사박물관



2008년 3월13일 무료관람시행 이후 중국인민혁명 군사박물관(中國人民革命軍事博物館)

베이징시의 중국인민혁명 군사박물관(中國人民革命軍事博物館)은 2008년 3월 1일부터 자체적으로 무료관람을 시행하였고, 무료관람시행 이후, 군사박물관(軍事博物館)의 1일 관람객 수는 2007년 동일기간의 1,250명에서 1만여 명으로 증가하였다. 3월 1일 무료관람시행 첫째 날 관람객 수는 1만 2천여 명에 이르렀고, 둘째 날은 2만 4천명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대해 군사박물관의 한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박물관 스스로 수용

141) 서우두박물관(首都博物館)은 관람을 희망하는 날로부터 5일전에 미리 예약을 해야 하지만 충칭(重慶)에서 베이징(北京)까지 방문한 관람객이 다음날 베이징을 떠나는 차표를 제시하자 당일 관람을 허가하기도 하였다.

142) <http://www.beijingww.com/2/2008/03/24/182@52699.htm>

143) http://news.xinhuanet.com/newscenter/2008-03/29/content_7878059.htm

할 수 있는 관람객 수를 제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만약에 어떤 박물관의 1일 최대 관람객수는 5천명인데 8천명이 왔다면 당연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군사박물관은 1일 관람객 수를 3만명으로 제한하고 있다.”¹⁴⁴⁾

군사박물관의 부관장은 “현재 우리는 매일 3만 장의 무료관람권을 배부하고 이에 따른 관리 인력도 충원하였다.”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안전 설비 확충과 청소 인력을 증가하고, 휴지통 등을 추가로 설치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여름방학 기간에 관람객 수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¹⁴⁵⁾

c. 베이징자연박물관

2008년 7월 1일 베이징자연박물관(北京自然博物館)은 정식으로 무료관람을 시행하였다. 무료관람시행 첫날 오전에만 2천명의 관람객들이 방문하였다.



베이징자연박물관(北京自然博物館) 무료관람시행

베이징자연박물관은 정문 앞 도로 개조로 박물관의 면적이 과거보다 축소되었고, 특별전을 개최할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들게 되었다. 박물관 측은 이를 보완하고 관람객의 안전과 관람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검사와 물품보관소 등을 확충하였다. 현재 동물전, 식물전, 고생물전(古生物展), 고대인류전(古人類展) 및 공룡공원(恐龍公園) 등에 대해 무료관람을 시행하고 있다.¹⁴⁶⁾

d. 난징박물관

144) <http://www.jcrrb.com/200803/ca693533.htm>

145) <http://news.sohu.com/20080304/n255523057.shtml>

146) <http://www.cansm.org/AID/87>

2008년 2월 8일 난징박물관(南京博物院)의 무료관람시행 첫날 관람객 수는 7,196명으로 이는 최대 수용 관람객의 두 배를 넘는 숫자였다. 무료관람 시행 첫날 이후 관람객 수는 계속 증가하였고 4일째 되는 날 관람객 수는 1만 1천명에 이르렀다.

“무료관람 시행 이후 5일 동안 난징박물관은 1일 평균 8천명의 관람객들이 방문하였고, 이제까지 이렇게 많은 관람객들이 방문한 적은 없었다”고 난징박물관의 원장인 공리양(龔良)은 말했다. 그는 난징박물관의 1일 적정 관람객 수는 3,800명이라고 밝혔다. “박물관은 조용한 환경에서 작품을 세심히 감상해야하는 공간이다. 무료개방 첫날의 관람수준은 좀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¹⁴⁷⁾

또한 난징박물관의 부원장인 황루민(黃魯閔)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람객들이 소란을 피우는 일도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관람수준도 좋아질 것이라고 하였다. “우리는 무료관람시행 초기의 인파가 물리는 상황은 이미 지났다. 신분증을 확인하고 무료관람권을 배부 받게 하면 관람수준을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료관람권을 발행하는 속도에 따라 인파를 통제할 수도 있다. 휴일을 제외하고 우리는 현재 매일 4천 장의 무료관람권을 발행하고 있다.”¹⁴⁸⁾

e. 후베이성박물관



무료관람시행 이후 후베이성박물관(湖北省博物館)

2007년 11월 6일 후베이성박물관(湖北省博物館)은 무료개방을 시행하였고, 과거 30위안(한화 약 4천원)이었던 관람료를 폐지하였다. 시행 후 두 달 동안 30여 만명이 다녀갔고, 이 수치는 과거 1년 동안 방문한 관람객 수보다도 많은 것이었다.¹⁴⁹⁾

147) http://news.xinhuanet.com/newscenter/2008-02/18/content_7621897.htm

148) http://www.ln.xinhuanet.com/xwzx/2008-02/15/content_12456972_1.htm

후베이성박물관은 이후 1일 관람객 수를 제한하는 것 외에 단체관람권 예약제도를 채택하였다. 또한 관람객들이 관람 시 사고를 당했거나 아이를 잃어버리는 등의 돌발사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응급 처리 사무실 등을 설립하였다.” 현재까지 후베이성박물관의 1일 평균 관람객 수는 3천명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¹⁴⁹⁾

f. 상하이박물관



무료관람시행 이후 상하이박물관(上海博物館)

2008년 3월 10일 상하이의 주요 네 개 박물관과 전시관의 무료관람이 시작되었다. 상하이박물관(上海博物館) 무료관람시행 이후 첫 번째 주말 오후 4시까지 관람객 수가 9,757명이었고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었다. 박물관 내의 관람객 수가 이미 최대 수용 관람객 수를 초과하자 박물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관람객을 제한하고 매번 10명씩만 입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¹⁵¹⁾

상하이박물관 관장인 천시에권(陳燮君)은 1일 최대 관람객 수를 5천명으로 제한하였다.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오후 4시 이후에는 입장할 수 없다. 단체관람은 관람 3일전에 전화로 예약을 해야 하고, 7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입장할 수 있게 한다.¹⁵²⁾

g. 허난박물관

허난박물관(河南博物院)은 2007년 6월 이틀 동안 무료관람을 시행했었고, 당시 1일 관람객 수는 평균 2만명에 이르렀다. 이후 박물관은 각종시설을 개조하여 2008년 3월 30일 전면 무료관람을 시행하였다.

허난박물관 원장 장원권(張文軍)은 “무료관람을 위해 우리는 주차장을 확대하였

149) http://www.cangcn.com/info/newsztxw/2008-3-12/1010_49227.htm

150) http://www.ln.xinhuanet.com/xwzx/2008-02/15/content_12456972_3.htm

151) http://news.xinhuanet.com/collection/2008-03/17/content_7804793.htm

152) <http://travel.sohu.com/20080310/n255631219.shtml>

고, 200여 개의 물품 보관함을 추가로 설치하였으며 화장실도 개조하였다”고 말했다.¹⁵³⁾

허난박물관은 무료관람권을 배부 받아 입장해야하며, 1일 최대 관람객 수를 5천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허난성(河南省)은 2009년까지 허난성 소속 문화문물부문이 관리하는 90여 개의 박물관과 기념관에 대해 추가로 무료화하게 된다.¹⁵⁴⁾

h. 후난성박물관



2008년 3월20일 무료관람시행 첫날의 후난성박물관(湖南省博物館)

후난성박물관(湖南省博物館)의 관장인 천지엔밍(陳建明)에 따르면, 박물관의 1일 최대 관람객 수는 5천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1인당 한 장의 표를 받을 수 있으며, 관내 관람객 수는 1천명 이내로 통제하고 이를 초과하면 잠시 문을 폐쇄한다.

무료관람권을 배부 받는 곳에는 전자 모니터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남은 관람권 매수와 관람시간 및 관련 정보를 알려준다. 이외에 5분마다 방송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관람시간과 질서를 지켜 관람할 것을 일깨운다. 기획전과 특별전에는 관람료를 징수한다.

기획 특별전은 해외 ‘기획자’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전시기획과 구성, 개최, 경비 마련 및 사용 등은 모두 기획자가 담당하게 된다. 또한 박물관은 무료관람시행 이후 장기적으로 활동할 자원봉사자를 추가로 모집하였다.¹⁵⁵⁾

나. 시설 확충과 인력 보충

153) http://www.cangcn.com/info/newsztxw/2008-3-12/1010_49227.htm

154) <http://chn.lotour.com/n/20080312/n289077.shtml>

155) <http://www.chnmus.net/html/20080312/377867.html>

서우두박물관(首都博物館)은 무료관람을 시행하기 위해 이동식 화장실과 100여 개의 물품 보관함 등을 증설하였다. 중국인민혁명 군사박물관(中國人民革命軍事博物館)의 책임자는 “3월 1일 무료관람 시행 이전에 준비 작업을 진행해 보안을 강화하고 해설사를 증원하였다. 이는 모두 관람 수준을 높이고 관람객을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다”라고 말했다. 그들은 안전을 위해 당직 인력을 배치하고, 200여 명의 인력을 증원하였다.¹⁵⁶⁾

다른 박물관과 달리 쉬뻬이홍기념관(徐悲鴻紀念館)의 경우, 전국 최초로 박물관 입구에서 직원들이 관람객들의 몸을 검색하였다. 이는 관내 소장품과 관람자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이외에도 기념관 직원들의 통신기구 등을 새것으로 교환하고, 관내 장애인 이용 휠체어 등을 증설하였다.¹⁵⁷⁾

난징박물관(南京博物院)은 관람객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요원을 30% 증원하였다. 만약 화장실이 복잡하면 귀빈실 화장실을 개방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이동식 화장실도 준비하고 있으며, 좁은 통로 등 쉽게 부딪칠 수 있는 곳은 개조하였다.¹⁵⁸⁾

다. 관련규제 제정

상하이에서는 박물관 무료관람시행 이전에 문화 부문에서 《상하이시 박물관, 기념관 및 전국애국주의 교육시범기지 무료개방 실시관리방법(關於本市博物館, 紀念館及全國愛國主義教育示範基地免費開放的實施管理辦法)》을 공포하였다. 이후 상하이박물관(上海博物館) 등에서도 구체적인 ‘무료관람실시방법(免費開放實施辦法)’을 제정하여, 1일 총 관람객 수를 제한하는 것과 동시에 시간대별로 관람객 수를 세분화하였다.

또한 관람객의 무료관람권 수령방식 및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항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관람객의 개인 안전 등 관람객들이 지켜야 할 세부 관리규칙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그 중에는 “복장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박물관 입장을 금지한다”는 등의 규정 외에 휴대가 금지되는 물품과 사진 촬영 등 관련 요구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¹⁵⁹⁾

난징박물관의 부원장인 황루민(黃魯閔)도 무료관람에 따른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람객들을 선별하는 절차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옷차림이 깔끔하지 않으면 박물관에 입장할 수 없으며, 반드시 신분증을 가지고 무료관람권을 배부 받아 입장해야한다.”¹⁶⁰⁾

라. ‘응급처리교육’ 실시

156) <http://www.jcrb.com/200803/ca693533.htm>

157) <http://culture.people.com.cn/GB/7059961.html>

158) http://news.xinhuanet.com/newscenter/2008-02/18/content_7621897.htm

159) <http://www.jcrb.com/200803/ca693533.htm>

160) http://www.ln.xinhuanet.com/xwzx/2008-02/15/content_12456972_4.htm



2008년 3월 24일 박물관 무료관람에 따른 응급조치훈련

2008년 3월 24일 베이징시문물국, 베이징박물관학회(北京博物館學會)와 베이징시 응급구조센터(北京市急救中心)는 베이징시 박물관의 ‘응급구조교육훈련(急救知識培訓)’을 서우두박물관(首都博物館)에서 실시하였다.

이는 무료관람을 시행하는 베이징시의 33개 박물관들이 무료개방이후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훈련이었다. 이 교육에는 100여명 이상의 박물관 직원이 참여하였다. 관람객들은 박물관을 관람하기 전에 베이징시문물국¹⁶¹⁾의 웹사이트 및 각 박물관 웹사이트를 통해 무료관람을 시행하고 있는 박물관들의 관련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¹⁶²⁾

(3) 무료관람제도시행에 따른 문제점

중국은 무료관람제도시행을 두고 시행이전부터 찬반양론으로 나뉘었고, 서우두박물관의 한 직원은 “5위안의 관람료 폐지는 관람객들에게는 작은 일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무료관람으로 증가한 관람객 수는 박물관으로서 큰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문물보호 등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 저가할인제를 시행하는 것이 절충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였다.¹⁶³⁾

무료관람시행 이후 박물관의 한 관계자는 ‘무료관람’은 마치 단선열차와 같아 역방향으로 돌아올 수 없다. 다시 말해 ‘무료’는 쉽지만 만약 시행이후 문제가 발생해 ‘유료’로 다시 전환하려면 더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무료관람으로 인한 관람객 수 증가는 사실 그렇게 큰 의의가 있는 것은 아니다.

무료개방으로 관람객 수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로 인해 전시장은 마치 ‘시

161) 北京市文物局. www.bjww.gov.cn

162) http://www.china.com.cn/culture/txt/2008-03/26/content_13594377_2.htm

163) <http://news.mzyfz.com/times/2/20080225/142954.shtml>

장'처럼 변해 예술작품은 배경에 불과해졌다. 중국의 역대 전시 중 '프랑스 인상파 대전(法國印象派大展)', '상하이비엔날레(上海雙年展)' 등은 무료관람을 시행하지 않았어도 많은 관람객들을 끌어들이었고, 이는 '무료의 힘'이 아니라 '예술의 힘'이라고 말했다.¹⁶⁴⁾

중국의 컬렉터이자 관푸고전예술박물관(觀復古典藝術博物館)의 관장인 마웨이두(馬未都)는 무료가 반드시 문화에 대한 존중은 아니며, 유료가 오히려 문화를 더 존중하는 것이다. 무료도 좋고 유료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책이 현재 실정에 합당한가하는 것이 의문이라고 하였다.¹⁶⁵⁾

어떤 이는 문화예술을 대중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공공문화예술기관에 사람들이 많이 방문한다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은 아니지만, 이후 '사람이 너무 많아 탈(人滿爲患)'이라는 말이 이들을 곤혹스럽게 할 것이라고 하기도 하였다.¹⁶⁶⁾

무료관람시행으로 인한 관람객 증가로 관람객 통제나 응급관리 대처방식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 국가문물국의 부국장인 장보(張柏)는 일부 박물관의 관람객 수 통제와 관람 동선의 설정 등 관리능력을 정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¹⁶⁷⁾

이외에도 전시장의 서비스 시설이나 인력부족, 재정확보 및 관람객들의 관람태도, 전시 내용개선, 체계적이지 못한 법률 규정과 세수제도나 기부제도의 불완전함 등이 박물관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의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① 박물관 관람태도

무료관람제도는 박물관과 미술관에 많은 관람객을 끌어들이었다. 난징박물관(南京博物院)은 무료관람시행 이후 설 연휴 기간 동안 8천명에서 1만 2천명의 관람객이 다녀갔고, 이후 1일 평균 5천명 정도의 관람객이 방문하였다. 상하이미술관(上海美術館)은 2008년 설 연휴 기간 동안 총 관람객 수가 2만 2천명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후베이성박물관(湖北省博物館)은 무료관람시행 첫 주의 관람객 수가 8천명에서 9천명, 이후 1만 7천명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기록을 세웠다.

그러나 동시에 많은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박물관 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었고, 무료관람제도는 세심한 시행 절차와 연습을 거친 후 다시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하였다. 또한 박물관의 안전문제와 관람자들의 쾌적한 관람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라는 문제도 야기 시켰다.

실제로 무료관람시행 이후 후베이성박물관의 일부 관람객들은 많은 사람들로 인해 박물관 관람에 방해를 받게 되었다며 관람을 거부하기도 하였고, 심지어 어떤 관람객은 관람료를 다시 징수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¹⁶⁸⁾

164) <http://www.ccm.gov.cn/show.php?aid=57629&cid=157>

165) http://www.china.com.cn/book/txt/2008-03/08/content_11932447.htm

166) http://news.xinhuanet.com/newscenter/2008-02/18/content_7621897.htm

167) <http://news.sc001.com.cn/info/05/20080602/042053.shtml>

가. 박물관의 소장품애호와 시설보호 강조

상하이미술관 관장인 리레이(李磊)는 관람객들에게 다음과 같이 부탁하기도 하였다. “관람객들은 작품을 감상할 때 예술품과 다른 관람객들을 모두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현재 몇몇 관람객들은 전시장에 반드시 작품 해설사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사실 관람객들은 전시를 관람하기 전에 전시에 대한 기본적인 준비와 이해를 해야 한다.”

선양(沈陽)의 ‘918’역사박물관(“九一八”歷史博物館)역시 박물관을 새롭게 개조한 후 무료로 개방한 첫날 박물관 직원들은 관람객들에게 “역사 문물을 관람할 때 박물관의 시설을 아끼고 보호하자”고 호소하였다.¹⁶⁹⁾

또한 산시성미술박물관(陝西省美術博物館)의 소장품 관리부서(收藏部)의 주임인 우젠펑(吳振鋒)은 “사실 과거 징수했던 10위안(한화 약 1,400원)의 관람료는 상징적인 것으로 관람료를 징수하는 목적은 일부 관람객들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즉, 박물관이 무료관람을 시행하게 되면 작품 감상에는 관심이 없는 관람객들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과거에 비해 현재 박물관은 시설이 좋아져 겨울에는 난방이 되고, 여름에는 에어컨이 가동되기 때문이다. 박물관은 냉난방비로 매일 수만 위안을 지출한다”라고 하였다. 그는 박물관에 복잡한 규칙이 있는 것이 아니며, 바닥에 침을 뱉거나 작품을 만지고 담배를 피우는 등의 가장 기본적인 규칙만 지키면 된다고 말한다.¹⁷⁰⁾

중칭(重慶)의 중국삼협박물관(中國三峽博物館)에서는 몇몇 관람객들이 이유 없이 재미로 계속해서 무료관람권을 받아가기도 하였고, 무료관람 이후 주변 거주민들이 채소를 가져와 씻기도 하였다. 또 어떤 사람들은 무료로 제공되는 화장실의 휴지를 가져가기도 하였다.¹⁷¹⁾

나. 박물관 관람교육의 필요

후베이성박물관 관장인 왕홍싱(王紅星)은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부 관람객들이 보이는 상식이하의 관람태도는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사람들의 교양과 교육정도의 차이일 뿐 그들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지는 않는다. 무료관람을 통해 이들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교양 있는 사람들이 교양 있는 환경을 만들고, 또 교양 있는 환경은 사람을 변화시키며 좋은 습관을 만들게 한다”고 말했다.

전국정협위원(全國政協委員)이자 쓰촨성교육청(四川省教育廳)의 부청장(副廳長)인 왕강(王康)은 “초, 중등학교에 의무교육으로 박물관 예절에 관한 내용을 개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작품을 어떻게 감상해야 하는지 등에 관한 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관람수준을 높일 수 있고, 동시에 스스로 작품을 아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하

168) http://www.ln.xinhuanet.com/xwzx/2008-02/15/content_12456972_4.htm

169) http://www.ln.xinhuanet.com/xwzx/2008-02/15/content_12456972_4.htm

170) <http://www.chnmus.net/html/20080312/177070.html>

171) <http://news.sc001.com.cn/info/05/20080602/042053.shtml>

였다.¹⁷²⁾

② 소장품과 관람객의 안전 문제

무료관람제도 시행 중에 관람객들이 박물관 내 전시장에 진열된 작품을 만지거나 혹은 소장품이 훼손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였다. 한 예로 푸지엔성박물관(福建省博物院)은 무료관람 시행 7일 동안 8만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고, 관람객 수가 많았던 자연관(自然館) 내의 동물 표본이 훼손되었다. 이로 인해 총 10만 위안(한화 약 1,300만원)정도의 손실을 입었다.

또한 설 연휴 기간 상하이미술관(上海美術館)에서는 어린아이들이 작품 앞에서 대소변을 보기도해 치바이스(齊白石, 1863-1957년)의 작품이 훼손될 위기에 놓이기도 하였다. 상하이박물관은 청동기나 위(魏), 당(唐), 송(宋)대의 석각상 등 모두 그 값을 따질 수 없는 문화재들이 유리 상자 내에 전시되어 있지 않거나 어떤 것들은 안전대를 설치하지 않아 관람객들이 이를 만지기도 하였다.¹⁷³⁾



2008년 설 연휴기간 중 상하이미술관(上海美術館)에 전시되었던 치바이스(齊白石)의 작품

안후이성박물관(安徽省博物館) 교육홍보부(宣教部)의 주임(主任)인 왕리화(王麗華)는 “무료관람시행 1개월 동안 가장 큰 문제는 아이들이었다. 박물관의 고생물전시관의 동물 화석표본을 아이들이 만지는 일이 잦아 화석표본 주위를 막고 관리원들을 증원해 아이들에게 주의를 주도록 하고 있다.”¹⁷⁴⁾

한 문물전문가는 “관람객 수가 너무 많으면 이산화탄소가 대량으로 방출되어 박

172) http://www.cangcn.com/info/newsztxw/2008-3-12/1010_49227.htm

173) http://news.xinhuanet.com/newscenter/2008-02/18/content_7621897.htm

174) <http://news.sc001.com.cn/info/05/20080602/042053.shtml>

물관내에 심각한 공기 오염을 일으키게 된다. 또한 전시실의 온도와 습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작품이 전시실의 유리 상자 안에 보관되어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작품이 완벽하게 밀폐되어있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 이산화탄소는 청동기를 쉽게 녹슬게 하고 종이를 약하게 만든다.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작품들은 대부분이 모두 국보급 문화재로 일단 훼손되면 그 손실을 돈으로 계산할 수 없다.”¹⁷⁵⁾

시베이대학(西北大學) 문물박물관대학(文博學院)의 부원장인 쉬웨이민(徐衛民)은 “무료관람시행 이후 단시간 내에 관람객 수가 갑자기 증가하면서 발생한 가장 큰 문제는 관람객의 안전 문제이다. 박물관은 각각 수용할 수 있는 최대 관람객 수가 있고, 이 숫자를 초과하게 되면 관람객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¹⁷⁶⁾

③ 전시장 서비스 수준

중국의 컬렉터이자 사립인 관푸고전예술박물관(觀復古典藝術博物館)의 관장인 마웨이두(馬未都)는 박물관의 무료관람제도로 인한 관람객 수 증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우선 전시환경은 그 수준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박물관의 무료관람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며 이로 인한 박물관의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자금투자를 필요로 한다. 중국 대부분의 박물관들은 서비스 수준이 아직 그렇게 높다고 할 수 없다. 무료관람시행 이후 전시장 내 직원들이 많은 관람객들을 모두 상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서비스 품질은 당연히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체 무료관람제도를 시행한 도시인 항저우시(杭州市)¹⁷⁷⁾를 예로 들어 유료였을 때와 달리 무료관람시행 이후 “박물관은 사람들로 마치 영화관처럼 떠들썩하고, 근처에 사는 주민들은 매일 박물관 로비에 모여 잡담을 하는 등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결국 박물관 측은 전등을 줄이고, 에어컨 가동을 중단하기도 하였다.”

후베이성박물관 직원들은 관람객 수가 증가한 것에 대해 “갑자기 관람객들이 몰려 박물관내의 제어시설이 제 기능을 작동하기 어려워졌다. 직원들은 많은 관람객을 상대하는 등 업무량 증가로 피로함을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틈타 소란을 피우거나 작품을 도난당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고 밝혔다.¹⁷⁸⁾

무료관람제도를 시행한 박물관들은 인력을 확충했지만, 증원된 직원은 주로 소장품 보호와 관람객 질서유지를 위한 직원으로 여전히 인력 배치가 부족한 상황이라

175) http://gb.cri.cn/18504/2008/04/28/342@2036021_1.htm

176) <http://www.chnmus.net/html/20080312/177070.html>

177) 2003년 5월 18일 ‘국제박물관의 날(國際博物館日)’ 항저우시(杭州市) 소속 20여개 박물관이 전면 무료화되었다.

178) http://www.ln.xinhuanet.com/xwzx/2008-02/15/content_12456972_3.htm

고 하였다. 이는 무료관람시행으로 인한 문제점이 되었고, 근본적으로 박물관 서비스 품질의 향상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하였다.¹⁷⁹⁾

④ 재정 지출의 증가

무료관람제도 시행에 따른 가장 큰 문제로 박물관의 재정지출 증가도 빼놓을 수 없다. 문화부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국가재정이 지출한 금액은 20억 5천만 위안(한화 약 2,810억 6천만원)으로 그 중 문화 사업을 위한 재정지출로 13억 위안(한화 약 1,782억 3천만원) 정도를 지급하였다. 이는 역대 가장 많은 금액으로 중앙재정은 지방문화 사업건설을 위해 10억 7천만 위안(한화 약 1,467억원)을 책정하였다.¹⁸⁰⁾

한 박물관 관계자는 “박물관 무료관람시행에 있어 관건이 되는 것은 경비문제이다. 이는 작은 액수가 아니며 충분한 재정 지원과 보장이 있을 때 정상적인 박물관 운영이 가능하다. 이러한 재정 지원은 관람료 수입에 대한 손실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박물관의 서비스 능력과 품질을 높이고 시설개조와 인력확충을 위한 경비 지원이다”라고 말했다.

소위 말하는 박물관의 ‘운영경비’는 수도세와 전기세, 보안, 청결 등을 위한 관리비, 그리고 시설 개조와 유지, 보수 및 신설을 위한 비용을 가리킨다. 또한 소장품 보호와 연구, 출판 및 전시 기획비, 홍보비, 대중 서비스 관련비용, 직원교육비 등을 포함하는데 이러한 모든 비용은 정부가 부담하게 된다.

2007년 11월 6일 후베이성(湖北省) 정부는 후베이성박물관의 무료관람시행을 발표하였고, 정부는 연간 3천만 위안(한화 약 39억 4천만원)을 박물관의 관람료 수입과 추가 운영비용으로 투입하게 된다. 무료관람시행 이후 첫째 주의 관람객 수는 박물관의 단일 관람객 수로는 최고 기록을 세워 무료관람시행 이전보다 10배 이상의 관람객이 더 방문하였다.

난징박물관의 황루민(黃魯閔)은 “박물관의 관리 인력과 지출이 증가하고 있다. 연간 예산에서 7백만 위안(한화 약 9억 2천만원)의 경비가 증가하게 될 것이며, 이는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는 국가에 자금지원을 신청했으며 ‘무료관람’에 따른 운영경비의 증가는 ‘국가가 지불’한다”고 하였다.¹⁸¹⁾

안후이성박물관 교육홍보부(宣教部)의 주임인 왕리화(王麗華)는 무료관람시행 이후 안후이성박물관은 관리원 16명, 경비원 및 청소원 12명을 증원하였다. 박물관의 1일 투입 인력은 70, 8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국가의 자금지원이 충분하지 못하고, 직원급여 및 모든 유지비도 아직까지 박물관 스스로 지출해야한다는 것이다. 또한 업무량이 증가했지만 그에 상응하는 보상도 아직 불투명한 실정이다.

179) <http://www.cangpinyishu.com/bwg/bwgzx/bwgjd/200805/3172.html>

180) http://www.cangcn.com/info/newsztwx/2008-3-12/1010_49227.htm

181) http://www.ln.xinhuanet.com/xwzx/2008-02/15/content_12456972_1.htm

중칭(重慶)의 중국삼협박물관(中國三峽博物館) 관장인 왕추안핑(王川平)은 “무료 관람시행으로 중국삼협박물관의 수도 및 전기세는 2.5% 증가하였고, 박물관의 안전과 관리 등을 위한 관련 직원들은 두 배로 증가하였다. 이외 관내에서 사용되는 휴지 등 무료로 제공되는 물품의 소비량은 과거에 비해 5배가 증가하였다”고 말했다.¹⁸²⁾

중국 박물관들은 아직까지 기초시설이 열악한 상황이고 온도나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 박물관은 여전히 소수에 해당한다. 또한 관람객수의 증가에 따른 시설 확충과 인력 투입은 모두 자금을 필요로 한다.

지양시성(江西省) 무원현(婺源縣) 문물관리국(文物管理局) 국장이자 무원박물관(婺源博物館) 관장인 단시양성(詹祥生)은 무료관람은 자금이 부족한 박물관들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그는 무료관람시행 이후 “관람객들이 증가하면서 직원들의 업무량과 업무 비용도 배로 증가했지만 박물관은 이에 따른 추가 임금을 지불할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박물관의 정상적인 운영이나 소장품의 안전과 서비스 수준도 보장하기 어렵다”고 하였다.¹⁸³⁾

가. 관람료 수입의 중요성

이러한 박물관 운영 자금의 증가를 놓고 관람료 수입은 중국 내 대다수 박물관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한다. 특히 몇몇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박물관에게는 더욱 그러하다. 현재 중국 내 박물관의 관람료는 대체적으로 10위안(한화 약 1,370원)에서 100위안(한화 약 1만 3,700원)으로 책정되어있다.

후난성박물관(湖南省博物館)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관람료 수입은 2,711만 위안(한화 약 37억 2천만원)이었다. 무료관람시행 이후 관람료 수입 손실에 따른 보조금은 2,700만 위안 정도여야 하지만, 사무실의 한 직원은 이 금액이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후난성박물관은 중국 내에서 보기 드물게 운영 실적이 상위 박물관 중 하나이다. 그 규모와 수입은 성(省)급 박물관 중에서 상하이박물관 다음이다. 2007년 총수입은 관람료 수입과 문화상품 판매수입 등을 포함해 3,400만 위안(한화 약 46억 6,100만원) 정도였다. 연간 운영경비는 약 2천만 위안(한화 약 27억 4,200만원)이고, 그중 정부재정부문이 800만 위안(한화 약 10억 9,700만원)을 지원한다.¹⁸⁴⁾

2007년 1월 18일 《추천금보(楚天金報)》에 발표된 우한시 통계국(武漢市統計局)의 2006년 우한시(武漢市) 시민들의 평균 수입은 1만 2,359.98위안(한화 약 149만원)이었고, 이와 상대적으로 박물관 관람료 30위안(한화 약 3,600원)은 그렇게 큰 액수를 차지하는 것은 아니다. 무료관람시행 이후 관람객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시민들이 문화 향유를 위한 지출을 하지 않으려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문화 사업은 정부의 재정지원에만 의지할 수 없다고 말한다.¹⁸⁵⁾

182) <http://news.sc001.com.cn/info/05/20080602/042053.shtml>

183) <http://www.cangpinishu.com/bwg/bwgzx/bwgjd/200805/3172.html>

184) <http://www.chnmus.net/html/20080312/377867.html>

전국의 문물계통 박물관은 1,50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박물관은 연간 17억 위안(한화 약 2,404억 3천만원)을 지출하였다. 이 중 직원급여는 거의 7억 위안(한화 약 990억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박물관 운영경비는 평균 각 관마다 연간 약 60만 위안(한화 약 8,500만원) 정도만이 지출된다.

중국국가박물관, 고궁박물관, 산시 진시황병마용박물관, 상하이박물관 등과 같은 몇 개 박물관을 제외하고 전국의 거의 모든 박물관은 운영 경비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떤 현(縣)급 박물관은 1년 경비가 2, 3만 위안(한화 약 280-420만원)도 되지 않는다.

중국 대부분 박물관의 관람료 수입은 박물관이 자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는 기본적인 수입원 중 하나다.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관람료를 폐지한다는 것은 박물관 재정이 어려운 곳일수록 더욱 곤란한 일이다.

베이징 서우두박물관을 예로 들어보면, 현재 연간 약 70만명의 관람객들이 방문한다. 1년 관람료 수입은 약 1천만 위안(한화 약 14억 1,400만원)이고, 그들의 1년 운영비는 약 6천만 위안(한화 약 84억 8,600만원)이다. 다시 말해, 관람료수입은 기본적으로 박물관 개관하는데 필요한 수도세나 전기세 등을 지불하기 위한 것으로 만약 관람료 수입이 없다면 운영에 큰 어려움이 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무료관람제도를 먼저 시행했던 비교적 지명도가 낮은 다수의 박물관은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관람료 전면 무료화는 현실적이지 못하며, 문물관리부문의 관련책임자는 현재 중국 박물관의 위치로 볼 때, 전면 무료관람은 어렵다고 말한다.¹⁸⁶⁾

통계에 따르면, 현재 전국박물관에 종사하는 직원 중, 고급전문기술직원은 4.5%를 차지하고 중급전문기술직원 13%만을 차지하고 있다. 박물관 직원 총수 등은 모두 충분하지 못하고, 이는 일부 박물관의 전시나 서비스 수준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관람료는 오랫동안 박물관의 중요한 수입원 중 하나로 해외의 여러 박물관들과 달리 중국에서는 박물관의 시장화가 아직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다. 중국박물관학회(中國博物館學會)의 이사장인 장문빈(張文彬)은 전국 박물관 중 약 3분의 2는 생존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발표하였다.¹⁸⁷⁾

나. 박물관의 자체적인 생존 저해

중화 세기단 세계예술관(中華世紀壇世界藝術館) 부관장인 평광성(馮光生)은 “박물관 무료관람시행을 위해 국가 재정부문은 막대한 재정지원을 보장하였고, 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박물관들에게는 상당한 지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재정 지원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185) <http://www.art-zj.com/sdgc-info.asp?id=102&m=34>

186) <http://www.ykwh.gov.cn/news/news.asp?id=13066>

187) http://gb.cri.cn/18504/2008/04/28/342@2036021_1.htm

펑광성(馮光生)은 만약 박물관이 더 이상 관람객의 유무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면, 이는 박물관 전시내용의 좋고 나쁨에 대한 평가나 문화시장에서의 경쟁의식과 박물관의 자립 능력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박물관은 어려운 가운데서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경쟁의식과 상품판매능력을 키워 자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된다. 그러나 이렇게 생존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가운데 갑자기 재정적으로 충분한 자금이 유입되면 자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은 퇴보하게 된다”고 하였다.¹⁸⁸⁾

다. 다양한 방식의 자금 형성

박물관학 연구와 박물관 관리 사업에 종사해온 뤼지민(呂濟民) 교수는 박물관은 당연히 정부지원과 개인 및 사회 기부 등 다방면으로 자금을 마련해야한다. 박물관은 자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고, 효과적인 운영시스템에 근거해 사회 각계의 지원을 흡수해야한다.

박물관이 다양한 투자 주체를 형성하는 것은 더 많은 발전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뿐만 아니라 다원적인 경영방식을 흡수하여 시장과 관람객들의 요구에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a. 세수혜택 등 보장제도 마련

중화 세기단 세계예술관(中華世紀壇世界藝術館) 부관장인 펑광성(馮光生)은 중국에서 기업과 개인이 설립한 박물관이 이미 모두 등장했지만, 중국정부는 이들 박물관을 위한 세수혜택 등과 같은 보장 제도를 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 따라서 정부가 박물관을 지원하는 효과적인 보장제도와 관리시스템을 제시할 때 국가재정은 무거운 짐을 벗어날 수 있고, 동시에 박물관 역시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b. 문화상품 개발

전문가들은 관람료 수입은 없지만 박물관은 문물자료 출판이나 문화상품 개발 등 관련 기념품 제작 등을 통해 수입을 증가할 수 있다고 한다. 뤼지민(呂濟民) 교수는 박물관 스스로 현실에 맞는 문화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상하이박물관의 경우 1996년 이후 10여 년 동안 이미 1,600여 종의 문화상품을 개발하여 연간 판매액이 2,500만 위안(한화 약 33억 3천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관람료 수입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국가박물관은 박물관이 직접 제작, 감독하는 ‘12지지(地支)’의 동물모양 자기와 예술품 등이 관람객들에게 인기 있는 상품이며, 후난성박물관이 제작한 ‘마왕퇴(馬王堆)’ 관련 문화상품역시 지역의 문화전통을 확대하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서우두박물관의 경우 시설을 새롭게 정비해 베이징시에서 개최하는 축하의

188) http://news.xinhuanet.com/collection/2008-03/05/content_7719974.htm

식이나 활동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였다. 뿐만 아니라 박물관 내의 식당, 커피숍 및 아트샵 등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 시설을 갖추고 있어 관람객들이 관내에서 시간을 보내며 기념품 등을 구입하게 한다.¹⁸⁹⁾

‘중국문화보(中國文物報)’의 부편집장인 차오빙우(曹兵武)의 《박물관 전시홍보와 사회 서비스에 대한 조사 연구(博物館展示宣傳與社會服務工作調查研究)》에 따르면, 중국 박물관의 운영경비는 주로 정부자금에 의존하거나 혹은 자체적으로 자금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재정이 부족한 지방정부에서는 박물관의 관람료 수입과 문화상품 판매수입 등으로 박물관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차오빙우(曹兵武)는 박물관은 문화상품을 개발하고 소장품을 확대하거나 전시내용을 개발하여 박물관의 이용가치를 높이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하였다.¹⁹⁰⁾

⑤ 법률 규제의 완성문제

무료관람제도로 인한 박물관의 관람객 수 증가에 대해 중국미술관(中國美術館) 관장인 판디안(范迪安)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만약 박물관을 관람하는 것이 일시적인 열풍이라고 한다면, 이는 정부의 무료관람제도에 위배되는 것이다. 무료관람으로 인한 관람객들의 박물관 관람열의가 식은 후에는 박물관의 관람객 수가 점점 줄어들게 될 것이다. 무료관람의 목적은 단순한 개방이 아니라 관람객들이 박물관을 가깝게 느끼고 자주 방문하도록 하는 습관을 길러 미래의 관람객 층을 확대하고, 더 나아가 영구적인 관람객을 형성하는 것에 있다.” 그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박물관 스스로 서비스 능력 향상과 동시에 법규완비 및 제도 보장을 제시하였다.

“중국은 현재 문화 관련 법률과 법규의 완비가 부족하다. 현재 있는 문화 관련 법률로는 《문화보호법(文物保護法)》이 전부이다.” 이에 대해 국가도서관(國家圖書館) 부관장인 천리(陳力)는 “문화관련 입법을 가속화하고 특히 문화사업과 산업 촉진법 등 두 가지 기본적인 법률 테두리 아래서 관련 법규를 제정하고 동시에 세칙 실시를 완비해 완벽한 법률체도를 완성할 것이다”라고 하였다.¹⁹¹⁾

2008년 2월 29일 국무원(國務院)은 기관 웹사이트에 《박물관 조례(博物館條例)》에 제정에 대한 사회 각 계의 의견을 구하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중국정법대학(中國政法大學)의 법학대학 원장인 쉬강링(薛剛凌)은 ‘박물관 조례’를 제정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박물관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그는 무료관람제도 시행으로 정부재정뿐만 아니라 박물관의 지출도 증가하였기 때문에 이 둘 사이의 재무관계를 분명히 하고, 시설완비나 인력확충, 관리책임 등 박물관이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할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도 규정해야한다고 하였다.

189) http://news.xinhuanet.com/collection/2008-03/05/content_7719974.htm

190) <http://www.chnmus.net/html/20080312/377867.html>

191) <http://www.cangpinyishu.com/bwg/bwgzx/bwgjd/200805/3172.html>

또한 국가는 박물관의 실정에 맞는 기준들, 예를 들어 규모가 다른 박물관의 최대 관람객 수 지정이나 혹은 전면 무료관람인지, 일부 무료관람인지, 그리고 관람객들의 교양 없는 행동에 대한 처벌 등에 대해서도 규정해야한다고 하였다.

국가문물국의 부국장인 장보(張柏)는 “국가와 지방정부는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현재 상황에 더욱 적합한 정책과 조치를 제정할 것이며 여기에는 법률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다음 단계 업무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고 박물관의 공헌도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¹⁹²⁾

⑥ 전시내용의 향상

무료관람시행 이후 해결해야 할 장기적인 문제로 박물관 전시수준의 보장을 들고 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무료관람제도는 박물관에 대한 첫 번째 시험이며 검증과 같다. 무료관람은 이미 시행되었고 이제부터는 찾아온 관람객들을 어떻게 다시 방문하도록 만드느냐가 박물관이 직면한 새로운 과제가 되었다.¹⁹³⁾

난징 지질박물관(南京地質博物館)은 비록 난징시(南京市)의 변화한 거리에 소재하고 있지만, 박물관 시설이 오래되고 전시되어 있는 소장품은 관람객의 시선을 끌기에 부족해 찾아오는 관람객이 매우 적다. 무료관람시행 이전 박물관의 관람료는 5 위안(한화 약 710원)이었다. 이는 지양수성(江蘇省)이 정한 관람료의 반도 되지 않는 금액이었으며 중, 소학생들은 20% 할인 혜택을 적용했지만 1일 평균 관람객 수는 140명에 불과했다.

2007년 5월 18일부터 항저우시(杭州市) 소속의 15개 박물관은 무료관람제도를 시행했지만 반년동안 몇몇 박물관의 관람객 수는 저조한 상태를 면하지 못했다. 이는 중국의 여러 박물관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으로 전시환경이나 내용이 신선하지 못하거나 작품설명이 어려운 박물관은 무료관람을 시행해도 관람객 수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한 관람객은 “어떤 박물관의 전시실은 20년 동안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그런 시대에 뒤떨어지는 내용들을 어떻게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겠는가. 그런 전시는 아무리 무료라 하더라도 사람들의 흥미를 끌기 어렵고 한 번 와보면 두 번은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¹⁹⁴⁾

실제로 2007년 12월 9일 ‘인민망(人民網)’에서 실시한 한 조사에서¹⁹⁵⁾ ‘박물관을 방문하지 않는 이유’로 박물관의 전시내용이 흥미롭지 못하다는 대답이 45.2%로 가장 많았다.

192) <http://www.jcrrb.com/200803/ca693533.ht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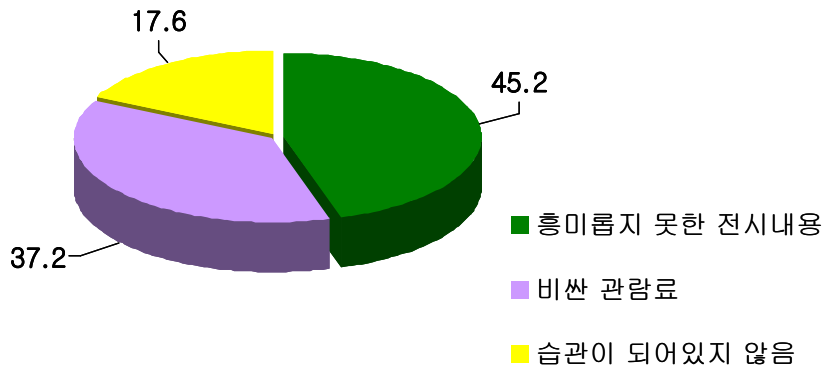
193) http://gb.cri.cn/18504/2008/04/28/342@2036021_1.htm

194) <http://www.ykwh.gov.cn/news/news.asp?id=13066>

195) <http://www.lygwh.gov.cn/show.asp?id=4996>

박물관을 방문하지 않는 이유

단위 : %



※ 출처 : 2007년 12월 9일 '인민망(人民網)'에서 실시한 조사

이러한 문제에 대해 난징박물관 원장인 공리양(龔良)은 “박물관은 전시를 통해 관람객을 끌어들이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무료관람제도 시행이후 1년 안에 24개의 대형전시를 개최하기로 약속했고 현재 이미 16개가 확정된 상태이다”라고 하였다.

어떤 관계자는 “사실 관람료가 박물관의 최대 장애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박물관의 전시가 사람들을 끌어들이 수 있는가이다. 일반 관람료는 30, 40위안(한화 약 4,400-5,900원) 정도이고, 특별전은 200, 300위안(한화 약 2만 9천-4만 4천원)이면 관람할 수 있다. 좋은 전시를 관람했는가에 대한 관람여부는 박물관의 가치가 어떤가를 보여준다.”¹⁹⁶⁾

서우두박물관의 부관장인 한영(韓永)은 “현재 많은 박물관 관장들의 걱정은 관람객 수가 많은 것이 아니라 얼마 지나 관람객 수가 다시 줄어들면 어쩌나 하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좋은 전시를 개최해 이전부터 자주 박물관을 방문해왔던 관람객들이 계속해서 박물관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관람객 층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우두박물관은 관람객들을 유도하기 위해 특별히 ‘도시의 기억(城市記憶)’이라는 가족 단위 프로그램을 준비하였다. 중국인민항일전쟁기념관(中國人民抗日戰爭紀念館)은 무료관람에 맞춰 ‘중일전쟁 항공기 모형전(二戰飛機模型展)’과 ‘항전 만화전(抗戰漫畫展)’ 등을 기획하였다.¹⁹⁷⁾

(4) 사립박물관에 대한 영향

196) <http://news.sc001.com.cn/info/05/20080602/042053.shtml>197) <http://culture.people.com.cn/GB/22219/7096852.html>

중국의 이러한 박물관 무료관람제도의 시행에 대해 사립박물관들은 그들의 생존 문제를 제기하였다. 1996년부터 현재까지 중국의 사립박물관은 신중국(新中國) 설립 이후 12년의 역사를 지나왔다. 2007년 말까지 전국에 승인을 받아 설립된 사립 박물관은 400개관이 넘었다. 이는 전국 박물관 총수의 6분의 1을 차지하는 것으로 상하이와 베이징에 가장 많은 수의 사립박물관이 소재하고 있다.

1996년 베이징시는 전국의 사립박물관을 심사, 등록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2002년 10월 《문물법(文物法)》 제정 이후, 중국은 기업과 개인이 설립한 각종 사립박물관을 장려하게 된다. 베이징시문물국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베이징시에서 승인을 받아 등록된 사립박물관은 약 20여 개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까지 중국에서 사립박물관은 새로운 영역에 속한다.¹⁹⁸⁾

이들 사립박물관들은 자금부족으로 인한 운영상의 어려움을 가장 큰 문제로 삼았고, 관람료 수입은 그들의 중요한 수입원이라고 말한다.

① 운영자금의 부족

이들 박물관의 자금출처를 살펴보면 주로 다음의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컬렉터 개인이 자금을 출자하고 기타 문화상품 등 판매수익을 통해 박물관을 유지하는 형태로 고도문명박물관(古陶文明博物館)을 예로 들 수 있다. 둘째, 개인 기업이 출자하는 형태로 예를 들어 베이징 진상박물관(北京晋商博物館), 난징 장풍당박물관(南京長風堂博物館), 저지앙 월국문화박물관(浙江越國文化博物館) 등이 있다. 셋째, 정부와 합작하여 정부가 장소를 제공하면 컬렉터가 소장품을 제공하는 형태로 수저우(蘇州)의 고대성문화박물관(古代性文化博物館)이 대표적이다. 넷째, 컬렉터가 자신의 집에 전시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자비로 운영되며 이러한 형태의 사립 박물관이 가장 많다.¹⁹⁹⁾

중국 대부분의 사립박물관은 개관할 때 정한 기준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한다. 후베이성(湖北省) 우한시(武漢市)의 우한 남광예술박물관(武漢藍光藝術博物館)의 송칭링 고택(宋慶齡故居)은 개관할 때부터 징수했던 1인당 20위안(한화 약 3천원)의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립박물관들은 무료관람을 시행할 계획이 없다고 말한다. 그들은 “관람료 수입은 사립박물관의 운영자금 중 중요한 일부분이다”라고 한다.²⁰⁰⁾

가. 관푸고전예술박물관

중국의 대표적인 사립박물관인 관푸고전예술박물관(觀復古典藝術博物館)은 관장인 마웨이두(馬未都)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관람료는 50위안(한화 약 7,100원)으로 마웨이두 관장은 “우리 박물관은 박물관의 청결도나 전시 효과, 관람객들의 만

198) http://gb.cri.cn/18504/2008/04/28/342@2036021_3.htm

199) http://www.china.com.cn/culture/txt/2008-03/31/content_13930447.htm

200) <http://www.cguwan.com/html/20085/26112151.asp>

죽도 등에서 다른 성(省)급 박물관에 뒤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는 또한 이 정도 수준의 관람료 징수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²⁰¹⁾

나. 장풍당박물관

난징(南京)의 유명한 사립박물관인 장풍당박물관(長風堂博物館)의 관람료는 1인당 50위안이다. 박물관의 사무담당자인 후어여사(霍女士)는 관람료 폐지에 대한 계획은 없지만,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자주 개최할 것이라고 하였다.

다. 월국문화박물관

사오싱(紹興)의 월국문화박물관(越國文化博物館)은 2007년 10월에 개관하였다. 중국과 해외를 통틀어 월국문화(越國文化)에 대해서는 가장 큰 규모의 사립박물관이며 관람료는 1인당 50위안이다. 설립자인 순메이팡(孫海芳) 선생은 박물관의 1년 운영 예산은 360만 위안정도이고 하루 평균 1만 위안 정도가 소요된다.

연간 관람객 수가 대략 100만명이고 이중 약 10분의 1만이라도 관람객이 방문한다면 박물관은 관람료 수입으로만 운영이 가능하다. 월국문화박물관 홍보부의 고객담당인 저우홍핑(周紅萍)은 “공립박물관의 무료관람제도 시행은 우리박물관의 관람객 형성에 큰 타격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²⁰²⁾

라. 술병박물관

삼우 술병박물관(三尤酒瓶博物館)의 관장은 관람료 징수에 대해 사실 5위안(한화 약 750원)의 관람료를 받아야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관람객들은 모두 친구의 소개로 오기 때문에 관람료를 징수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라고 말한다.

마. 장즈동박물관

장즈동박물관(張之洞博物館)의 관람료 징수는 경제적인 이익뿐 아니라 관람객들을 통제해 소장품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 박물관에는 6명의 직원이 있고, 정상적인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월 1, 2만 위안(한화 약 150만-3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바. 기타 대학박물관

기업이나 개인이 설립한 박물관 외에 대부분의 대학박물관들은 학생증만 있으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중남민족대학(中南民族大學) 개관이후 계속 무료관람을 시행하였다. 후베이대학박물관(湖北大學博物館)도 개관이후 현재까지 계속 무료였으며 단체 관람 시에는 사전예약을 해야 한다. 중국지질대학(中國地質大學)의 이푸박물관(逸夫博物館)의 경우, 1인당 40위안(한화 약 6천원)의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다. 박

201) http://gb.cri.cn/18504/2008/04/28/342@2036021_3.htm

202) <http://www.sina.net/ly/2008-02-25/345619.shtml>

물관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학교에서 부담한다.²⁰³⁾

② 정부 지원 문제

통계에 따르면, 지양수(江蘇)의 박물관 140여 개관 중 사립박물관은 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저지양(浙江)에는 190여 개의 박물관 중 55개관이 사립박물관이다. 또한 상하이에는 현재 전시실을 갖추고 있는 사립박물관은 40여 개관이 있다. 이들 사립박물관은 정부의 더 많은 지원을 바라고 있다. 장풍당박물관의 사무담당자인 후어 여사(霍女士)는 “우리는 정부 자금지원이 보장되기만 한다면 무료관람제도에 참여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저지양성문물국(浙江省文物局) 박물관처 부처장인 선쿤룽(沈坤榮)은 사립박물관의 자금지원방법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저지양성 내에서 이미 무료관람을 시행하고 있는 일부 사립박물관에 대한 표창이나 보조금 지원에 대해 저지양성문물국은 성채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하였다.

난통시문화국(南通市文化局)의 문물처(文物處) 책임자인 두지아러(杜嘉樂)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박물관의 무료관람이 대세인 상황에서 공립박물관의 무료관람은 1차적인 단계이다. 성(省)내 사립박물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건의하고 있다. 동시에 문박협회(文博協會) 등을 통해 사립박물관의 점진적인 무료관람시행을 권장하고 있다.”²⁰⁴⁾

선쿤룽(沈坤榮)은 “사실 우리는 이전부터 사립박물관의 생존문제에 대해 주의를 기울였다. 정부는 개인박물관만을 지원하기는 어려웠고, 그들의 생존과 발전에 필요한 조치를 제공할 수 없었다.” 그는 2004년 가장먼저 무료 개방된 성(省)급 박물관이 위치한 저지양에서 사립박물관에 대한 자금지원을 건의한 적이 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이 문제를 처리할 방안을 생각하고 있으며 몇몇 실적이 좋은 사립박물관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이들 박물관의 운영경비를 지원하려 한다고 하였다.

지양수성 문물국 박물관처 처장인 리민창(李民昌)은 “사립박물관은 현재 국가의 확실한 재정보조가 없는 상태이고 업무상 지도나 내부 관리 등을 지원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쿤산(昆山), 저우주양(周莊) 같은 지역의 몇몇 박물관은 지방문화특색이나 지역경관과 결합하여 부족한 재정을 보충한다고 하였다.²⁰⁵⁾

③ 자체적인 자금 확보

저지양(浙江) 타이저우(台州)의 우쯔시옹유리예술관(吳子熊玻璃藝術館)은 중국의 첫 번째 유리조각예술관이자 저지양성 내에서 대형사립박물관 중 하나이다. 박물관

203) <http://www.cguwan.com/html/20085/26112151.asp>

204) <http://www.sina.net/ly/2008-02-25/345619.shtml>

205) http://www.ce.cn/kjwh/scpm/zixun/200803/04/t20080304_14715090.shtml

설립에만 수천만 위안을 투입했지만 관람료는 1인당 20위안(한화 약 2,600원)이다.

“공립박물관의 무료관람은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현재 우리는 무료 개방할 생각이 없다.” 우쯔시옹유리예술관 관광 서비스부서(旅游部)의 책임자인 장중링(張中靈)은 다수의 공립박물관이 모두 종합적인 성격의 예술품을 소장하고 있는 것에 비해 유리예술관은 유리를 주제로 하고 있으며, 관내에는 국가급 공예 예술대사인 우쯔시옹(吳子熊)의 3천여 점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또한 유리 관련 화첩과 공예품을 판매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수입과 지출이 평형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

저지앙의 국가공예미술대사(國家工藝美術大師) 주빙런(朱炳仁)이 설립한 동조각예술박물관(銅雕藝術博物館)은 무료로 개관되었다. 이에 대해 그는 “박물관의 동조각 예술품 판매를 통해 이윤을 얻고 관람료 손실을 보충한다. 자신의 작품을 전시하고 사람들이 이를 감상하는 것은 예술가로서의 가장 큰 기쁨이다”라고 말한다.

지양수(江蘇) 난통(南通)의 남인화포예술관(藍印花布藝術館) 관장인 우위엔신(吳元新)은 예술관은 무형문화유산(非物質文化遺產)을 보호하고, 민간공예의 전승과 연구를 목적으로 하며 날염과정을 전시하고, 염직물 등을 판매한 수입으로 운영된다. 현재 관람료는 1인당 5위안(한화 약 660원)이며, 연간 관람료 수입은 2만 위안(한화 약 266만원)을 넘지 않는다.²⁰⁶⁾

4) 미국

(1) 스미소니언 인스티튜션(Smithsonian Institution)의 무료관람 정책

① 소개

스미소니언의 모든 뮤지엄과 워싱턴 D.C.의 동물원, 그리고 뉴욕의 아메리칸인디언박물관(American Indian Museum)의 조지 구스타브 헤이 센터(George Gustav Heye Center)의 관람료는 무료이다. 단, 뉴욕에 위치한 쿠퍼 휴잇 국립 디자인 뮤지엄(Cooper-Hewitt, National Design Museum)은 스미소니언 회원과 12세 미만의 학생을 제외하고 관람료를 징수한다.²⁰⁷⁾

스미소니언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은 모두 1억 3,700만 점에 이르며, 이중에서 1-2% 정도가 전시된다. 여기에는 35억여 년 된 화석에서부터 영부인이 입었던 취임식 의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²⁰⁸⁾

아래는 스미소니언 산하기구와 관람객의 통계에 관한 도표이다.²⁰⁹⁾

206) http://www.ce.cn/kjwh/scpm/zixun/200803/04/t20080304_14715090.shtml

207) <http://www.si.edu/visit>

208) <http://www.frommers.com/destinations/washingtondc/0035020233.html>

209) <http://www.si.edu/visit>

스미소니언 산하 기구

구분	관련 기관
스미소니언의 뮤지엄	아프리카미술관(African Art Museum)
	항공우주박물관과 우드바-하지 센터(Air and Space Museum and Udvar-Hazy Center)
	미국인미술관과 렌윅갤러리(American Art Museum and its Renwick Gallery)
	미국인역사박물관(American History Museum)
	아메리칸인디언박물관(American Indian Museum)
	아나코스티아 공동체 뮤지엄(Anacostia Community Museum)
	쿠퍼 휴잇 국립 디자인 뮤지엄(Cooper-Hewitt, National Design Museum)
	프리어갤러리(Freer Gallery)
	새클러갤러리(Sackler Gallery)
	허쉬혼뮤지엄과 조각공원(Hirshhorn Museum and Sculpture Garden)
	국립동물원(National Zoo)
	자연사박물관(Natural History Museum)
	초상화갤러리(Portrait Gallery)
	우편박물관(Postal Museum)
	국립 아프리카미국인 역사와 문화 박물관(National Museum of African American History and Culture)
연구 센터 (Research Center)	천체관측소(Astrophysical Observatory/ SAO)
	뮤지엄보존인스티튜트(Museum Conservation Institute/ MCI)
	환경연구센터(Environmental Research Center/ SERC)
	열대지방연구인스티튜트(Tropical Research Institute/ STRI)

2007년 스미소니언 관람객 수

구분	관람객 수
스미소니언 뮤지엄	2,420만명
국립 동물원(National Zoo)	260만명
순회 전시(Traveling exhibitions)	580만명
웹 사이트 방문자	1억 8,880만명

② 재정의 출처

스미소니언은 연방 예산으로부터 연간 운영비용의 약 3분의 2를 지원받고 있다. 나머지 3분의 1은 기부금, 트러스트 기금 수익, 스미소니언의 사업과 수여 및 계약 등을 포함한 스미소니언 트러스트 펀드(Smithsonian Trust Funds)로 부터 충당된다.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연방 예산은 24% 증가하였으며, 총 22억 달러(한화 약 2조 640억 4천만원)를 지급하였다. 트러스트 펀드의 경우, 20% 증가하여 총 11억 달러(한화 약 1조 320억 2천만원)가 제공되었다.²¹⁰⁾ 스미소니언은 연방 지원 이외에도 개인 기부와 정부의 시상(Grants), 계약, 투자에 대한 수익 및 다양한 사업 등을 통해 재정을 충당하고 있다.²¹¹⁾

가. 연방 지원

스미소니언은 연간예산의 약 70%를 미의회로부터 배정받고 있지만, 기관은 상당부분을 개인기부자들의 재정 지원에 의지하고 있다. 특히 여러 뮤지엄들이 보수를 필요로 하고 있어 스미소니언은 더 많은 기부자들이 필요하게 되었다.²¹²⁾

스미소니언의 운영과 보수를 위해서는 많은 자금이 필요하며, 자금은 의회 재정에 의존하고 있다. 스미소니언 재정 승인의 예산 위원단(the appropriations panel) 중 한 사람인 제임스 P. 모런(James P. Moran)은 1인당 1달러의 요금은 합리적이라고 말한다.

이에 스미소니언의 차관보(Deputy secretary)이자 수석경영관(Chief operating officer)인 셰일라 버크(Sheila Burke)는 그동안 스미소니언의 이사회에서 이러한 논의가 있어왔으나 임원들에 의해 세 번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관람료는 가족단위의 관람객들에게 영향을 줄 것이며, 공공 뮤지엄의 무료관람이 방문객에게 즐거움을 준다는 것이 거절의 주된 이유이다.

아래의 표는 스미소니언이 미의회에 요청한 연간 예산에 관한 것이다.²¹³⁾

210) <http://www.whitehouse.gov/omb/budget/fy2003/bud30.html>

211) http://si.edu/about/documents/Smithsonian_Final_2007_Audited_Financial_Statements.pdf

212) <http://www.frommers.com/destinations/washingtondc/0035020233.html>

213) <http://www.si.edu/about/budget/2009/FY09BudgetRequest.htm>

스미소니언이 미의회에 요청한 예산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급여 및 지출	5억 1,656만 8천 달러(한화 약 4,894억원)	5억 3,739만 4천 달러(한화 약 5,664억 8천만원)	5억 624만 4천 달러(한화 약 4,796억 2천만원)	5억 8,830만 달러(한화 약 5,573억 6천만원)
시설 및 자재	9,852만 9천 달러(한화 약 933억 5천만원)	1억 700만 달러(한화 약 1,013억 7천만원)	1억 542만 9천 달러(한화 약 998억 8천만원)	1억 2,800만 달러(한화 약 1,212억 7천만원)
합계	6억 1,509만 7천 달러(한화 약 5,827억 4천만원)	6억 4,439만 4천 달러(한화 약 6,105억원)	6억 8,262만 9천 달러(한화 약 6,467억 2천만원)	7억 1,640만 달러(한화 약 6,787억 2천만원)

나. 기부금 관련 제도

a. 자선기금연금(Charitable Gift Annuity)

스미소니언의 뮤지엄이나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현금이나 현물로 기부할 수 있다. 스미소니언은 이러한 자산을 재투자하며, 기부자가 지명한 수령인에게 평생 고정된 수익금을 지불한다. 사망했을 경우, 남아있는 수익금은 스미소니언의 기금에 예금된다. 연금 지급금액은 수령인의 연령에 따라 결정된다.

- 혜택

• 평생 소득(Income for Life)

기부자 혹은 수령인은 남은 일생 동안 연금이 지급된다.

• 세금 감면(Tax Deduction Savings)

자선 기부로 간주되어 세금 감면의 혜택이 있다.

• 자본소득세 절약(Capital Gains Tax Savings)

만약 유가증권을 기부했을 경우, 매각에 따른 약간의 자본소득세를 지불해야 한다. 기부는 전형적으로 1만 달러(한화 약 940만원)에서 20만 달러(한화 약 1억 8,800만원) 사이이며, 100만 달러(한화 약 9억 3,800만원)의 기부연금이 조성되어 있다.

수령인 연령에 따른 기부연금률(2003년)

연령	비율
65세 미만	6.0%
70세 미만	6.5%
75세 미만	7.1%
80세 미만	8.0%
85세 미만	9.5%
90세 이상	11.3%

예를 들어, 75세의 기부자가 3만 달러(한화 약 2,800만원)의 연금을 기부했다면, 일생동안 1년에 2,130달러(한화 약 200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최초 12년 동안에는 1,257달러(한화 약 118만원)의 연금에 소득공제혜택이 있다. 또한 기부자는 1만 4,425달러(한화 약 1,35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자선소득공제(charitable income tax deduction)를 받을 수 있다.

- 사례

• 부동산 기부 연금(Gift Annuity for Real Estate)

조나단(Jonathan)이 8만 달러에 구매한 저택의 가치는 2008년 기준으로 42만 달러(한화 약 3억 9,400만원)이다. 조나단의 부인이 사망하자 조나단은 집을 팔고 가족과 함께 지내기로 하였다. 그러나 재산을 매각 할 경우, 높은 세금을 부과하게 되며, 세금을 지불한 후에는 겨우 25만 달러(한화 약 2억 3,500만원)만 남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조나단(Jonathan)은 스미소니언의 자원봉사자가 됨으로써 세금을 피하고 자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그는 “저택은 좋은 투자였지만 현재 부인은 사망하였고,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 만약 저택을 매각 할 경우, 높은 자본소득세(capital gain tax)가 부과됨을 알게 되었고, 나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과 은퇴를 위한 수입을 얻게 될 방법을 찾게 되었다. 또한 시장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고정적인 수입을 얻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스미소니언을 통해 그의 연령을 기초로 하여 저택을 고정된 연금으로 바꿀 수 있었다. 그는 이를 통해 세금을 피할 수 있었으며 은퇴를 위한 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시장의 변동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²¹⁴⁾

• 세금감면을 위한 유산(A Bequest to Save Taxes)

214) http://si.giftlegacy.com/plgive_donor_story.jsp?P=17&WebID=GL2005-0469

토마스(Thomas)는 부인이 사망 한 후 그의 재산을 스미소니언에 기부하고자 한다. 토마스의 변호사는 토마스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과 부동산, 개인퇴직적립금(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IRA) 등의 자산 중 주식과 부동산은 그의 자녀에게 상속하고 개인퇴직적립금은 자선 기부하라고 조언했다.

토마스는 “변호사는 주식과 부동산은 자녀에게 상속하라고 말했다. 이러한 자산은 내가 사망한 후 받게 될 것이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러나 개인퇴직적립금을 자녀에게 상속한다면 소득세가 발생할 것이며, 세금을 지불하고 나면 일부의 금액만이 남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스미소니언에 개인퇴직적립금을 기부하면, 기부 뿐 만 아니라 자산과 자녀들에게 부과되는 추가적인 세금을 피할 수 있다. 토마스는 개인퇴직적립금 은행을 통해 수령인 지정 서식을 받은 후, 그의 개인퇴직적립금의 전부에 대한 수령인을 스미소니언으로 지정하였다. 그 후 토마스의 변호사는 그의 유산 상속자로서 그의 자녀를 지명하였다.²¹⁵⁾

③ 관람객 대비 운영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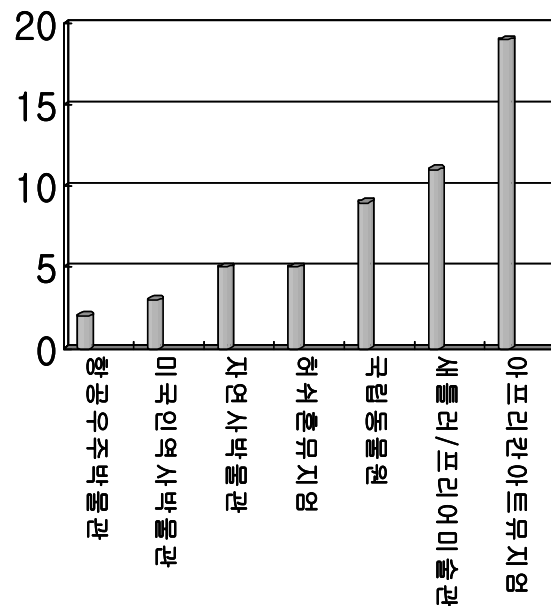
항공우주박물관(Air and Space Museum)과 자연사박물관(Natural History Museum), 미국인역사박물관(American History Museum), 그리고 국립동물원(National Zoo) 등의 5개 뮤지엄과 기관의 방문객은 스미소니언 전체 방문객의 85%를 차지한다. 나머지 11곳은 전체 방문객의 15% 정도가 방문하지만, 스미소니언 운영비용의 35%를 사용하고 있다.

관람객의 즐거움과 지식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하다. 이것은 관람객 수 대비 뮤지엄들의 운영비용으로 측정할 수 있다. 스미소니언의 뮤지엄들을 살펴보면, 뮤지엄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효율성은 매우 큰 차이가 있다. 스미소니언의 관람객 1인당 운영비용은 2달러에서 20달러까지 다양하다.²¹⁶⁾

215) http://si.giftlegacy.com/plgive_donor_story.jsp?P=18&WebID=GL2005-0469

216) <http://www.whitehouse.gov/omb/budget/fy2003/bud30.html>

관람객 1인당 평균 운영비용
(단위 : 달러)



스미소니언의 대표적 뮤지엄의 관람객 1인당 운영비용

④ 관람료 부과 사례

가. 관람료가 법적으로 금지되어있는 뮤지엄

국립아메리칸인디언뮤지엄(National Museum of the American Indian) 및 국립 초상화갤러리(National Portrait Gallery), 허쉬혼 미술관과 조각공원(Hirshhorn Museum and Sculpture Garden), 프리어미술관(Smithsonian's Freer Gallery of Art) 등 4개의 뮤지엄은 법적으로 관람료 부과가 금지되어 있다.²¹⁷⁾

나. 관람료 부과 사례

스미소니언은 처음으로 국립자연사박물관(National Museum of Natural History)의 전시인 ‘나비 궁전(Butterfly Pavilion)’에 5달러의 관람료를 부과하였다. 이것은 오래된 건물의 수리 등에 드는 비용이 늘어남에 따라 더 많은 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⑤ 2007년 관람료 보고서

- '무료로 가기(Going Free)'

217) Jacqueline Trescott, <Admission Fee Idea Floated For Smithsonian> Washington Post, 2006년 3월 30일

미국 미술관의 무료관람시행 연도

미술관 명	시행연도
세인트 루이스 미술관(St. Louis Art Museum)	1971년
미네폴리스 인스티튜트 오브 아트(Minneapolis Institute of Arts)	1988년
데이턴 아트 인스티튜트(Dayton Art Institute)	1994년
넬슨-애킨스 미술관(Nelson-Atkins Museum of Arts)	1998년
산호세미술관(San Jose Museum of Art) ²¹⁸⁾	2001년
신시내티미술관(Cincinnati Art Museum)	2003년
볼티모어미술관(Baltimore Museum of Art)	2006년
월터 아트갤러리(Walters Art Gallery)	2006년
인디애나폴리스 미술관(Indianapolis Museum of Art)	2007년

가. 관람료는 방문의 주된 요소가 아니다

뉴질랜드와 영국의 국립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무료관람시행 이후 관람객이 증가한 것은 새로운 관람객의 창출이 아닌 본래의 관람객이 더 많이 관람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관람료가 방문의 부차적인 장애요인이기 때문이며, 주된 요인은 시간의 부족이다. 방문객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방문에 있어서 장애요인으로 시간의 부족은 54%였고, 거리 요소는 30%, 교통 불편은 15%였으며, 관람료는 11%였다.²¹⁹⁾

나. 무료관람은 박물관의 인식을 높인다.

무료관람을 시행하고 있는 박물관의 관장은 무료관람은 박물관의 접근성과 개방성에 대한 인식을 높임으로써 박물관과 관람객의 관계를 자극하고 변화시킨다고 하였다. 이는 박물관의 주된 임무이며 지역 공동체를 박물관으로 끌어들이는 요소가 된다.

다. 관람료와 관련된 이익

박물관이 관람료를 받았을 경우, 박물관과 관련된 관광산업과 관련하여 패키지 관광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스미소니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관람료를 지불했을 경우 관람객은 박물관에 더 오래 머문다.

라. 쿠퍼 휴잇 내셔널 디자인 뮤지엄

218) 2006년에 일반관람료징수를 재시행함.

219) Ministry for culture and heritage, Newzealand <A Measure of Culture:Cultural experience and Cultural spending in New Zealand> 2003년 6월

쿠퍼 휴잇 내셔널 디자인 뮤지엄(Cooper Hewitt National Design Museum)은 노인과 학생에게 관람료의 25%를 할인혜택을 제공해 일반 관람료가 12달러인 반면에 9달러에 입장할 수 있다. 그러나 방문객들은 뮤지엄의 전시가 시간과 노력에 비례하여 만족스러웠음에도 불구하고 관람료가 부담하다고 느끼고 있다.

이 생각은 특히 어린 학생들에게 강하게 나타나며, 이것은 그 지역의 메트로폴리탄뮤지엄(Metropolitan Museum)과 구겐하임뮤지엄(Guggenheim Museum), 그리고 휘트니미술관(Whitney Museum of American Art)의 관람료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마. 기금 지원(Fund-raising)의 기회

무료관람을 시행하고 있는 몇몇 뮤지엄에 따르면, 특정한 기금 후원자들로부터 더 많은 돈을 끌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데이턴 아트 인스티튜트(Dayton Art Institute)나 신시내티 미술관(Cincinnati Art Museum)과 같이 기금 후원자가 은행이나 다른 기업체라면 뮤지엄은 때때로 일정 기간 동안 무료로 명칭사용권, 즉 '네이밍라이트(Naming Right)'²²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무료관람을 지원하기 위해 모아진 기금은 수입 손실의 일부를 보충하기 위한 기금을 설립하는데 사용된다.

산호세미술관(San Jose Museum of Art)의 경우, 2001년도에 지역정부와 기업으로부터 무료관람에 대한 기금지원이 있었다. 5년이 지난 후 기업의 합병과 지역정부의 재정 악화로 인해 미술관은 다시 관람료를 징수하게 되었다. 볼티모어미술관(Baltimore Museum of Art)과 월터갤러리(Walters Gallery)의 경우에는 지역정부로부터 무료관람에 관한 재정 지원을 받는다.

바. 쿠퍼 휴잇 국립 디자인 뮤지엄의 관람료 수익

쿠퍼 휴잇 국립 디자인 뮤지엄의 관람료 수익은 1년에 50만 달러 이상(한화 약 4억 6,900만원)이다. 관련된 관람객 서비스 기능을 세분화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지만, 대략 20% 정도이다. 즉, 쿠퍼 휴잇 국립 디자인 뮤지엄의 일반 관람료를 받지 않는다면 1년에 약 40만 달러(한화 약 3억 7,500만원)에 이르는 자금을 대체할 만한 자원을 찾아야 한다.

2004년 미국의 뮤지엄들의 평균 관람료는 7달러였다. 그러나 직원 급여, 보안, 보험, 교육 프로그램, 보존 및 다른 비용을 포함한 각 관람객에 대한 평균 비용은 35달러 98센트였다.²²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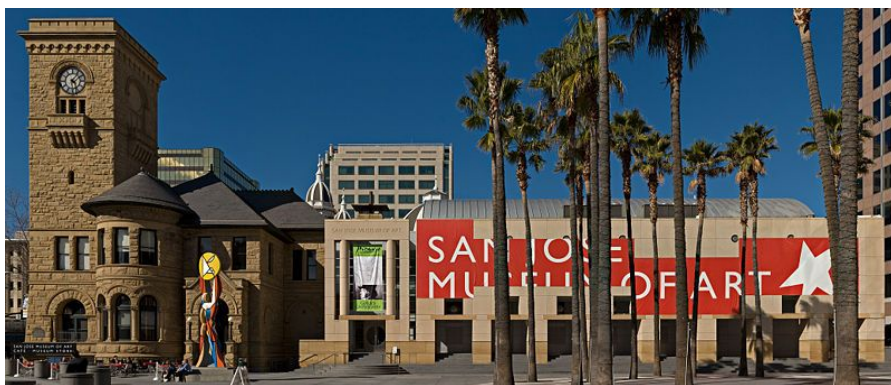
220) 명칭 사용권(Naming Rights)은 건물이나 기구의 명칭을 한기간 동안 개인 또는 법인에 판매하는 것으로 주로 운동장 등에서 사용되었다. 스포츠선진국에서 많이 사용했으며, 분데스리가 바이에른 뮌헨의 홈구장 '알리안츠 아레나', NBA 유타 제츠의 홈구장 '델타 센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아스날의 새로운 홈구장 '에미레이트 스타디움' 등이 대표적이다.

221) <http://www.si.edu/opanda/docs/Rpts2007/AdmissionsReport.final.pdf>

(2) 산호세미술관의 무료관람 정책

① 소개

산호세미술관(San Jose Museum of Art)은 1969년에 설립되었으며, 서부 연안 지대의 시각 예술을 반영하는 동시대의 소장품들을 소장하고 있다. 미국박물관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Museums/ AAM)로부터 박물관 인증을 받았으며, 산호세의 도심에 위치하고 있는 비영리기관이다.²²²⁾



산호세미술관(San Jose Museum of Art)

② 무료관람 정책의 시행 배경

2001년 6월, 산호세미술관은 공동체의 모든 사람이 소득에 상관없이 박물관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무료관람을 시행하였다. 1년 후, 산호세미술관의 관람객수는 20만명으로 2배가량 늘어났으며, 연회원은 20% 증가하였다. 실리콘밸리의 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참여는 뮤지엄의 기부자들로 하여금 관람료로 인한 손실 부분을 위한 기부를 하게 하였다.

큰 도시의 미술관에게 무료관람은 몇 가지의 위험 요소가 있다. 미국에는 연방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워싱턴 D.C.의 스미소니언과 대학의 미술관들을 제외하고 몇 개의 뮤지엄만이 무료관람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산호세미술관 같은 큰 규모의 뮤지엄에서는 드문 일이다. 또한 이러한 결정은 실리콘밸리의 경제가 매우 악화되었을 때 일어났다. 당시 산호세미술관은 20만 달러(한화 약 2억 6,500만원)의 관람료 수입을 포기하게 되었고, 새로운 정책의 성공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었다.

산호세미술관이 무료관람을 시행한 이래로 관람객은 2배로 늘어났으며, 멤버십 회원도 20% 증가하여 6천명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관람객의 61%는 미술관을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로, 1년 전 보다 20% 증가한 것이었다.²²³⁾

222) <http://www.sanjosemuseumofart.org/content/aboutUs/whoWeAre/howweare.phtml>

③ 유료관람 전환 이유

산호세미술관은 2006년 무료관람제도를 폐지하고, 관람료를 받기 시작했다. 관람객수는 증가했지만, 유료 멤버십 회원은 줄어들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미술관 내 소매점들의 수입도 줄어들었다. 산호세미술관의 행정관은 유료관람이었을 경우 다른 경험을 하려는 경향이 더 크다고 말하며, 이것이 다시 관람료를 받게 된 이유라고 설명한다.²²⁴⁾

(3) 관람료 수입과 운영예산과의 관계

2004년 미국 뮤지엄들의 평균 관람료는 7달러였다. 그러나 직원 급여, 보안, 보험, 교육 프로그램, 보존 및 기타 지출 등을 포함한 관람객 1인당 평균 지출 비용은 35.98달러였다. 미국의 뮤지엄들의 관람료 수입은 운영예산의 약 5%만을 제공한다.

뉴욕현대미술관(Museum of Modern Art in New York)의 운영예산 대비 관람료 수입은 15%이며, 무료관람을 시행하고 있는 워싱턴 D.C.의 국립미술관(National Gallery of Art)은 0%를 차지하는 등 범위는 다양하다. 운영수입의 약 18%는 뮤지엄 아트샵에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카페나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접대나 회의를 위한 장소 대여, 주차비에서부터 비롯된다.

엘라인 휴먼 가리언(Elaine Heumann Gurian)과 같은 박물관학자는 박물관은 관람료가 소득과 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교육적 기관으로써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가장 큰 장애 요소가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재정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운영예산의 5%에 불과한 관람료가 기관의 생존에 불가결한 요소는 아닐 것이다.²²⁵⁾

2. 한국과 주요국가 관람료 비교분석

1) 국내 박물관·미술관 관람료 현황

223) http://www.acfnewsresource.org/art/free_admission.html

224) <http://www.opinionjournal.com/taste/?id=110008714>

225) http://www.aam-us.org/pubs/mn/MN_JF07_cost-free.cfm

국립박물관·미술관 및 관람료 현황

부처	관명	위치	설립년도	관람료(일반기준/ 19-64세 단위 : 원)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서울특별시	1945년	2,000원
	국립민속박물관	서울특별시	1945년	3,000원
	국악박물관	서울특별시	1995년	무료
	덕수궁미술관	서울특별시	1998년	전시에 따라 변동
	국립현대미술관	경기도 과천시	1969년	1,000원
	국립경주박물관	경북 경주시	1975년	1,000원
	국립공주박물관	충남 공주시	1975년	1,000원
	국립부여박물관	충남 부여군	1975년	1,000원
	국립광주박물관	광주광역시	1978년	1,000원
	국립진주박물관	경남 진주시	1984년	1,000원
	국립청주박물관	충북 청주시	1987년	1,000원
	국립전주박물관	전북 전주시	1990년	1,000원
	국립대구박물관	대구광역시	1994년	1,000원
	국립김해박물관	경남 김해시	1998년	1,000원
	국립춘천박물관	강원도 춘천시	2002년	1,000원
	국립제주박물관	제주특별자치도	2001년	1,000원
	국립고궁박물관	서울특별시	1908년	2,000원
문화재청	세종대왕유적관리소	경기도 여주군	1977년	500원
	현충사관리소	충남 아산시	1706년	500원
	칠백의총관리소	충남 금산군	1975년	500원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전남 목포시	1994년	600원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전남 목포시	1994년	600원
외교통상부	외교박물관	서울특별시	1993년	무료
경찰청	경찰박물관	서울특별시	2005년	무료
교육과학기술부	국립중앙과학관	대전광역시	1927년	1,000원
	국립서울과학관	서울특별시	1945년	1,000원
한국철도공사	철도박물관	경기도 의왕시	1988년	500원
지식경제부	체신기념관	서울특별시	1972년	무료
	우정박물관	충남 천안시	1985년	무료
관세청	관세박물관	서울특별시	2000년	무료
한국은행	한국은행화폐금융박물관	서울특별시	2001년	무료
산림청	국립산림박물관	경기도 포천시	1987년	1,000원
국토해양부	국립등대박물관	경북 포항시	1985년	700원

※ 총 32관

전국 공립박물관 관람료 현황

위치		관명	설립년도	관람료(일반기준/ 19-64세 단위 : 원)
서울특별시		농협농업박물관	1987년	무료
		전쟁기념관	1994년	3,000원
		서울교육사료관	1995년	무료
		서대문자연사박물관	1997년	3,000원
		서대문형무소역사관	1998년	1,500원
		서울역사박물관	2002년	700원
		허준박물관	2005년	800원
		서울약령시 한의약박물관	2006년	무료
		지구촌민속교육박물관	2006년	무료
부산광역시		부산박물관	1978년	500원
		북천박물관	1996년	500원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립박물관	1946년	400원
		부평역사박물관	1997년	500원
		강화역사관	1998년	1,300원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2005년	500원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	1964년	500원
대전광역시		대전시향토사료관	1991년	무료
		한밭교육박물관	1992년	무료
		지질박물관	2001년	무료
울산광역시		장생포 고래박물관	2005년	2,000원
경기도	수원시	잠사과학박물관	1999년	무료
	부천시	자연생태박물관	2000년	1,200원
		한국만화박물관	2001년	3,000원
		부천교육박물관	2003년	1,000원
		부천유럽자기박물관	2003년	1,500원
		부천수석박물관	2004년	1,500원
		부천활박물관	2005년	1,000원
		펼벽기념관	2006년	무료
	안산시	성호기념관	2002년	500원
		안산어촌민속전시관	2006년	2,000원
	동두천시	자유수호평화박물관	2002년	1,000원
	하남시	하남역사박물관	2004년	무료
	이천시	이천시립박물관	1946년	무료
	안성시	안성맞춤박물관	2002년	500원
	여주군	여주군향토사료관	1997년	무료
강원도	강릉시	대관령박물관	1993년	1,000원
		강릉오죽헌 시립박물관	1998년	3,000원

	태백시	태백석탄박물관	1997년	2,000원
	속초시	속초시립박물관	2005년	2,000원
	삼척시	삼척시립박물관	2000년	무료
	양구군	양구선사박물관	1997년	1,000원
		방산자기박물관	2006년	1,000원
	인제군	인제산촌민속박물관	2003년	무료
충청북도	청주시	고인쇄박물관	1992년	800원
		청주백제유물전시관	2001년	무료
		한국공예관	2005년	무료
	충주시	충주박물관	1986년	무료
	청원군	한국잠사박물관	2004년	3,000원
	영동군	영동난계국악박물관	2002년	500원
	진천군	진천종박물관	2005년	1,500원
충청남도	천안시	독립기념관	1987년	무료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2006년	1,500원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1995년	1,000원
	태안군	고남패총박물관	2002년	1,200원
전라북도	전주시	전주역사박물관	2002년	무료
	익산시	미륵사지 유물전시관	1997년	무료
	고창군	판소리박물관	2001년	800원
전라남도	목포시	목포자연사박물관	2004년	3,000원
	강진군	강진청자자료박물관	1997년	2,000원
	영암군	전라남도농업박물관	1993년	700원
경상북도	포항시	영일민속박물관	1983년	무료
	안동시	안동시립민속박물관	1992년	1,000원
	상주시	상주박물관	2007년	1,000원
	문경시	문경새재박물관	1997년	무료
		문경석탄박물관	1999년	2,000원
	고령군	대가야박물관	2000년	2,000원
	울릉군	독도박물관	1997년	무료
경상남도	마산시	마산시립박물관	2001년	500원
	김해시	대성동고분박물관	2003년	무료
	밀양시	밀양시립박물관	1974년	1,000원
	거제시	거제어촌민속전시관	2003년	1,500원
	고성군	고성공룡박물관	2004년	3,000원
		고성탈박물관	2005년	2,000원
	거창군	거창박물관	1988년	무료
	합천군	합천박물관	2004년	700원
제주특별자치	제주시	제주교육박물관	1945년	무료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1984년	1,100원

도		제주돌문화공원	1999년	5,000원
	서귀포시	서귀포감귤박물관	2005년	1,500원

※ 총 80관

전국 공립미술관 관람료 현황

위치		관명	설립년도	관람료(일반기준/ 19-64세 단위 : 원)
서울특별시		서울시립미술관	1988년	700원
		소마미술관	2004년	3,000원
부산광역시		부산시립미술관	1998년	700원
광주광역시		광주시립미술관	1998년	500원
대전광역시		대전시립미술관	1998년	500원
경기도	이천시	이천시립월전미술관	2007년	2,000원
강원도	양구군	양구군립박수근미술관	2002년	1,000원
전라북도	완주군	전북도립미술관	2004년	700원
전라남도	곡성군	전라남도 옥과미술관	1988년	500원
	보성군	보성군립 백민미술관	1992년	무료
경상남도	김해시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2001년	2,000원
	창원시	경남도립미술관	2004년	1,000원
	마산시	문신미술관	2004년	500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포시기당미술관	1987년	400원
		서귀포시립 이중섭미술관	2002년	1,000원

※ 총 15관

전국 사립박물관 관람료 현황

위치	관명	설립년도	관람료(일반기준/ 19-64세 단위 : 원)
서울특별시	성암고서박물관	1974년	무료
	한국자수박물관	1976년	무료
	농업박물관	1978년	무료
	호림박물관	1982년	3,000원
	폴무원김치박물관	1986년	3,000원
	샬트르성바오로 수녀회역사박물관	1988년	무료
	롯데월드민속박물관	1989년	5,000원
	삼성출판박물관	1990년	3,000원
	서울올림픽기념관	1990년	3,000원

	용기민속박물관	1991년	3,000원
	의학박물관	1992년	무료
	한국잡지박물관	1992년	무료
	한국불교미술박물관	1993년	5,000원
	짚풀생활사박물관	1993년	4,000원
	서울디자인박물관	1993년	무료
	한국가구박물관	1993년	무료
	한국현대의상박물관	1993년	2,000원
	삼성어린이박물관	1995년	5,000원
	지구촌민속박물관	1997년	무료
	조흥금융박물관	1997년	무료
	한국현대문학관	1997년	2,000원
	초전섬유·퀼트박물관	1998년	5,000원
	평강성서유물박물관	1998년	2,000원
	도산안창호기념관	1998년	무료
	종이미술박물관	1999년	무료
	화정박물관	1999년	3,000원
	신문박물관	2000년	3,000원
	티벳박물관	2001년	5,000원
	영인문학관	2001년	3,000원
	울트라건축박물관	2001년	무료
	전기박물관	2001년	무료
	가회박물관	2002년	3,000원
	떡·부엌살림박물관	2002년	3,000원
	치우금속공예관	2002년	무료
	숫대박물관	2003년	5,000원
	경기여고 경운박물관	2003년	무료
	코리아나화장박물관	2003년	3,000원
	세계장신구박물관	2004년	5,000원
	한국카메라박물관	2004년	4,000원
	별난물건박물관	2004년	8,000원
	우리은행은행사박물관	2004년	무료
	한상수자수박물관	2005년	3,000원
	생명과학박물관	2006년	5,000원
	보나장신구박물관	2006년	5,000원
	목인박물관	2006년	5,000원
	롤링볼뮤지엄	2006년	12,000원
	실크로드박물관	2006년	5,000원
	서울담문화관	2006년	3,000원
	쉽박물관	2007년	7,000원
	혜곡 최순우기념관	2007년	무료

		김달진미술자료관	2007년	1,000원
		명인박물관	2007년	무료
		근현대디자인박물관	2008년	3,000원
		유금와당박물관	2008년	5,000원
		북촌생활사박물관	2003년	5,000원
		백범기념관	2002년	무료
부산광역시		부산포민속박물관	2006년	무료
대구광역시		송광매기념관	1998년	1,000원
		자연염색박물관	2005년	3,000원
인천광역시		무애원도예박물관	1993년	무료
		가천박물관	1995년	무료
		인천어린이박물관	2005년	5,000원
대전광역시		화폐박물관	1988년	무료
		충남전기통신박물관	1996년	무료
		동산도기박물관	1997년	2,000원
		옛터민속박물관	2001년	무료
		대청댐물문화관	2004년	무료
울산광역시		세계과충류체험박물관	2007년	9,000원
경기도	고양시	충남미문화원병설박물관	1994년	4,500원
		증권박물관	2004년	무료
		배다리술박물관	2004년	무료
		테마동물원ZooZoo	2002년	9,000원
	부천시	부천로보파크	2005년	5,000원
	용인시	경기도박물관	1996년	무료
		디아모레뮤지움	1979년	무료
		신세계상업사박물관	1995년	무료
		한국민속촌박물관	1996년	12,000원
		한국등잔박물관	1997년	4,000원
		등지박물관	1998년	2,000원
		삼성화재교통박물관	1998년	4,000원
		세종옛돌박물관	2000년	5,000원
		남양주시	자연사박물관우석헌	2003년
	왈츠와닥터만 커피 박물관		2006년	5,000원
	시흥시	창조자연사박물관	2005년	7,000원
	광명시	충현박물관	2003년	3,500원
		나비야 놀자 박물관	2005년	4,000원
	파주시	두루피박물관	1998년	3,000원
		영집궁시전시관	2001년	2,000원
	광주시	만해기념관	1998년	2,000원
		일본군위안부역사관	1998년	5,000원
		경기도자박물관	2001년	무료

	김포시	사람박물관 얼굴	2004년	4,000원
		덕포진교육박물관	1996년	2,500원
		김포다도박물관	2001년	3,000원
	양주시	조명박물관	2004년	3,000원
	포천시	아프리카예술박물관	2006년	5,000원
	여주군	목아박물관	1990년	5,000원
		한얼고문서유물관	1999년	2,500원
		한얼과학문화관	2000년	2,500원
		한얼전적유물관	2000년	2,500원
		여성생활사박물관	2001년	5,000원
		한얼카메라유물관	2003년	2,500원
		한얼산업디자인유물관	2003년	2,500원
		한얼의학유물관	2003년	2,500원
		폰박물관	2008년	3,000원
	양평군	환경재생조형박물관	1997년	12,000원
	과천시	마사박물관	1988년	무료
		한국카메라박물관	2002년	4,000원
강원도	강릉시	참소리축음기·에디슨과학박물관	1982년	7,000원
		치악산 명주사 고판화박물관	2004년	3,000원
	횡성군	한얼문예박물관	2002년	무료
	영월군	영월책박물관	1992년	2,000원
	평창군	월정사성보박물관	1999년	무료
	인제군	만해문학박물관	1997년	2,000원
충청북도	충주시	술박물관 리퀴리움	2005년	6,000원
	제천시	지적박물관	1999년	3,000원
	청원군	한국잠사박물관	1995년	3,000원
	보은군	한국비림박물관	2002년	무료
	음성군	철박물관	2000년	무료
충청남도	공주시	웅진초등교육박물관	2001년	2,500원
		계룡산자연사박물관	2004년	9,000원
	아산시	온양민속박물관	1978년	5,000원
	금산군	태영민속박물관	2000년	5,000원
	연기군	교과서박물관	2003년	무료
		수덕사근역성보관	1998년	무료
전라북도	익산시	한국고건축박물관	1998년	3,000원
		원불교역사박물관	1979년	무료
	부안군	금구원조각전시관	1966년	2,000원
		부안원숭이학교 자연사박물관	2003년	6,000원

전라남도	순천시	선암사정보박물관	2001년	무료
	보성군	대원사티벳박물관	2001년	2,000원
	영암군	도갑사정보박물관	2001년	무료
경상북도	포항시	포스코역사박물관	2003년	무료
	김천시	직지정보박물관	1995년	1,000원
	안동시	하회동탈박물관	1995년	2,000원
		안동소주박물관	1995년	무료
		안동독립운동기념관	2007년	1,000원
	구미시	금오민속박물관	2003년	5,000원
	영덕군	경보화석박물관	1996년	4,000원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민속박물관	2006년	무료
	밀양시	미리벌민속박물관	1998년	4,000원
	거제시	거제박물관	1991년	2,000원
		해금강테마박물관	2005년	4,000원
	양산시	통도사정보박물관	1987년	2,000원
	의령군	일준부채박물관	2007년	2,000원
	사천시	항공우주박물관	2002년	2,000원
	고성군	고성탈박물관	2005년	2,000원
		해인사정보박물관	2002년	2,000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평화박물관	2004년	5,000원
		세계미니어처박물관	2002년	6,000원
	서귀포시	석부작테마공원	1997년	4,500원
		아프리카박물관	1998년	5,500원
		테디베어뮤지엄	2001년	6,500원
		닥종이인형박물관	2006년	6,000원
		제주민속촌박물관	1987년	6,000원
		신영영화박물관	1999년	6,000원
	북제주군	북촌돌하르방공원	2005년	4,000원
	남제주군	설록차뮤지엄오설록	2001년	무료
		소인국 테마파크	2002년	6,000원
		초콜릿박물관	2002년	4,000원
		건강과성박물관	2006년	9,000원

※ 총 164관

전국 사립미술관 관람료 현황

위치	관명	설립년도	관람료(일반기준/ 19-64세 단위 : 원)
서울특별시	일민미술관	1926년	전시에 따라 변동
	아트센터나비	1984년	무료

		금호미술관	1989년	전시에 따라 변동
		예술의전당한가람미술관	1990년	전시에 따라 변동
		토탈미술관	1992년	3,000원
		환기미술관	1992년	전시에 따라 변동
		대림미술관	1993년	4,000원
		한원미술관	1993년	무료
		치우금속공예관	2004년	무료
		성곡미술관	1995년	5,000원
		포스코미술관	1995년	무료
		사비나미술관	1996년	2,000원
		간송미술관	1996년	무료
		밀알미술관	1999년	무료
		로댕갤러리	1999년	전시에 따라 변동
		상원미술관	2003년	2,000원
		코리아나미술관	2003년	3,000원
		소마미술관	2004년	3,000원
		한미사진미술관	2004년	무료
		삼성미술관 Leeum	2004년	10,000원
		북촌미술관	2005년	2,000원
		헬로우뮤지움	2007년	5,000원
인천광역시		더리미미술관	1996년	1,000원
광주광역시		우제길미술관	2001년	무료
		의재미술관	2001년	1,000원
		무등현대미술관	2007년	2,000원
대전광역시		남철미술관	2001년	무료
		이응노미술관	2007년	전시에 따라 변동
경기도	용인시	호암미술관	1982년	4,000원
		한국미술관	1983년	3,000원
		마가미술관	1998년	3,000원
		이영미술관	2001년	5,000원
	안산시	경기도미술관	2006년	무료
	파천시	제비울미술관	2002년	무료
		선바위미술관	2004년	4,000원
	이천시	해강도자미술관	1990년	2,000원
	광주시	영은미술관	2000년	3,000원
	여주군	현대도자미술관	1998년	3,000원
	가평군	가일미술관	2003년	2,000원
		남송미술관	2006년	4,000원
양평군	바탕골미술관	1999년	3,000원	
강원도	속초시	석봉도자기미술관	1997년	3,500원

충청 북도	청주시	신미술관	2000년	1,000원
	청주시	스페이스몼	2006년	무료
	청원군	운보미술관	1984년	무료
충청 남도	천안시	리각미술관	2007년	무료
	공주시	임립미술관	1997년	3,000원
	아산시	당림미술관	1997년	무료
전라 남도	고흥군	남포미술관	2005년	전시에 따라 변동
		아천미술관	2003년	무료
	영암군	영산미술관	2008년	무료
		함평군	2006년	무료
	진도군	잠월미술관	2006년	무료
		남진미술관	1992년	무료
경상 북도	경주시	아트선재미술관	1991년	5,000원
	영천시	시안미술관	2004년	전시에 따라 변동
	청도군	영담한지미술관	2007년	2,000원
	울진군	향암미술관	1999년	2,000원
경상 남도	창원시	대산미술관	1999년	무료
	통영시	통영웃칠미술관	2006년	2,000원
제주 특별 자치도	제주시	제주러브랜드	2004년	7,000원
	서귀포 시	김영갑 갤러리 두모악 미술관	2002년	3,000원
		포토갤러리 자연사랑	2003년	3,000원
	남제주 군	제주조각공원미술관	1987년	4,500원

※ 총 66관

전국 대학박물관 관람료 현황

위치	관명	설립년도	관람료(일반기준/ 19-64세 단위 : 원)
서울특별시	고려대학교박물관	1934년	무료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1935년	무료
	서울대학교박물관	1941년	무료
	경희대학교중앙박물관	1955년	무료
	성균관대학교박물관	1964년	무료
	연세대학교박물관	1965년	무료
	홍익대박물관	1967년	무료
	한양대학교박물관	1979년	무료
부산광역시	부산대학교박물관	1964년	무료

대구광역시		경북대학교박물관	1959년	무료
광주광역시		전남대학교박물관	1957년	무료
대전광역시		충남대학교박물관	1968년	무료
경기도	수원시	경기대학교박물관	1983년	무료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교중앙박물관	1985년	무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교박물관	1967년	무료

※ 전국 대학박물관은 거의 무료관이므로 전체 통계는 생략함.

2) 주요 외국의 박물관·미술관 관람료 현황

주요 외국의 박물관·미술관 관람료 현황

※ 관람료 : 성인(일반)기준이며, 무료는 제외함. 한화 : 2008년 7월 19일 기준

구분	국립박물관 미술관		공립박물관 미술관		사립박물관 미술관		대학박물관 미술관		계	
	관	관람료	관	관람료	관	관람료	관	관람료	계	평균
오스트레일리아	1	5,912	1	9,854	-	-	-	-	2	7,883
오스트리아	8	14,852	-	-	2	13,265	-	-	10	14,534
방글라데시	4	40	-	-	-	-	-	-	4	40
벨기에	1	4,823	-	-	2	11,657	-	-	3	9,379
캐나다	4	7,932	-	-	-	-	1	9,065	5	8,159
중국	5	6,247	1	1,881	1	8,884	2	666	9	4,815
콜롬비아	1	1,739	-	-	1	4,636	-	-	2	3,188
체코	2	6,975	-	-	1	8,369	-	-	3	7,439
덴마크	-	-	-	-	1	19,312	1	5,388	2	12,350
이집트	2	3,444	-	-	-	-	-	-	2	3,444
핀란드	2	9,647	1	16,078	-	-	1	6,432	4	10,451
프랑스	6	16,680	1	10,451	-	-	-	-	7	15,790
독일	3	10,450	1	12,059	1	8,038	2	6,431	7	9,187
그리스	1	6,432	-	-	1	8,038	-	-	2	7,235
홍콩	3	1,300	-	-	-	-	-	-	3	1,300
인도	3	828	-	-	-	-	-	-	3	828
인도네시아	2	594	-	-	-	-	-	-	2	594

이스라엘	1	12,579	-	-	-	-	1	8,985	2	10,782
이탈리아	11	12,204	1	10,451	-	-	-	-	12	12,058
일본	6	4,547	5	2,805	3	8,585	1	3,816	15	4,725
케냐	3	5,606	-	-	-	-	-	-	3	5,606
리투아니아	5	2,048	2	1,630	-	-	-	-	7	1,929
말레이시아	1	625	-	-	1	4,109	-	-	2	2,367
멕시코	2	3,852	-	-	1	4,445	-	-	3	4,050
미얀마	1	5,069	-	-	-	-	-	-	1	5,069
네덜란드	2	14,871	-	-	-	-	1	11,255	3	13,666
뉴질랜드	1	12,394	-	-	1	5,628	-	-	2	9,011
노르웨이	2	12,467	-	-	-	-	1	5,984	3	10,306
페루	1	2,151	-	-	2	10,740	-	-	3	7,877
남아프리카공화국	1	1,999	-	-	1	4,664	-	-	2	3,332
러시아	3	11,928	-	-	-	-	-	-	3	11,928
르완다	1	3,732	-	-	-	-	-	-	1	4,665
싱가포르	4	6,001	-	-	-	-	-	-	4	6,001
슬로베니아	1	4,823	-	-	-	-	-	-	1	4,823
스페인	3	15,541	-	-	-	-	-	-	3	15,541
스위스	1	12,871	2	10,892	-	-	-	-	3	11,551
대만	5	5,617	2	2,174	3	3,678	-	-	10	4,347
탄자니아	1	1,777	1	1,249	-	-	-	-	2	1,513
태국	2	1,057	-	-	2	3,624	-	-	4	2,341
영국	1	32,328	-	-	19	10,566	1	3,032	21	11,243
미국	6	10,983	6	13,771	19	9,605	3	6,590	34	10,317
계/평균	113	7,194	24	2,275	62	3,606	15	1,650	214	7,114

3) 국내외 박물관·미술관 관람료 주요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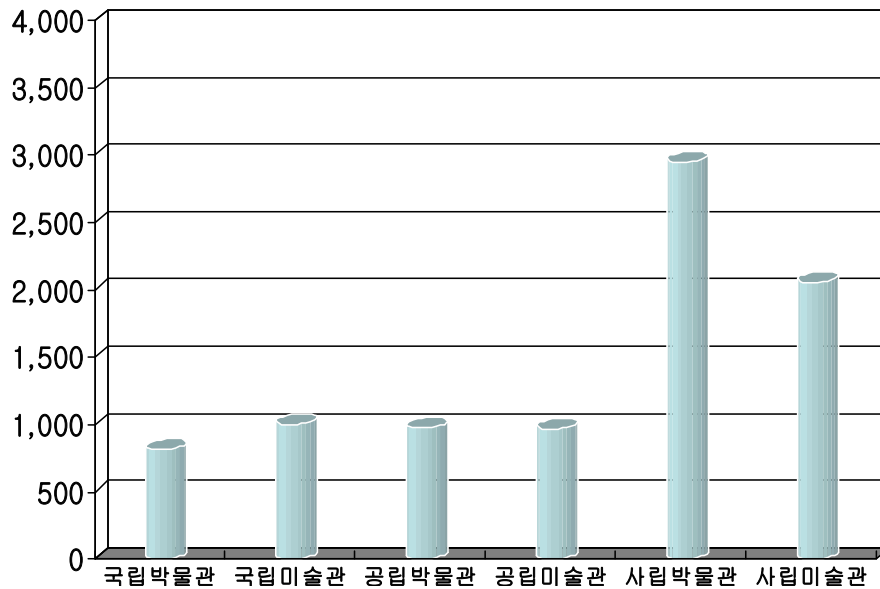
전국 박물관·미술관 관람료 현황(무료관람관 포함)

※ 관람료(일반기준/19-64세) 평균. 단위 : 원. 변동적용은 제외

구분	국립박물관		국립미술관		공립박물관		공립미술관		사립박물관		사립미술관		계	
지역	관 수	관람 료	관 수	관람료	관 수	관람 료	관 수	관람료	관 수	관람료	관 수	관람료	계	평균
서울	10	800	-	-	9	1,000	2	1,850	56	2,661	17	2,294	94	2,220
부산	-	-	-	-	2	500	1	700	1	0	-	-	4	425
대구	1	1,000	-	-	-	-	-	-	2	2,000	-	-	3	1,667
인천	-	-	-	-	4	675	-	-	3	1,667	1	1,000	8	1,088
광주	1	1,000	-	-	1	500	1	500	-	-	3	1,000	6	833
대전	1	1,000	-	-	3	0	1	500	5	400	1	0	11	318
울산	-	-	-	-	1	2,000	-	-	1	9,000	-	-	2	5,500
경기	3	667	1	1,000	15	880	1	2,000	40	3,588	13	2,769	73	2,708
강원	1	1,000	-	-	9	1,222	1	1,000	6	2,333	1	3,500	18	1,694
충북	1	1,000	-	-	7	829	-	-	5	2,400	3	333	16	1,238
충남	5	600	-	-	4	925	-	-	7	3,500	3	1,000	19	1,800
전북	1	1,000	-	-	3	267	1	700	3	2,667	-	-	8	1,313
전남	1	600	-	-	3	1,900	2	250	3	667	5	0	14	629
경북	2	850	-	-	7	857	-	-	7	1,857	3	3,000	19	1,563
경남	2	1,000	-	-	8	1,088	3	1,167	9	2,222	2	1,000	24	1,508
제주	1	1,000	-	-	4	1,900	2	700	13	5,269	4	4,375	24	4,000
계/평균	30	810	1	1,000	80	971	15	967	161	2,947	56	2,053	343	2,0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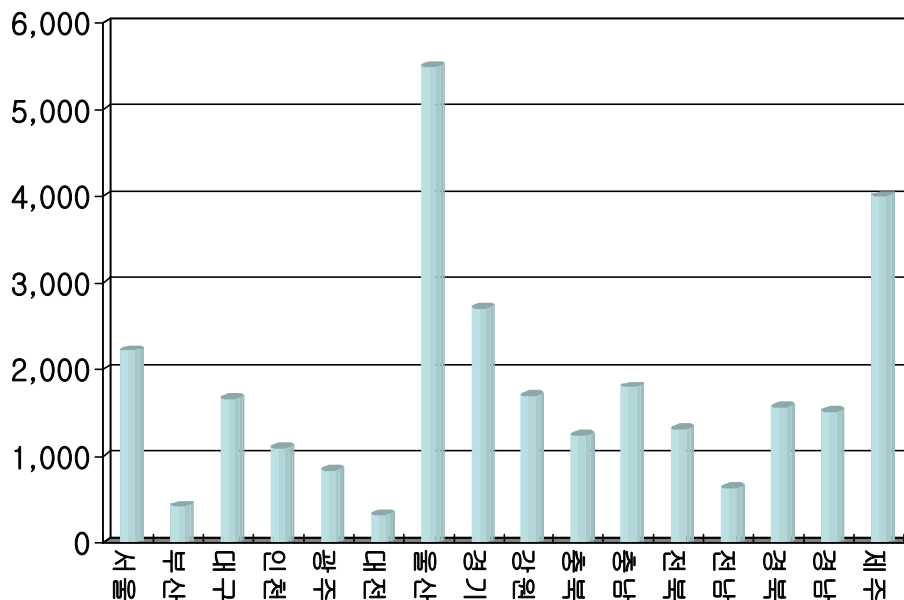
한국의 박물관·미술관 관람료 현황(무료관람관 포함)

※ 단위 : 원. 관람료(일반기준/19-64세) 평균. 변동적용은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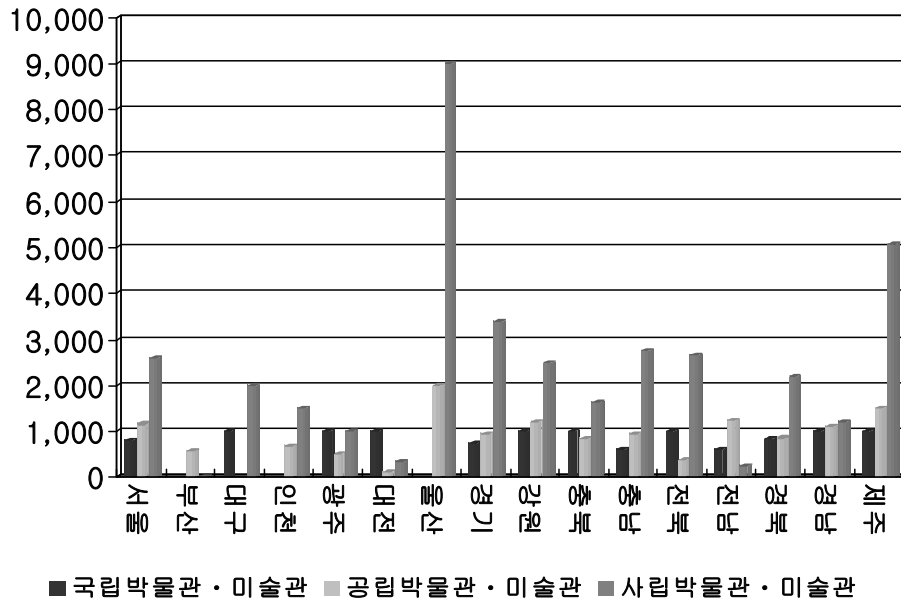
한국의 지역별박물관·미술관 관람료 통합현황(무료관람관 포함)

※ 단위 : 원. 관람료(일반기준/19-64세) 평균. 변동적용은 제외



한국의 박물관·미술관별 관람료현황(무료관람관 포함)

※ 단위 : 원. 관람료(일반기준/19-64세) 평균. 변동적용은 제외



전국 박물관·미술관 관람료 현황(무료관람관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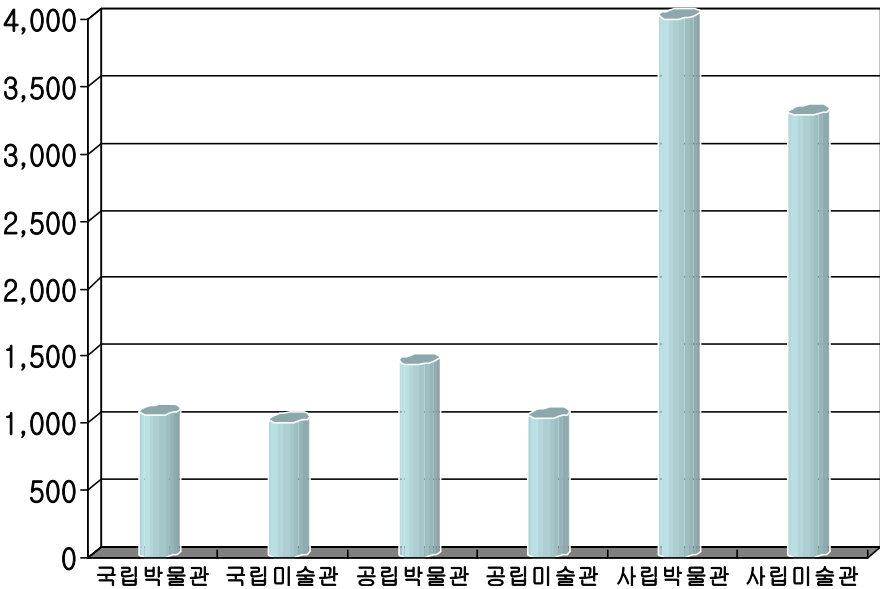
※ 관람료(일반기준/19-64세) 평균임. 단위 : 원. 변동적용은 제외

구분	국립박물관		국립미술관		공립박물관		공립미술관		사립박물관		사립미술관		계	
지역	관수	관람료	관수	관람료	관수	관람료	관수	관람료	관수	관람료	관수	관람료	계	평균
서울	4	2,000	-	-	5	1,800	2	1,850	36	4,139	10	3,900	57	3,661
부산	-	-	-	-	2	500	1	700	-	-	-	-	3	567
대구	1	1,000	-	-	-	-	-	-	2	2,000	-	-	3	1,667
인천	-	-	-	-	4	675	-	-	1	5,000	1	1,000	6	1,450
광주	1	1,000	-	-	1	500	1	500	-	-	2	1,500	5	1,000
대전	1	1,000	-	-	-	-	1	500	1	2,000	-	-	3	1,167
울산	-	-	-	-	1	2,000	-	-	1	9,000	-	-	2	5,500
경기	3	667	1	1,000	10	1,320	1	2,000	33	4,348	11	3,273	59	3,351
강원	1	1,000	-	-	7	1,571	1	1,000	4	3,500	1	3,500	14	2,179
충북	1	1,000	-	-	4	1,450	-	-	3	4,000	1	1,000	9	2,200
충남	4	750	-	-	3	1,233	-	-	5	4,900	1	3,000	13	2,631
전북	1	1,000	-	-	1	800	1	700	2	4,000	-	-	5	2,100
전남	1	600	-	-	3	1,900	1	500	1	2,000	-	-	6	1,467
경북	2	850	-	-	4	1,500	-	-	5	2,600	3	3,000	14	2,121
경남	2	1,000	-	-	6	1,450	3	1,167	8	2,500	1	2,000	20	1,810
제주	1	1,000	-	-	3	2,533	2	700	12	5,708	4	4,375	22	4,364
계/평	23	1,057	1	1,000	54	1,439	14	1,036	11	4,162	35	3,286	24	2,934

균									4				1	
---	--	--	--	--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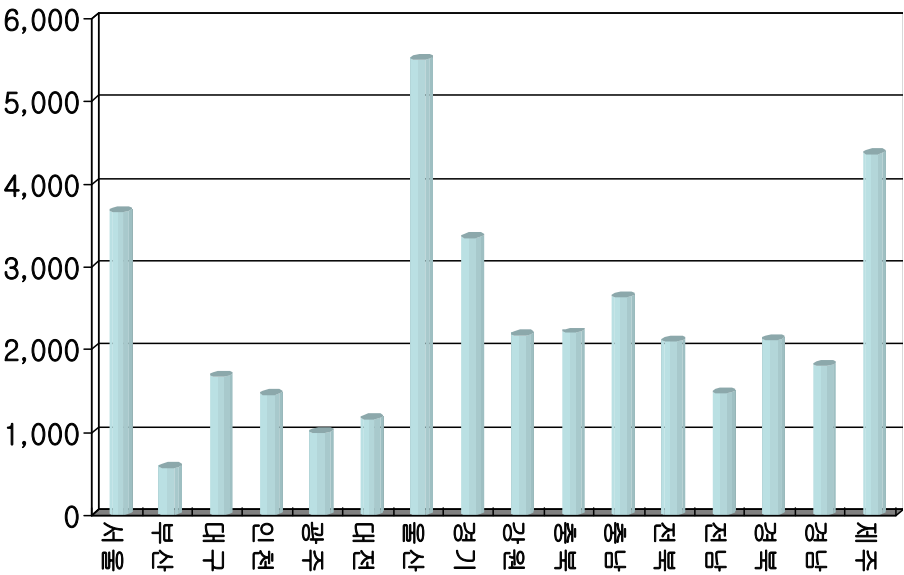
한국의 박물관·미술관 관람료 현황(무료관람관 제외)

※ 단위 : 원. 관람료(일반기준/19-64세) 평균. 변동적용은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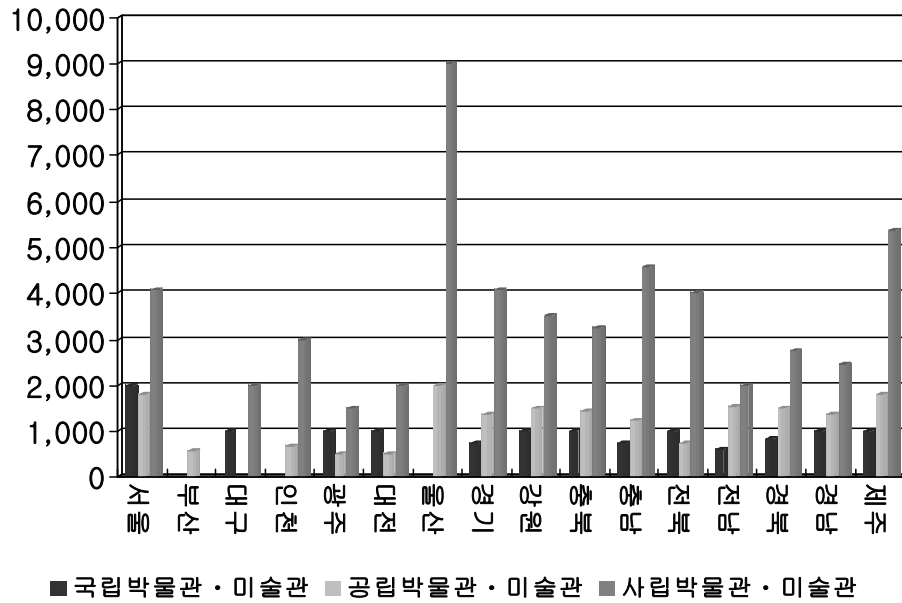
한국의 지역별박물관·미술관 관람료 통합현황(무료관람관 제외)

※ 단위 : 원. 관람료(일반기준/19-64세) 평균. 변동적용은 제외



한국의 박물관·미술관별 관람료현황(무료관람관 제외)

※ 단위 : 원. 관람료(일반기준/19-64세) 평균. 변동적용은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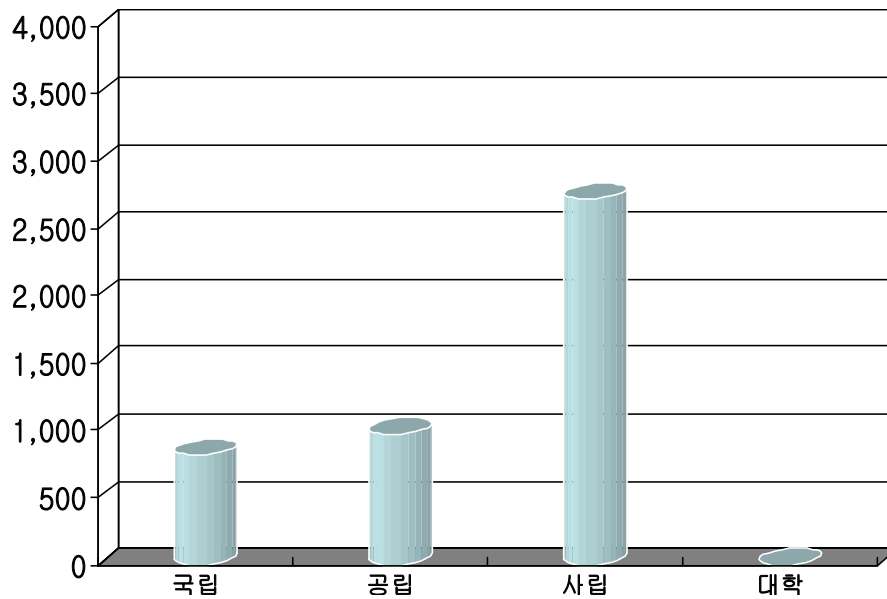
한국의 박물관·미술관 관람료 통합 현황(무료관람관 포함)

※ 관람료(일반기준/19-64세) 평균임. 단위 : 원. 변동적용은 제외

국립박물관·미술관		공립박물관·미술관		사립박물관·미술관		대학박물관·미술관		계	
관	관람료	관	관람료	관	관람료	관	관람료	계	평균
31	816	95	971	217	2,717	15	0	358	1,975

한국의 박물관·미술관 관람료 통합현황(무료관람관 포함)

※ 단위 : 원. 관람료(일반기준/19-64세) 평균. 변동적용은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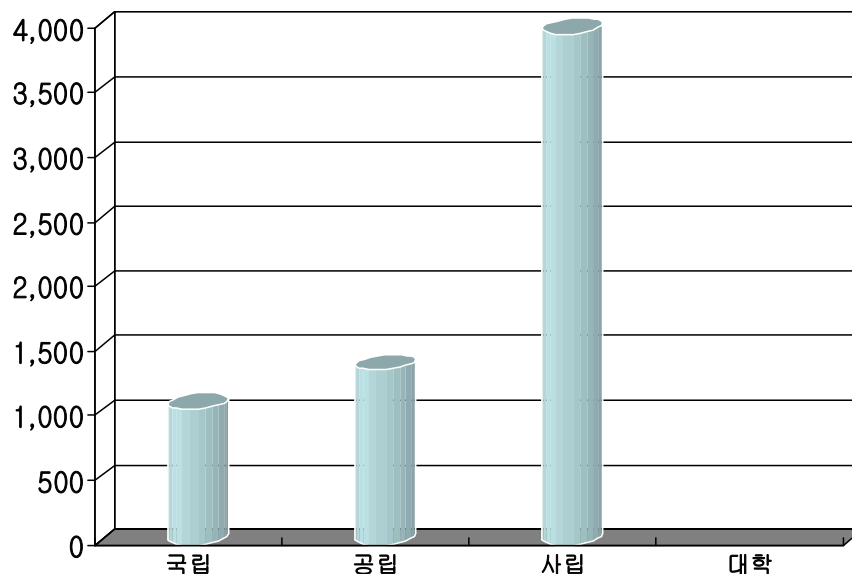
한국의 박물관·미술관 관람료 통합 현황(무료관람관 제외)

※ 관람료(일반기준/19-64세) 평균임. 단위 : 원. 변동적용은 제외

국립박물관·미술관		공립박물관·미술관		사립박물관·미술관		대학박물관·미술관		계	
관	관람료	관	관람료	관	관람료	관	관람료	계	평균
24	1,054	68	1,356	149	3,956	-	-	241	2,934

한국의 박물관·미술관 관람료 통합현황(무료관람관 제외)

※ 단위 : 원. 관람료(일반기준/19-64세) 평균. 변동적용은 제외



한국과 외국의 박물관·미술관 관람료 비교

※ 관람료 : 성인(일반)기준이며, 무료는 제외함. 한화 : 2008년 7월 19일 기준

구분	국립박물관 미술관		공립박물관 미술관		사립박물관 미술관		대학박물관 미술관		계	
	관	관람료	관	관람료	관	관람료	관	관람료	관	관람료
외국A그룹	43	11,745	17	9,816	47	10,344	12	6,467	119	9,593
외국B그룹	43	7,939	5	3,612	8	5,203	1	8,985	57	6,435
외국C그룹	27	2,899	2	1,565	7	6,702	2	666	38	2,958
한국	24	1,054	68	1,356	149	3,956	-	-	241	2,934

외국A그룹(14개관 대상) - 노르웨이, 스위스, 덴마크, 네덜란드, 미국, 핀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외국B그룹(14개관 대상) - 이탈리아, 싱가포르, 홍콩, 그리스, 스페인, 뉴질랜드, 이스라엘, 슬로베니아, 체코, 대만, 리투아니아, 멕시코, 러시아, 말레이시아

외국C그룹(13개관 대상) - 남아프리카공화국, 페루, 태국, 콜롬비아, 중국, 인도네시아, 이집트, 인도, 케냐, 방글라데시, 탄자니아, 르완다, 미얀마

- 2008년 1인당 국민총소득(Gross National Income/ GNI) 자료출처

- 세계은행(The world bank), 세계개발지표데이터베이스(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atabase), 2008.7.1발표²²⁶⁾
- 미얀마는 최저소득국가로 분류되며, 통계화 되어있지 않음
- 대만은 유엔회원국이 아닌 이유로 세계은행의 발표가 아닌 대만통계국(Republic of China, National Statics)에서 발표한 2007년도 국민총소득을 기준으로 함(가장 최근 자료)²²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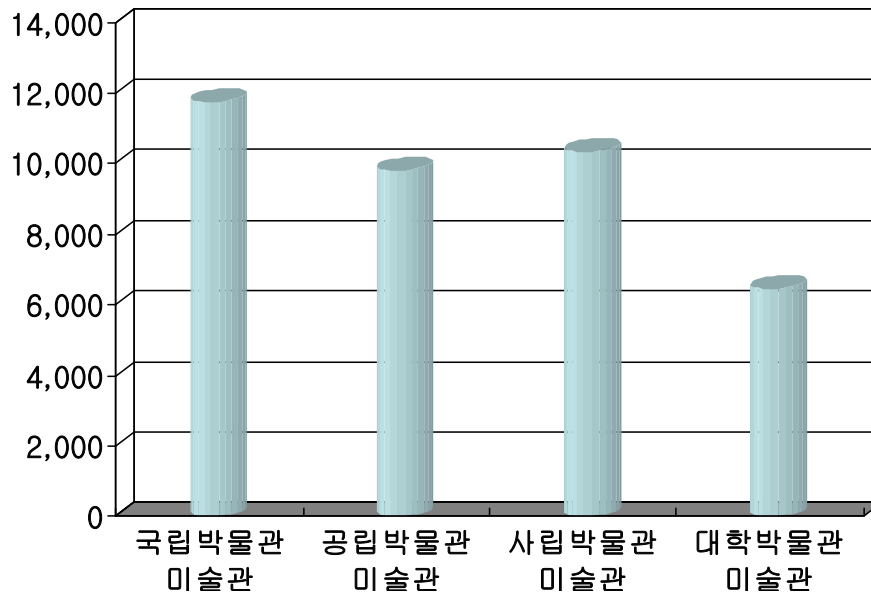
226) <http://siteresources.worldbank.org/DATASTATISTICS/Resources/GNIPC.pdf>

227) http://eng.stat.gov.tw/public/data/dgbas03/bs2/yearbook_eng/Y093.pdf

한국과 외국의 박물관·미술관 관람료 비교

-외국A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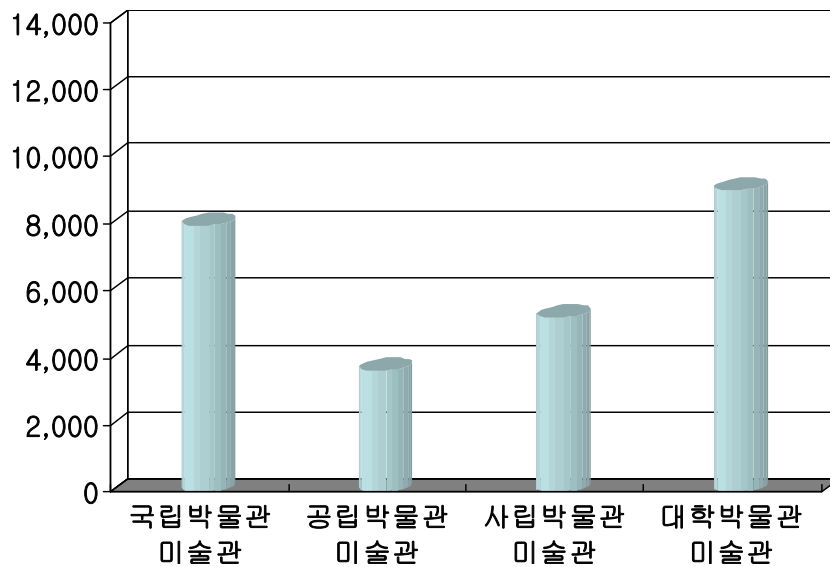
※ 단위 : 원. 관람료(일반기준/19-64세) 평균. 변동적용은 제외



한국과 외국의 박물관·미술관 관람료 비교

-외국B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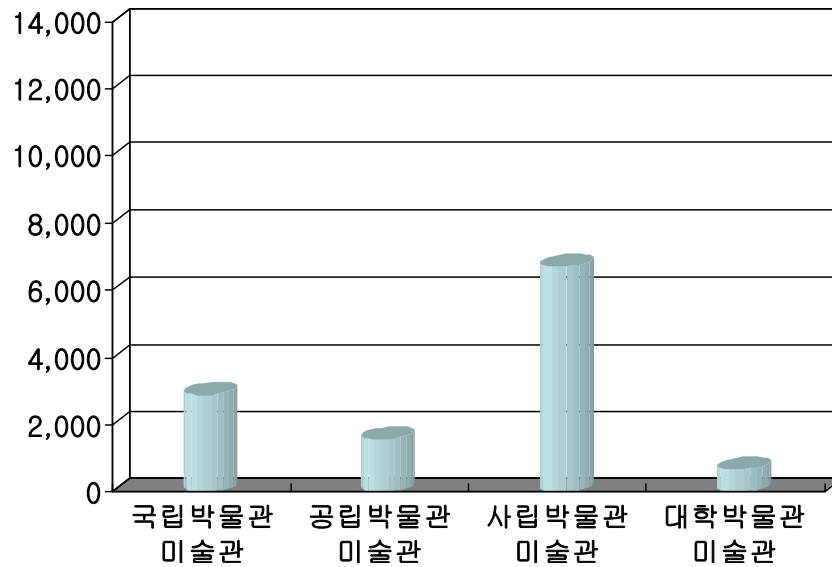
※ 단위 : 원. 관람료(일반기준/19-64세) 평균. 변동적용은 제외



한국과 외국의 박물관·미술관 관람료 비교

-외국C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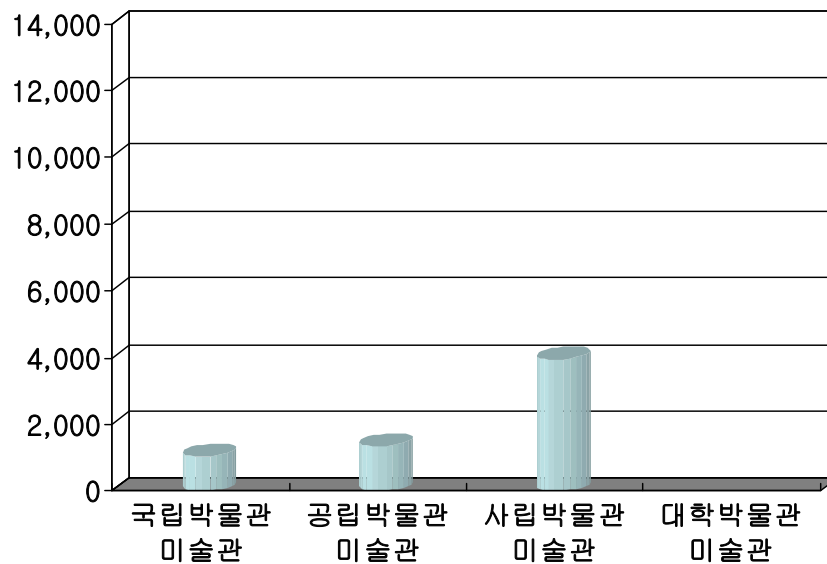
※ 단위 : 원. 관람료(일반기준/19-64세) 평균. 변동적용은 제외



한국과 외국의 박물관·미술관 관람료 비교

-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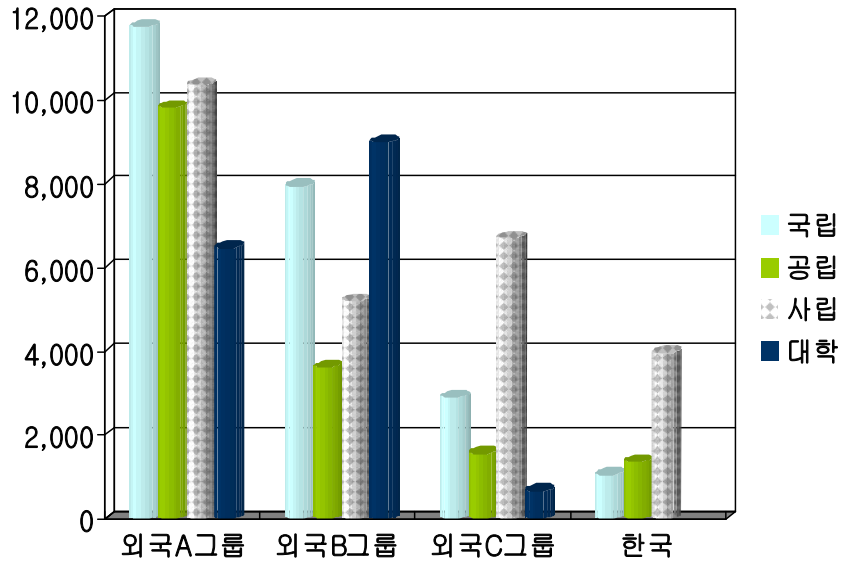
※ 단위 : 원. 관람료(일반기준/19-64세) 평균. 변동적용은 제외



한국과 외국의 박물관·미술관 관람료 비교

- 그룹별, 설립주체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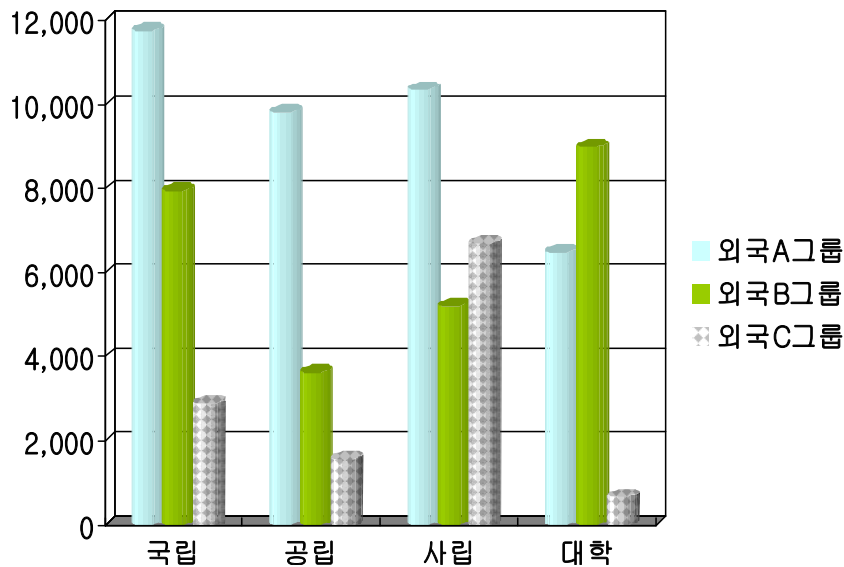
※ 단위 : 원. 관람료(일반기준/19-64세) 평균. 변동적용은 제외



한국과 외국의 박물관·미술관 관람료 비교

- 그룹별, 설립주체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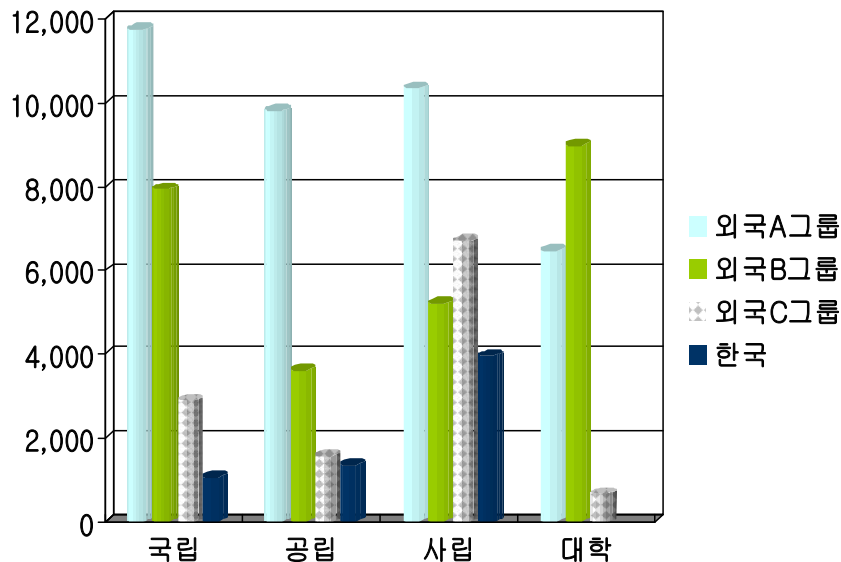
※ 단위 : 원. 관람료(일반기준/19-64세) 평균. 변동적용은 제외



한국과 외국의 박물관·미술관 관람료 비교

- 외국의 그룹별, 설립주체별

※ 단위 : 원. 관람료(일반기준/19-64세) 평균. 변동적용은 제외



4) 한국 박물관·미술관의 관람료 할인·면제혜택

우리나라에서는 65세 이상 경노, 유아, 장애인 등 일반적인 할인이나 면제혜택 외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비교적 특이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외국에 비하여 매우 단순한 구조이다. 대체적으로는 지역민들에 대한 우대, 극히 부분적으로 연구자들에 대한 배려 등이 있으며, 전문가들에 대한 우대조건은 거의없는 편이다.

한국 박물관·미술관의 관람료 할인혜택 특이사항

지역	구분	할인혜택
서울특별시	국립	· 장애인(3급 이상은 동반인 1인) · 국가유공자 및 동반자 1인 · 유치원, 초·중·고 교사(교원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 유치원 단체 · 초·중·고 학생
	공립	· 시립문화시설연계이용할인 : 서울시립미술관 관람권을 소지한 방문객들에게 시립문화시설연계할인금액으로 관람(발매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립	· 패밀리 티켓(3인, 4인)
울산광역시	공립	· 울산시민 할인
경기도	공립	· 이천시민 : 주민등록법 상 이천시에 주소를 둔 자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50% 감면
	사립	· 제휴카드 할인 · 용인시민은 단체 관람 요금 적용 · 3인 가족 2,000원 할인 · 4인 가족 3,000원 할인 · 국가유공자 및 장애 2급 이상 단체요금 적용
강원도	공립	· 강릉시민 평일 토요일 50% 할인, 일요일은 무료(신분증지참)
	공립	· 주민등록상 양양군 거주 군민은 50% 감면
전라남도	공립	· 목포시에 거주하는 주민은 50% 할인(목포시거주자는 신분증 제시) · 자연사박물관 입장권 1장으로 자연사관, 문예역사관, 생활도자박물관 전체 관람 가능

한국 박물관·미술관의 관람료 면제혜택 특이사항

지역	구분	면제혜택
서울특별시	공립	· 매주 넷째 주 일요일, 설(구정), 추석, 어린이날,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서울대표축제기간은 '무료관람의 날' ·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운영하는 자체전시, 공연은 무료로 관람 가능합니다.(단, 외부대관전시는 제외) · 19세 이하 및 65세 이상 ·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자 · 유물기증 등 박물관 발전에 기여한 자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카드에 등재된 가족 포함) · 기타 시장이 박물관 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사립	· 기초생활보호자 · 대인 1인당 24개월 미만 유아 1인 무료 입장
인천광역시	공립	· 학술연구목적 또는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광주광역시	공립	· 한복착용자
대전광역시	국립	· 철도회원 및 동반 1인(철도회원은 회원카드를 소지하여야 함)
	공립	· 다자녀우대카드 「꿈나무사랑카드」 소지 시 해당가족 전원 무료 입장
경기도	국립	· ‘청소년문화로모시기’ 운동으로 무료로 입장 가능한 18세 이하 청소년

		년
	공립	• 100인 이상 학생단체 • 경로우대자, 미취학아동
강원도	공립	• 30명 이상 단체 강릉숙박 시 무료입장 가능(증빙서류 : 숙박영수증 또는 숙박업소할인서류 지참)
	사립	• 영월군 학생 단체
경상남도	공립	• 고성군 관내 거주하는 3자녀이상 세대 중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

※특이한 사항만을 열거하였으므로, 각 지역의 모든 관이 공동으로 해당되는 것은 아님.

5) 외국 박물관·미술관의 관람료 할인 · 면제혜택

외국의 사례에서는 국내의 혜택과는 달리 매우 다양한 형태의 할인과 면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나 교사, 학생, 전문가, 가족단위 등은 매우 많은 곳에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다.

외국 박물관·미술관의 관람료 할인혜택

국가	구분	관명	할인혜택
오스트리아	국립	벨베데레궁전(Belvedere palace)	• 싱글부모티켓- 일반 1명, 18세 이하 학생
	국립	오스트리아근현대미술관(Museum of Applied Arts/ Contemporary Art-MAK)	• 군인, 예술사학자, 국제박물관협회(ICOM)회원, 오스트리아 예술사학자학회(Austrian Association of Art Historians)의 회원, 유로 <26의 회원
캐나다	국립	캐나다자연사박물관(Canadian Museum of Nature)	- 뮤지엄 패스포트 : 10개의 지역 뮤지엄에 정규 일반 관람료의 50% 이상과 다른 기타 할인을 할인 받을 수 있음 - 연례패스 : 1년간 무료 관람 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에 관해 이메일 알람 서비스를 해줌. - 가족 • 가족패스 : 어른 2인과 동일 거주지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어린이 • 조부모패스 : 어른 2인과 동일 거주지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손자들 - 일일위탁 : 일반 1인과 5명의 어린이(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까지만 적용)

			- 추가인원 · 추가 일반 : 18세 이상의 가족, 조부모, 일일위탁의 범주에 적용되는 자 · 추가 어린이 : 18세 미만의 어린이(제한 없음)
중국	국립	중화민족박물관(China Nationalities Museum)	· 박물관학 자격증을 소지한 자
	사립	상하이기술과학박물관(Shanghai Science and Technology Museum)	· 퇴직간부, 장애인, 70세 이상 시민, 어른을 동반한 120cm 이하의 어린이
체코	국립	체코 국립박물관(National Museum)	· 티켓으로 프라하의 모든 국립 뮤지엄을 3일간 관람할 수 있는 티켓 · 1년 학생 티켓 : 220코루나
	국립	장식박물관(Museum of Decorative Arts)	· 어린이(10-15세) · 학생 · 노인 · 프라하 시민 · 장애인 · ISIC, ITIC 카드 소지자 · KPVV 회원 · 순수예술인조합(Syndicate of Fine Artists) · 순수예술비평이론가연합(Association of Fine Art Critics and Theoreticians)
이탈리아	국립	바티칸박물관(Musei Vaticani)	· 18세 이하, 학생카드를 소지한 26세 이하의 대학생 · 바티칸 박물관의 관람권은 바티칸뮤지엄과 시스틴성당을 관람할 수 있음 - 또한 티켓 구매 후 5일 이내에 바티칸 역사박물관과 라테란시대의 궁전을 관람할 수 있음
	국립	카피톨리니 박물관(Musei Capitolini)	· 18~25세 · 교사 · 로마시립도서관협회 회원 · C.T.S.카드소지자 · 이탈리아인 청년 카드 연합 · 국제학생카드소지자 · 로마 대학에 입학한 시민(UPTER) · 상호조약을 맺은 유럽연합 이외의 국가들의 국민
		로 마 시 립 박 물 관	· 유럽연합시민 중 18세 이상 24세 이하

		(Museo della civiltà romana)	• 유럽연합교사협회
일본	국립	나라국립박물관(Nara National Museum)	• 중고등학교 이하의 어린이와 동반 관람 시 할인(특별전시 및 합동전시 제외) • 오후 5시 이후 방문하면 할인(2009년 1월 11일 2008년 7월 4, 11, 18, 25일. 8월 1, 8, 15, 22, 29일. 12월 17일) • 매달 22일은 ‘부부의 날(The day of man and wife)’ - 동반 입장하면 절반 할인
러시아	국립	도스트예프스키뮤지엄(Fyodor Dostoevsky Literary Memorial Museum)	• 러시아시민, 러시아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게 관람료 할인
	국립	에르미타주 미술관(State Hermitage Museum)	• 러시아의 공인된 기관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 매달 첫째 주 목요일
르완다	국립	르완다국립박물관(National Museum of Rwanda)	• 동부아프리카인공동체(East African Community/ EAC), CEPGL(Community Economique des Pays des Grands Lacs)로부터 온 시민

주요 외국 박물관·미술관의 관람료 면제혜택

국가	구분	관명	면제혜택
오스트레일리아	공립	파워하우스 뮤지엄(Powerhouse Museum)	• 국제박물관협회(ICOM) 회원 • 오스트레일리아박물관협회(Museums Australia Inc.)의 회원
오스트리아	국립	알베르티나 박물관(Albertina)	• 취재기자에게는 무료 관람 및 보도자료 제공
중국	국립	고궁박물관(Palace Museum)	• 120cm 이하의 어린이는 무료 • 학생증을 소지한 초등학생, 중학생, 대학생(홍콩, 마카오, 대만 포함), 대학원생 및 성인 교육기관학생은 제외
	국립	울렌스 현대미술센터(Ullens Center for Contemporary Art/ UCCA)	• 1.3m미만의 어린이 • 화요일은 무료관람일
덴마크	대학	코펜하겐대학교 자연사박물관(Geological Museum, Natural History Mus	• 자연과학(Natural Sciences)전공하는 학생 • 교육적 목적을 가진 학교 수업

		eum of Denmark Copenhagen University)	
프랑스	국립	루브르박물관(Musée du Louvre)	· ‘까르뜨 루브르 주네(Carte Louvre Jeunes)’의 소지자 · 파리 뮤지엄패스 : 루브르를 포함한 60곳 이상의 공공 뮤지엄과 기념관에 줄을 서지 않고 무료 관람 · 예술, 미술사, 예술과 관련된 분야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함) · 프랑스의 메종데아티스떼(the Maison des Artistes) 혹은 국제조형미술협회(Association Internationale des Arts Plastiques/ AIAP)의 등록 예술가 · 26세 이하의 매주 금요일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 45분까지 무료입장(나폴레옹홀 제외) · 프랑스의 예술 학교(French art schools)나 프랑스의 외국인 예술 학교(French branches of foreign art schools)를 다니고 있는 26세 미만의 예술 학생은 무료관람 · 첫째 주 일요일은 무료관람일
	국립	오르세미술관(Orsay Museum)	· 18세 이하 · 장애인과 보호자 · 오르세미술관의 회원 · ‘까르뜨 블랑쉼 혹은 까르뜨 뮈세오(Carte blanche or MuséeO)’의 소지자, ‘오르세의 젊은 이들 카드(Musée d'Orsay young people's card)’의 소지자 · 국제박물관협회(ICOM),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의 회원 · 에콜 드 루브르(Ecole du Louvre)의 학생 · 미술품복원 대학과정을 공부한 학생(Ecole Nationale du Patrimoine, Ecole des Chartes, IFROA) · 미술, 건축, 미술의 역사, 고고학, 조형예술, 그래픽미술, 산업디자인, 응용미술, 사진, 영화, 시청각, 패션디자인, 뮤지엄, 전통, 풍경을 전공하는 학생(30세까지) · 구직자 ·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보호대상자 · 기초노인연금 수급자

			· 학교 교사와 도서관사서(특별 전시 제외) · 활동하거나 은퇴한 성직자와 동반자 · 프랑스와 국제 공공 뮤지엄의 큐레이터와 조사관 · ‘내셔널 인스티튜트 오브 히스토리 오브 아트(National Institute of the History of Art)’ 관련인 · 저널리스트와 미술비평가 · 직업상의 예술가 · 안내인과 통역인(국가안내인, 지역통역안내인, 국가통역안내인, 특별예술 및 역사 안내인) · 프랑스 공무원, 상원의원, 유럽 의회의 회원 · 첫째 주 일요일 무료관람일
독일		뮌헨 독일박물관(Deutsches Museum)	· 6세 이하 · 뮌헨독일박물관의 회원 · 강의를 준비하고 있는 교사(학교서신 지참) · 교사와 강사를 동반한 학교와 유치원 강의 · 학생 단체, 교육 워크샵(5~10인-동반1인 무료, 11~20인-동반2인 무료, 21인 이상-동반3인 무료) · 국제박물관협회(ICOM)회원 · 천문학회(Planetary Society)의 회원 · 뮌헨기술대학교(Munich University of Technology)의 학생 · 5인에서 10인의 단체는 1인의 무료관람 · 11인에서 20인의 단체는 2인의 무료관람 · 21인 이상은 3인의 무료 관람
그리스	국립	비잔틴 박물관(Byzantine Museum)	· 19세 이하 · 유럽연합의 학생 · 자유입장카드, 문화카드 및 국제박물관협회(ICOM)와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카드 소지자 · 9월 마지막 주 토요일 ‘유럽인 문화유산의 날(European Days of Cultural Heritage)’ · 4, 5, 6, 9, 10월 첫 번째 주 일요일(공휴일 경우 2번째 주 일요일) · 그리스공휴일 1.6 · ‘그리스 정교회의 좋은 금요일(Orthodox Good Friday)’ : 12:00 ~ 15:00

			· 그리스 정교회의 부활절 토요일과 월요일(Orthodox Easter Saturday and Monday) · ‘그리스 정교회의 신성한 정신의 월요일(Orthodox Monday of the Holy Spirit)’
	사립	키클라딕아트박물관(Museum of Cycladic Art)	· 고고학자 · 고고학 전공하는 학생 · 문화카드 소지자
이탈리아	국립	바티칸박물관(Musei Vaticani)	· 6세 이하 · 장애인과 보호자 · 뮤지엄의 관장 · 성직자 · 대학교수(고고학, 미술사, 건축, 민족학 전공) · 예술가 · 문화유산보호(artistic heritage preservation) · 고고학에 관련된 정부 기관 · 국제박물관협회(ICOM)회원 ·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회원 · 작품기부자와 후원자 · 뮤지엄으로부터 공인된 기자 · 사회적 공동체를 위한 로마교황 위원회(Pontifical Council) · 외국인 언론 협회(Foreign Press Association) · 매월 마지막 일요일은 무료관람일 · 세계 관광의 날(9.27)
	국립	카피톨리니 박물관(Musei Capitolini)	· 혈액 기증자(7.1~10.15) · 백야(White Night) · 로마의 크리스마스
	국립	로마 문명 박물관(Museo Della Civiltà Romana)	· 18세 이하 65세 이상 · 학교, 대학, 예술원으로부터 연구와 조사를 위해 온 이탈리아인 혹은 외국문화연구기관, 문화자산부서 혹은 다른 시의 행정기구에서 온 사람 · 국제박물관협회(ICOM)회원 · 이탈리아 혹은 유럽연합의 학생 단체와 교사

			· 건축, 문화자산보존 학부, 고고학에 관련된 도서관문헌의 학위과정, 문헌과 철학 학부의 미술사전공의 학생과 교사(유럽연합 및 유럽연합의 상호협력관계에 있는 국가들) · 순수예술교육기관의 학생과 교사(유럽연합 및 유럽연합의 상호협력관계에 있는 국가들) · 파리와 로마가 맺은 상호협정조약에 의해 2007.12.31일까지 파리의 시민은 무료관람
	국립	국립 근현대 미술관(Galleria Nazionale d'arte Moderna e Contemporanea)	· 건축, 문화유산보호, 고고학, 문학, 철학 등을 전공하는 학생과 교사 · 기자와 이탈리아와 상호협정관계에 있는 유럽연합 밖의 국가의 국민
일본	국립	규슈국립박물관(Kyushu National Museum)	· 중고등학생 이하 혹은 70세 이상은 '문화적 교류전시(cultural exchange exhibition) 무료관람
	사립	오쿠라미술관(Okura Museum of Art)	· 머물고 있는 호텔의 손님
리투아니아	국립	클라이페다시계뮤지엄(Klaipeda Clock Museum)	· 어린이의 집의 입소자 · 장애인 · 아트스쿨 학생, 아트 아카데미 학생 · 아티스트 협회의 회원 · 리투아니아 뮤지엄의 직원
대만	국립	국립과학공예박물관(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Museum)	· 은퇴한 공무원, 군인, 교사
영국	사립	헨델하우스 뮤지엄(Handel House Museum)	· 아트 펀드 카드 소유자 · 런던 패스 카드 소유자
미국	공립	메트로폴리탄 미술관(Metropolitan Museum of Art)	· 모든 뉴욕시 공립 학생(바드 대학, 바너드 대학, 콜롬비아 대학, 인스티튜트 오브 파인아트 포함)
	대학	하버드자연사박물관(The Harvard Museum of Natural History)	· 현재 하버드 학생증을 소지한 자와 동반 1인에 한하여 무료 · 매사추세츠 지역 주민은 일년 내내 매주 일요일 9시부터 12시까지 무료 관람할 수 있으며, 9월에서 5월까지는 매주 수요일 3시부터 무료 관람할 수 있음(영리 단체 제외)

외국 박물관·미술관 무료관람관

※ 검색 가능한 범위에서 조사대상 관으로만 한정된 것임

국가	구분	관명
오스트레일리아	국립	캔버라국립박물관(National Museum of Australian Canberra)
		사우스오스트리아뮤지엄(South Australian Museum)
		내셔널갤러리(National Gallery of Australia)
		퀸즈랜드뮤지엄(Queensland Museum South Bank)
	대학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대학교(Anne & Gordon Samstag Museum of Art, University of South Australia)
		멜버른대학교의학역사박물관 (University of Melbourne, Medical History Museum)
방글라데시	국립	오스마니뮤지엄(Osmany Museum)
중국	대학	북경대학교 지질박물관(Geological Digital Museum of Peking University)
콜롬비아	국립	황금박물관(Museo del Oro)
덴마크	국립	덴마크국립박물관(The National Museum of Denmark)
이집트	국립	모하메드칼리박물관(Mohamed Khalil Museum)
핀란드	공립	헬싱키시립박물관(Helsinki City Museum)
독일	대학	함부르크대학교 광물학박물관(the Mineralogical Museum of the University of Hamburg)
		뮌스터대학교 성경박물관(Bible Museum Münster at the University of Münster)
홍콩	대학	홍콩대학교박물관 아트갤러리(University Museum and Art Gallery, The University of Hong Kong)
인도	국립	국립간디박물관(National Gandhi Museum)
인도네시아	국립	아궁라이박물관(Agung Rai Museum of Art)
	사립	바하리박물관(Museum Bahari)
이탈리아	대학	파도바대학교 인류학박물관(Padova University Museum of Anthropology)
일본	대학	메이지대학교박물관(Meiji University Archaeological Museum)
		나고야대학교박물관(Nagoya University Museum)
뉴질랜드	국립	테파파 통가레와 뮤지엄(Museum of New Zealand Te Papa Tongarewa)
노르웨이	국립	노르웨이 오슬로 비겔란조각공원(Norway Oslo Vigelandsparken)
스페인	대학	알리칸테대학교박물관(Museo de la Universidad de Alicante)
		나바라대학교동물학박물관(Museum of Zoology of the University of Navarra)
태국	대학	카세차르트대학교박물관(Kasetsart University Museums Agriculture Museum)

영국	국립	대영박물관(British Museum)	
		런던박물관(Museum of London)	
		빅토리아 앤 앨버트 뮤지엄(Victoria & Albert Museum)	
		국립광산뮤지엄(National Coal Mining Museum for England)	
		자연사 박물관(Natural History Museum)	
		트링자연사박물관(Natural History Museum at Tring)	
		국립해양박물관(National Maritime Museum)	
		국립철도박물관(National Railway Museum)	
		국립리버풀뮤지엄(National Museums Liverpool)	
		(World Museum Liverpool)	
		게프리 박물관(Geffrye Museum)	
		타인 앤 위어 뮤지엄(Tyne and Wear Museums, Discovery Museum)	
		제국 전쟁 박물관(Imperial War Museum London)	
		스코틀랜드국립뮤지엄(National Museums of Scotland)	
		내셔널 갤러리(National Gallery)	
		테이트브리튼(Tate Britain)	
		테이트모던갤러리(Tate Galleries)	
	공립	헤이워드 갤러리(Hayward, Southbank Centre)	
	사립	호니만 박물관과 정원(Horniman Museum)	
	대학	캠브리지 대학교 고고학·인류학 박물관(Cambridge University's Museum of Archaeology and Anthropology)	
		옥스퍼드 대학교 자연사박물관(Oxford University Museum of Natural History)	
		에버딘대학교(Marischal Museum, University of Aberdeen)	
		리버풀대학교 빅토리아갤러리앤뮤지엄(University of Liverpool, The Victoria Gallery & Museum)	
미국	국립	스미소니언 뮤지엄	스미소니언 자연사박물관(Smithsonian National Museum of Natural History)
			스미소니언 인디언자연사박물관(Smithsonian National Museum of the American Indian)
			아프리카미술관(African Art Museum)
			프리어갤러리(Freer Gallery of Art)
			새클러 갤러리(Sackler Gallery)
			허쉬혼뮤지엄과 조각공원(Hirshhorn Museum and Sculpture Garden)
			국립동물원(National Zoo)
			자연사박물관(Natural History Museum)
			초상화갤러리(Portrait Gallery)
			우편박물관(Postal Museum)
			국립 아프리카 미국인 역사와 문화 박물관(National Mu

		seum of African American History and Culture)
		아나코스티아 공동체 뮤지엄(Anacostia Community Museum)
		항공우주박물관과 우드바-하지 센터(Air and Space Museum and Udvar-Hazy Center)
		미국인미술관과 렌윅 갤러리(American Art Museum and its Renwick Gallery)
		스미소니언 미국미술관(Smithsonian American Art Museum/ SAAM)
		미국국립예술관(National Gallery of Art)
	사립	유태인 학살기념관(US Holocaust Memorial Museum, Washington DC)
		게티뮤지엄(J. Paul Getty Museum)
	대학	클리브랜드미술관(the Cleveland Museum of Art)
		버클리대학교고생물학박물관(The Museum of Paleontology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IV. 국립박물관 무료화 정책에 따른 반응 및 영향

1. 국립박물관 관람객 설문분석

1) 내국인

무료화 이후 국립박물관에 대한 관람객분석을 위하여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 국립광주박물관에서 내국인 1,137명과 약간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현장설문을 실시하였으며, 대상은 객관적인 응답결과를 위하여 대체적으로 노인 20-30%, 성인 40-50%, 중고생 20-30% 정도로 분산하여 실시하였다. 설문 내용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상 : 국립박물관 관람객

실시관 : 국립중앙박물관(734명), 국립경주박물관(169명), 국립광주박물관(234명)

○ 실시일시

국립중앙박물관 : 2008년 9월 27-28일 11:00-17:30

국립광주박물관 : 2008년 9월 28일 09:00-16:00

국립경주박물관 : 2008년 10월 4일 11:00-19:00

○ 설문방법 : 현장설문

○ 설문장소 : 국립중앙박물관 전시관입구, 국립경주박물관, 국립광주박물관 내 4전시실 입구²²⁸⁾

국립박물관 무료관람 시범실시 분석을 위한 관람객 설문은 국립중앙박물관 관람객 734명, 국립경주박물관 관람객 169명, 국립광주박물관 관람객 2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들 대상은 남성이 42.8%, 여성이 5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중 19세 이하는 14%, 20-30세는 27.7%, 30-50세는 50.9%, 51-65세는 5.2%, 66세 이상은 2.2%였다.

총 17개 지역의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는데, 이 중 서울시민이 36.5%, 부산 시민이 2.3%, 인천광역시민이 5.9%, 대구광역시민이 3.2%, 대전광역시민이 1.1%, 광주광역시민이 23.2%, 울산광역시민이 0.5%를 차지하고 있었고, 경기도민이 18.6%, 강원도민이 0.7%, 충청북도민이 0.6%, 충청남도민이 3.4%, 경상북도민이 3.1%, 경상남도민이 0.6%, 전라북도민이 0.6%, 전라남도민이 2.4%, 제주도민이 0.1%, 미국 거주민이 0.2%였다.

228) 설문책임자 : 최병식

설문실시자 : 배현진, 이현, 박정연, 한혜선, 신은경, 김혜영, 성은경, 주세나, 김근희

통계 : 배현진, 이현, 박정연, 한혜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실시하는 관람객 설문조사 장면. 관람객 설문은 노인 20-30%, 성인 40-50%, 중고생 20-30% 정도로 분산하여 실시하였다.

관람객 기록사항

성별	남(487) 여(650)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395	25	64	35	12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215	5	201	8	7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37	34	7	7	26
	제주도	미국	-	-	-
	2	2	-	-	-
연령대	19세 이하	20-30세	31-50세	51-65세	66세 이상
응답	154	305	560	57	24

1-3번 문항은 이번 무료관람에 관한 사전지식에 관한 질문이다. 1번 ‘국립박물관에 오기 전, 무료입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라는 질문에는 총 1,136명에 답해주었고, 그 중 ‘알고 있었다’라는 답변은 428명으로 전체의 37.7%, ‘모르고 있었다’라는 답변은 708명으로 전체의 62.3%였다.

2번은 무료입장에 관해 알게 된 경로를 묻는 질문이었으며, 총 492명이 답해주었다. 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으며, 167명으로 전체의 33.9%를 차지하였다. 친구나 지인을 통해서는 153명으로 전체의 31.1%, 신문이나 매스컴을 통해서는 85명으로 전체의 17.3%, 기타는 87명으로 전체의 17.7%를 차지하였다.

3번 질문은 실시배경이나 이유에 관해 알고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이었으며, 총

540명이 답해주었다. 그중 ‘알고 있었다’는 115명으로 전체의 21.3%였고, ‘모르고 있었다’는 425명으로 전체의 78.7%를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의 관람객이 실시배경에 관해서는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이번 실시되는 무료관람은 2008년 5월-12월까지 시범실시되는 것입니다. 귀하께서는 국립박물관에 오시기 전 무료입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문항	중앙박물관	경주박물관	광주박물관	계
① 알고 있었다	2(315)	2(30)	2(83)	2(428)
② 모르고 있었다	1(418)	1(139)	1(151)	1(708)

2. 알고 계셨다면 어떠한 경로였습니까?

문항	중앙박물관	경주박물관	광주박물관	계
① 신문, 방송 등 매스컴	4(68)	3(7)	3(10)	4(85)
② 친구나 지인을 통해서	2(106)	1(33)	2(14)	2(153)
③ 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1(134)	4(4)	1(29)	1(167)
④ 기타	3(71)	2(11)	4(5)	3(87)

3. 알고 계셨다면 실시 배경이나 이유를 알고 계셨습니까?

문항	중앙박물관	경주박물관	광주박물관	계
① 알고 있었다	2(90)	2(5)	2(20)	2(115)
② 모르고 있었다	1(347)	1(53)	1(25)	1(425)

알고 계셨다면 배경과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한 두가지만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

- 광복 60주년(6명)
- 선생님께 들었다.
- 국민의 문화 향수 제고, 국민들 문화 복리 증진, 국민의 문화적 질 향상(9명)
- 박물관의 활성화, 국민들의 역사의식 고취(5명)
- 박물관을 알리기 위한 취지(7명)
- 관람객 유치 도모, 무료개방 시범운영
- 시민들이 편안하게 많은 관람을 하며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다수가 더 많이 볼 수 있게 하기 위해
- 여러 가지 외교적 문제에서 드러나 우리 국민들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무관심의 벽을 허물기 위해서
- 관광객 유치, 많은 관광유도, 다양한 문화행사, 홍보차원
-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 방송

· 관람료를 조금씩이라도 더(예 : 2천/ 3천원)내야 책임감 있고, 너무 놀이공원 수준으로 놀러 유모차 몰고 오니 제대로 관람할 수 없었습니다.

- 문화에 대한 심미적 성향 제고
- 관람인원이 적고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반응을 확인
- 국민의 세금으로 지었고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
-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하고 싶어서
- 건국 60주년 기념? 웃기는 명목이다. 역사관에서 건국 60주년 기념이라니...
- 역사박물관의 대국민 홍보, 역사의식 고취

· 기타의견 :

아이들과 함께 방문하였다. 눈높이에 대한 적당한 교육환경과 주차비에 관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외국인은 유료화하기를, 해외 다른 나라는 외국인과 내국인의 입장료를 차등을 두어 받고 있습니다.

4번 문항은 무료화가 국립박물관 관람 기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관한 질문이다. 총 1,139명이 답해주었으며, ‘어느정도 자주 관람하고 싶다(연간 2-3회 이상 입장)’에 가장 많은 수인 513명이 답해주었다. 이것은 전체의 45%에 해당한다. 그 다음으로 많은 답변은 ‘더 자주 관람하고 싶다(연간 2-3회 이상 입장)’는 문항으로 472명이 답하였다. 즉, 자주관람하고 싶다는 답변이 전체의 86.5%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별 변동이 없을 것이다’라는 문항에는 134명이 답하였고, ‘관람횟수가 줄어든 것이다’라는 문항에는 14명, ‘관람회수가 매우 줄어든 것이다’라는 문항에는 6명이 답하였다.

4. 무료화가 계속된다면 귀하께서 국립박물관(다른관도 포함)을 관람하는 기회가 유료시에 비하여 어떻게 변화 할 것 같습니까?

문항	중앙박물관	경주박물관	광주박물관	계
① 더 자주 관람하고 싶다(연간 5회 이상 입장)	2(306)	2(72)	2(94)	2(472)
② 어느정도 자주 관람하고 싶다(연간 2-3회 이상 입장)	1(319)	1(78)	1(116)	1(513)
③ 별 변동이 없을 것이다	3(94)	3(17)	3(23)	3(134)
④ 관람회수가 줄어든것이다	4(12)	4(1)	4(1)	4(14)
⑤ 관람회수가 매우 줄어든것이다	5(5)	4(1)	5(0)	5(6)

무료화 시행 이후 관람객 관람태도의 변화에 관한 질문에는 총 1,107명이 답해주었고, ‘변함이 없거나, 보통이었다’가 482표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다소 진지하게

관람하였다’가 387표로 두 번째로 많은 답변을 얻었고, ‘매우 진지하게 관람하였다’는 140명이 답하였다. ‘다소 진지하지 않게 관람하였다’는 79표, ‘매우 진지하지 않게 관람하였다’는 19명이 답하였다.

5. 무료화 시행 이후 관람객 관람태도의 변화는?

문항	중앙박물관	경주박물관	광주박물관	계
① 매우 진지하게 관람하였다	3(73)	3(31)	3(36)	3(140)
② 다소 진지하게 관람하였다	2(218)	1(59)	1(110)	2(387)
③ 변함이 없거나 보통이었다	1(346)	2(56)	2(80)	1(482)
④ 다소 진지하지 않게 관람하였다	4(53)	4(18)	4(8)	4(79)
⑤ 매우 진지하지 않게 관람하였다	5(14)	5(5)	5(0)	5(19)

6. 국립박물관 무료화가 국민들의 문화복지에 미친 파급효과는?

문항	중앙박물관	경주박물관	광주박물관	계
① 문화복지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2(291)	1(66)	2(87)	2(444)
② 문화복지에 기여를 하였다	1(334)	2(65)	1(109)	1(508)
③ 보통이다	3(96)	3(30)	3(37)	3(163)
④ 문화복지에 기여가 없었다	5(8)	4(6)	4(1)	4(15)
⑤ 문화복지에 전혀 기여가 없었다	4(11)	5(2)	5(0)	5(13)

외국인 무료입장에 관한 타당성을 묻는 질문에는 1,133명이 답해주었다. 그 중 ‘매우 타당하다’가 628명으로 가장 많았고, ‘어느 정도 타당하다’가 325표로 2위를 차지하였다. ‘타당치 않다’는 93표로 4위, ‘잘모르겠다’는 68표로 5위를 차지하였고, ‘매우 타당치 않다’가 19표로 가장 적은 수가 답하였다.

7. 이번 무료화에서 외국인도 무료입장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문항	중앙박물관	경주박물관	광주박물관	계
① 매우 타당하다	1(394)	1(80)	1(154)	1(628)
② 어느정도 타당하다	2(211)	2(52)	2(62)	2(325)
③ 잘모르겠다	4(47)	4(13)	3(8)	4(68)
④ 타당치 않다	3(64)	3(21)	3(8)	3(93)
⑤ 매우 타당치 않다	5(14)	5(3)	5(2)	5(19)

국립박물관의 관람료 수준에 관한 질문에는 총 1,137명이 답해주었다. ‘보통이다’라는 문항이 633표로 가장 많은 수가 답하였고, ‘싼편이다’는 262표, ‘비싼편이다’는 161표였다. ‘매우 싼편이다’는 58표였고, ‘매우 비싼 편이다’는 23표였다.

8. 국립박물관의 관람료 수준은 어떻습니까?

문항	중앙박물관	경주박물관	광주박물관	계
① 매우 비싼편이다	5(12)	4(8)	5(3)	5(23)
② 비싼편이다	3(94)	3(25)	3(42)	3(161)
③ 보통이다	1(411)	1(89)	1(133)	1(633)
④ 싼편이다	2(176)	2(40)	2(46)	2(262)
⑤ 매우 싼편이다	4(41)	5(7)	4(10)	4(58)

국립박물관 관람을 더욱 많이 하지 못하는 이유에 관해 묻는 질문에는 ‘문화생활의 여유가 없어서’라는 답변이 503표로 가장 많았고, ‘거리가 멀어서’가 452표, ‘전시실이 자주 바뀌지 않고 비슷해서’가 398표, ‘교통이 불편해서’가 251표, ‘관람료가 부담이 되어서’가 77표, ‘박물관의 서비스가 마음에 안들어서’가 56표를 차지하였다.



무료화에 대한 설문준비도구 및 내용, 국립광주박물관

9. 국립박물관 관람을 더욱 많이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두 개만 체크)

문항	중앙박물관	경주박물관	광주박물관	계
① 문화생활의 여유가 없어서	1(321)	2(59)	1(123)	1(503)
② 관람료가 부담되어서(성인 기준 : 중앙박물관 2,000원, 지방박물관 1,000원)	5(47)	5(12)	5(18)	5(77)
③ 박물관의 서비스가 마음에 안들어서	6(35)	6(9)	6(12)	6(56)
④ 전시실이 자주 바뀌지 않고 비슷해서	3(238)	3(50)	2(110)	3(398)
⑤ 거리가 멀어서	2(276)	1(100)	3(76)	2(452)
⑥ 교통이 불편해서	4(141)	4(43)	4(67)	4(251)

기타의견 : 사람이 너무 많아 관람이 어렵다, 경주박물관의 위치가 부적당, 주차시설 미비, 홍보 부족, 시설 관리가 잘 안 되는 편, 주차비가 비싸다(경주박물관)

보다 많은 관람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보완 할 부분에 관한 질문에는 ‘교육프로그램과 공간 확대’가 471표, ‘전시유물이나 작품보강’이 431표로 가장 많았고, ‘교통편 증설 등 보강’이 332표로 그 다음을 이었다. ‘휴게시설 보강’은 217표로 4위, ‘홈페이지 보강 및 홍보 강화’는 200표로 5위, ‘안내인원 증원’은 196표로 6위, ‘관람객에 대한 친절도 향상’은 103표로 가장 낮은 표를 얻었다.

10. 보다 많은 관람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보완 할 부분은? (두 개만 체크)

문항	중앙박물관	경주박물관	광주박물관	계
① 교통편 증설 등 보강	3(204)	1(64)	3(64)	3(332)
② 관람객에 대한 친절도 향상	7(49)	7(28)	7(26)	7(103)
③ 안내인원 증원	6(127)	5(35)	6(34)	6(196)
④ 휴게시설 보강	4(130)	4(40)	4(47)	4(217)
⑤ 전시유물이나 작품 보강	2(276)	3(51)	2(104)	2(431)
⑥ 교육프로그램과 공간 확대	1(291)	2(59)	1(121)	1(471)
⑦ 홈페이지 보강 및 홍보 강화	4(130)	6(30)	5(40)	5(200)

기타의견 : 음료수 및 휴식 장소 부족, 전문요원 확보 필요(외국인들을 위한), 월체어·유모차·휴지통 등 부족, 관람객 유치보다 관람태도·환경 개선이 우선(경주박물관)

기념품코너, 휴게실, 식당 등에 대한 만족도에 관한 질문에는 총 876명이 답해주었다. 그 중 ‘보통이다’라는 답변이 465표로 53%를 차지함으로써 가장 많았고, ‘만족이다’라는 답변이 219표로 2위, ‘불만이다’라는 답변이 105표로 3위, ‘매우 만족이다’는 73표로 4위, ‘매우 불만이다’라는 답변은 14표로 가장 낮은 순위이다.

11. 기념품코너, 휴게실, 식당 등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하였습니까?(사용하지 않은 분들은 해당없음)

문항	중앙박물관	경주박물관	광주박물관	계
① 매우 만족이다	4(49)	5(5)	3(19)	4(73)
② 만족이다	2(168)	3(20)	2(31)	2(219)
③ 보통이다	1(300)	1(71)	1(94)	1(465)
④ 불만이다	3(68)	2(24)	4(13)	3(105)
⑤ 매우 불만이다	5(7)	4(6)	5(1)	5(14)

12. 국립박물관의 무료관람은 12월까지 시행됩니다. 2009년부터 시행될 경우 유료와 무료화제도를 비교하여 어느쪽이 타당한지에 대한 설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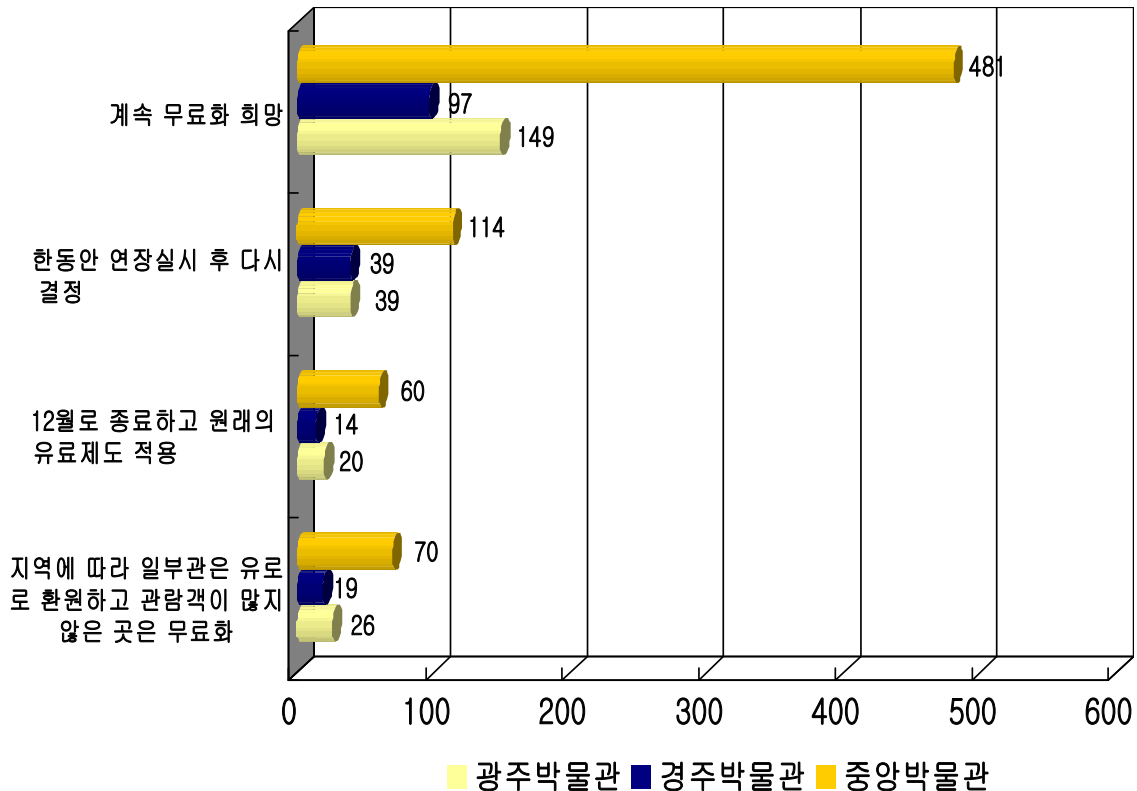
문항	중앙박물관	경주박물관	광주박물관	계
① 계속 무료화를 희망한다	1(481)	1(97)	1(149)	1(727)
② 한동안 연장 실시 후 다시 결정되었으면 한다	2(114)	2(39)	2(39)	2(192)
③ 12월로 종료하고 다시 원래의 유료제도를 적용해야만 한다	4(60)	4(14)	4(20)	4(94)
④ 지역에 따라 일부관은 유료로 환원하고 관람객이 많지 않은 곳은 무료화를 원한다	3(70)	3(19)	3(26)	3(115)

※ 중앙박물관 관람객 : 총 725명 응답, 경주박물관 관람객 : 총 169명 응답, 광주박물관 관람객 : 총 234명 응답

국립박물관을 방문한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위와 동일한 질문을 한 결과,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 국립광주박물관의 관람객들은 ‘계속 무료화를 희망한다’라는 답변에 가장 많은 수로 응답하였고, 2, 3, 4위 역시 동일한 답변이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727명이 ‘계속 무료화를 희망한다’에 답변해 주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고, ‘한동안 연장 실시 후 다시 결정되었으면 한다’가 2위, ‘지역에 따라 일부관은 유료로 환원하고 관람객이 많지 않은 곳은 무료화를 원한다’라는 답변이 3위, ‘12월로 종료하고 다시 원래의 유료제도를 적용해야만 한다’라는 답변에 94명이 응답하여 4위를 차지한 것을 볼 수 있다.

유료와 무료화제도를 비교하여 어느쪽이 타당한지에 대한 설문



2) 외국인

- 국립중앙박물관

외국인 국적 수 : 13개국 28명 · 미국(6), 일본(5), 영국(2), 독일(2), 스위스(2), 콜롬비아(2), 캐나다(2), 호주(2), 인도(1), 아르헨티나(1), 프랑스(1), 벨기에(1), 싱가포르(1)

- 국립경주박물관

외국인 국적 수 : 일본 (2), 중국(1)

다음은 외국인에 관한 설문 내용이다. 13개국의 31명이 참여하였다. 원래의 국립중앙박물관 관람료 2,000원에 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싸다’가 21명, ‘적당하다’가 1명으로 ‘싸다’가 전체의 77.8%를 차지하고 있다.

박물관의 무료관람에 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무료화 해야한다’가 21명, ‘유료화 해야한다’가 6명이었으며, 외국인 관람객 유치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묻는 질문에는 ‘다양한 외국어 통역 서비스’가 15명으로 가장 많이 꼽았고, ‘홍보’가 8명, ‘카탈로그의 개선’이 5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일본어 가이드북의 필요, 청소년과 강아지만 무료입장, 영어홈페이지가 필요, 더 많은 한국의 소장품이

필요, 무료 제공되는 다양한 언어의 가이드 북 등의 의견이 있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관람객 대상
현장 설문

1. 원래의 국립중앙박물관 관람료(2,000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항	응답수
① 싸다	21
② 적당하다	6
③ 비싸다	0
④ 기타	0

2. 박물관의 무료관람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항	응답수
① 무료화해야 한다	21
② 유료화해야 한다	6
③ 기타	0

기타의견 : 미국역사박물관은 정부 지원을 통해 무료화를 하고 있다.

3. 국립중앙박물관의 외국인관람객 유치를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	응답수
① 다양한 외국어의 통역 서비스	15
② 카탈로그의 개선	5
③ 홍보	8
④ 기타	0

기타의견 :

- 일본어 가이드북

- 청소년과 강아지만 무료입장
- 영어홈페이지가 필요
- 무료화 지속되어야함
- 더 많은 한국의 소장품이 필요
- 무료 제공되는 다양한 언어의 가이드 북
- 외국인 무료입장에 대해 긍정적, 향후 무료입장에 대해서도 긍정적(경주박물관)

2. 박물관직원 설문분석

국립과 공립, 사립관의 구성원들에 대한 객관적인 설문으로서 대상은 국립박물관 12개관 전원과 공립관 11개관, 사립관 약 200여개관을 대상으로 e-mail을 통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결과 각 설립주체별로 국립박물관무료화, 관람료수준, 무료화 이후 파급효과 등에 대하여 상당한 시각의 차이가 있었으며, 설문내용과 통계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국립 박물관

이 설문은 ‘국립박물관 무료관람 시범실시 성과분석’을 위한 것으로 중앙박물관을 비롯한 경주박물관, 광주박물관 등 전국 12개 국립박물관의 직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총 설문참여자수는 199명이었으며 설문자는 관장 및 학예연구분야 직원과 사무직, 행정직, 관리직, 보존 분야 등의 직원이 참여하였다.

대상 : 전국 12개 국립박물관(실시관) 전 직원

- 설문참여자 수 : 199명
- 설문기간 : 2008년 9월 18일-29일
- 설문책임자 : 최병식
- 설문방법 : e-mail
- 설문 및 통계 : 배현진, 박정연, 한혜선

설문자 기록 사항(소속관 기록자)

구분	설문참여자											
근무관	중앙	경주	광주	전주	부여	대구	청주	김해	제주	춘천	진주	공주
	30	11	14	17	6	14	12	2	7	8	10	3
직책	관장 및 학예 연구분야 46명						사무, 행정, 관리, 보존분야 70명					

※근무관 : 총 134명 응답(무응답 : 65명) 직책 : 총 116명 응답(무응답 : 83명)

○ 무료관람 실시관련

1. 국립박물관 무료화가 국민들의 문화복지에 미친 파급효과는?

문항	응답수
① 문화복지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3(40)
② 문화복지에 기여를 하였다	1(89)
③ 보통이다	2(61)
④ 문화복지에 기여가 없었다	4(5)
⑤ 문화복지에 전혀 기여가 없었다	5(4)

※ 총 199명 응답

2. 무료관람 실시시기는 적절하였습니까?

문항	응답수
① 매우 적절하였다	4(18)
② 어느정도 적절하였다	1(78)
③ 보통이었다	2(70)
④ 부적절하였다	3(30)
⑤ 매우 부적절하였다	5(3)

※ 총 199명 응답

무료관람 실시시기가 적절하였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총 199명의 응답자 중 ‘어느 정도 적절하였다’에 응답한 사람은 총 78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39.2%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많은 답변을 보인 것은 ‘보통이었다’로 응답자는 70명이었고, 이는 전체 응답자의 35.2%를 차지하는 수였다. 이외에 ‘부적절하였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30명, ‘매우 적절하였다’는 18명, ‘매우 부적절하였다’는 3명으로 나타났다.

3. 무료관람 실시 후 관람객들의 증감에 대한 의견은 어떠합니까?

문항	응답수
① 유료관람시 보다는 지속적으로 상당수 증가할 것이다	3(31)
② 유료관람시 보다는 어느정도 증가할 것이다	2(74)
③ 유료관람시 보다는 어느정도 증가하다 유료관람 수준과 비슷한 상태로 갈것이다	1(76)
④ 유료관람시와 별차이가 없을 것이다	4(13)
⑤ 유료관람시 보다 오히려 줄어들 것이다	5(5)

※ 총 199명 응답

무료관람 실시 후 관람객들의 증감에 대한 의견에 대한 질문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응답자가 2번과 3번, 즉 ‘유료관람 시 보다는 어느정도 증가하다 유료관람 수준과 비슷한 상태로 같 것이다’와 ‘유료관람 시 보다는 어느정도 증가할 것이다’에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2번 문항은 총 199명의 응답자 중 76명이 답해 전체 응답자의 38.2%를, 3번 문항은 74명이 선택해 총 응답자 중 37.2%를 차지하였다. 가장 적은 답변으로는 ‘유료관람 시 보다 오히려 줄어들 것이다’로 모두 5명이 응답하였고 전체 응답자의 2.5%를 차지하였다.

4. 무료화 시행 이후 관람객의 관람태도는?

문항	응답수
① 매우 진지하게 관람하는 태도이다	5(6)
② 다소 진지하게 관람하는 태도이다	4(10)
③ 변함이 없다	1(84)
④ 다소 가볍게 관람하는 태도이다	1(84)
⑤ 매우 가볍게 관람하는 태도이다	3(12)

※ 총 196명 응답

무료화 시행 이후 관람객의 관람태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와 ‘다소 가볍게 관람하는 태도이다’에 각각 84명이 응답하여 공동 1위를 차지하였다. 이 두 개 문항에 전체 196명 중 168명이 답하여 85.7%의 높은 수를 기록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매우 가볍게 관람하는 태도이다’가 전체 응답자의 6.1%로 2위를 차지하여 무료화 이후 전반적으로 진지한 관람태도보다 가볍게 보는 관람자들이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5. 무료화를 계속 실시한다면 반복관람객 예상은?

문항	응답수
① 매우 증가할 것이다	3(19)
② 약간 증가할 것이다	1(130)
③ 변함이 없을 것이다	2(36)
④ 약간 줄어들 것이다	4(9)
⑤ 매우 줄어들 것이다	5(1)

※ 총 195명 응답

무료화를 계속 실시한다면 반복관람객 예상에 관한 질문에는 전체 195명의 응답자 중 130명이 ‘약간 증가할 것이다’를 답해 1위를 차지하였고, 이는 응답자중 66.7%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2위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로 18.5%인 36명이 응답하였고, 3위는 모두 19명이 응답한 ‘매우 증가할 것이다’가 차지하였다. 이외에 ‘약

간 줄어들 것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9명, ‘매우 줄어들 것이다’는 1명이 응답하였다.

6. 무료화를 계속 실시한다면 우선적으로 보강되어야할 부분은?

문항	응답수
① 안내요원 등 인력	1(75)
② 교육사 등 교육인력	3(29)
③ 리플렛 등 안내자료	4(14)
④ 휴게시설의 확대와 보강	2(56)
⑤ 강당, 영상자료실 등의 보강	5(3)

※ 총 177명 응답

무료화를 계속 실시한다면 우선적으로 보강되어야할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총 177명이 응답하였고, 이중 42.4%에 해당하는 75명이 ‘안내요원 등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고 응답하여 가장 많은 수를 얻었다.

2위는 전체 응답자의 31.6%인 56명이 답한 ‘휴게시설의 확대와 보강’이, 그 다음은 총 16.4%인 29명이 답한 ‘교육사 등 인력’보강이 차지하였다. ‘리플렛 등 안내자료’와 ‘강당, 영상자료실 등’을 보강해야한다고 대답한 사람은 각각 14명과 3명으로 가장 적었다.

◎ 주관식 답변 요약

- 시설증대 및 보수_휴식공간의 마련

- 박물관만의 역할이 아닌 휴식공간으로의 전환이 필요

- 다양한 전시기획 및 홍보강화

- 관객을 끌 수 있는 다양한 전시를 기획해야 한다.
- 좋은 전시가 있어도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많으므로 홍보를 잘 해야 한다. 전시외 프로그램을 다양화해 관람객이 흥미를 가지고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 관람에 앞서 성숙한 관람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이 필요

- 늘어나는 관람객에 대비해 전문 해설사 안전요원 등 전문화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7. 이번 무료화에서 외국인도 무료입장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문항	응답수
① 매우 타당하다	3(33)
② 어느정도 타당하다	2(61)
③ 잘모르겠다	5(15)
④ 타당치 않다	1(73)
⑤ 매우 타당치않다	4(17)

※ 총 199명 응답

무료화 실시에서 외국인들의 무료입장에 대한 의견에 대한 문항에서는 ‘타당치 않다’와 ‘어느정도 타당하다’와 같이 상반되는 입장의 답변이 전체 199명의 응답자 중 각각 73명과 61명에 해당해 1, 2위를 차지하였다. 이는 총 응답자의 36.7%와 30.7%에 해당하는 수였다. 이외 에 ‘매우 타당하다’는 33명이, ‘매우 타당치않다’는 17명이, ‘잘모르겠다’는 15명 순으로 나타났다.

○ 관람료 적절성

8. 우리나라 박물관의 관람료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국립		공립		사립	
내용	표기	내용	표기	내용	표기
① 매우 비싼편이다	4(4)	① 매우 비싼편이다	5(4)	① 매우 비싼편이다	4(23)
② 비싼편이다	5(3)	② 비싼편이다	3(17)	② 비싼편이다	1(86)
③ 보통이다	2(45)	③ 보통이다	1(85)	③ 보통이다	2(73)
④ 싼편이다	1(100)	④ 싼편이다	2(65)	④ 싼편이다	5(5)
⑤ 매우 싼편이다	3(42)	⑤ 매우 싼편이다	3(17)	⑤ 매우 싼편이다	3(53)

※ 현재 우리나라의 물가, 타 입장료, 해외박물관 등과 비교

- 국립박물관 2008년 5월 1일 이전 관람료(성인 기준 : 중앙박물관 2,000원, 지방박물관 1,000원)

※ 총 195명 응답(국립관만표기 : 5명, 사립관만표기 : 1명, 국립·공립표기 : 1명, 국립·사립 표기 : 1명)

○ 관람객 증대 방안 및 시설, 운영

9. 보다 많은 관람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을 순서대로 기입바랍니다.

항목	답변(순서대로 번호기입 요망)	응답점 수
① 교통편 증설 등 보강	3	787
② 관람객에 대한 친절도 향상	7	632
③ 안내인원 증원	5	733
④ 휴게시설 보강	4	738
⑤ 전시유물이나 작품 보강	1	949
⑥ 교육프로그램과 공간 확대	2	801
⑦ 홈페이지 보강 및 홍보 강화	6	693

※ 총 197명 응답(4위까지 표기 : 1명)

※ 응답점수는 1순위는 7점, 2순위는 6점, 3순위는 5점, 4순위는 4점, 5순위는 3점, 6순위는 2점, 7순위는 1점으로 계산하여, 총 응답 수를 합산한 점수임.

보다 많은 관람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을 순서대로 기입하는 문항에서 직원들은 박물관의 전시작품과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를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점수인 949점을 얻은 것은 ‘전시유물이나 작품을 보강’이었고, 다음은 ‘교육프로그램과 공간 확대’를 보완해야 한다가 801점을 얻어 2위를 차지하였다. 3위는 ‘교통편 증설’이, 4위는 휴게시설 보강이, 그리고 5, 6, 7위는 각각 ‘안내인원 증원’ ‘홈페이지 보강 및 홍보 강화’ ‘관람객에 대한 친절도 향상’ 순으로 나타났다.

10. 외국인 관람객 증대를 위한 우선적인 항목은?

항목	답변(순서대로 번호기입 요망)	응답점 수
① 홈페이지 외국어 내용 보강	3	591
② 언론, 책자광고 및 홍보 강화	1	624
③ 언어권별 외국인을 위한 설명프로그램 추가운영	4	587
④ 언어권별 안내리플렛 등 제작과 공항, 호텔 등 자료비치확대	2	607
⑤ 여행사 관련자 정기적인 설명회 개최	5	545

※ 총 197명 응답

※ 응답점수는 1순위는 5점, 2순위는 4점, 3순위는 3점, 4순위는 2점, 5순위는 1점으로 계산하여, 총 응답 수를 합산한 점수임.

외국인 관람객 증대를 위한 우선항목을 순서대로 기입하는 문항에서는 박물관 홍보와 여러 언어권의 외국인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안내리플렛 등을 보강해야한다는 의견이 600점 이상을 차지해 1, 2위를 차지하였다. 3위는 총 591점을 얻

은 ‘홈페이지에 외국어 내용을 보강’해야 한다가 차지하였다.

11. 관람료 수익 이외에도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우선적인 분야를 기입해 주십시오.

항목	답변(순서대로 번호기입 요망)	응답점 수
① 뮤지엄숍, 식당 등 운영의 활성화	1	855
② 기부, 기증제도의 개선·홍보를 통한 적극적인 유치	2	754
③ 멤버십제도의 활성화(다양한 액수와 형식)	3	634
④ 교육프로그램 등의 유료화	6	530
⑤ 공연, 부대행사의 유료화	4	581
⑥ 도록, 연구결과물 등의 판매활성화	5	536

※ 총 188명 응답(3위까지 표기 : 3명)

※ 응답점수는 1순위는 6점, 2순위는 5점, 3순위는 4점, 4순위는 3점, 5순위는 2점, 6순위는 1점으로 계산하여, 총 응답 수를 합산한 점수임.

관람료 수익 외에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를 우선순위별로 기입하는 문항에 대해서는 총 188명이 응답하였고, 그 중 ‘뮤지엄숍, 식당 등의 운영을 활성화’해야 한다가 6개 문항 중 가장 높은 점수인 총 855점을 얻었다. 이외에 사회 참여와 같은 기부제도와 외국인 유치 및 멤버십 제도 등의 활성화를 통해 재원을 확보해야 하다가 각각 754점과 634점을 획득하여 2, 3위를 차지하였다.

12. 재원확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뮤지엄숍, 식당, 카페 등의 운영체계의 개선 방법은?

문항	응답수
① 현재처럼 각관의 사정에 따라 결정	2(61)
② 모두 직영	4(15)
③ 모두 외부 전문업체가 운영	3(47)
④ 전체 12개관을 하나의 기구(예: 재단)가 통합 운영	1(69)

※ 총 192명 응답

앞의 문항에서 관람료 수익 외에 가장 많은 재원확보를 할 수 있는 분야로 선택되었던 뮤지엄숍, 식당, 카페테리아 등의 운영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직원들은 전체 12개 국립박물관을 재단과 같은 하나의 기구가 통합해서 운영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

이는 총 69명이 답하였고 전체 192명의 응답자 중 35.9%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2위는 이보다 8명이 적은 61명이 응답한 현재처럼 박물관이나 외주업체 혹은 상조회 등 각관의 사정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가 총 응답자 중 31.8%에 해당하였다. 3, 4위는 ‘모두 외부 전문업체가 운영’ ‘모두 직영’으로 운영해야 한다가 순으로 나타났다.

○ 향후 관람료 시행

13. 국립박물관의 무료관람에 대한 입장을 한쪽만 골라 번호를 기입해주시시오.

국립박물관 무료화 찬성입장

항목	답변(우선 순서대로 번호기입 요망)	응답점수
① 기본권리로 분류하여 ‘동등한 문화향유’ ‘기회균등’ 원칙이 실현	1	263
② 새로운 관람객을 개발해가는 데 기여	2	214
③ 반복관람을 할 수 있다는 장점	3	200
④ 뮤지엄숍, 식당, 카페, 도록 등 판매량 증가	4	124
⑤ 특별전은 유료이므로 특별전 관람객 유입 증가	5	88

※ 총 60명 응답(2위까지 표기 : 1명)

※ 응답점수는 1순위는 5점, 2순위는 4점, 3순위는 3점, 4순위는 2점, 5순위는 1점으로 계산하여, 총 응답 수를 합산한 점수임.

국립박물관 관람료 무료화 반대입장

항목	답변(우선 순서대로 번호기입 요망)	응답 점수
① 현재 우리나라 국립박물관 관람료(성인 기준 : 중앙박물관 2,000원, 지방박물관 1,000원), 할인, 무료제도만으로도 ‘동등한 문화향유’ ‘기회균등’ 원칙은 어느정도 실현되었음	2	326
② 무료화되면 ‘수익자 부담’ 원칙을 벗어나 관람을 하지 않은 국민도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	4	259
③ 문화예술에 대한 가치를 가볍게 여기고 관람예절 등 관람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1	349
④ 유물이나 작품의 안전문제 역시 불안한 면이 있음	3	260
⑤ 공립관, 사립관, 대학관, 특히 관람료가 높고 예산자립도가 열악한 사립관의 관람객을 저하시키는 등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	5	257

※ 총 97명 응답(3위까지 표기 : 1명)

※ 응답점수는 1순위는 5점, 2순위는 4점, 3순위는 3점, 4순위는 2점, 5순위는 1점으로 계산하여, 총 응답 수를 합산한 점수임.

14. 만일 향후 지속적으로 국립박물관 무료관람이 실시된다면 사립박물관과 미술관에는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문항	응답수
①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2(55)
②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02)
③ 영향이 없을 것이다	3(35)
④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다	4(7)

※ 총 199명 응답

앞으로 국립박물관 무료관람이 지속적으로 실시된다면 사립박물관과 미술관에는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응답한 199명의 국립박물관 직원 대부분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199명의 응답자 중 51.3%에 해당하는 102명이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응답하였고,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답한 사람들이 27.6%에 이르러 2위를 차지하였다. 나머지 3, 4위는 각각 35명과 7명이 ‘영향이 없을 것이다’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응답하였다.

15. 국립박물관의 무료관람은 12월까지 시행됩니다. 2009년부터 시행될 경우 유료와 무료화제도를 비교하여 어느쪽이 타당한지에 대한 설문입니다.

문항	응답수
① 계속 무료화를 희망한다	2(48)
② 한동안 연장 실시 후 다시 결정되었으면 한다	3(33)
③ 12월로 종료하고 다시 원래의 유료제도를 적용해야만 한다	1(84)
④ 상황에 따라 일부관은 유로로 환원하고 열악한 곳은 무료화가 적절하다	4(31)

※ 총 196명 응답

◎ 주관식 답변 요약

- 유료화 찬성입장

관람객의 기본적인 관람수준이 낮음

- 관람객유료화는 관람문화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임
- 최소한의 비용을 통해서라도 전시 관람의 가치를 인식시켜야 함

-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문화향유에 비용이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임

질 높은 관람서비스 제공

- 국립박물관 유료화를 통해 관람객에게 보다 높은 서비스(연구, 프로그램개발, 보존 등)를 제공 할 수 있음

- 기타의견 :

- 국립박물관 유료화가 사립박물관 지원으로 이뤄져서는 안 됨

- 유료화 반대입장

국민들에게 문화혜택을 접할 기회의 폭을 넓힘

- 무료화 이후 단체 및 개인 관람객 뚜렷이 증가

국가가 주도하는 대국민 서비스 - 복지국가로의 이미지 제고

- 기타의견 :

명목상유료화(입장료 100원 등)를 통해 전시 관람의 가치제고와 더불어 관람객의 부담을 최소화

다양한 콘텐츠를 먼저 개발/ 제공

- 관람료 인하와 문화혜택증진과는 관계가 적음

정부정책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충분한 사업검토가 필요

- 충분한 기간과 다수의 의견을 수렴한 뒤 두고 사업진행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

2) 국립 박물관 · 미술관

국립박물관 무료화 시범실시에 대한 의견 설문조사로 전국의 주요 국립박물관 및 미술관 직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경기도자박물관, 경남도립박물관, 고인쇄박물관, 광주시립미술관 등 총 12개관의 관장 및 학예 연구분야 직원과 사무, 행정, 관리, 보존 분야 직원이 참여하였다.

○ 대상 : 전국 주요 국립박물관 및 미술관 직원

○ 설문참여관(가나다 순) : 경기도자박물관, 경남도립미술관, 고인쇄박물관, 광주시립미술관, 광주시립민속박물관, 대전선사박물관, 대전시립미술관, 밀양시립박물관, 오죽헌시립박물관, 전북도립미술관, 펄벅기념관.

이상 11개관

- 설문기간 : 2008년 9월 18일-29일
- 설문방법 : e-mail
- 설문책임자 : 최병식
- 설문 및 통계 : 배현진, 박정연, 한혜선

설문자 기록 사항

구분	설문참여자	
직책	관장 및 학예 연구분야 13명	사무, 행정, 관리, 보존분야 17명

※ 근무관 : 총 48명 응답. 직책 : 총 30명 응답

1. 국립박물관 무료화가 국민들의 문화복지에 미친 파급효과는?

문항	응답수
① 문화복지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3(7)
② 문화복지에 기여를 하였다	2(17)
③ 보통이다	1(18)
④ 문화복지에 기여가 없었다	3(7)
⑤ 문화복지에 전혀 기여가 없었다	5(1)

※ 총 50명 응답

2. 우리나라 박물관의 관람료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국립		공립		사립	
내용	응답수	내용	응답수	내용	응답수
① 매우 비싼편이다	4(1)	① 매우 비싼편이다	5(0)	① 매우 비싼편이다	4(3)
② 비싼편이다	4(1)	② 비싼편이다	4(1)	② 비싼편이다	1(19)
③ 보통이다	1(20)	③ 보통이다	3(11)	③ 보통이다	2(18)
④ 싸편이다	2(15)	④ 싸편이다	1(23)	④ 싸편이다	3(8)
⑤ 매우 싸편이다	3(13)	⑤ 매우 싸편이다	2(15)	⑤ 매우 싸편이다	5(2)

※ 현재 우리나라의 물가, 타 입장료, 해외박물관 등과 비교

-국립박물관 2008년 5월 1일 이전 관람료(성인 기준 : 중앙박물관 2,000원, 지방박물관 1,000원)

※ 총 50명 응답

3. 국립박물관 무료관람이 공립박물관과 미술관에 영향을 미쳤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입니까?

항목	답변(우선 순서대로 번호기입 요망)	응답점 수
① 무료화로 공립관들이 갑자기 상대적으로 비싼 느낌을 줌	2	180
② 공립관도 무료로 해야 한다는 심리적인 압박	1	216
③ 단체관람객들이 무료인 국립을 선호하여 관람객 감소	6	122
④ 국립이 아무리 무료라 하여도 공립의 특성을 살리면 경쟁력이 있음	3	148
⑤ 관람객들이 공립관의 특성을 어느정도 이해하여 큰 영향이 없었음	5	135
⑥ 관람객들이 직접비교를 하지않아 큰 영향이 없었음	4	138

※ 총 46명 응답(2위까지 표기 : 2명, 3위까지 표기 : 2명)

※ 응답점수는 1순위는 6점, 2순위는 5점, 3순위는 4점, 4순위는 3점, 5순위는 2점, 6순위는 1점으로 계산하여 총 응답수를 합산한 것임.

위의 국립박물관의 무료관람정책 시범실시가 공립박물관과 미술관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되는 측면을 순서대로 기입하는 문항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것은 심리적으로 공립관도 무료로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게 된다는 점으로 총 216점을 얻었다. 2위로는 총 180점을 얻은 무료화로 공립관들이 갑자기 상대적으로 비싼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들었다.

그러나 이런 부정적인 측면 외에 국립이 아무리 무료라 하여도 공립의 특성을 살린다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답변이 148점을 얻어 6개 문항 중 3위를 차지하였고, 관람객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라 응답이 각각 148점과 138점을 얻었다. 이외에 단체관람객들이 무료인 국립박물관을 선호하여 관람객 감소할 것이라는 대답은 총 122점을 차지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4. 만일 계속 국립박물관 무료관람이 실시된다면 공립박물관과 미술관에는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문항	응답수
①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2(8)
②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1(37)
③ 영향이 없을 것이다	3(5)
④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다	4(0)

※ 총 50명 응답

국립박물관이 계속해서 무료관람을 시행할 경우 공립박물관과 미술관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50명의 응답자중 반수 이상인 37명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은 8명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대답하여 2위를

차지하였다. 국립박물관이 무료관람을 시행한다하더라도 영향을 없거나 전혀 없을 것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7명에 그쳤다.

5. 국립박물관의 무료관람에 대한 입장을 한쪽만 골라 번호를 기입해주시시오.

국립박물관 무료화 찬성입장

항목	답변(우선 순서대로 번호기입 요망)	응답점 수
① 기본권리로 분류하여 ‘동등한 문화향유’ ‘기회균등’ 원칙이 실현	1	77
② 새로운 관람객을 개발해가는 데 기여	2	51
③ 반복관람을 할 수 있다는 장점	3	49
④ 아트숍, 식당, 카페, 도록 등 판매량 증가	4	29
⑤ 특별전은 유료이므로 특별전 관람객 유입 증가	5	18

※ 총 14명 응답

※ 응답점수는 1순위는 5점, 2순위는 4점, 3순위는 3점, 4순위는 2점, 5순위는 1점으로 계산하여 총 응답수를 합산한 것임.

국립박물관 관람료 무료화 반대입장

항목	답변(우선 순서대로 번호기입 요망)	응답점 수
① 현재 우리나라 국립박물관 관람료(성인 기준 : 중앙박물관 2,000원, 지방박물관 1,000원), 할인, 무료제도만으로도 ‘동등한 문화향유’ ‘기회균등’ 원칙은 어느정도 실현되었음	2	88
② 무료화되면 ‘수익자 부담’ 원칙을 벗어나 관람을 하지 않은 국민도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	3	72
③ 문화예술에 대한 가치를 가볍게 여기고 관람예절 등 관람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1	90
④ 유물이나 작품의 안전문제 역시 불안한 면이 있음	5	59
⑤ 공립관, 사립관, 대학관, 특히 관람료가 높고 예산자립도가 열악한 사립관의 관람객을 저하시키는 등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	4	65

※ 총 25명 응답(2위까지 표기 : 1명, 3위까지 표기 : 1명)

※ 응답점수는 1순위는 5점, 2순위는 4점, 3순위는 3점, 4순위는 2점, 5순위는 1점으로 계산하여 총 응답수를 합산한 것임.

6. 국립박물관의 무료관람은 12월까지 시행됩니다. 2009년부터 시행될 경우 유료와 무료화제도를 비교하여 어느 쪽이 타당합니까?

문항	응답수
① 계속 무료화를 희망한다	3(11)
② 한동안 연장 실시 후 다시 결정되었으면 한다	2(12)
③ 12월로 종료하고 다시 원래의 유료제도를 적용해야만 한다	1(20)
④ 상황에 따라 일부관은 유료로 환원하고 열악한 곳은 무료화가 적절하다	4(6)

※ 총 49명 응답

◎ 주관식 답변 요약

- 유료화 찬성

관객서비스증대

· 관람료 유료화를 통해 연구, 전시, 교육 등 전반적인 대 관람객 서비스가 증대될 것

관람문화에 책임의식 제고

· 인식의 문제에 있어 반드시 필요- 관람료 유료화는 미술 관람의 최소한의 가치를 인식하도록 하는데 반드시 필요

사립박물관의 경영악화 초래할 것

· 국내의 열악한 미술환경을 감안할 때 국립박물관 무료화는(국립박물관의)편중 현상을 불러와 사립박물관의 경영악화를 초래할 수 있음

- 무료화찬성 : 보다 많은 관람기회 제공

· 박물관 무료화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관람기회를 제공해야 함

- 기타의견 : 정책수정

· 현재의 정책을 수정 보완해서 진행해야 한다. 공휴일이나 특정일에 개방해 희소성을 인식시켜야 함

3) 사립 박물관 · 미술관

대상 : 사립박물관, 사립미술관 전 직원

○ 설문참여관(가나다 순)

사립박물관 : 가회박물관, 거제박물관, 건강과성박물관, 경보화석박물관, 금오민속박물관, 김포다도박물관, 대원사티벳박물관, 더리미미술관, 덕포진교육박물관, 동산도기박물관, 두루피박물관, 등지박물관, 떡박물관, 만해기념관, 목아박물관, 목인박물관

관, 무릉박물관, 미리벌민속박물관, 방림원, 범패박물관, 보나장신구박물관, 부산포민속박물관, 부천로보파크, 사람박물관얼굴, 삼성출판박물관, 생명과학박물관, 샬트르성바오르수녀회역사박물관, 서울대병원의학박물관, 세계술문화박물관리퀴리움, 세계장신구박물관, 송광매기념관, 아프리카박물관, 안동소주박물관, 여진불교미술관, 영인문학관, 옛터민속박물관, 온양민속박물관, 웅기민속박물관, 왈츠와닥터만커피박물관, 우리삶문화옥당박물관, 원불교역사박물관, 웅진초등교육박물관, 인천어린이박물관, 일본군위안부역사관, 자연사박물관우석헌, 자연염색박물관, 잠사박물관, 지적박물관, 짚풀생활사박물관, 참소리축음기박물관, 초전섬유박물관, 충현박물관, 치악산명주사고관화박물관, 티베트뮤지엄, 평강성서유물전시관, 폰박물관, 하회동탈박물관,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 한국문인인장박물관, 한국불교미술박물관, 한국식기박물관, 한국자수박물관, 한국카메라박물관, 한상수자수박물관, 한얼문예박물관, 해금강테마박물관, 해인사정보박물관, 해국최순우기념관.

이상 68개관

사립미술관: 가일미술관, 국윤미술관, 금구원조각전시관, 김영갑갤러리두모악, 남철미술관, 남포미술관, 단춘미술관, 당림미술관, 대림미술관, 대산미술관, 리각미술관, 마가미술관, 명지미술관, 모란미술관, 목암미술관, 무등현대미술관, 밀알미술관, 바탕골미술관, 북촌미술관, 사비나미술관, 상원미술관, 서호미술관, 선바위미술관, 성곡미술관, 성안미술관, 소마미술관, 스페이스몸, 시안미술관, 신미술관, 아천미술관, 영담한지미술관, 영은미술관, 우제길미술관, 의재미술관, 이영미술관, 일현미술관, 임립미술관, 잠월미술관, 전원미술관, 제비울미술관, 제주금오당미술관, 제주러브랜드, 치우금속공예관, 코리아나미술관, 토탈미술관, 포토갤러리자연사랑, 한국미술관, 한미사진미술관, 헬로우뮤지움, 환기미술관.

이상 50개관

- 설문기간 : 2008년 9월 18일-29일
- 설문방법 : e-mail
- 설문책임자 : 최병식
- 설문협력 : 사단법인 한국사립박물관협회, 사단법인 한국사립미술관협회

설문내용

설문작성자 기본자료 :

구분	지역구분	응답	관장, 부관장 학예실장, 학예사	행정, 사무직 등 직원
표시(√)	서울	60	143	51
	경기, 인천	55		
	충청, 대전	29		
	경상, 부산, 울산	24		
	전라, 광주	19		
	강원	9		
	제주	16		

※ 지역구분 : 총 212명 응답. 직원구분 : 총 194명 응답

○ 실시 개요와 국립박물관 관람관련

1. 이번 국립박물관 무료관람 시행은 2008년 5월-12월까지 시범실시되는 것입니
다. 실시 배경이나 이유를 알고 계셨습니까?

문항	응답수
① 알고 있었다	1(175)
② 모르고 있었다	2(34)

※ 총 209명 응답

사립박물관·미술관의 직원들 중 총 209명의 대부분인 175명이 국립박물관 무료
관람 시행의 실시 배경이나 이유를 알고 있다고 답한 것을 볼 수 있다. 반면에 34
명은 ‘모르고 있었다’라고 답하였다.

2. 국립박물관 무료화가 국민들의 문화복지에 미친 파급효과는?

문항	응답수
① 문화복지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4(19)
② 문화복지에 기여를 하였다	2(70)
③ 보통이다	1(73)
④ 문화복지에 기여가 없었다	3(42)
⑤ 문화복지에 전혀 기여가 없었다	5(7)

※ 총 211명 응답

국립박물관 무료화가 국민들의 문화복지에 미친 파급효과에 대한 질문에 총 211
명의 응답자 중 73명이 ‘보통이다’라고 답한 것을 볼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많은 답
변을 보인 것은 ‘문화복지에 기여를 하였다’로 응답자는 70명이었고, 42명은 ‘문화
복지에 기여가 없었다’라고 답하였다. 이외에 ‘문화복지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19명, ‘문화복지에 전혀 기여가 없었다’는 7명으로 5위를 차지하였다.

3. 우리나라 박물관의 관람료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국립		공립		사립	
내용	응답수	내용	응답수	내용	응답수
① 매우 비싼편이다	5(2)	① 매우 비싼편이다	5(0)	① 매우 비싼편이다	5(2)
② 비싼편이다	4(13)	② 비싼편이다	4(13)	② 비싼편이다	3(44)
③ 보통이다	1(77)	③ 보통이다	2(70)	③ 보통이다	1(85)
④ 싼편이다	2(75)	④ 싼편이다	1(76)	④ 싼편이다	2(65)
⑤ 매우 싼편이다	3(43)	⑤ 매우 싼편이다	3(47)	⑤ 매우 싼편이다	4(14)

※ 현재 우리나라의 물가, 타 입장료, 해외박물관 등과 비교

-국립박물관 2008년 5월 1일 이전 관람료(성인 기준 : 중앙박물관 2,000원, 지방박물관 1,000원)

※ 총 212명 응답(1개관만 표기 : 4명, 2개관만 표기 : 2명)

우리나라 박물관의 관람료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립박물관의 관람료 수준이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77명으로 1위를 차지하였고, 그 뒤를 이어서 ‘싼편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75명으로 2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공립박물관·미술관의 관람료 수준을 ‘싼편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76명으로 나타났고,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70명, ‘매우 싼편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47명으로 나타났다.

사립박물관·미술관의 관람료 수준에서는 85명의 응답자가 ‘보통이다’라고 답해주어 1위를 차지했고, 65명은 ‘싼편이다’라고 응답했으며, 44명은 ‘비싼편이다’라고 응답하여 3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14명의 응답자가 ‘매우 싼편이다’라고 응답했으며, 2명의 응답자가 ‘매우 비싼편이다’라고 응답하여 5위를 차지한 것을 볼 수 있다.

○ 사립박물관과 미술관의 영향

4. 국립박물관 무료관람이 사립박물관과 미술관의 진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십니까?

문항	응답수
① 매우 도움이 되었다	5(3)
② 어느정도 도움이 되었다	4(26)
③ 변화가 없다	2(43)
④ 부정적인 면이 많다	1(106)
⑤ 매우 부정적이다	3(29)

※ 총 207명 응답

국립박물관 무료관람이 사립박물관과 미술관의 진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는가하는 질문에는 총 207명 응답 중에서 106명의 대부분의 응답자가 ‘부정적인 면이 많다’라고 답변해주어 1위를 차지한 것을 볼 수 있다.

‘변화가 없다’라고 답변한 응답자는 43명으로 2위, ‘매우 부정적이다’라고 답변한 응답자가 29명으로 3위, ‘매우 도움이 되었다’라고 답변한 응답자가 3명으로 5위를 차지하였다.

◎ 주관식 답변 요약

경영악화 초래

- 사립미술관의 재정악화 및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것

관련종사자들의 감소

- 국립박물관 무료화를 유지할 경우 사립박물관들은 경영에 심대한 지장을 받게 되고 결과적으로 학예사를 비롯 대부분의 종사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될 것

사립박물관을 부정적으로 인식할 것

- 국립박물관의 무료관람은 관람객들에게 사립박물관 영리를 우선한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것
- 국가 전체의 모든 박물관에 대해 무료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을 것

타 예술문화에 비해 이미지 하락 우려

- 현재의 낮은 의식수준에서 무료관람 시행은 미술문화가 기타 공연예술에 비해 값싼 문화로 인식될 소지가 큼

국립박물관과 사립박물관의 수익구조차에 대한 이해 부족

- 국가지원이 전무한 사립박물관의 경우 입장수입도 중요한데, 관람객들은 이러한 실정을 전혀 모름

관객들의 불만증대

- 국립박물관 무료화 이루 입장료를 받는 사립박물관에 관람객들이 분만을 표출
- 관람료 징수에 따른 실갱이가 잦아짐

국립박물관 무료화에 따른 심리적 압박감이 증가

사립박물관에 대한 정부지원확대 기대

- 무료화 이전에 예산자립도가 낮은 사립박물관의 지원제도가 뒷받침돼야 함
- 국립박물관 무료화와 더불어 사립박물관 역시 무료화가 가능하도록 지원해야함
- 국립박물관 무료화가 아닌 국립/사립박물관의 특성화를 위한 지원이 선행돼야 함
- 일시적이고 행정적인 지원이 아닌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

- 긍정적 의견

미술저변의 확대

- 사회전반의 관심을 넓혀 미술관람의 전반적인 참여도가 늘 것

각 사립박물관의 전문성 증대

- 국립박물관 무료화에 따라 사립박물관은 특성화를 피할 수밖에 없게 되면서 각 관의 전문성이 증대될 것
- 국립박물관과 사립박물관의 성격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무료화와 관계없이 사립박물관에 대한 꾸준한 수요는 있을 것
- 국립박물관의 무료관람은 사립박물관의 관람료 인하를 불러올 것이며 장기적으로 보면 관람객이 증가할 것
- 당장은 찬반이 맞서지만 장기적으로는 진행돼야 하는 사업임

- 의견보류 : 차이 없다

- 무료관이거나 무료화 이후에도 변화가 없다.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
- 무료화 등 관람료 보다 교통편과 같은 접근성의 이유가 관람객유치에 더 영향이 크다

5. 국립박물관 무료관람이 사립박물관과 미술관에 영향을 미쳤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입니까?

항목	답변(우선 순서대로 번호기입 요망)	응답 점수
① 무료화로 사립관들이 갑자기 상대적으로 비싼 느낌을 줌	1	1,031
② 사립관도 무료로 해야 한다는 심리적인 압박	2	816
③ 단체관람객들이 무료인 국립을 선호하여 관람객 감소	3	758
④ 국립이 아무리 무료라 하여도 사립의 특성을 살리면 경쟁력이 있음	4	524
⑤ 관람객들이 사립관의 어려움을 어느정도 이해하여 큰 영향이 없었음	6	323
⑥ 관람객들이 직접비교를 하지않아 큰 영향이 없었음	5	339

※ 총 203명 응답(2위까지 표기 : 15명, 3위까지 표기 : 27, 4위까지 체크 : 4명)

※ 응답점수는 1순위는 5점, 2순위는 4점, 3순위는 3점, 4순위는 2점, 5순위는 1점으로 계산하여 총 응답수를 합산한 것임.

국립박물관 무료관람이 사립박물관·미술관에 영향을 미쳤다면 어떠한 부분인가에 대한 질문에 ‘무료화로 사립관들이 갑자기 상대적으로 비싼 느낌을 준다’는 의견이 1,031점을 얻어 1위를 차지하였고, ‘사립관도 무료로 해야 한다는 심리적인 압박’이 816점을 얻어 2위, 그 뒤를 이어 ‘단체관람객들이 무료인 국립을 선호하여 관람객 감소’가 758점으로 3위를 차지하였다.

6. 만일 향후 지속적으로 국립박물관 무료관람이 실시된다면 사립박물관과 미술관에는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문항	응답수
①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11)
②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2(94)
③ 영향이 없을 것이다	3(5)
④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다	4(0)

※ 총 210명 응답

만일 향후 지속적으로 국립박물관 무료관람이 실시된다면 사립박물관과 미술관에는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겠는가라는 질문에 총 210명 중에서 111명이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답해주었다. 그 뒤를 이어서 94명이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답하여 2위를 차지하였다. 반면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답변한 응답자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향후 제도

7. 국립박물관의 무료관람에 대한 입장을 한쪽만 골라 번호를 기입해주십시오.

국립박물관 무료화 찬성입장

항목	답변(우선 순서대로 번호기입 요망)	응답점수
① 기본권리로 분류하여 ‘동등한 문화향유’ ‘기회균등’ 원칙이 실현	1	117
② 새로운 관람객을 개발해가는 데 기여	2	109
③ 반복관람을 할 수 있다는 장점	3	90
④ 아트숍, 식당, 카페, 도록 등 판매량 증가	4	64
⑤ 특별전은 유료이므로 특별전 관람객 유입 증가	5	60

※ 총 29명 응답

※ 응답점수는 1순위는 5점, 2순위는 4점, 3순위는 3점, 4순위는 2점, 5순위는 1점으로 계산하여 총 응답수를 합산한 것임.

국립박물관 관람료 무료화 반대입장

항목	답변(우선 순서대로)	응답점수
----	----------------	------

	번호기입 요망)	
① 현재 우리나라 국립박물관 관람료(성인 기준 : 중앙박물관 2,000원, 지방박물관 1,000원), 할인, 무료제도만으로도 ‘동등한 문화향유’ ‘기회균등’ 원칙은 어느정도 실현되었음	4	350
② 무료화되면 ‘수익자 부담’ 원칙을 벗어나 관람을 하지 않은 국민도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	3	395
③ 문화예술에 대한 가치를 가볍게 여기고 관람예절 등 관람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2	485
④ 유물이나 작품의 안전문제 역시 불안한 면이 있음	5	335
⑤ 국립관, 사립관, 대학관, 특히 관람료가 높고 예산자립도가 열악한 사립관의 관람객을 저하시키는 등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	1	538

※ 총 137명 응답

※ 응답점수는 1순위는 5점, 2순위는 4점, 3순위는 3점, 4순위는 2점, 5순위는 1점으로 계산하여 총 응답수를 합산한 것임.

국립박물관의 무료관람에 대한 사립박물관·미술관 직원들의 입장을 살펴보면, 국립박물관 무료화 찬성입장은 총 29명이고, 반대입장은 총 137명인 것을 볼 수 있다.

찬성입장 중에서는 ‘기본권리로 분류하여 동등한 문화향유, 기회균등 원칙이 실현’이라고 답한 점수가 117점으로 1위를 차지하였고, ‘새로운 관람객을 개발하는데 기여’가 2위, ‘반복관람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3위, ‘아트숍, 식당, 카페, 도록 등 판매량 증가’가 4위, 그 뒤를 이어 ‘특별전은 유료이므로 특별전 관람객 유입 증가’가 5위를 차지하였다.

반면, 반대입장에서는 ‘국립관, 사립관, 대학관, 특히 관람료가 높고 예산자립도가 열악한 사립관의 관람객을 저하시키는 등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어 1위를 차지하였고, ‘문화예술에 대한 가치를 가볍게 여기고 관람예절 등 관람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2위, ‘무료화되면 수익자 부담원칙을 벗어나 관람을 하지 않은 국민도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 3위, ‘현재 우리나라 국립박물관 관람료, 할인, 무료제도만으로도 동등한 문화향유, 기회균등’ 원칙은 어느정도 실현되었음’이 4위, ‘유물이나 작품의 안전문제 역시 불안한 면이 있음’이 5위를 차지한 것을 볼 수 있다.

8. 국립박물관의 무료관람은 12월까지 시행됩니다. 2009년부터 시행될 경우 유료와 무료화제도를 비교하여 어느쪽이 타당합니까?

문항	응답수
① 계속 무료화를 희망한다	4(17)
② 한동안 연장 실시 후 다시 결정되었으면 한다	3(37)
③ 12월로 종료하고 다시 원래의 유료제도를 적용해야만 한다	1(101)
④ 상황에 따라 일부관은 유료로 환원하고 열악한 곳은 무료화가 적절하다	2(52)

※ 총 207명 응답

◎ 주관식 답변 요약

국립박물관 무료화 반대

· 사립박물관의 경영구조를 감안할 때 소액을 받더라도 국립박물관을 유료화 해야 할 것(12명)

문화소외층을 직접 지원

· 무료화보다 문화소외층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찬성(5명)

정책적 지원을 뒤따라야

· 국립박물관 무료화를 위해서는 재정지원을 비롯해 사립박물관에 여러 정책적인 지원이 먼저 뒷받침 돼야 할 것(15명)

관람수준의 문제

· 국립박물관의 무료화를 받아들인 만큼 의식수준이 성숙하지 못했다. 또한 무료화가 여타 예술문화와 비교해 인식이 낮아질 것(12명)

줄속행정비판

· 사전 준비 없이 전시행정으로 이루어진 국립박물관 무료화에 대한 정책비판(10명)

미술저변의 확대

· 국립박물관의 무료화는 복지증대 및 미술계 전반의 저변을 확대시킬 것(5명)

판단유보

· 일정기간을 두고 나타난 결과물을 살펴보고 추후에 진행여부를 판단(5명)

4) 중복설문 내용분석

직원 설문 국립·공립·사립대상 중복 질문 문항

국립박물관 무료화가 국민들의 문화복지에 미친 파급효과는?

문항	국립직원	공립직원	사립직원	계
① 문화복지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3(40)	3(7)	4(19)	3(66)
② 문화복지에 기여를 하였다	1(89)	2(17)	2(70)	1(176)
③ 보통이다	2(61)	1(18)	1(73)	2(152)
④ 문화복지에 기여가 없었다	4(5)	3(7)	3(42)	4(54)
⑤ 문화복지에 전혀 기여가 없었다	5(4)	5(1)	5(7)	5(12)

※ 국립직원 : 총 199명 응답, 공립직원 : 총 50명 응답, 사립직원 : 총 211명 응답

위의 도표는 국립박물관의 무료화가 국민들의 문화복지에 미친 파급효과에 관해 질문한 것이며, 국립박물관 직원 총 199명과 공립박물관·미술관 직원 총 50명, 사립박물관·미술관 직원 총 211명이 답해주었다.

모든 관들의 답변을 통합한 결과는 ‘문화복지에 기여를 하였다’라는 것이 가장 많았다. 이 후 16표의 근소한 차이로 ‘보통이다’라는 답변이 그 뒤를 이었고, ‘문화복지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라는 답변이 3위, ‘문화복지에 기여가 없었다’라는 답변이 4위, 그리고 ‘문화복지에 전혀 기여가 없었다’라는 답변이 5위를 차지하였다.

각 관별 답변의 순위는 조금씩 달랐는데, 국립박물관 직원의 경우 ‘문화복지에 기여를 하였다’라는 답변이 1위인 반면, 공립박물관·미술관 직원과 사립박물관·미술관 직원은 ‘보통이다’라는 답변이 1위를 차지하였다.

국립박물관 무료화가 국민들의 문화복지에 미친 파급효과는?

-관람객 대상

문항	중앙박물관	경주박물관	광주박물관	계
① 문화복지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2(291)	1(66)	2(87)	2(444)
② 문화복지에 기여를 하였다	1(334)	2(65)	1(109)	1(508)
③ 보통이다	3(96)	3(30)	3(37)	3(163)
④ 문화복지에 기여가 없었다	5(8)	4(6)	4(1)	4(13)
⑤ 문화복지에 전혀 기여가 없었다	4(11)	5(2)	5(0)	4(13)

※ 국립중앙박물관 관람객 : 총 740명 응답, 국립경주박물관 관람객 : 총 169명 응답, 국립광주박물관 관람객 : 총 234명 응답

또한 국립박물관을 찾는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국립박물관의 무료화가 국민들의 문화복지에 미친 파급효과에 관하여 질문한 결과, ‘문화복지에 기여를 하였다’라는 답변이 508표로 가장 많은 표를 얻었고, 뒤를 이어 ‘문화복지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라는 답변이 2위, ‘보통이다’라는 답변이 3위, ‘문화복지에 기여가 없었다’와 ‘문화복지에 전혀 기여가 없었다’의 두 문항이 각각 13표를 얻어 4위를 차지하였다.

각 관을 방문한 관람객들의 답변결과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광주박물관을 방문한 관람객들은 ‘문화복지에 기여를 하였다’에 각각 334표와 109표를 주어 1위를 차지하였다. 국립경주박물관의 경우는 ‘문화복지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라는 답변이 66표를 기록해 1위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1표 차이로 ‘문화복지에 기여를 하였다’가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박물관의 관람료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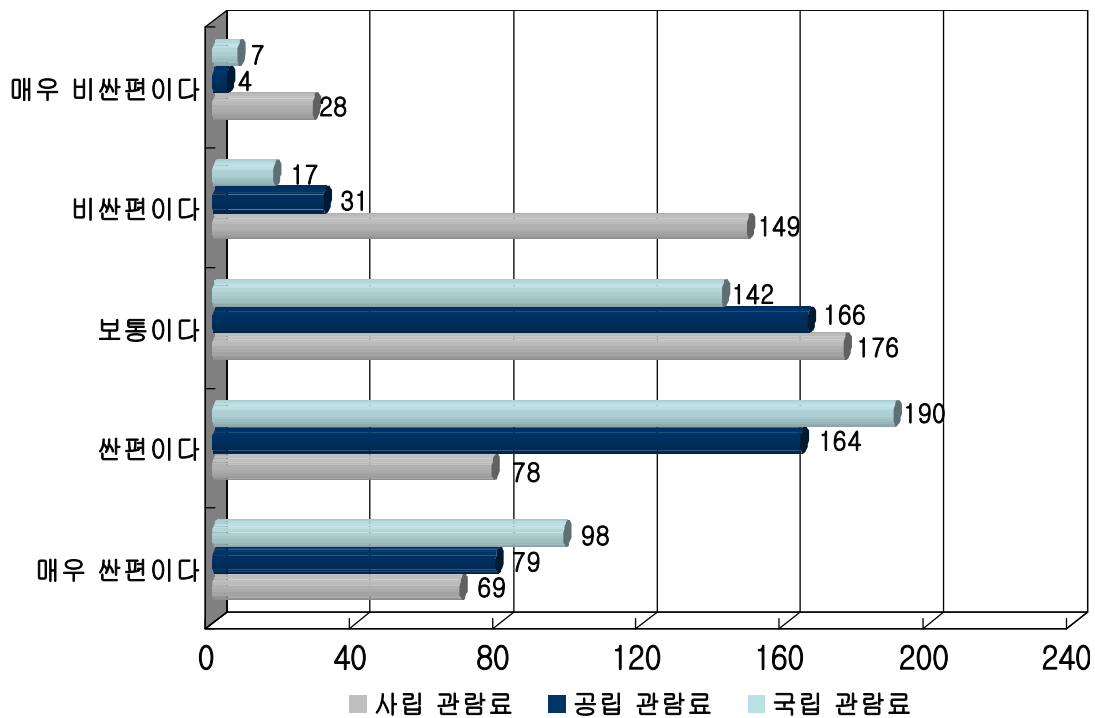
내용	국립직원	공립직원	사립직원	계
국립박물관 관람료				
① 매우 비싼편이다	4(4)	4(1)	5(2)	5(7)
② 비싼편이다	5(3)	4(1)	4(13)	4(17)
③ 보통이다	2(45)	1(20)	1(77)	2(142)
④ 싸편이다	1(100)	2(15)	2(75)	1(190)
⑤ 매우 싸편이다	3(42)	3(13)	3(43)	3(98)
공립박물관·미술관 관람료				
① 매우 비싼편이다	5(4)	5(0)	5(0)	5(4)
② 비싼편이다	3(17)	4(1)	4(13)	4(31)
③ 보통이다	1(85)	3(11)	2(70)	1(166)
④ 싸편이다	2(65)	1(23)	1(76)	2(164)
⑤ 매우 싸편이다	3(17)	2(15)	3(47)	3(79)
사립박물관·미술관 관람료				
① 매우 비싼편이다	4(23)	4(3)	5(2)	5(28)
② 비싼편이다	1(86)	1(19)	3(44)	2(149)
③ 보통이다	2(73)	2(18)	1(85)	1(176)
④ 싸편이다	5(5)	3(8)	2(65)	3(78)
⑤ 매우 싸편이다	3(53)	5(2)	4(14)	4(69)

※ 국립직원 : 총 195명 응답(국립관만표기 : 5명, 사립관만표기 : 1명, 국립·공립표기 : 1명, 국립·사립표기 : 1명), 공립직원 : 총 50명 응답, 사립직원 : 총 212명 응답(1개 체크 : 4명, 2개 체크 : 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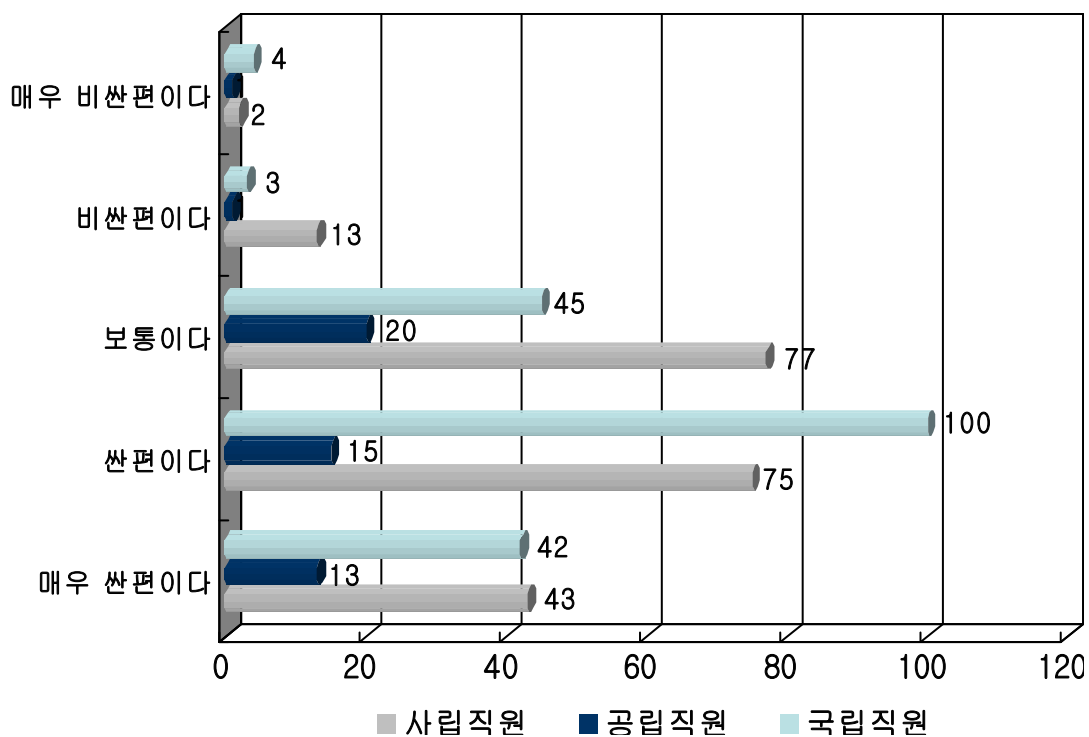
‘우리나라 박물관의 관람료 수준은 어느정도 였습니까?’라는 질문에는 국립박물관 직원 총 195명, 공립박물관·미술관 직원 총 50명, 사립 박물관·미술관 직원 총 212명이 답하였다.

국립박물관의 관람료는 ‘싸편이다’라는 답변에 모두 100명이 답해 가장 많았고, 공립박물관·미술관의 관람료의 경우 ‘보통이다’라는 답변이 1위를 차지하였으며, 사립박물관·미술관의 관람료 역시 ‘보통이다’라는 답변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공립·사립 박물관·미술관의 관람료 수준



국립박물관 관람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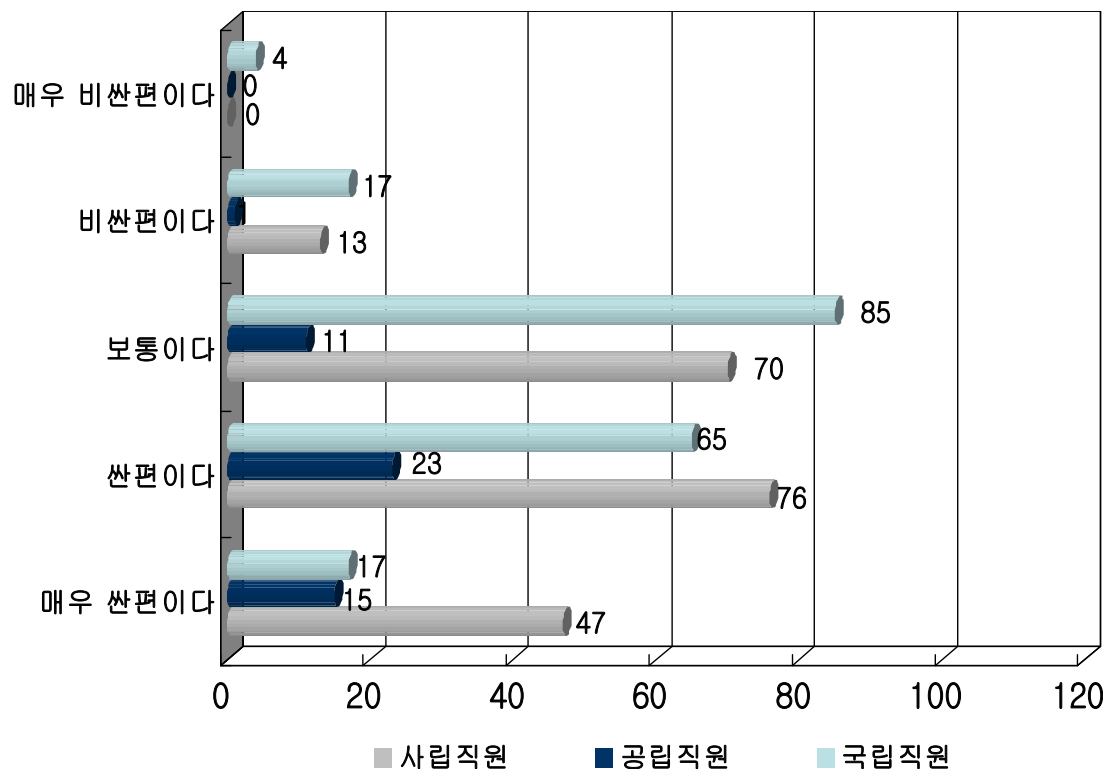


국립박물관의 관람료에 관한 질문에서는 ‘싼편이다’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는데, 이것은 국립박물관 직원의 답변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공립박물관·미술관 및 사립박물관·미술관 직원의 경우 ‘보통이다’라는 답변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싼편이다’라는 답변이 2위를 차지하였다.

그 뒤를 이어서 ‘매우 싼편이다’라는 답변이 3위를 차지하였고, ‘비싼 편이다’라는 답변이 4위를 차지하고 있다. ‘매우 비싼 편이다’라는 답변은 7표라는 적은 수로 가장 낮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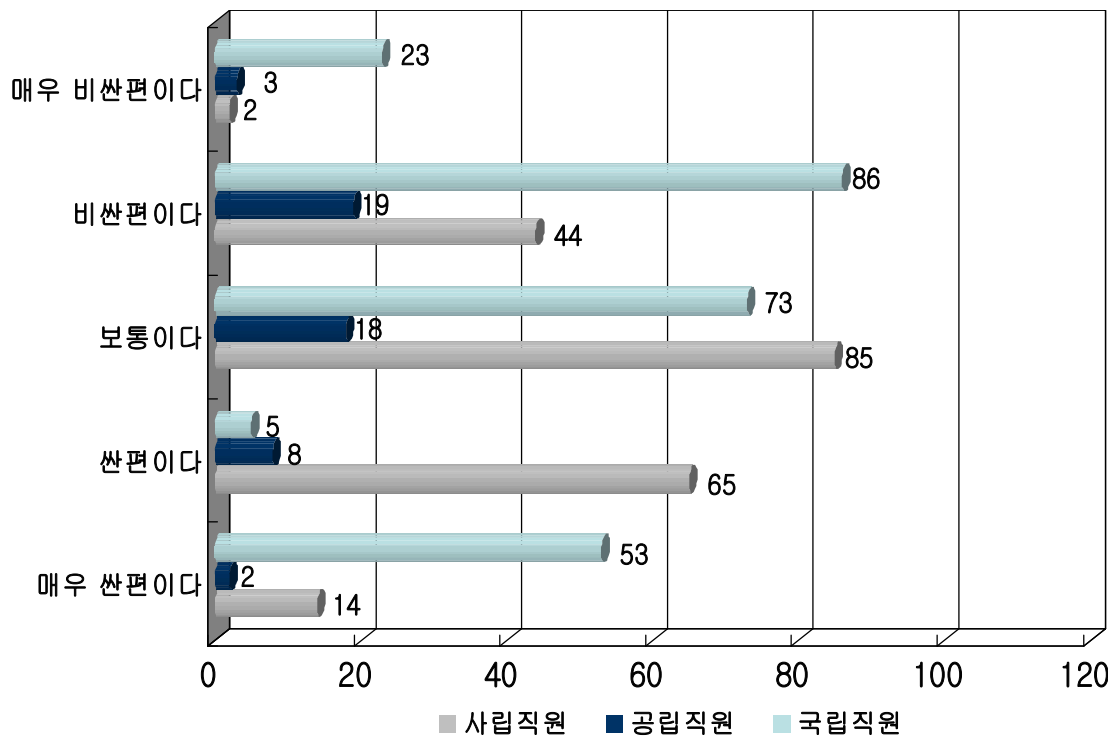
국립박물관·미술관 관람료



국립박물관·미술관의 관람료에 관한 질문에서 국립박물관 직원들은 ‘보통이다’에 85명이 답변해 주었다. 그러나 공립박물관·미술관 직원의 경우 오히려 ‘보통이다’라는 답변보다는 ‘싼편이다’라는 답변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사립박물관·미술관 직원들은 ‘싼편이다’라고 답변해주었으며, ‘보통이다’가 그 뒤를 이었다. 그리고 ‘매우 비싼편이다’라는 답변의 경우, 국립박물관 직원 중 4명이 답변해 주었지만, 공립 및 사립박물관·미술관의 직원들은 0표를 주었다.

사립박물관·미술관 관람료



사립박물관·미술관의 관람료에 관한 질문에서 국립박물관의 직원 86명은 ‘비싼편이다’라고 답변해주었지만, 사립박물관·미술관의 직원들의 85명은 ‘보통이다’라고 답변해 주었다. 반면에 국립박물관 직원들은 ‘싼편이다’라는 답변에 가장 적은 수로 응답해주었고, 사립박물관·미술관 직원 중 가장 적은 수가 ‘매우 비싼편이다’라고 답변해주어 입장 차이를 보여주었다.

국립박물관의 무료관람에 대한 입장을 한쪽만 골라 번호를 기입해주시요.

국립박물관 무료화 찬성입장

항목	국립직원	공립직원	사립직원
① 기본권리로 분류하여 ‘동등한 문화향유’ ‘기회균등’ 원칙이 실현	1(263)	1(77)	1(117)
② 새로운 관람객을 개발해가는 데 기여	2(214)	2(51)	2(109)
③ 반복관람을 할 수 있다는 장점	3(200)	3(49)	3(90)
④ 뮤지엄숍, 식당, 카페, 도록 등 판매량 증가	4(124)	4(29)	4(64)
⑤ 특별전은 유료이므로 특별전 관람객 유입 증가	5(88)	5(18)	5(60)

※ 응답점수는 1순위는 5점, 2순위는 4점, 3순위는 3점, 4순위는 2점, 5순위는 1점으로 계산하여, 총 응답 수를 합산한 점수임.

※ 국립직원 : 총 60명 응답(2위까지 표기 : 1명), 공립직원 : 총 14명 응답, 사립직원 : 총 29명 응답

국립박물관의 무료화에 찬성한 직원은 총 103명이며, 무료화에 반대하는 직원은 총 259명이었다.

찬성 이유로는 ‘기본권리로 분류하여, 동등한 문화향유, 기회균등원칙이 실현’이라 이유가 가장 많았고, ‘새로운 관람객을 개발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이 2위를 차지하였다. ‘반복관람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3위를 차지하였으며, ‘뮤지엄숍, 식당, 카페, 도록 등 판매량 증가’가 4위를 차지하였다. ‘특별전은 유료이므로, 특별전 관람객 유입 증가’는 가장 적은 점수를 얻어 5위를 차지하였다.

국립박물관 관람료 무료화 반대입장

항목	국립직원	공립직원	사립직원
① 현재 우리나라 국립박물관 관람료(성인 기준 : 중앙박물관 2,000원, 지방박물관 1,000원), 할인, 무료제도만으로도 ‘동등한 문화향유’ ‘기회균등’ 원칙은 어느정도 실현되었음	2(326)	2(88)	4(350)
② 무료화되면 ‘수익자 부담’ 원칙을 벗어나 관람을 하지 않은 국민도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	4(259)	3(72)	3(395)
③ 문화예술에 대한 가치를 가볍게 여기고 관람예절 등 관람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1(349)	1(90)	2(485)
④ 유물이나 작품의 안전문제 역시 불안한 면이 있음	3(260)	5(59)	5(335)
⑤ 공립관, 사립관, 대학관, 특히 관람료가 높고 예산자립도가 열악한 사립관의 관람객을 저하시키는 등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	5(257)	4(65)	1(538)

※ 응답점수는 1순위는 5점, 2순위는 4점, 3순위는 3점, 4순위는 2점, 5순위는 1점으로 계산하여, 총 응답 수를 합산한 점수임.

※ 국립직원 : 총 97명 응답(3위까지 표기 : 1명), 공립직원 : 총 25명 응답(2위까지 표기 : 1명, 3위까지 표기 : 1명), 사립직원 : 총 137명 응답

반대이유로는 국립박물관과 공립박물관·미술관 직원의 경우 ‘문화예술에 대한 가치를 가볍게 여기고, 관람예절 등 관람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라는 이유가 가장 많았고, 사립박물관·미술관 직원은 ‘공립관, 사립관, 대학관, 특히 관람료가 높고 예산자립도가 열악한 사립관의 관람객을 저하시키는 등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이라는 이유가 가장 많았다.

국립박물관과 공립박물관·미술관 직원은 ‘현재 우리나라 국립박물관 관람료, 할인, 무료제도만으로도 동등한 문화향유, 기회균등의 원칙은 어느 정도 실현되었음’이라는 이유가 2위를 차지하였고, 사립박물관·미술관 직원은 ‘문화예술에 대한 가치를 가볍게 여기고 관람예절 등 관람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라는 이유가 2위를 차지하여, 관들 사이에 어느정도의 입장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립박물관의 무료관람은 12월까지 시행됩니다. 2009년부터 시행될 경우 유료와 무료화제도를 비교하여 어느쪽이 타당한지에 대한 설문입니다.

문항	국립직 원	공립직 원	사립직 원	계
① 계속 무료화를 희망한다	2(48)	3(11)	4(17)	4(76)
② 한동안 연장 실시 후 다시 결정되었으면 한다	3(33)	2(12)	3(37)	3(82)
③ 12월로 종료하고 다시 원래의 유료제도를 적용해야만 한다	1(84)	1(20)	1(101)	1(205)
④ 상황에 따라 일부관은 유료로 환원하고 열악한 곳은 무료화가 적절	4(31)	4(6)	2(52)	2(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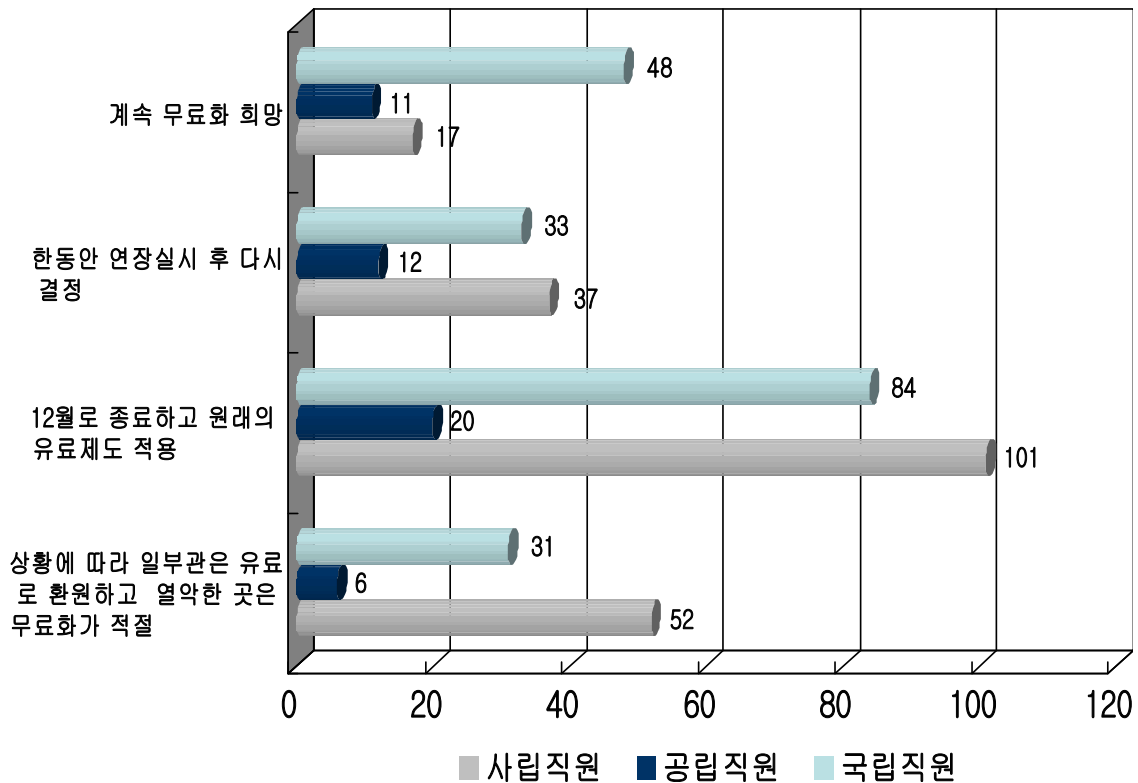
※ 국립직원 : 총 196명 응답, 공립직원 : 총 49명 응답, 사립직원 : 총 207명 응답

무료관람 시범 실시 이후 유료와 무료화제도를 비교하여 어느 쪽이 더 타당한지에 대한 설문에서는, 12월로 종료하고 다시 원래의 유료제도를 적용해야만 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는, 국립박물관, 공립박물관·미술관, 사립박물관·미술관 직원 모두 가장 많은 수가 답한 것이다.

‘상황에 따라 일부관은 유료로 환원하고 열악한 곳은 무료화가 적절’하다는 답변이 모든 관을 합산한 것에서 2위를 차지하였는데, 이 중 사립박물관·미술관 직원의 답변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국립박물관 직원만의 경우 오히려 ‘계속 무료화를 희망한다’라는 답변이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립박물관·미술관의 경우 이 질문에 가장 적은 수가 답해 4위를 차지하고 있다.

유료와 무료화제도를 비교하여 어느쪽이 타당한지에 대한 설문



3. 현장 심층인터뷰 결과

심층조사대상관 및 기구	의견
국립경주박물관 국립대구박물관 국립김해박물관 국립진주박물관 국립부여박물관 국립공주박물관 국립청주박물관 국립전주박물관 국립광주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	● 국공립, 대학관 의견 유료화 15관 무료화 2관 연장 실시 1관 관별 사정에 따라 결정 2관 ● 주요의견 - 세계적인 수준으로 보나 진정한 관람문화를 위해서는 유료화를 실시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사실상 인상을 하는 것도 바람직 - 좀 더 오랫동안 시도해 본 후 신중을 기하여 결정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판단됨 - 진주성 입장료 1,000원(진주시민 500원) 이중 부담으로 진주박물관은 무료화 절실히 요구됨

경남박물관협의회 경북박물관협의회 제주박물관협의회 충북박물관협의회 경기도박물관협의회 청주고인쇄박물관 대전시립미술관 이용노미술관 선사박물관 전북도립미술관 경남도립미술관 광주시립미술관 광주시립민속박물관 대구대학교 박물관 경희대학교 혜정박물관	- 무료화 이후 관람객 급속히 증가하는 원인은 바로 성의 입장료와 이중부담을 제거했기 때문 - 열악한 여건에서 무료화 찬성하며, 관별 사항을 고려한 제도화 필요 - 문화재단으로 전국관을 네트워크하여 뮤지엄숍 등을 운영하는 안에 거의 전체 찬성 - 응당 관람료 지불 순리 - 관람객이 적은 곳에서는 무료화 고려필요 - 여행사들을 통해 무료화 관람을 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무료화 긍정적 반응 - 세심한 관람보다는 대충 보는 관람객 증가, 시간 단축됨 - 전주시의 70만 인구나 환경에서 관람객 유치에 매우 어려움이 있음 - 전주 특히 축제가 많은 도시라는 점에서 관람객들의 분산 효과 요인이 됨 - 무료 시에도 현재시설로 가능한 수준이나 CCTV 인력이 1-2명 정도 추가 필요 - 제주도의 특별한 지역적 여건으로 타관들의 비싼 관람료 대신 국박은 무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대두되었음 - 건물설계 시 적정인원에 대한 계산으로 설립 - 2-3명의 인건비도 못 미치는 예가 많으나 긍정적 - 절대 유료필요. 운영보다는 경영차원에서도 요구됨 - 조례상으로는 유료, 한정적으로 무료하고 있음 - 유료화 해야만 가치인식 - 경남협의회 차원에서도 논의한 바 있으나 유료화로서 관람객들의 관람문화를 재인식하는 입장을 견지 - 교육차원에서도 유료화 중요 - 금액보다는 심리적 의미에 무게를 두고 유료화 필요 - 시당국에서도 논의되었으나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과 자세의 문제라는 표현이 있었음. - 무료화 이후 국립으로 학생들이 가버려 입장객 줄어들었음 - 광주의 경우 가까이 위치한 광주국박의 거리상 충분히 가능함 - 무료화 한다고 더 많이 올 것인가? 아니다. 수혜자 부담원칙을 고수해야 - 무료 세계적인 추세와도 역행 - 중박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 무료화해도 좋을 듯 하다 - 관람태도에 영향 미칠 것 - 유료화 하되 단 고등학교까지는 무료화해야 - 사립박물관들의 어려움을 보완하는 의미로 공립관 공간 활용 필요
--	--

V. 국립박물관 관람료 무료화 성과 및 향후 실시방안

1. 관람료 무료화의 성과와 문제점

1) 관람료 무료화의 주요성과

(1) 정성적인 성과

2008년 5월 이후 실시된 국립박물관 무료화에 대한 성과는 사업이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정성, 정량적인 성과로 나누어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정성적인 성과로는 심층인터뷰 등을 동시에 실시한 박물관 전문가들이나 관람객 등의 설문을 통해 일차적인 판단이 가능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박물관의 정체성과 철학에 대한 논의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며, 국민복지제도나 문화향수권 신장에 대한 정부의 장단기 비전까지 논의되는 다소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다.

즉 무료화의 정당성과 그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국립박물관, 대학박물관, 사립박물관 등의 성격에 따라 박물관 전문가나 운영자들로서도 많은 시각의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보다 심층적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약 3개월간 전국의 다양한 성격의 박물관을 순회하면서 박물관 관장, 학예직, 사무직, 관련 전문가와 학자 등 100여명과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1,000명이 넘는 관람객 설문 역시 여러분포의 연령층과 지역분산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이번 무료관람 시범실시는 ‘국민문화복지’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였다고 보는 견해가 압도적이었다.

우선 국립박물관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 국립광주박물관에서의 1,137명의 응답에서 ‘문화복지에 기여를 하였다’에 508명이 응답하여 1위를 기록하였고, 2위 ‘문화복지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에는 444명이 응답하였다.

국립박물관 무료화가 국민들의 문화복지에 미친 파급효과는? -관람객 대상설문

문항	중앙박물관	경주박물관	광주박물관	계
① 문화복지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2(291)	1(66)	2(87)	2(444)
② 문화복지에 기여를 하였다	1(334)	2(65)	1(109)	1(508)
③ 보통이다	3(96)	3(30)	3(37)	3(163)
④ 문화복지에 기여가 없었다	5(8)	4(6)	4(1)	4(15)
⑤ 문화복지에 전혀 기여가 없었다	4(11)	5(2)	5(0)	5(13)

한편 국립, 공립, 사립 등 각 박물관의 직원설문에 나타난 결과로는 역시 위와 같은 순위이다. 특히 이 항목에서 국립박물관의 직원들 역시 89명이 ‘문화복지에 기여를 하였다’에 응답하여 40명에 머무른 2위 ‘문화복지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에는 거의 배 이상을 앞서고 있다.

국립박물관 무료화가 국민들의 문화복지에 미친 파급효과는? -박물관 직원대상 설문

문항	국립직원	공립직원	사립직원	계
① 문화복지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3(40)	3(7)	4(19)	3(66)
② 문화복지에 기여를 하였다	1(89)	2(17)	2(70)	1(176)
③ 보통이다	2(61)	1(18)	1(73)	2(152)
④ 문화복지에 기여가 없었다	4(5)	3(7)	3(42)	4(54)
⑤ 문화복지에 전혀 기여가 없었다	5(4)	5(1)	5(7)	5(12)

이러한 결과 이외에도 자문단회의, 현지 심층인터뷰, 전문가 개별적인 의견 등 대체적인 평가에서도 ‘문화복지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에 더 많은 무게를 실었다. 이로써 이번 무료화 시범실시는 어느 정도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되었다.

이번 사업의 긍정적인 평가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상당한 수준의 관람객 증가는 곧 국민들이 박물관에 대한 관심이 적지않음을 나타내는 증거이다. 문화기반시설로서 무료화되어야 한다.
- 무료화 이후 가장 염려했던 관람객 예절이 크게 문제가 없었던 점은 매우 중요한 진전이다.
- 비교적 열악한 관들에는 보다 많은 관람객들이 찾을 수 있어 교육프로그램 등 한걸음 더 다가선 문화정책으로 많은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한편 이번 시범실시는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전 준비가 부족했다는 평을 받았다. 이번 주관식 설문결과와 함께 몇 가지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무료화의 당위성은 정치적인 결정이 아니라, 전문가와 박물관 구성원들의 의지에 의하여 신중히 결정했어야하나 너무 다급하게 결정되고 시행되었다.
- 홍보가 부족하고 무료화의 배경을 많이 이해하지 못하여 실제 무료로 관람하고도 그 의미를 뚜렷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 우리나라는 대가를 지불하는 관람제도 즉 ‘수익자 부담’제도가 적합하다. 무료화 시범실시의 파장은 공·사립박물관 등에 영향을 미치면서 박물관전체의 관람료 부분과 운영체계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파장은 상대적으로 관람객저하와 무료화요구로 인하여 상당한 반발 심리를 불러일으켰다.
- 국·공립관들의 무료화 반대는 예산상의 수익 보다는 관람의식, 문화재, 예술품을 생각하는 가치의식의 고양, 관람태도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문화재관람을 숫자로만 보려는 전시편의주의적 생각도 잘못되었고, 질적인 수준향상이 중요하다.

특히 홍보부족에 대하여는 관람객들의 설문결과에서도 나타난다. 응답분석에서는 시범실시의 사실을 모르고 박물관을 찾았다는 대답이 708명으로 알았다는 응답 428명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한 알았다면 어떠한 경로였는가에 대한 설문에서는 박물관 홈페이지나 친구, 지인을 통해서 알았다는 응답이 절대적으로 많아 신문이나 방송 등 홍보가 크게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더군다나 왜 무료화를 실시하는지에 대한 배경이나 이유를 모르고 있었다는 응답이 425명으로 115명이 알았다는 응답을 한 것과는 많은 차이를 보였다.

이상과 같은 평가들은 영국과 프랑스, 중국 등이 실시한 사례에서 상당한 준비과정이 필요하며, 성공적인 제도실시를 위하여 입체적인 환경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중 프랑스는 사실 2007년 사르코지 대통령(Nicolas Paul Stephane Sarkozy)이 대통령 선거에 나오면서 국립박물관 무료관람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했으며, 대통령에 선출되자마자 바로 시행하도록 추진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많은 부분에서 비슷한 점이 있다. 그러나 프랑스는 대형박물관 대부분이 제외되고 규모가 작은 소형박물관과 지방박물관 14개관이 참여하는 정도로 매우 제한적인 개방을 한 사례는 그만큼 신중을 기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이점은 영국 또한 매우 신중한 시행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이미 외국부분의 연구에서 언급하였다. 즉 문화·미디어·스포츠부(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DCMS)가 지원하는 뮤지엄의 무료관람제도는 1999년 4월 어린이들에게, 2000년 4월에는 6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그리고 2001년 12월에는 이를 전면적으로 확대 적용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점들은 우리나라의 무료화제도에서 다소 세밀하지 못했던 부분과 비교되어진다.

한편 정성적 성과부분에서 다루어져야 할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무료화가 박물관의 진흥과 운영을 지나치게 정량적인 면으로만 평가하고 있는 요소가 있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도출되었다. 이점에 있어서 역사나 규모를 감안하여 관람객 수치를 비교해 본다면 이미 우리나라의 국립중앙박물관 관람객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아래는 주요 국가들의 관람객 숫자이다.

세계 주요 박물관과 국립중앙박물관 관람객 비교

국가	박물관 명	조사년도	연간 관람객수(명)
영국	대영박물관	2005-06	4,492,852
	테이트갤러리	2005-06	6,395,440
	내셔널갤러리	2005-06	3,557,839
프랑스	루브르박물관	2004	6,600,398
	베르사유 궁전	2004	3,624,943
	오르세미술관	2004	2,590,316
	퐁피두 센터	2004	2,589,825
미국	스미소니언뮤지엄	2005	24,000,000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2004	4,300,000
중국	중국국가박물관	2005	2,530,000
	고궁박물관	-	8,000,000
한국	국립중앙박물관	2007	2,281,700
		2006	3,287,895

이와같은 수치로 보았을 때도 진정한 문화향수권 신장이나 박물관의 진흥은 사실상 외형적인 관람객 수치가 증가하는 것 보다는 질적인 향상과 자연스러운 관람객증가가 더욱 중요하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점은 이번 관람객 설문에서도 나타나고 있듯이 이번 무료화가 어느정도 긍정적으로 평가되면서도 교육프로그램이나 전시유물보강 등의 본질적인 부분을 보완해가는 과제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²²⁹⁾

(2) 정량적인 성과

정성적인 성과와 함께 다음은 정량적인 성과이다. 우선 아래와 같이 4개월 동안 일평균 관람객 수를 보면 국립중앙박물관과 11개 지방 국립박물관 통계로 30.4%의 관람객 상승치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국립현대미술관과 국립민속박물관은 각각 28%, 19.9%의 상승을, 전체 14개관 통합으로는 28.7%상승치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성과는 현재 국립박물관의 관람료(중앙박물관 : 2,000원, 지방박물관 : 1,000원)가 상당히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²³⁰⁾

국립중앙박물관과 지방 국립박물관은 12개관의 전체관람객 수를 통합해보면 2008년 5-8월 4개월간 258만 4,293명이 관람하였다. 이는 2007년 12개관 통계 197만 642명과 비교하여 61만 3,651명이 증가한 수치이며, 31.1% 증가세를 보여주었다. 그 중 국립중앙박물관은 47.5%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으며, 11개 지방

227)보다 많은 관람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보완 할 부분은? (두 개만 체크) - 국립관 관람객설문

문항	중앙박물관	경주박물관	광주박물관	계
① 교통편 증설 등 보강	3(204)	1(64)	3(64)	3(332)
② 관람객에 대한 친절도 향상	7(49)	7(28)	7(26)	7(103)
③ 안내인원 증원	6(127)	5(35)	6(34)	6(196)
④ 휴게시설 보강	4(130)	4(40)	4(47)	4(217)
⑤ 전시유물이나 작품 보강	2(276)	3(51)	2(104)	2(431)
⑥ 교육프로그램과 공간 확대	1(291)	2(59)	1(121)	1(471)
⑦ 홈페이지 보강 및 홍보 강화	4(130)	6(30)	5(40)	5(200)

230) 이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자료를 바탕으로 재통계하였으나 12개관이 별도로 구분되어있는 아래에서는 이번 연구에서 직접 실시한 통계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양 통계치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으나 이 부분은 각 관의 내·외국인 표기방식 등에서 다소간의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국립박물관은 22.8%를 보였다.

14개 국립박물관 · 미술관 내 · 외국인 통합 관람객 수

단위 : 명

구분	통합		중앙박물관		지방박물관		현대미술관		민속박물관	
	2008	2007	2008	2007	2008	2007	2008	2007	2008	2007
5월	1,087,235	914,015	283,127	221,120	571,596	459,293	54,269	65,418	178,243	168,184
6월	624,002	454,464	161,830	95,140	300,151	224,092	35,688	29,398	126,333	105,834
7월	664,780	516,319	191,399	118,627	289,522	231,328	53,561	46,132	130,298	120,232
8월	1,073,236	794,863	341,625	228,082	445,043	392,960	94,061	44,614	192,507	129,207
합계	3,449,253	2,679,661	977,981	662,969	1,606,312	1,307,673	237,579	185,562	627,381	523,457
변동	+ 28.7%	-	+ 47.5%	-	+ 22.8%	-	+ 28%	-	+ 19.9%	-

14개 국립박물관 · 미술관 일평균 관람객 수

단위 : 명

구분	통합		중앙박물관		지방박물관		현대미술관		민속박물관	
	2008	2007	2008	2007	2008	2007	2008	2007	2008	2007
5월	40,073	33,465	10,112	7,897	21,640	17,204	1,751	1,895	6,570	6,469
6월	24,775	17,479	6,473	3,659	12,006	8,618	1,428	1,131	4,868	4,071
7월	24,830	19,687	7,089	4,563	10,723	8,897	1,984	1,774	5,034	4,453
8월	39,752	33,465	12,653	8,447	16,483	14,554	3,484	1,652	7,132	4,792
평균	32,236	25,044	9,140	6,196	14,873	12,221	2,180	1,702	5,919	4,938
변동	+ 28.7%	-	+ 47.5%	-	+ 21.7%	-	+ 28%	-	+ 19.9%	-

※ 문화체육관광부 자료를 기초한 재통계. 2008.10

12개 국립박물관 내·외국인 통합 관람객 수

단위 : 명

구분	중앙박물관		지방박물관		통합	
	2008	2007	2008	2007	2008	2007
5월	283,127	221,120	571,596	459,293	854,723	680,413
6월	161,830	95,140	300,151	224,092	461,981	319,232
7월	191,399	118,627	289,522	231,328	480,921	349,955
8월	341,625	228,082	445,043	392,960	786,668	621,042
합계	977,981	662,969	1,606,312	1,307,673	2,584,293	1,970,642
변동	+ 47.5%	-	+ 22.8%	-	+ 31.1%	-

일평균 관람객 월별 변동률(2007.5-8-2008.5-8)

구분	통합	중앙박물관	지방박물관	현대미술관	민속박물관
5월	+ 19.7%	+ 27.7%	+ 25.8%	-7.6%	+ 1.6%
6월	+ 41.7%	+ 76.9%	+ 39.3%	+ 26.3%	+ 19.6%
7월	+ 26.1%	+ 55.3%	+ 20.5%	+ 11.8%	+ 13%
8월	+ 18.8%	+ 49.8%	+ 13.3%	+ 110.9%	+ 48.8%
평균	+ 28.7%	+ 47.5%	+ 21.7%	+ 28%	+ 19.9%

※ 문화체육관광부 자료를 기초한 재통계. 2008.10

도표에서 설명되고 있지만 전체 일평균 관람객 수 외에 교육프로그램, 주요 행사, 유료특별전 등을 모두 포괄한 수치로는 12개 국립박물관에서 31.1%의 상승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월간매출 총계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만 43.1%의 상승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수치를 차지하는 것은 문화상품이 68%로 가장 많은 증가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공연기타, 관람객 수의 증가로 인한 주차장, 식·음료부분이 그 다음을 잇고 있다.²³¹⁾

231) 이 도표에서 국립중앙박물관, 지방 국립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은 2007년도 프로그램 참여자 수(유료특별전) 수치가 없음. 지방 국립박물관 및 국립민속박물관은 매출액 통계자료가 없으므로, 매출액 통계는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을 기준으로 작성. 국립현대미술관의 매출액(주차장)의 수치가 없으며, 국립중앙박물관은 매출액(주차장)의 2008년 8월의 수치가 없음. 따라서 국립중앙박물관의 5-7월의 변동률만 작성됨. 국립현대미술관은 매출액(공연기타)의 수치가 없음. 따라서 국립중앙박물관의 변동률만 작성됨. 문화체육관광부 자료를 기초한 재통계. 2008.10

무료화 이후 전체 변동률(2007.5-8. 2008.5-8)

구분	통합	중앙박물관	지방박물관	현대미술관	민속박물관
일평균 관람객 수 총계	+ 28.7%	+ 47.5%	+ 21.7%	+ 28%	+ 19.9%
내국인 관람객 수	+ 31.8%	+ 49.3%	+ 23%	+ 28.3%	+ 34.8%
외국인 관람객 수	+ 7.2%	+ 11.7%	+ 14%	+ 21.9%	+ 6.1%
고객 실적(국립박물관)총계	+ 31.1%	+ 47.5%	+ 22.8%	-	-
고객 실적 14개관 전체 총계	+ 29.7%	+ 47.5%	+ 22.8%	+ 28%	+ 23.2%
프로그램 참여자 수(상설전 등)	+ 15.8%	-0.8%	+ 16.8%	+ 129.9%	+ 23.2%
프로그램 참여자 수(교육·행사)	+ 64.6%	+ 89.6%	+ 91.7%	-64.5%	-12.8%
프로그램 참여자 수(유료특별전)	-	-	-	+ 16.8%	-
월간 매출 현황 총계	+ 39%	+ 43.1%	-	+ 8%	-
1인당 매출액	+ 1.6%	+ 8.6%	-	-16.6%	-
매출액(문화상품)	+ 47.3%	+ 68%	-	-11.3%	-
매출액(식·음료)	+ 36.9%	+ 37.7%	-	+ 29.8%	-
매출액(주차장)	-	+ 38.2%	-	-	-
매출액(공연기타)	-	+ 55%	-	-	-

이와 같은 증가수치는 사실상 2005년에서 2007년까지 국내 국립박물관의 관람객수를 참고해본다면 2007년의 경우 관람객 하강세가 매우 심각한 현상이었음을 발견하게 된다.

아래 도표에서 보듯이 국립중앙박물관은 2006년 328만 7,895명에 비하여 2007년은 228만 1,700명으로 낮아졌다. 이점은 국립중앙박물관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발생한 사안이라고 보기에 전국적인 숫자가 줄었다는 점에서 타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국립중앙박물관과 11개 지방 국립박물관을 통합하면 16.4%가 감소하여, 무려 120만 명(116만 6,387명) 정도가 낮아졌고, 관람료 수입 총액은(2006년 40억 241만 4,800원에서 2007년 27억 4,759만 8,100원) 31.4%나 낮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하강세는 공, 사립관들과는 다른 현상으로서 크게 세 가지로 분석된다. 첫째는 국립, 사립관들의 다양한 테마와 신설관들의 새로운 시설, 전시와 행사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비교적 대규모의 고정적 프로그램이 추가되어있는 국립관들에 대한 발길이 줄어드는 추세를 들 수 있다.

둘째는 자연적인 현상으로서 여가시설과 레저, 웰빙문화의 발달로 인하여 주말프로그램과 체험학습 등이 다양해지면서 박물관을 찾는 고객들이 줄어드는 추세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셋째는 2005년 10월 28일 용산의 국립중앙박물관 이전개관 직후에는 많은 관람객들이 찾았으나 2007년에 들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물론 이번 무료화에 대하여는 다소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전반적인 국립관들의 관람객 하향추세에서 이번 무료관람실시는 한시적이지만 다시 박물관문화를 인식시키는 동기를 불어넣고, 하향추세에서 61만 3,651명 증가, 30.4% 상승으로 이어지는 고객 유입효과를 발휘하였다는 점이 정량적인 성과로 평가되어지고 있다.

아래에서는 최근 3년간 관람객 통계를 공립, 사립관까지 포괄하여 비교·분석하였다.

2005년-2007년 연도별 관람객 및 관람료 통계

구분		관람객(명)			관람료 총액(원)		
		'05	'06	'07	'05	'06	'07
국립 중앙 박물관	관람객수	1,339,709	3,287,895	2,281,700	0	2,746,421,000	1,547,140,500
	변동률(%)	-	+145.4%	-30.6%	-	-	-43.6%
	대상관수	11	11	11	11	11	11
지방 국립 박물관	관람객수	4,937,904	3,835,734	3,675,542	300,665,600	1,255,993,800	1,200,457,600
	변동률(%)	-	-22.3%	-4.2%	-	+317.7%	-4.4%
	대상관수	11	11	11	11	11	11
국립 박물관 종합	관람객수	6,277,613	7,123,629	5,957,242	300,665,600	4,002,414,800	2,747,598,100
	변동률(%)	-	+13.4%	-16.4%	-	1,231.2%	-31.4%
	대상관수	12	12	12	12	12	12
공립 박물관 · 미술관	관람객수	1,482,482	1,474,862	1,633,288	763,507,860	724,709,270	771,687,530
	변동률(%)	-	-0.5%	+10.7%	-	-5.1%	+6.5%
	대상관수	7	8	9	7	7	6
사립 박물관 · 미술관	관람객수	1,598,545	2,059,483	2,448,097	3,437,408,180	5,537,492,100	7,421,834,384
	변동률(%)	-	+28.8%	+18.9%	-	+61.1%	+34%
	대상관수	72	78	89	40	50	64
종합	관람객수	9,358,640	10,657,974	10,038,627	4,501,581,640	10,264,616,170	10,941,120,014
	변동률(%)	-	+13.9%	-5.8%	-	+128%	+6.6%
	대상관수	91	98	110	59	69	82

※ 참고

-2006년 국립경주박물관의 급격한 관람료 총액증가는 2006년부터 학생들에게 관람료를 징수하였기 때문임. 참고로 용산의 국립중앙박물관 이전개관은 2005년 10월 28일이었음.

-국립박물관은 《국립박물관 무료화 시범실시에 따른 관람객 분석 및 파급효과 연구》의 2008년 10월 통계 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하였음.

-사립박물관은 정확한 수치가 없을 경우 근접한 추산으로 표기.

-세계술문화박물관과 우석헌자연사박물관, 남포미술관의 관람객 수는 추정 수치임.

2005년-2007년 연도별 12개 국립박물관 관람객 수

구분		관람객(명)		
		'05	'06	'07
국립중앙박물관	관람객수	1,339,709	3,287,895	2,281,700
	변동률(%)	-	+ 145.4%	-30.6%
지방 국립박물관	관람객수	4,937,904	3,835,734	3,675,542
	변동률(%)	-	-22.3%	-4.2%
	대상관수	11	11	11
국립박물관 종합	관람객수	6,277,613	7,123,629	5,957,242
	변동률(%)	-	+ 13.4%	-16.4%
	대상관수	12	12	12

아래의 그래프는 국립박물관의 관람객 수에 관한 것이다.

- 국립중앙박물관

2006년 328만 7,895명으로 2005년 133만 9,709명에 비해 145.4% 증가. 2007년 228만 1,700명으로 전년도 대비 30.6% 감소

- 지방 국립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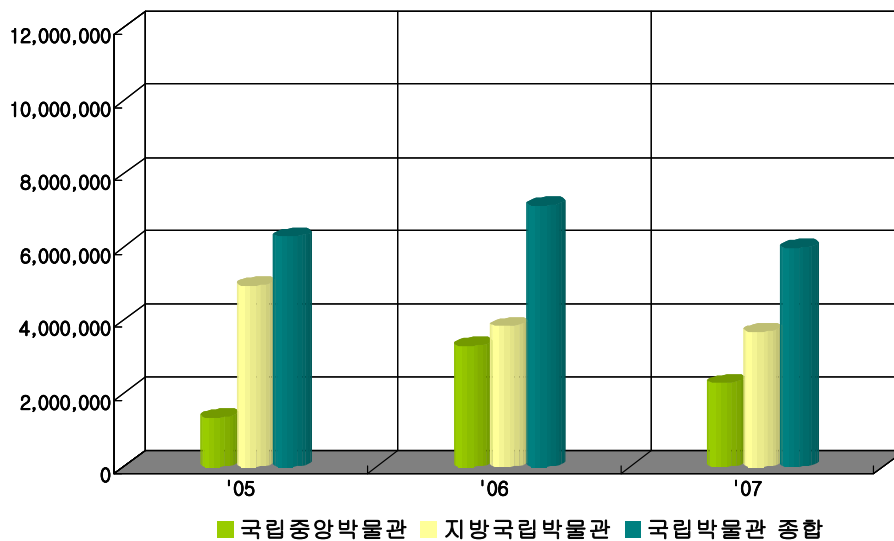
2006년 383만 5,734명으로 2005년 493만 7,904명에 비해 22.3%감소. 2007년 367만 5,542명으로 전년도 대비 4.2% 감소

- 전관 통계

2006년 712만 3,629명으로 2005년 627만 7,613명에 비해 13.4% 증가. 2007년 595만 7,242명으로 전년도 대비 16.4% 감소

2005년-2007년 연도별 국립박물관 관람객 수

단위 : 명



2005년-2007년 연도별 국립박물관 및 사립박물관·미술관의 관람객 수

구분		관람객(명)		
		'05	'06	'07
국립박물관	관람객수	6,277,613	7,123,629	5,957,242
	변동률(%)	-	+ 13.4%	-16.4%
	대상관수	12	12	12
사립박물관·미술관	관람객수	1,598,545	2,059,483	2,448,097
	변동률(%)	-	+ 28.8%	+ 18.9%
	대상관수	72	78	89
합계	관람객수	7,876,158	9,183,112	8,405,339
	변동률(%)	-	+ 16.6%	-8.5%

아래 그래프는 국립박물관과 사립박물관·미술관의 관람객 수를 비교한 것이다.

- 12개 국립박물관

2006년 712만 3,629명으로 2005년 627만 7,613명에 비해 13.4% 증가. 2007년 595만 7,242명으로 전년도 대비 16.4%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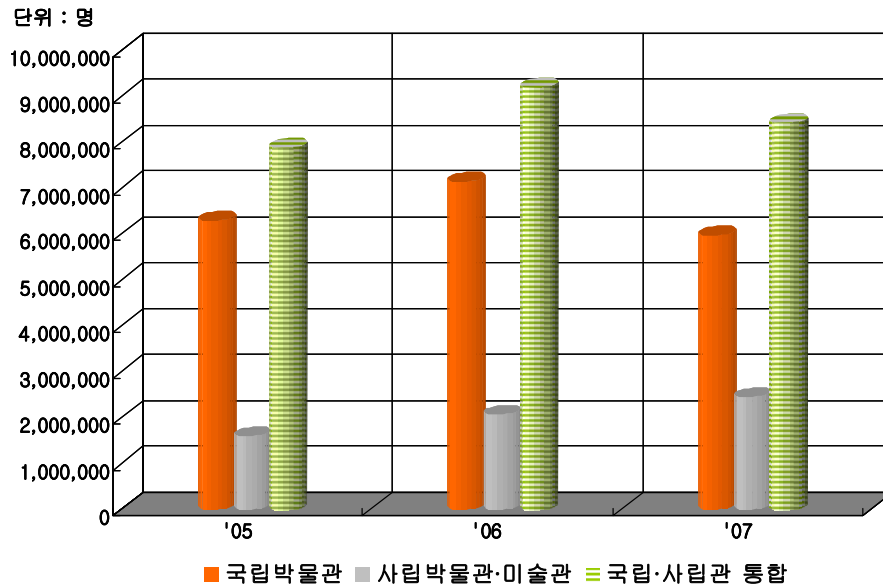
- 사립박물관·미술관

2006년 205만 9,483명으로 2005년 159만 8,545명에 비해 28.8% 증가. 2007년 244만 8,097명으로 전년도 대비 18.9% 증가

- 전관통계

2006년 918만 3,112명으로 2005년 787만 6,158명에 비해 16.6% 증가. 2007년 840만 5,339명으로 전년도 대비 8.5% 감소

2005년-2007년 연도별 국립박물관과 사립박물관·미술관의 관람객 수



2005년-2007년 연도별 국립박물관과 사립박물관·미술관의 관람료 통계

단위 : 원

구분		관람료 총액(원)		
		'05	'06	'07
국립중앙박물관	관람객수	0	2,746,421,000	1,547,140,500
	변동률(%)	-	-	-43.6%
지방국립박물관	관람객수	300,665,600	1,255,993,800	1,200,457,600
	변동률(%)	-	+ 317.7%	-4.4%
	대상관수	11	11	11
국립박물관 종합	관람객수	300,665,600	4,002,414,800	2,747,598,100
	변동률(%)	-	1,231.2%	-31.4%
	대상관수	12	12	12

아래의 그래프는 국립박물관의 관람료 수입에 관한 것이다.

- 국립중앙박물관

2007년 15억 4,714만 500원으로 2006년 27억 4,642만 1,000원에 비해 43.6% 감소

- 지방 국립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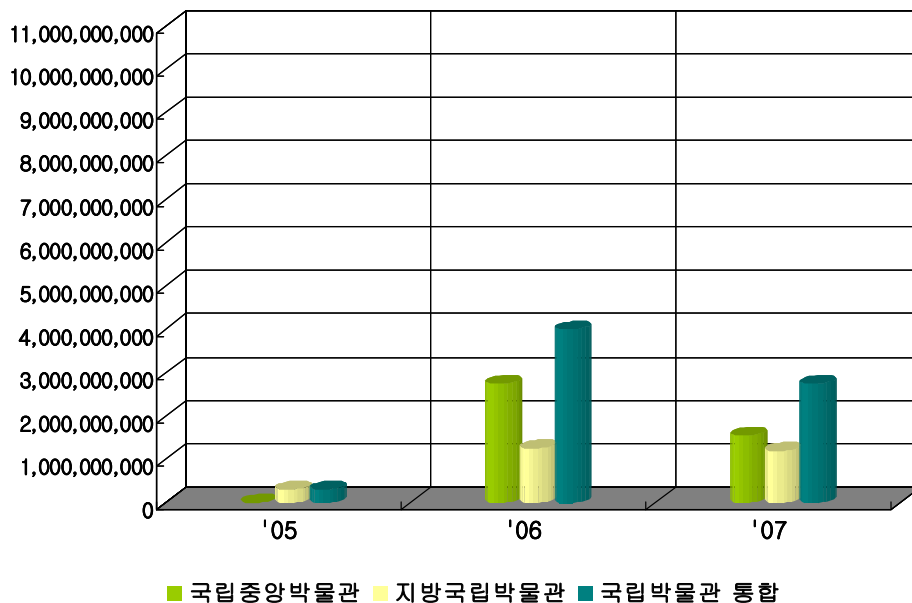
2006년 12억 5,599만 3,800원으로 2005년 3억 66만 5,600원에 비해 317.7% 증가. 2007년 12억 45만 7,6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4% 감소

- 전관통계

2006년 40억 241만 4,800원으로 2005년 3억 66만 5,600원에 비해 1,231.2% 증가. 2007년 27억 4,759만 8,1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1.4% 감소

2005년-2007년 연도별 국립박물관 관람료 통계

단위 : 원



2005년-2007년 연도별 국립박물관과 사립박물관·미술관의 관람료 통계

구분		관람료 총액(원)		
		'05	'06	'07
국립박물관	관람객수	300,665,600	4,002,414,800	2,747,598,100
	변동률(%)	-	1,231.2%	-31.4%
	대상관수	12	12	12
사립박물관·미술관	관람객수	3,437,408,180	5,537,492,100	7,421,834,384
	변동률(%)	-	+ 61.1%	+ 34%
	대상관수	40	50	64
합계	관람객수	3,738,073,780	9,539,906,900	10,169,432,484
	변동률(%)	-	+ 155.2%	+ 6.6%

아래의 그래프는 국립박물관과 사립박물관·미술관의 관람료를 비교한 것이다.

- 12개 국립박물관

2006년 40억 241만 4,800원으로 2005년 3억 66만 5,600원에 비해 1,231.2% 증가. 2007년 27억 4,759만 8,1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1.4% 감소

- 사립박물관·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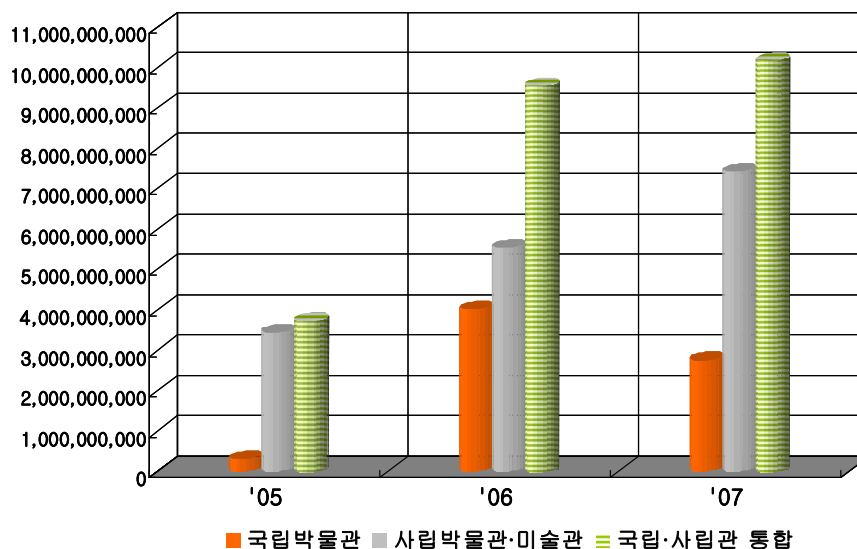
2006년 55억 3,749만 2,100원으로 2005년 34억 3,740만 8,180원에 비해 61.1% 증가. 2007년 74억 2,183만 4,384원으로 전년도 대비 34% 증가

- 전관통계

2006년 95억 3,990만 6,900원으로 2005년 37억 3,807만 3,780원에 비해 155.2% 증가. 2007년 101억 6,943만 2,484원으로 전년도 대비 6.6% 증가

2005년-2007년 연도별 국립박물관과 사립박물관·미술관의 관람료 통계

단위 : 원



2008년 5-8월 국립박물관 무료화 통계 핵심

단위 : 명, 천원

구분	내용	2007	2008	차이	변동(%)
국립 중앙 박물관	관람객 수	662,969	977,981	+ 315,012	+ 47.5%
	일평균 관람객 수	6,196	9,140	+ 2,944	+ 47.5%
	프로그램 참여자 수	662,969	977,981	+ 315,012	+ 47.5%

	매출수입	2,360,764	3,378,287	+ 1,017,523	+ 43.1%
	관람료 포함 매출수입	2,890,252	3,378,287	+ 488,035	+ 16.9%
11개 지방 국립 박물관	관람객 수	1,307,673	1,606,312	+ 298,639	+ 22.8%
	일평균 관람객 수	12,221	14,873	+ 2,652	+ 21.7%
	프로그램 참여자 수	1,307,835	1,606,303	+ 298,468	+ 22.8%
	매출수입	361,578	558,369	+ 196,791	+ 54.4%
	관람료 포함 매출수입	879,417	558,369	-321,048	-36.5%
12개 국립 박물관	관람객 수	1,970,642	2,584,293	+ 613,651	+ 31.1%
	일평균 관람객 수	18,417	24,013	+ 5,596	+ 30.4%
	프로그램 참여자수	1,970,804	2,584,284	+ 613,480	+ 31.1%
	매출수입	2,722,342	3,936,656	+ 1,214,314	+ 44.6%
	관람료 포함 매출수입	3,688,843	3,936,656	+ 247,813	+ 6.7%

(3) 수익구조 분석

무료화 실시로 인한 국립중앙박물관의 2008년 5-8월 매출수입과 관람료 비교에 서는 아래와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계산방식은 2008년 매출수입 총액과 2008년 예상관람료를 2007년 수준에 맞추어 비교한 결과 전국의 12개 국립박물관 결산은 2억 4,781만 3천원의 이익으로 통계되어 정량적인 성과에서는 성공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래의 분류에서 보다시피 국립중앙박물관과 11개 지방 국립박물관의 차이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나 11개 지방 국립박물관의 매출수입이 작년 보다 54.4% 상승한 5억 5,836만 9천원으로 국립중앙박물관 같은 기간 2008년의 매출총액인 33억 7,828만 7천원에 비하여 턱없이 낮은 수치를 보임으로서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국립중앙박물관 관람료 포함 매출수입 증감 비교(전년동기 대비 2008. 5-8)

단위 : 천원

구분	5월	6월	7월	8월	합계
중앙	+ 80,609	+ 308,857	+ 131,614	-33,045	+ 488,035
11개 지방	-114,524	-51,449	-48,309	-106,766	-321,048
12개 국박	-9,144	+ 265,566	+ 98,019	-106,629	+ 247,813

※ 지방은 11개 국립박물관, 국박은 중앙박물관을 포함한 12개 국립박물관을 말함. 계산방식은 아래의 구체적인 자료참조.

① 국립중앙박물관 관람료와 매출액 비교

이번 무료화 시범실시는 재정적인 구조에서도 매우 중요한 분석대상이 된다. 아래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의 2007년과 2008년 대비 수치들을 파악함으로써 무료화 이후 관람료를 비롯한 매출액에 대한 수치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파악 할 수 있다.

특히 관람객 수는 2007년이 4개월 동안 66만 2,969명이 관람하였으며, 2008년에는 97만 7,981명이 관람하여 31만 5,012명이 더 관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하여 2008년 관람객 수를 평균값으로 계산하여 가상관람료를 계산해보면 7억 8,107만 4천원으로 5억 2,948만 7천원보다 2억 5,158만 7천원이 증가하여, 약 2억 5천만 원의 상승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점은 이번 무료화사업의 성과에서 고객들에게 4개월간 약 8억원에 가까운 관람료를 면제하는 문화향수 기회를 부여했다는 점으로도 평가될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관람료 수입 가상 비교(2007-2008)

구분		'08			'07		
		관람객수	예상 유료관람자 수	가상 관람료수입 (단위:천원)	관람객수	유료관람자 수	관람료 수입 (단위:천원)
5	내국인	276,627	169,296	220,931	213,960	130,944	170,881
	외국인	6,500	3,978	5,191	7,160	4,382	5,718
	합 계	283,127	173,274	226,122	221,120	135,325	176,600
6	내국인	153,983	94,238	122,980	87,945	53,822	70,238
	외국인	7,847	4,802	6,267	7,195	4,403	5,746
	합 계	161,830	99,040	129,247	95,140	58,226	75,985
7	내국인	180,849	110,680	144,437	110,421	67,578	88,189
	외국인	10,550	6,457	8,426	8,206	5,022	6,554
	합 계	191,399	117,136	152,863	118,627	72,600	94,743
8	내국인	331,301	202,756	264,597	219,107	134,093	174,992
	외국인	10,324	6,318	8,245	8,975	5,493	7,168
	합 계	341,625	209,075	272,842	228,082	139,586	182,160
계	내국인	942,760	576,969	752,945	631,433	386,437	504,300
	외국인	35,221	21,555	28,130	31,536	19,300	25,187
	합 계	977,981	598,524	781,074	662,969	405,737	529,487

※ 참고

- '08년 예상 유료 관람자 수는 '07년 전체 관람객 수 중 유료관람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61.2%를 이용하여 추정하였음.

- 국립중앙박물관의 관람료는 2,000원이나 예상 관람료 수입은 '07년 전체 관람료 총액 15억 4,714만 500원을 전체 유료 관람객 수 228만 1,700명으로 나눈 값인 1,108원과 '08년의 할인 혜택 등을 고려한 값인 1,500원의 평균값인, 1,305원을 예상 유료 관람자 수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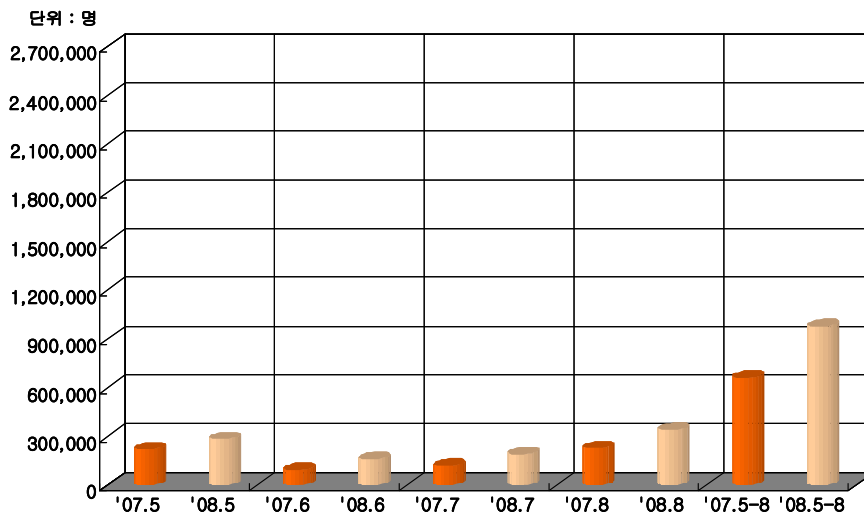
급한 값을 사용하였음.

-월별 관람객 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2008년 10월 집계수치를 사용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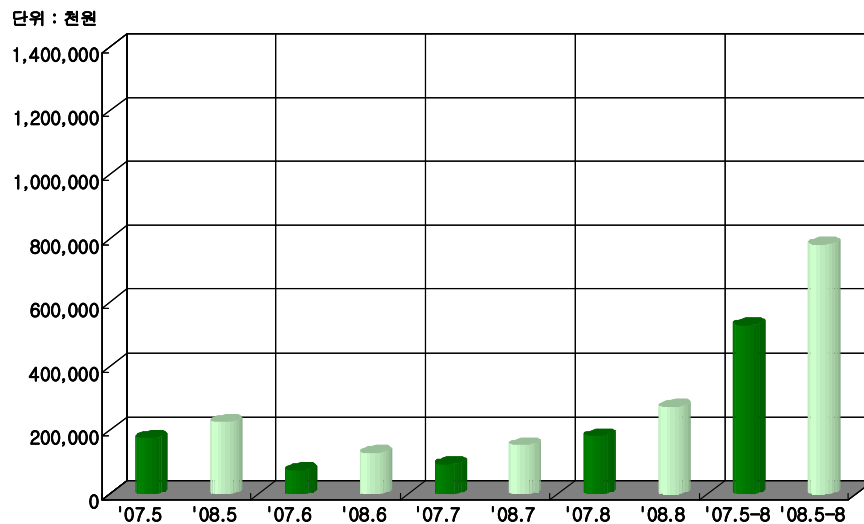
-1인당 평균 관람료 산출에 사용된 '07년 관람료 총액 및 관람객 수는 《국립박물관 무료화 시범실시에 따른 관람객 분석 및 파급효과 연구》의 2008년 10월 통계 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하였음.

-모든 금액은 천원단위에서 반올림.

국립중앙박물관 관람객 수(2007.5-8-2008.5-8)



국립중앙박물관 관람료 수입총액 비교(2007.5-8-2008.5-8)



※ 2008년은 무료. 성과수치로만 해당

② 국립중앙박물관 매출수입 및 관람료 비교

이번 시범사업의 정량적인 성과는 여러 가지로 가능하겠지만 아래의 도표에서 보다 명료하게 나타난다. 우선적으로 매출수입은 전체 박물관 수입의 중요한 부분인 문화상품, 식·음료, 주차장, 공연기타를 포함한 수치이다. 국립중앙박물관만을 대상으로 해보면 올해 매출액은 작년도 같은 기간에 비하여 43.1%의 상승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매출차액 역시 10억원 정도(10억 1,752만 3천원)가 상승한 것으로 집계된다.

여기에 관람료수입이 무료화 되면서 이 기간동안에 제로가 되었으나 무료관람으로 인하여 상승한 관람객들이 지출한 매출수입 상승률이 관람료수입을 얼마만큼 상쇄하는가에 대한 비교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계산에서는 올해 관람료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가 변수가 된다. 왜냐하면 2008년이 만일 무료화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2007년의 관람객 하향세가 이어졌을 가능성이 많으며, 그 결과 관람료 수입은 더욱 낮아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같은 이유로 인하여 올해의 관람객 수를 2007년과 동일한 수로 계산하였으며, 그 결과 2008년 가상 관람료 수입은 7억 8,107만 4천원이었다. 그러나 2008년은 관람료 수입이 없었고, 2007년의 관람료 수입을 포함한 매출액과의 비교에 있어서는 4억 8,803만 5천원, 약 5억원에 가까운 흑자로 통계되었다.

국립중앙박물관 매출수입 및 관람료 비교(2008. 5-8)

단위 : 천원

구분	5월		6월		7월		8월		합계	
	'07	'08	'07	'08	'07	'08	'07	'08	'07	'08
매출수입	594,381	851,590	330,758	715,600	542,316	768,673	893,309	1,042,424	2,360,764	3,378,287
변동률	-	+ 43.3 %	-	+ 114.6 %	-	+ 41.7 %	-	+ 16.7 %	-	+ 43.1 %
매출차액	+ 257,209		+ 384,842		+ 226,357		+ 149,115		+ 1,017,523	
'07년 관람료 수입	176,600		75,985		94,743		182,160		529,488	
비교	+ 80,609		+ 308,857		+ 131,614		-33,045		+ 488,035	
참고-'08년 관람료 수입	226,122		129,247		152,863		272,842		781,074	

※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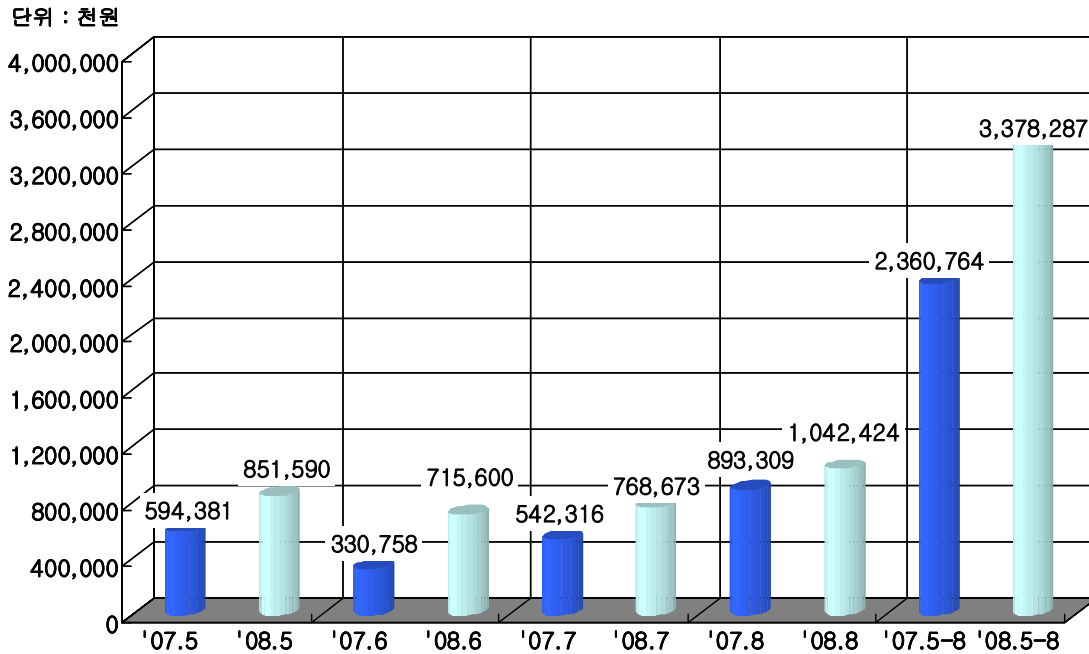
-관람료수입은 《국립박물관 무료화 시범실시에 따른 관람객 분석 및 과급효과 연구》의 통계를 기초로 하였음. 매출수입은 문화상품, 식·음료, 주차장, 공연기타의 매출액을 합산 것임. 문화체육관광부의 2008년 10월 집계 수치를 기초로 하였음. 2008년은 무료이므로 관

람료 수입은 예상 추정치임.

-모든 금액은 천원 단위에서 반올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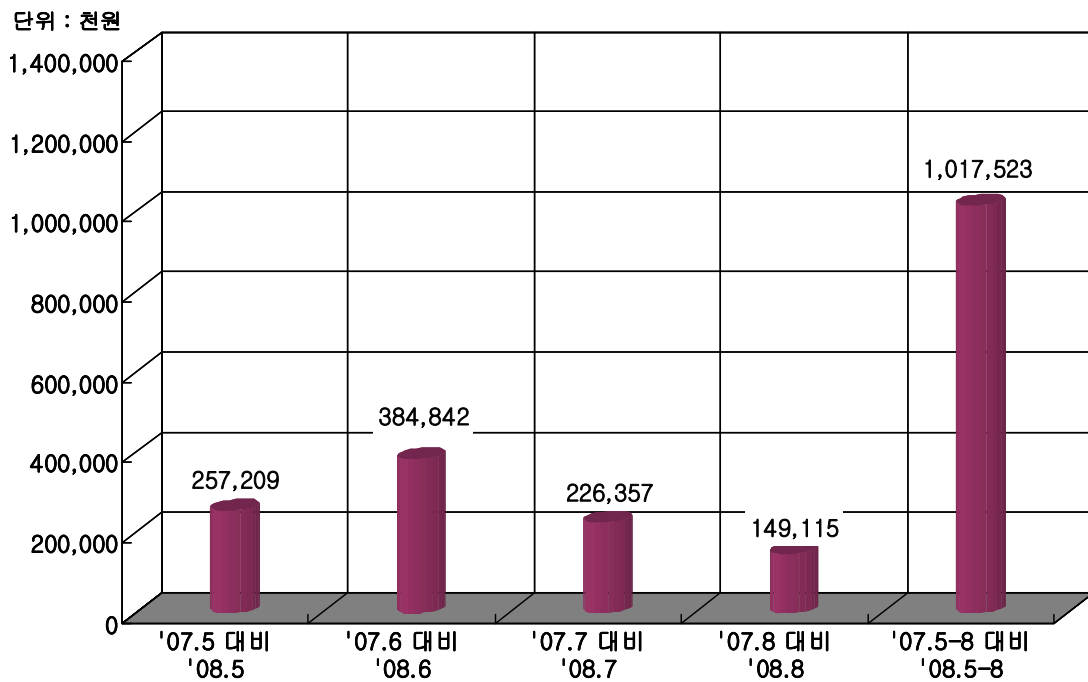
국립중앙박물관 매출수입 비교(2007.5-8-2008.5-8)

문화상품, 식·음료, 주차장, 공연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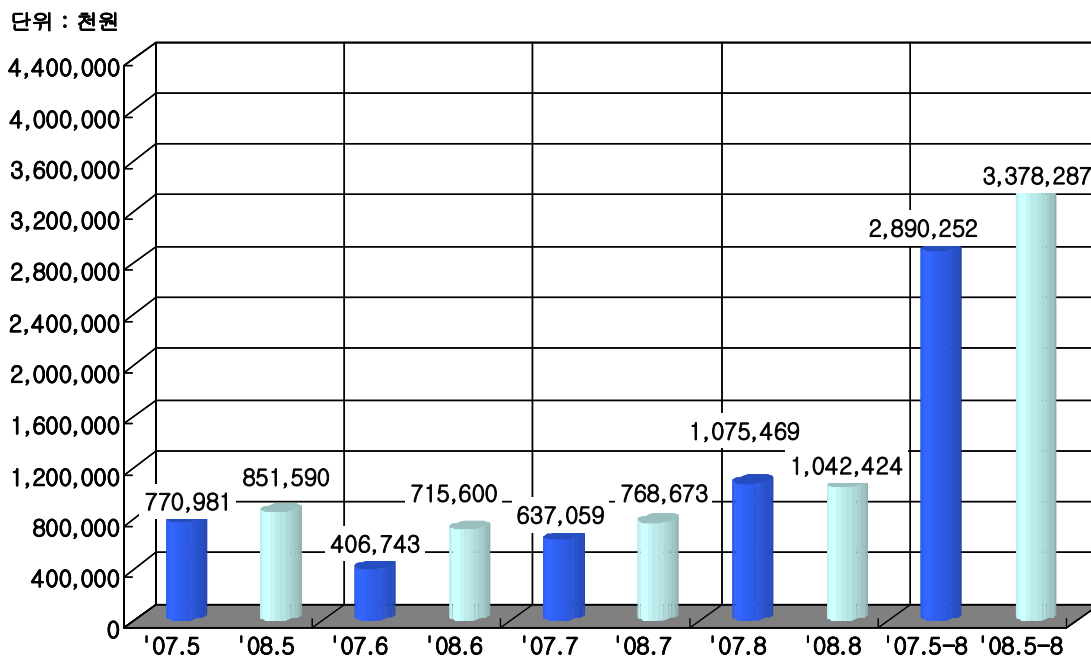
국립중앙박물관 매출수입 비교(2007.5-8-2008.5-8)

문화상품, 식·음료, 주차장, 공연기타



국립중앙박물관 관람료 포함 매출수입 비교(2007.5-8-2008.5-8)

관람료, 문화상품, 식·음료, 주차장, 공연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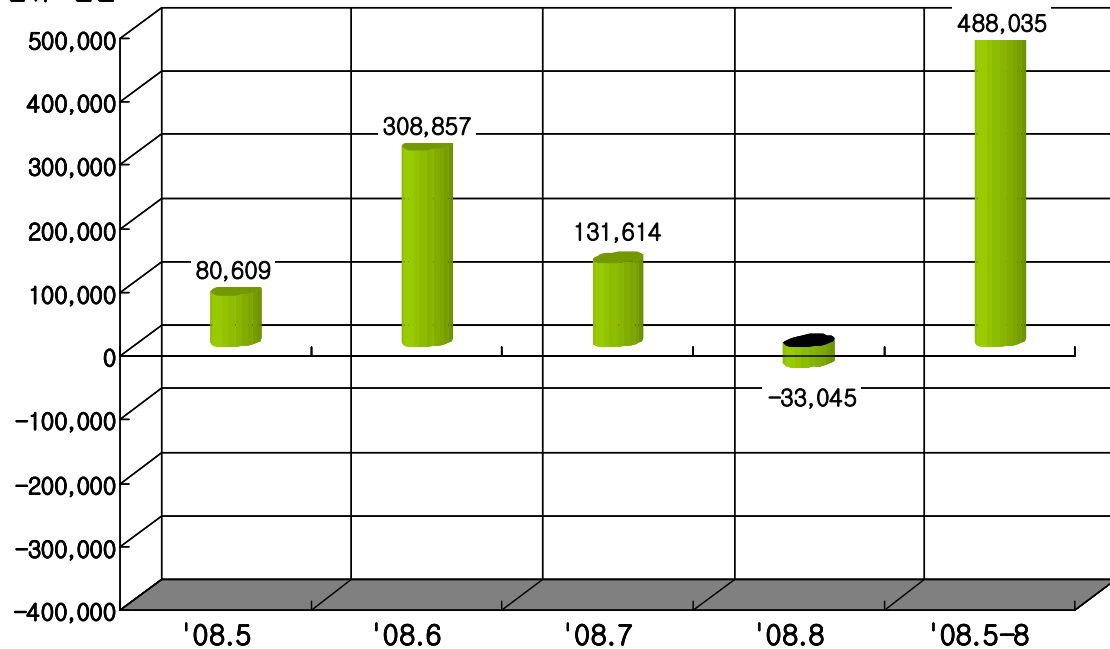


※ 2008년은 관람료 무료. 2007년 관람료만 포함된 수치임.

국립중앙박물관 관람료 포함 매출수입 총액 차액 비교(2007.5-8-2008.5-8)

관람료, 문화상품, 식·음료, 주차장, 공연기타

단위 : 천원



③ 지방 국립박물관 관람료와 매출액 비교

지방 국립박물관 11개관의 관람객 수는 2007년이 4개월 동안 130만 7,673명이 관람하였으며, 2008년에는 160만 6,312명이 관람하여 29만 8,639명이 더 관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007년의 유료관람자 비율인 55%를 대입한 2008년의 예상 유료관람자 수는 88만 3,472명이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한 가상관람료를 계산해보면 6억 3,610만원으로 2007년 5억 1,783만 9천원 보다 1억 1,826만 1천원이 증가하여, 약 1억 1,800만원의 상승값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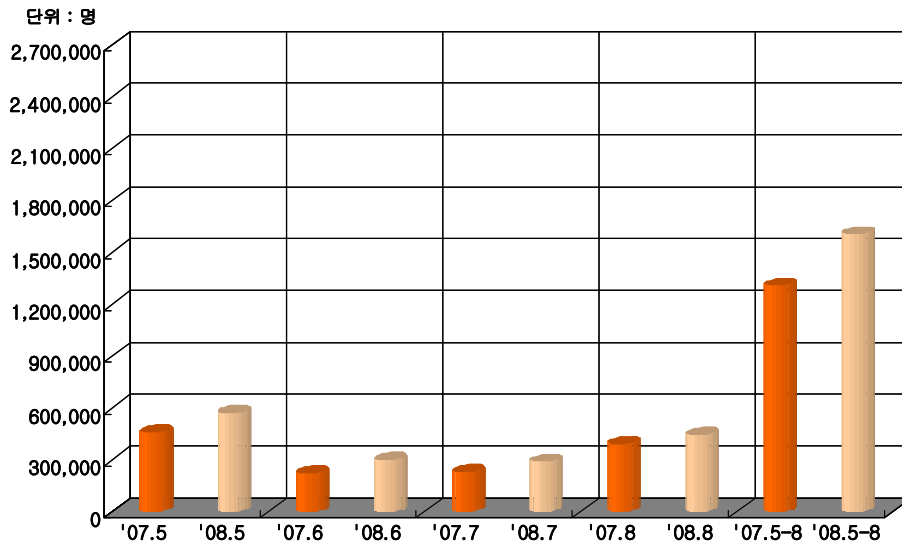
이 점은 이번 무료화사업이 지방 국립박물관의 고객들에게 4개월간 약 6억원에 가까운 관람료를 면제함으로써, 그만큼의 문화향수 기회를 부여했다는 점으로도 평가될 수 있다.

11개 지방 국립박물관 관람료 수입 가상 비교(2007-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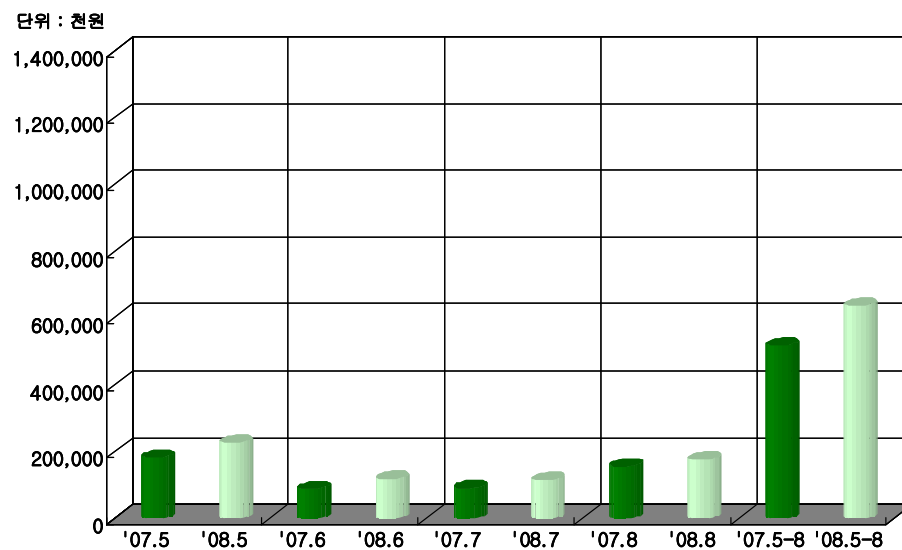
구분		'08			'07		
		관람객수	예상 유료관람자 수	가상관람료 수입 (단위:천원)	관람객수	유료관람자 수	관람료 수입 (단위:천원)
5	내국인	562,916	309,604	222,915	451,246	248,185	178,693
	외국인	8,680	4,774	3,437	8,047	4,426	3,187
	합 계	571,596	314,378	226,352	459,293	252,611	181,880
6	내국인	292,540	160,897	115,846	216,659	119,162	85,797
	외국인	7,611	4,186	3,014	7,433	4,088	2,943
	합 계	300,151	165,083	118,860	224,092	123,251	88,740
7	내국인	280,765	154,421	111,183	225,300	123,915	89,219
	외국인	8,757	4,816	3,468	6,028	3,315	2,387
	합 계	289,522	159,237	114,651	231,328	127,230	91,606
8	내국인	437,298	240,514	173,170	385,706	212,138	152,740
	외국인	7,745	4,260	3,067	7,254	3,990	2,873
	합 계	445,043	244,774	176,237	392,960	216,128	155,612
계	내국인	1,573,519	865,435	623,114	1,278,911	703,401	506,449
	외국인	32,793	18,036	12,986	28,762	15,819	11,390
	합 계	1,606,312	883,472	636,100	1,307,673	719,220	517,839

- '08년 예상 유료 관람자 수는 '07년 전체 관람객 수 중 유료관람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55%를 이용하여 추정하였음.
- 지방 국립박물관의 평균관람료는 1,000원이나 예상 관람료 수입은 '07년 전체 관람료 총액 12억 45만 7,600원을 전체 유료 관람객 수 203만 8,729명으로 나눈 값인 589원과 '08년의 할인 혜택 등을 고려한 값인 850원의 평균값인 720원을 예상 유료 관람자 수와 곱한 값을 사용하였음.
- 월별 관람객 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2008년 10월 집계수치를 사용하였음.
- 1인당 평균 관람료 산출에 사용된 '07년 관람료 총액 및 관람객 수는 《국립박물관 무료화 시범실시에 따른 관람객 분석 및 파급효과 연구》의 2008년 10월 통계 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하였음.
- 모든 금액은 천원단위에서 반올림.

11개 지방 국립박물관 관람객 수(2007.5-8-2008.5-8)



11개 지방 국립박물관 관람료 수입총액 비교(2007.5-8-2008.5-8)



④ 지방 국립박물관 매출수입 및 관람료 비교

아래의 도표는 지방 국립박물관 11개관을 합산한 수치이다. 지방 국립박물관의 2008년의 매출수입은 2007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2억 원 정도(1억 9,679만 1천 원)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년동기 대비 54.4%가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이 증가액은 2007년 같은 기간의 관람료 수입 약 5억 원(5억 1,783만 9천 원)을 넘기지 못하는 못하였다. 결과적으로 지방 국립박물관은 관람료를 받지 않음으로써, 약 3억 2천만원 정도의 손실을 본 셈이다. 전체적인 집계 수치 뿐 만 아니라

월별로 본 4개월간의 수치에서도 2008년 전년동기 매출액 증가액이 2007년 관람료 수익액을 모두 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11개 지방 국립박물관 매출수입 및 관람료 비교(2008. 5-8)

단위 : 천원

구분	5월		6월		7월		8월		합계	
	'07	'08	'07	'08	'07	'08	'07	'08	'07	'08
매출수입	101,187	168,543	65,409	102,700	71,979	115,276	123,005	171,851	361,578	558,369
변동률	-	+ 66.6 %	-	+ 57.0 %	-	+ 60.2 %	-	+ 39.7 %	-	+ 54.4 %
매출차액	67,356		37,291		43,297		48,846		196,791	
'07년 관람료 수입	181,880		88,740		91,606		155,612		517,839	
비교	-114,524		-51,449		-48,309		-106,766		-321,048	
참고-'08년 관람료 수입	226,352		118,860		114,651		176,237		636,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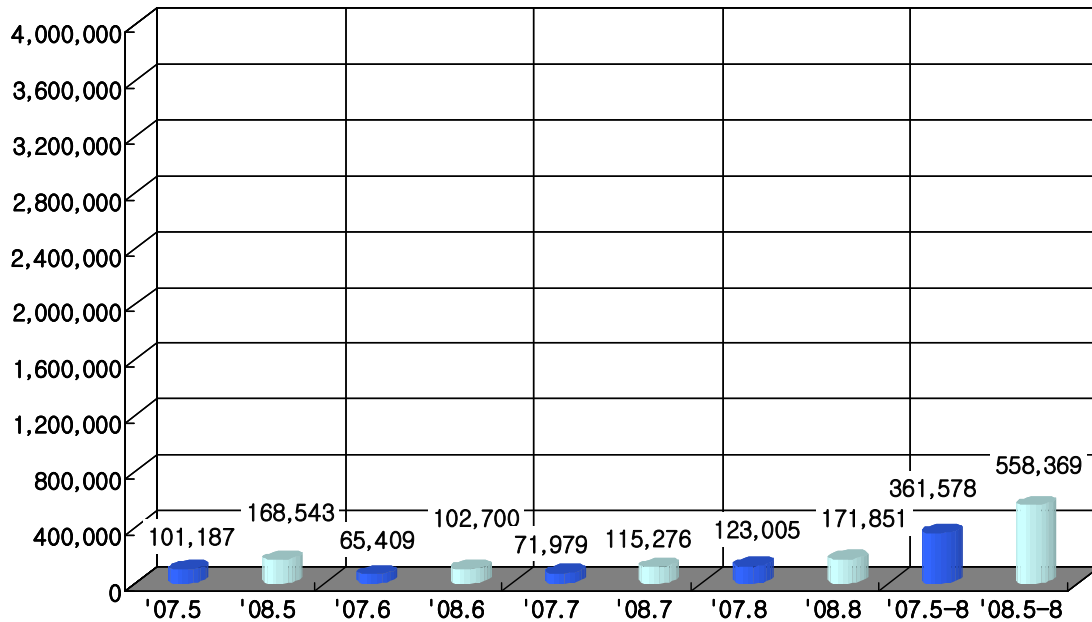
※ 참고

- 관람료수입 및 매출수입은 《국립박물관 무료화 시범실시에 따른 관람객 분석 및 파급효과 연구》의 통계를 기초로 하였음. 매출수입은 문화상품, 식·음료, 주차장, 공연기타의 매출액을 합산 것임. 2008년은 무료임으로 관람료 수입은 예상 추정치임.
- 모든 금액은 천원 단위에서 반올림.

11개 지방 국립박물관 매출수입 총액 비교(2007.5-8-2008.5-8)

문화상품, 식·음료, 주차장, 공연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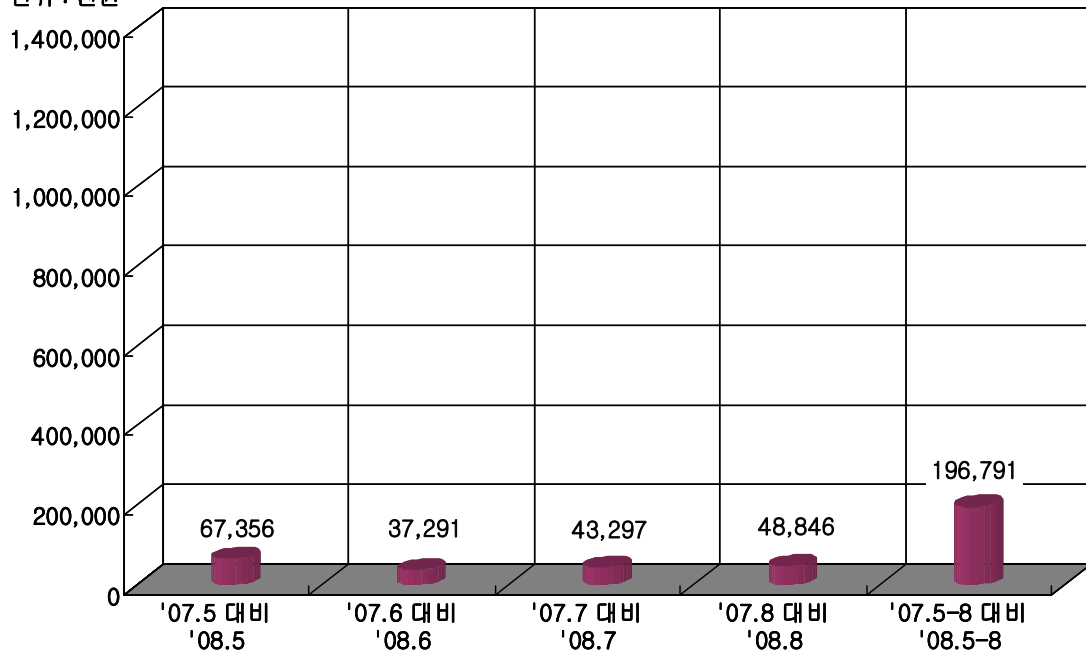
단위 : 천원



11개 지방 국립박물관 매출수입 비교(2007.5-8-2008.5-8)

문화상품, 식·음료, 주차장, 공연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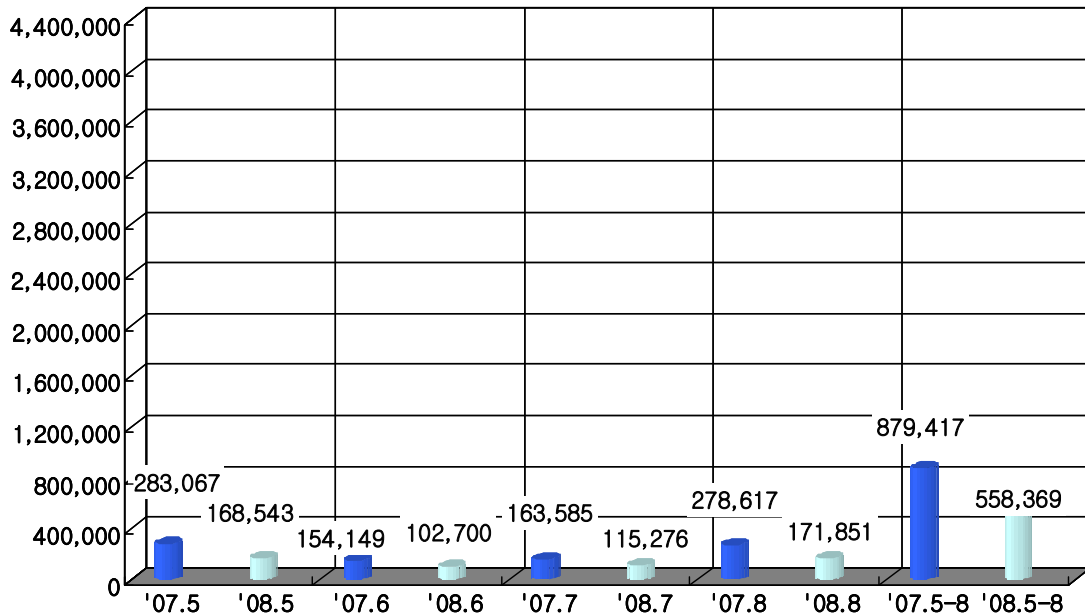
단위 : 천원



11개 지방 국립박물관 관람료 포함 매출수입 비교(2007.5-8-2008.5-8)

관람료, 문화상품, 식·음료, 주차장, 공연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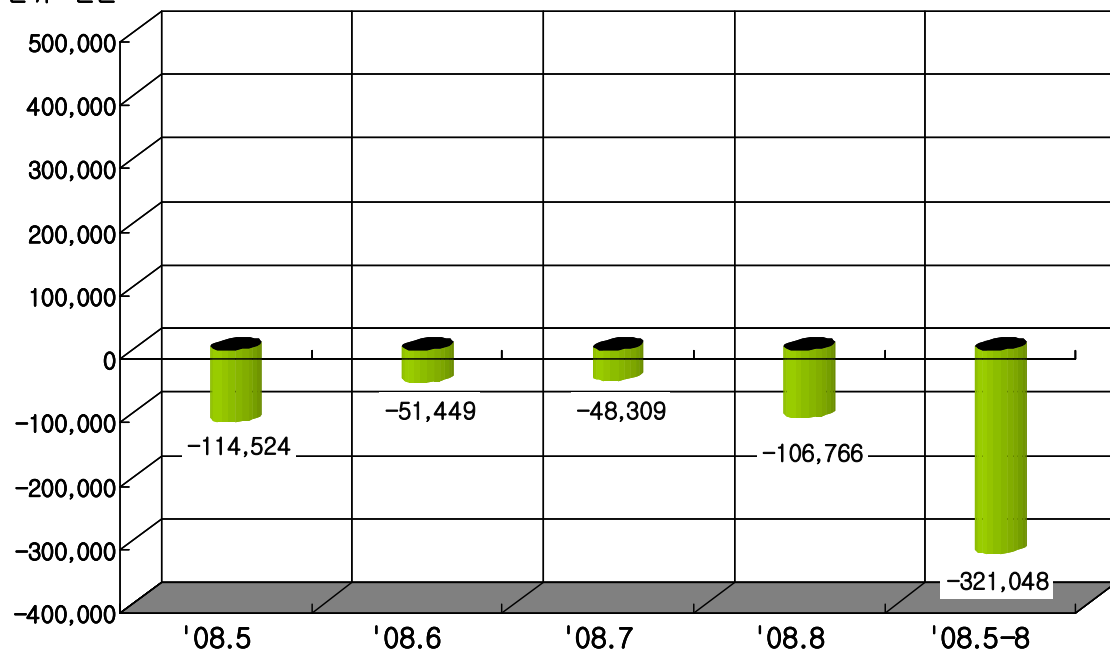
단위 : 천원



11개 지방 국립박물관 관람료 포함 매출수입 총액 차액 비교(2007.5-8-2008.5-8)

관람료, 문화상품, 식·음료, 주차장, 공연기타

단위 : 천원



⑤ 국립박물관 관람료와 매출액 비교

아래의 도표는 국립중앙박물관 및 지방 국립박물관을 합한 총 12개관의 수치를 비교한 것이다. 전체적으로는 2008년 4개월 동안의 관람객 수는 258만 4,293명으로 2007년의 같은 기간 동안의 관람객 수인 197만 642명보다 61만 3,651명이 증가하였다.

2007년 전체 관람자 수 중 유료 관람자 수의 비율인 57.7%를 대입하여 추정한 2008년의 예상 유료 관람자 수는 149만 1,137명으로, 이에 평균 관람료를 대입하여 계산한 2008년 가상관람료 수입은 12억 6,746만 7천원이다. 결국 2007년 관람료 수입인 9억 6,650만 1천원보다 2008년의 가상관람료수입은 3억 96만 6천원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이번 무료화 사업의 성과가 국립박물관 12개관을 통틀어 관람객에게 13억에 가까운 관람료를 면제하는 문화향수 기회를 부여했다는 점으로도 평가될 수 있다.

12개 국립박물관 관람료 수입 가상 비교(2007-2008)

구분		‘08			‘07		
		관람객수	예상 유료관람자 수	가상관람료 수입 (단위:천원)	관람객수	유료관람자 수	관람료 수입 (단위:천원)
5	내국인	839,543	484,416	411,754	665,206	383,824	326,250
	외국인	15,180	8,759	7,445	15,207	8,774	7,458
	합 계	854,723	493,175	419,199	680,413	392,598	333,709
6	내국인	446,523	257,644	218,997	304,604	175,757	149,393
	외국인	15,458	8,919	7,581	14,628	8,440	7,174
	합 계	461,981	266,563	226,579	319,232	184,197	156,567
7	내국인	461,614	266,351	226,399	335,721	193,711	164,654
	외국인	19,307	11,140	9,469	14,234	8,213	6,981
	합 계	480,921	277,491	235,868	349,955	201,924	171,635
8	내국인	768,599	443,482	376,959	604,813	348,977	296,631
	외국인	18,069	10,426	8,862	16,229	9,364	7,960
	합 계	786,668	453,907	385,821	621,042	358,341	304,590
계	내국인	2,516,279	1,451,893	1,234	1,910,344	1,102,268	936,928
	외국인	68,014	39,244	33,357	60,298	34,792	29,573
	합 계	2,584,293	1,491,137	1,267,467	1,970,642	1,137,060	966,5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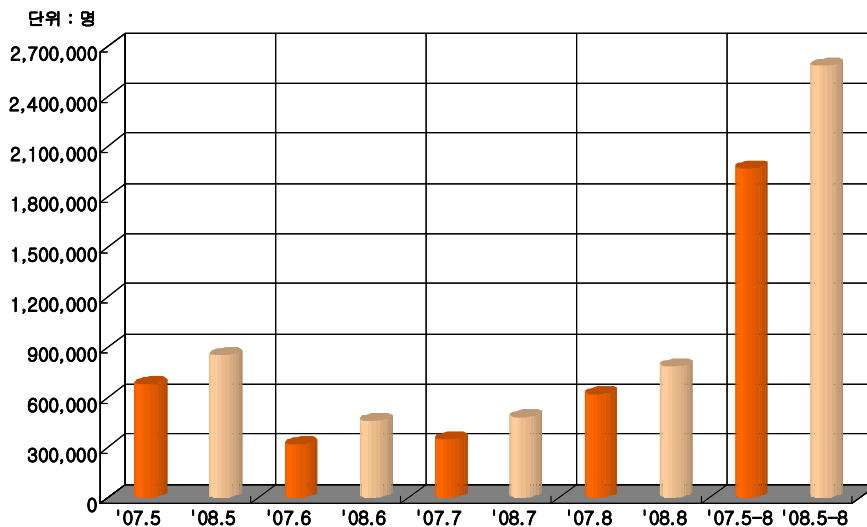
- '08년 예상 유료 관람자 수는 '07년 전체 관람객 수 중 유료관람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57.7%를 이용하여 추정하였음.

- 국립박물관의 평균관람료는 1,083원이나 예상 관람료 수입은 '07년 전체 관람료 총액 27억 4,759만 8,100원을 전체 유료 관람객 수 343만 4,406명으로 나눈 값인 800원과 '08년의 할인 혜택 등을 고려한 값인 900원의 평균값인 850원을 예상 유료 관람자 수와 곱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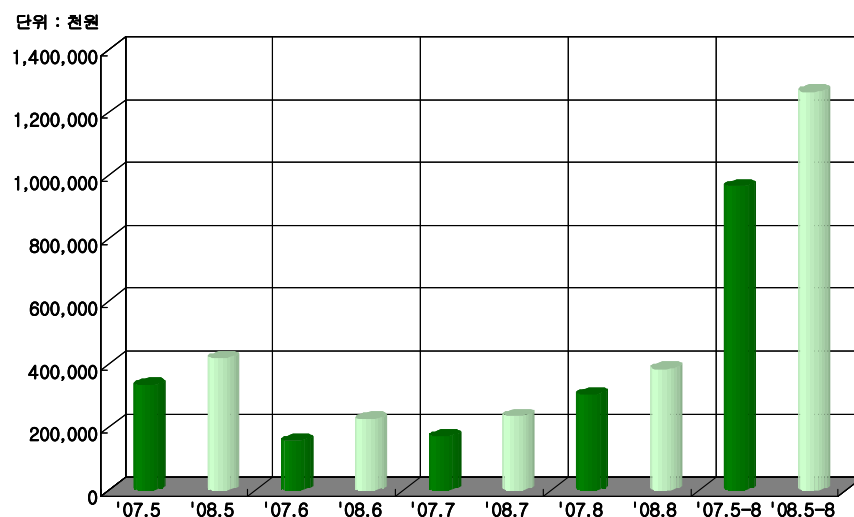
값을 사용하였음.

- 월별 관람객 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2008년 10월 집계수치를 사용하였음.
- 1인당 평균 관람료 산출에 사용된 '07년 관람료 총액 및 관람객 수는 《국립박물관 무료화 시범실시에 따른 관람객 분석 및 파급효과 연구》의 2008년 10월 통계 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하였음.
- 모든 금액은 천원단위에서 반올림.

12개 국립박물관 관람객 수(2007.5-8-2008.5-8)



12개 국립박물관 관람료 수입총액 비교(2007.5-8-2008.5-8)



⑥ 국립박물관 매출수입 및 관람료 비교

아래의 도표는 국립중앙박물관 및 지방 국립박물관 11개관을 합산한 수치이다. 국립박물관의 2008년 5월에서 8월까지의 매출수입은 2007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12억원 정도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44.6%가 증가한 것이다.

이것은 2007년 관람료 수입액인 약 9억 6,650만원보다 약 2억 4,781만 3천원이 많은 수치이다. 지방 국립박물관의 관람료 수입 손실 부분을 국립중앙박물관의 매출액 증가분이 상쇄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무료화사업을 통해 2억 4,781만 3천원의 매출 이익이 증가된 것을 알 수 있다.

12개 국립박물관 매출수입 및 관람료 비교(2008. 5-8)

단위 : 천원

구분	5월		6월		7월		8월		합계	
	'07	'08	'07	'08	'07	'08	'07	'08	'07	'08
매출수입	695,568	1,020,133	396,167	818,300	614,295	883,949	1,016,314	1,214,275	2,722,342	3,936,656
변동률	-	46.7%	-	106.6%	-	43.9%	-	19.5%	-	44.6%
매출차액	324,565		422,133		269,654		197,961		1,214,314	
'07년 관람료 수입	333,709		156,567		171,635		304,590		966,501	
비교	-9,144		+ 265,566		+ 98,019		-106,629		+ 247,813	
참고-'08년 관람료 수입	419,199		226,579		235,868		385,821		1,267,4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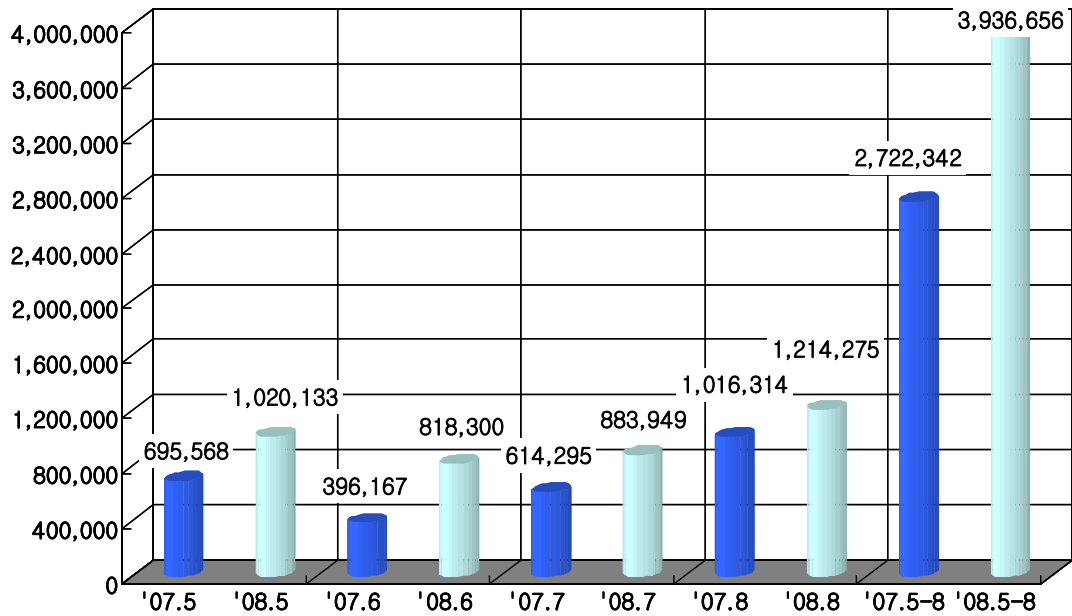
※ 참고

- 관람료수입 및 매출수입은 《국립박물관 무료화 시범실시에 따른 관람객 분석 및 파급효과 연구》의 통계를 기초로 하였음. 단, 국립중앙박물관의 매출수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2008년 10월 집계 수치를 기초로 하였음. 매출수입은 문화상품, 식·음료, 주차장, 공연기타의 매출액을 합산 것임. 2008년은 무료임으로 관람료 수입은 예상 추정치임.
- 모든 금액은 천원 단위에서 반올림.

12개 국립박물관 매출 비교(2007.5-8-2008.5-8)

문화상품, 식·음료, 주차장, 공연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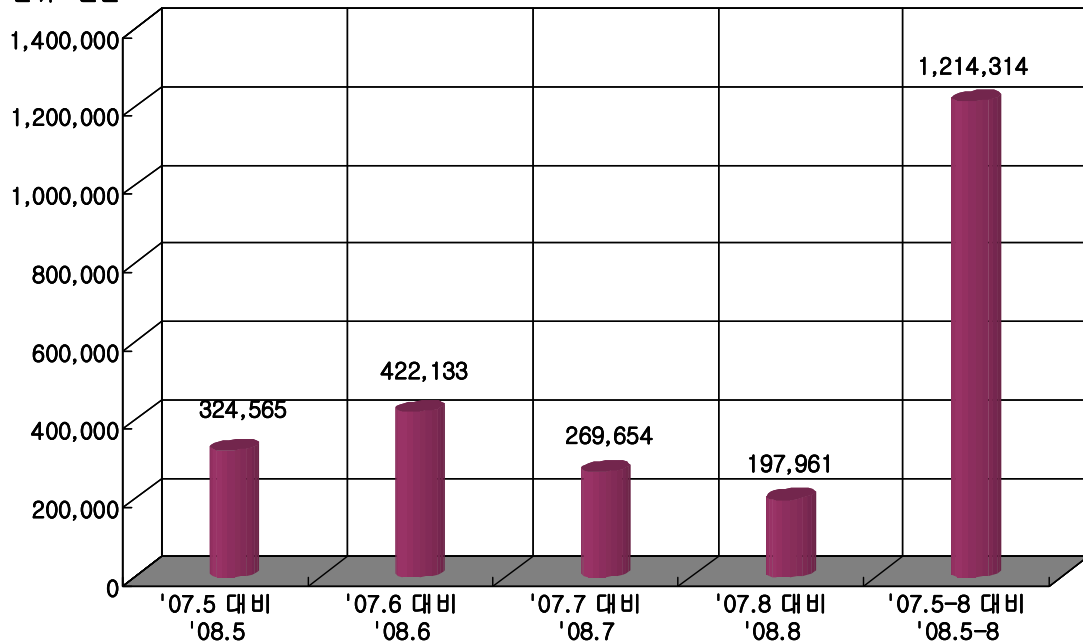
단위 : 천원



12개 국립박물관 매출차액(2007.5-8-2008.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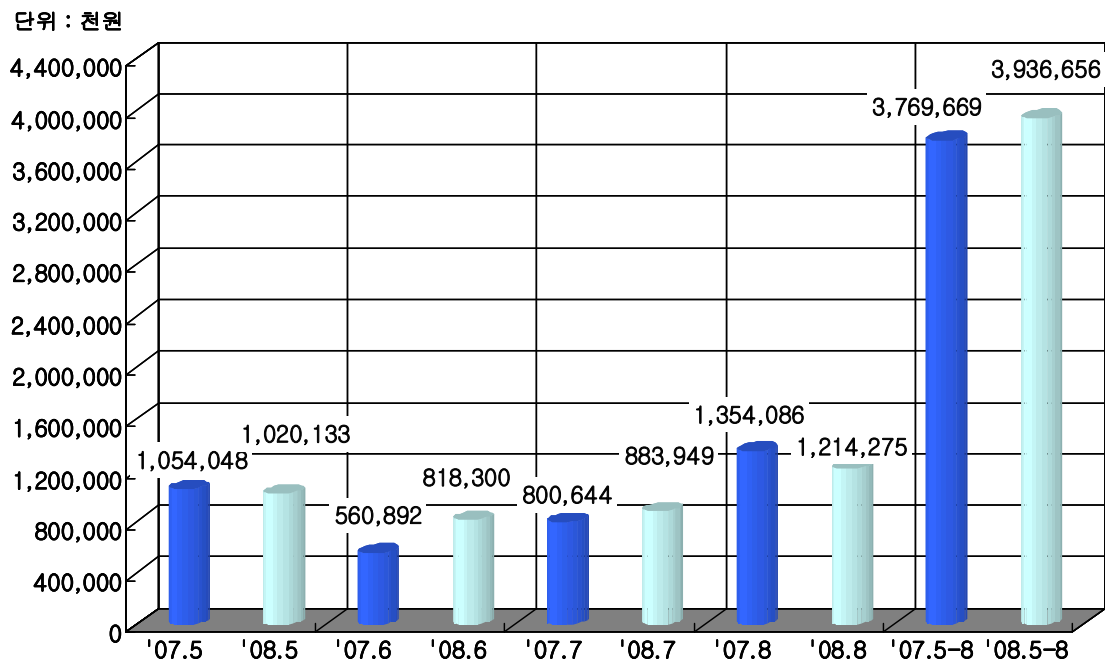
문화상품, 식·음료, 주차장, 공연기타

단위 :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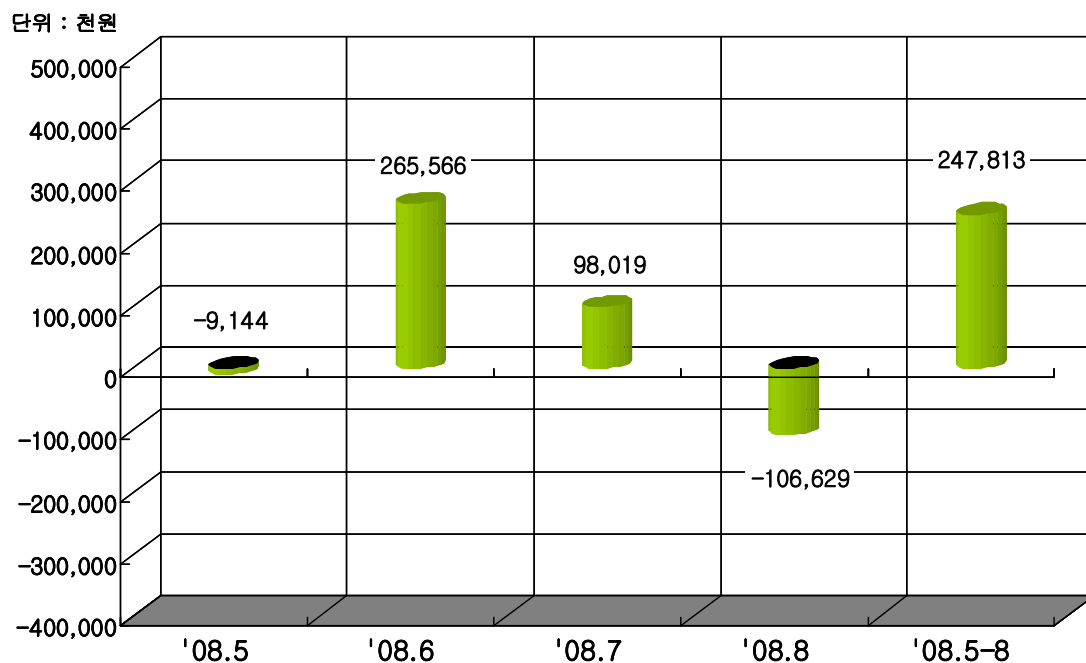
12개 국립박물관 관람료 포함 매출 비교(2007.5-8-2008.5-8)

관람료, 문화상품, 식·음료, 주차장, 공연기타



12개 국립박물관 관람료 포함 매출 차액(2007.5-8-2008.5-8)

관람료, 문화상품, 식·음료, 주차장, 공연기타



2) 관람료 무료화가 공·사립박물관에 미친 영향

이번 시범사업이 사립박물관·미술관에 미치는 영향은 첫째 사립관의 입장으로서는 국립관의 무료화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사립관 관람료가 비싼 느낌을 주거나 무료화 요구 향의, 심리적인 압박 등의 현상이 야기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아래의 설문에서도 쉽게 판단되어진다.

국립박물관 무료관람이 사립박물관과 미술관에 영향을 미쳤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입니까?-사립관 직원대상

항목	답변(우선 순서대로 번호기입 요망)	응답 점수
① 무료화로 사립관들이 갑자기 상대적으로 비싼 느낌을 줌	1	1,031
② 사립관도 무료로 해야 한다는 심리적인 압박	2	816
③ 단체관람객들이 무료인 국립을 선호하여 관람객 감소	3	758
④ 국립이 아무리 무료라 하여도 사립의 특성을 살리면 경쟁력이 있음	4	524
⑤ 관람객들이 사립관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이해하여 큰 영향이 없었음	6	323
⑥ 관람객들이 직접비교를 하지않아 큰 영향이 없었음	5	339

※ 2008.10. 총 203명 응답(2위까지 체크 : 15명, 3위까지 체크 : 27, 4위까지 체크 : 4명).응답점수는 1순위는 5점, 2순위는 4점, 3순위는 3점, 4순위는 2점, 5순위는 1점으로 계산하여 총 응답수를 합산한 것임.

많은 사립관 구성원들은 외부지원이 미미한 상황에서 무료화가 관람료수입이 줄어드는 한 요인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수치상으로 유추할 수 있는 자료로서 아래의 도표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 도표는 이번 연구를 위하여 전국의 100개 사립관 통계조사를 한 결과로서 최근 3년간의 관람객변화 추이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자료이다.

이 자료에서는 2006년에 28.8%가 상승하였으며, 다시 2007년에는 18.8%로 다소 둔화되는 듯 하지만, 역시 상승세를 기록하였음을 알 수 있다. 관람료 총액 역시 61%, 34%로 상승하는 기록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2008년 5-8월에는 일평균 관람객 수가 1% 하락하고 있으며, 총 관람객 수 변동률 역시 0.01% 하락하면서 프로그램 총 참여자 수도 4.2% 동반 하락하고 있다.

특히나 이 수치들은 연중 가장 많은 관람객을 기록하는 5월 기준으로 총 관람객이 4.3%의 상승치만을 기록하고 있으며, 방학기간인 7월-8월 역시 상승세를 보이지 못하고 7월만 다소간의 상승기록을 남기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방학전인 6월은 3가지 통계 전체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어 사립관들의 관람객숫자가 전반적으

로 줄어들었음을 실감케하는 부분이다.

사립박물관·미술관 연도별 관람객 및 관람료 통계(2005-2008)

연도	유료관 람자(명)	무료관 람자(명)	관람객 (명)	관람객 변동(%)	1관당 평균관 람객(명)	1관당 평균 관람객 변동률 (%)	관람료 총액(원)	관람료 총액 변동률 (%)
2005	1,101,219	493,126	1,598,545	-	22,202	-	3,437,408,180	-
2006	1,549,369	513,244	2,059,483	+ 28.8%	26,404	+ 18.9%	5,537,492,100	+ 61%
2007	1,830,893	615,217	2,448,097	+ 18.8%	27,507	+ 4.2%	7,421,834,384	+ 34%
2008. 1-4	498,971	136,833	657,209	-	-	-	2,125,897,600	-

※ 정확한 수치가 없을 경우 근접한 추산으로 표기

※ 세계미술문화박물관과 우석헌자연사박물관, 남포미술관의 관람객 수는 대략적 수치.

사립박물관·미술관 관람객 분류별 통계

단위 : 명

구분		5월		6월		7월		8월		평균
		'07	'08	'07	'08	'07	'08	'07	'08	
개 관	개관일수(일)	27	27	25	25	26	27	26	26	-
	일평균관람객	6,615	6,903	5,407	5,102	5,494	5,701	8,329	7,893	-
일평균관람객 수 변동률(%)		-	+4.3%	-	-5.6%	-	+3.7%	-	-5.2%	-0.002%
내국인 총수		173,913	179,468	131,197	123,060	134,593	143,743	205,828	193,616	-
외국인 총수		4,699	6,913	3,989	4,494	8,253	10,173	10,713	11,608	-
관람객 합계		178,612	186,381	135,186	127,554	142,846	153,916	216,541	205,224	-
총 관람객수 변동률(%)		-	+4.3%	-	-5.6%	-	+7.7%	-	-5.2%	-0.02%
프 로 그	상설전 등	73,990	75,755	55,641	54,427	54,511	64,103	80,192	84,591	-
	교육·행사	22,333	16,794	14,259	9,903	11,295	9,201	21,170	14,233	-
	유료특별	5,611	4,610	4,299	2,536	6,649	6,499	17,395	9,285	-

램	전									
	합계	101,934	97,159	74,199	66,866	72,455	79,803	118,757	108,109	-
프로그램 총 참여자수 변동률(%)		-	-4.7%	-	-9.9%	-	+10.1%	-	-9%	-4.2%

이와같은 결과들은 사립관들의 분석으로는 그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는 없다고 해도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국립관들의 무료화로 인한 현상으로 야기된 결과가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결국 국립의 무료화가 사립관 관람객을 유동시키는 결과로 나타났다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현장방문시 심층설문에서도 나타났으며, 아래의 설문결과에서도 알 수 있다.

이 설문에서는 무료화를 실시한다면 사립관에는 상당한수준이거나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답변이 지배적으로 많으며, 이번 시범실시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립박물관 무료관람이 사립박물관과 미술관의 진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십니까?-사립관 직원대상

문항	응답수
① 매우 도움이 되었다	3
②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	26
③ 변화가 없다	43
④ 부정적인 면이 많다	106
⑤ 매우 부정적이다	29

※ 2008.10. 총 207명 응답

만일 향후 지속적으로 국립박물관 무료관람이 실시된다면 사립박물관과 미술관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겠습니까?-사립관 직원대상

문항	응답수
①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1
②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94
③ 영향이 없을 것이다	5
④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다	0

※2008.10. 총 210명 응답

국립박물관 관람료 무료화 반대입장

항목	국립직원 (순위)	공립직원 (순위)	사립직원 (순위)
----	--------------	--------------	--------------

① 현재 우리나라 국립박물관 관람료(성인 기준 : 중앙박물관 2,000원, 지방박물관 1,000원), 할인, 무료제도만으로도 ‘동등한 문화향유’‘기회균등’원칙은 어느 정도 실현되었음	2(326)	2(88)	4(350)
② 무료화되면 ‘수익자 부담’원칙을 벗어나 관람을 하지 않은 국민도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	4(259)	3(72)	3(395)
③ 문화예술에 대한 가치를 가볍게 여기고 관람예절 등 관람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1(349)	1(90)	2(485)
④ 유물이나 작품의 안전문제 역시 불안한 면이 있음	3(260)	5(59)	5(335)
⑤ 국립관, 사립관, 대학관, 특히 관람료가 높고 예산자립도가 열악한 사립관의 관람객을 저하시키는 등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	5(257)	4(65)	1(538)

특히나 위의 설문에서 국립관들의 무료화 반대입장의 이유를 묻는 설문에서 국립관이 5순위, 국립관이 4순위로 응답한 ‘국립관, 사립관, 대학관, 특히 관람료가 높고 예산자립도가 열악한 사립관의 관람객을 저하시키는 등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 답변항목이 사립관에서는 1순위로 응답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국·국립관과 사립관의 입장이 상당한 차이를 지니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며, 무료화실시의 파장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는 없지만 심리적으로는 사립관들에게 많은 부담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관람료 무료화의 문제점

이번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나타난 문제점들로서는 심층조사에서도 전문가들의 많은 의견으로 제시된 것이지만 본래의 취지와 달리 아래의 세 가지가 제시되었다. 첫째는 ‘성급한 정치적 결정’이라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 배경에는 물론 프랑스 역시 현 사르코지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은 사업으로 1-6월에 실시된 것도 있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업과 같은 의미로 인식되면서 인기위주의 일시적 사업으로 오인될 수 있는 요소가 많았다는 점이다.

또한 이에 대한 치밀한 사전준비나 연구를 통한 예측, 신중한 제도장치가 부족했다는 점으로 행정적인 측면이 지적되었다. 아래에서는 관람객들에게 설문을 실시한 결과 나타난 문제점들이다.

응답결과를 보면 무료입장인 것을 아예 모르고 있었다는 응답이 708명으로 428명에 비하여 우세하였고, 배경을 모르고 있었다는 응답은 425명으로 거의 3배에 달하는 숫자로 압도적인 관람객이 무료화에 대한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²³²⁾

232) 이번 실시되는 무료관람은 2008년 5월-12월까지 시범실시되는 것입니다. 귀하께서는 국립박물관에 오시기 전 무료입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 국립관 관람객설문

두 번째는 이미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공·사립관과 대학관들에 미치는 파장 등을 면밀히 연구하여 사전 대비하는 과정이 필수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형식적인 절차만을 거친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과정은 적어도 박물관관련 구성원들과 전문가들의 심층토론을 거쳐 시행되어짐으로서 파장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각 설립주체가 다른 관들 간의 소통체계를 원활히 함으로서 보다 효율적인 성과를 거두어 갈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세 번째로는 장기적인 로드맵을 설정하여 2009년부터 예측되는 방향을 사전에 결정하고 이에 대한 예산과 제반 준비를 시작단계에서부터 서둘렀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영국의 무료관람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영국의 경우는 1999년 4월 어린이들에게, 2000년 4월에는 6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그리고 2001년 12월에는 이를 전면적으로 확대 적용하였다.

그런가하면 테이트 모던(Tate Modern)은 2000년 5월 1일부터 무료 개방되었고, 웨이크필드(Wakefield)의 국립석탄박물관(National Coal Mining Museum)은 2002년 4월 8일부터, 맨체스터(Manchester)의 제국전쟁박물관(Imperial War Museum North)은 2002년 7월에, 프레스턴(Preston)의 국립축구박물관(National Football Museum)은 2003년 4월에, 맨체스터(Manchester)의 인간역사박물관(People's History Museum)은 2005년 7월에, 국제노예박물관(International Slavery Museum)은 2007년 8월에 무료화 되었다. 신설될 리버풀박물관(Museum of Liverpool)은 2010/2011년에 무료로 개관된다.

이상과 같은 단계적인 적용은 대규모의 예산지원과 외부기금확대를 위한 노력과 함께 영국이 이제도를 실시한 이후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가는 매우 중요한 성공의 요인이 되었다.

문항	중앙박물관	경주박물관	광주박물관	계
① 알고 있었다	315	30	83	428
② 모르고 있었다	418	139	151	708

알고 계셨다면 어떠한 경로였습니까? - 국립관 관람객설문

문항	중앙박물관	경주박물관	광주박물관	계
① 신문, 방송 등 매스컴	68	7	10	85
② 친구나 지인을 통해서	106	33	14	153
③ 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134	4	29	167
④ 기타	71	11	5	87

알고 계셨다면 실시 배경이나 이유를 알고 계셨습니까? - 국립관 관람객설문

문항	중앙박물관	경주박물관	광주박물관	계
① 알고 있었다	90	5	20	115
② 모르고 있었다	347	53	25	425

2. 2009년 이후 국립박물관 관람료 제도의 방향

1) 검토되는 제도 및 내용

이상과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2008년도의 시범실시는 정성적으로는 최상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지만 정량적으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2009년 이후 실시안에 대하여는 유료화와 무료화 두 가지 제도 이외에도 아래와 같은 다섯 가지 제도로 나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2009년 이후 선택될 수 있는 국립박물관 관람료 제도

대분류	세부내용	참고
① 유료화	현재수준	- 할인, 면제 대상 확대
	현재보다 상향조정	- 외국에 비하여 매우 낮은 관람료 감안 - 할인, 면제 대상 대폭확대
	현재보다 하향조정	- 할인, 면제 대상 현재와 동일
② 유료화, 1-2개관 무료화 연장	관람객 유입, 지역 환경 등을 고려, 1-2개관만 1년 연장하여 무료로 개방	- 박물관의 환경, 규모, 관람객 수, 도시의 인구 등에 비례(진주, 춘천 등) - 무료관람의 모델로서 지속적인 연구병행. 이후 제도 실시에 대한 면밀한 검토 - 시행 후 재검토하여 2010년 이후 안결정
③ 무료화 연장 실시	2009년 12월까지 연기 후 다시 결정	- 8개월만으로는 시간적으로 다소 부족한 면이 있고, 2009년이 한국 박물관 역사 100주년이 되는 해라는 점에서 고려
④ 무료화	전관무료(특별전 제외)	- 보완, 지원책 강구
⑤ 무료화, 국립중앙박물관만 유료	전관무료(특별전 제외)	- 보완, 지원책 강구 - 가장 많은 관람객이 찾는 국립중앙박물관만을 유료화하고 타관을 무료화하는 방안

그러나 위의 사항들은 아래의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을 참고하여 결정될 필요가 있다.

- 정부의 문화, 예술 기반시설에 대한 정체성과 철학적 기초, 방향설정
- 향후 국립박물관·미술관들의 운영형태 등 중장기 진흥방안에 의거
- 국민들의 문화향수권 신장의 수준과 비례할 필요
- 국립, 대학, 사립 등 타박물관과의 형평성과 파장
- 우리나라의 공공정책, 물가, 타입장료 등 현재 상황
- 해외 뮤지엄과의 균형

- 유료화로 다시 복귀하는 경우, 현재의 무료관람 배경과 이유 등 설명을 더욱 구체적이고 정확히 게시

특히나 심층 인터뷰과정에서는 무료화가 다소 짧게 느껴진다는 현장의 판단과 함께 1-2년을 더 연장하는 방안이 제시되었고, 2009년이 한국 박물관 역사 10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더욱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또는 진주성처럼 성의 입장료가 이중적인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 무료화를 절대 강조하는 사례가 있으며, 유적지, 관광지와 연계하여 연동적으로 많은 관람객을 유치할 수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차이 등을 고려해달라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한편에서는 도서관의 무료화에서 볼 수 있는 문화기반시설의 개방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는 주장도 일부 제기되었다.

그러나 해외의 뮤지엄과 비교해서는 턱없이 낮은 관람료수준이어서 너무 싸다는 의견과 함께, 전체를 무료화한다는 안에는 찬성이 미미했다. 특히 국립박물관과 미술관의 경우 대다수가 무료화를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사립관들의 입장 역시 대다수가 무료화를 반대하였으며, 그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입장이 주를 이루었다.

한국의 국립박물관 무료관람에 대한 찬반 논쟁

찬성	반대
· 아직도 박물관은 일반인에게 어려운 곳이다.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문화유산이 공부하는 일부 계층만의 향유물은 아닐 것이다. 무료관람을 해서라도 여러 사람들이 박물관의 유물들과 자주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자주 볼 수 있어야 문화유산을 더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 ‘수익자 부담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 기존의 할인/무료 제도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전면 무료화를 시행하여, 그 운영비용은 모두 세금에서 충당, 수익자 부담 원칙에도 맞지 않음. · 현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다른 정치적 목적의 선심성 정책에 불과.
· 무료관람 이후 상당 수 관람객 증대 효과가 있었음. 특히 반복관람객, 가족단위 관람객이 증가한 것을 보면 관람료가 상당한 부담을 주었음을 보여줌. · 무료화를 통해 문화향유를 항상 느끼고 반복 관람이 가능하여 좋음.	· 관람료는 곧 문화를 가치있게 생각하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다. 관람객의 기본적인 의식수준이 낮음 - 관람객 유료화는 관람문화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 · 오히려 박물관에 소장품에 대한 가치를 하찮게 생각 할 수 있음. · 천민문화주의가 팽배. 박물관 경시 풍조가 생겨날 것 같다.
· 관람료 총액은 과거에 미미한 수준. 이에 반해 국민 모두가 향유하는 심리적, 현실적 만족감의 가치뿐 아니라 관광하기에 편한 나라, 방문하고 싶은 나라로 인식되어져	· 관람료수입이 사실상 재정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거나 오히려 인건비에도 모자라는 점이 있으나 관람객들의 관람 자세나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관광수입 증가와 대체소비로 경기 활성화에 기여.	· 최소한의 재정적인 수익구조를 위해서는 필요하다.
· 무엇보다 학생들의 단체관람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던 입장료가 없어짐에 따라, 교사들이 학생을 단체로 인솔하여 박물관을 더욱 쉽게 찾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 과거에는 입장료 징수가 교사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입장료가 있는 박물관 등은 단체관람 코스에서 제외하는 경향이 강하였음.	· 무료화가 관람객 유치에는 성공적일지는 몰라도 관람객수용은 문화예술에 대한 가치가 다소 하락. 무료관람이라는 특성상 아무나 쉽게 오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라고 여길 수 있으므로, 실제로 문화예술을 보고 체험하려고 하는 관람객들에게 방해, 원래의 박물관 설립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음.
· 타 문화기관에 비해 흥미도, 역동성 등에서 떨어지는 박물관이 지속적으로 그 사명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료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가 필요.	· 상대적으로 공립이나 사립관들의 무료화를 유도하거나 열악한 현실에서 심각한 불균형을 이룰 수 있다.
· 결국 무료관람으로 입는 손실금은 문화상품, 뮤지엄숍이나 식당 등에서 소비되는 금액으로 상당부분 상쇄될 수 있음.	· 물론 무료화가 관람객들을 위해서는 좋은 제도 이긴 하지만, 아직 무료화하기에는 시기가 이름. 무조건 무료화만 한다고 해서 국민들의 문화질 향상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의문. 무료화하기전에 국민들의 박물관 관람 태도 등 의식수준향상이 먼저임.
-	· 다양한 문화 콘텐츠가 있을텐데, 굳이 박물관, 미술관만 정책적으로 무료화 한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공연(음악, 연극 등)을 하고있는 국립극장 등에서도 무료화가 추진된다거나 하는 것도 아닌 듯싶다.

이상과 같은 찬반의견들이 제시되었으며, 이외에도 아래와 같은 제 3의 의견도 있었다.

사전준비 부족

- 정부에서 국립박물관을 무료화하면서 과연 우리국민들에게 문화혜택이 돌아 갈 것인가 무작위로 설문조사라도 한번 해보았는지 궁금하다.
- 국립박물관 무료를 하면서 무료화 정책에 따른 공개토론이라도 하고 실시를 했다면 국민들이 사립박물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연장실시

- 국립과 공립은 설립주체와 운영방향, 운영정책이 사뭇 다르므로 관람료에 대한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각 기관의 사정을 고려하면 어렵다고 판단.
- 일시적인 무료화를 1년 정도 실시한 다음에 결과물 가지고 다시 측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관람증가 추세를 검토 후 무료화 계속 검토

질적 향상이 중요

- 관람료 인하와 문화혜택증진과는 관계가 적음. 문화는 돈이 아니라 국민의 의식임. 유·무료 보다는 콘텐츠 변화로 국민문화향수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됨.

싼 관람료

- 이전의 입장료 자체가 문화향유의 의지가 있는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부담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다른 나라에 비한다면 관람료는 오히려 싼 편이다.

위에서 볼 수 있는 의견들은 찬반 양론이 각기 설득력을 지니고 있으며, 주로 제기되는 내용은 관람료에서 징수되는 재정적인 수익구조보다는 그 가치인식과 의미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프랑스 편에서 살펴보았던 이번 프랑스 14개관 무료화과정에서 제기된 찬반논쟁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논점들과 어느정도 상통하면서도 다른 점을 지니고 있다. 그 중에서도 2-3천억원이 소요되는 엄청난 관람료의 국고부담은 현실적으로 전 박물관에는 어려운 장애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다양한 할인제도가 이상적이라는 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다.

또한 무료관람은 결국 기획전시 관람료의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또 다른 문화적 차별을 유도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점도 매우 의미있는 지적이며, ‘만인을 위한 문화’, ‘문화적 민주주의’라는 대의명분 또한 참조될 만한 표현이다.

프랑스 국립뮤지엄 무료 관람에 대한 찬반 논쟁

찬성	반대
- ‘만인을 위한 문화’, ‘문화적 민주주의’라는 프랑스 혁명 이후의 고귀한 전통 유지.	- 민주화의 핵심은 단순한 관람객 증가가 아니라 새로운 관람객 창출 : 관람료 면제만으로는 새로운 관람객을 유인할 수 없다. - 상설전시의 무료관람은 기획전시 관람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또 다른 문화적 차별을 유발함.
-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다른 나라들이 이미 여러 해 전부터 국립박물관의 상설전시를 무료로 개방. ²³³⁾	- 연령, 재산, 직업, 시간 등 다양한 기준에 부합하는 할인제도가 훨씬 더 효과적임.
- 파리, 디종, 보르도 등의 지자체가 상설전에 한해 무료관람을 실시. ²³⁴⁾	- 무료관람은 기존의 문화 향유층, 외국관광객, 여행업자들에게만 이로울 뿐임.
- 관람객 숫자의 증가와 더불어, 관람객 구성원의 다변화에도 기여. ²³⁵⁾	- 관람객수 증가는 일시적인 현상임(조사결과로 입증). ²³⁶⁾

- 관람 태도 변화 : 관람을 거듭함으로써 박물관 작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	- 다양한 행사가 젊은이를 박물관으로 유인하는 데 더 효과적 : ‘박물관의 봄’ ²³⁷⁾ 이나 ‘박물관의 밤’ ²³⁸⁾ 을 통해 확인.
- 무료관람으로 인한 박물관의 손실은 메세나와 부대사업(기념품점, 카페테리아, 공간임대 등)으로 보충.	- 전면적 무료관람 실시 비용은 최대 2억 유로(한화 약 2,505억 4,300만원) 정도로 추산되며, ²³⁹⁾ 이는 2008년 문화부 총예산의 6.8%에 해당함. - 전면적인 무료관람은 국가적으로만이 아니라 박물관에도 치명적인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함. ²⁴⁰⁾

이와같은 쟁론들은 우리나라의 무료화를 결정해가는 데 많은 교훈과 참고자료가 된다. 한편 가장 대규모로 무료화를 선두에서 실시해온 영국 역시찬반이론이 팽팽하다. 이미 위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찬성론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980년대 국립박물관들은 정부로부터 자금지원을 받고 있었고, 보수당 정부로부터 자금지원 축소를 위해 관람료를 징수하라는 정치적인 압력에 직면하게 되었다. 결국 대영박물관을 비롯한 테이트 및 내셔널갤러리 등 주요 국립 뮤지엄들이 관람료를 징수하게 된다.

이후 15년 동안 유료인 몇몇 박물관들이 관람객 수의 감소로 고통을 겪는 반면, 무료인 국립박물관들의 관람객 수는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빅토리아 앤 앨버트 뮤

233) www.senat.fr/cra/s20080326/s20080326_1.html#par_11

234) 설문조사 결과 파리 시민은 이 조치에 대해 만족하고 있으며, 실제로 무료관람으로 인해 관람객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파리에서는 2001년 53만여 명에서 2005년 76만여 명으로 43% 증가하였음.
cultureetloisirs.france2.fr/artetexpositions/actu/32552839-fr.php

235) 루브르는 무료관람을 시행하는 일요일과 다른 일요일들의 관람객을 분석한 결과, 무료관람일에 노동직과 사무직 관람객이 증가했고, 특히 실업자나 최저임금생활자는 거의 2배로 증가하였음.
www.la-croix.com/article/index.jsp?docId=2303062&rubId=5548

236) www2.culture.gouv.fr/culture/deps/pdf/etudes/CE_2008-1_gratuite.pdf, p. 3. 참조.

237) ‘박물관의 봄’은 프랑스 문화부 박물관국이 1999년부터 주관한 행사로, 5월 첫 번째 일요일에 전국의 박물관을 무료로 개방함으로써 인근 주민을 새로운 관람객으로 유입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이 행사는 유럽평의회(Conseil de l'Europe)의 후원을 받아 곧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어 2004년까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printempsdesmusees.culture.fr/fr/html/bilan.htm 참조.

238) ‘박물관의 봄’의 국내외적인 성공에 고무된 프랑스 문화부는 2005년부터 더욱 다양한 부대행사를 추가한 ‘박물관의 밤’을 유럽평의회와 함께 유럽 전역에서 개최하기 시작한다. ‘박물관의 봄’의 개정판이라고 볼 수 있는 이 행사는 국제박물관협회(ICOM)의 ‘세계 박물관의 날’에 가장 가까운 5월의 한 토요일 밤(때로는 새벽까지)에 박물관을 무료로 개방하고 서커스, 시식회 같은 이벤트도 수용하여 박물관 축제 또는 ‘난장’을 벌임으로써 엘리트주의적이라고 인식되기도 하는 박물관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박물관 상을 정립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2007년 행사는 프랑스에서만 956개의 박물관이 참가하여 130만의 관람객을 기록했다고 한다. ‘박물관의 밤’은 2008년 5월 17일 밤에 유럽 전역에서 개최되었다.

nuitdesmusees.culture.fr/presse/dossier_de_presse.php 참조, 송기형(2008) 〈프랑스 박물관 관람 정책〉, 《한국프랑스학논집》 참조.

239) 프랑스 문화부의 2008년도 총예산(인건비 포함)은 29억 2,800만 유로(한화 약 4조 443억원)이다. 이는 국가 총예산 2,718억 유로의 1%가 조금 넘는 규모이다.

www.lefigaro.fr/debats/20070705.FIG000000045_musees_le_mirage_de_la_gratuite.html 참조.

240) 루브르의 경우 2006년도 관람료 수입이 4천만 유로(한화 약 488억 9천만원)가 넘는데, 국가의 재정적자 때문에 문화부 예산 증액이 불가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무료관람으로 인한 손실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루브르의 자체 수입은 7,200만 유로(한화 약 880억원)이며, 관람료 수입이 60%에 육박하므로 이 또한 불가능하다.

지엄은 1997년 5파운드의 관람료를 도입하였고, 그 결과 관람객 수가 반으로 감소하게 되었다.

이와같은 우여곡절을 겪은 영국은 1997년 새롭게 정권을 잡은 노동당 정부(Labour government)에 의하여 국립박물관에 대한 무료관람제도를 회복하게 되었으며, 상당히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게 된다. 2001년 12월부터 시행한 국립뮤지엄과 갤러리에 대한 무료관람제도 이후 2년 동안 이들 뮤지엄의 관람객 수는 약 1,100만명 정도 증가하였다. 2002년 관람객 수는 530만명이 증가하였으며, 2003년에는 560만명이 증가하였다. 2001년과 비교해 2003년의 관람객 수는 7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²⁴¹⁾

2006년 12월 통계에 따르면, 2001년 12월 무료관람제도를 시행한 후 과거 유료였던 박물관의 총 관람객 수는 83% 상승하였고, 2006년 650만명의 추가 관람객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유료였던 런던의 국립박물관들은 관람객 수가 86% 증가하였다. 빅토리아 앤 앨버트 뮤지엄은 122% 증가하였고, 자연사박물관은 112%, 과학박물관은 81%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비판세력 역시 만만치 않다. 내셔널 아트 컬렉션 펀드(National Arts Collections Fund)는 박물관과 갤러리들의 무료관람제도는 더 많은 돈이 생기지 않는 한 ‘무너져 내리는 카드 집처럼(like a falling house of cards)’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무료관람제도는 뮤지엄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찬성파들은 지금까지의 놀라운 성과에 매우 만족한 발언을 쏟아낸다. 맨체스터의 과학산업박물관 관장인 이안 그리피스(Ian Griffith) 박사는 무료관람이 어떠한 차이를 만들었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무료관람은 현대 뮤지엄의 혁명이며 이는 박물관과 대중들의 장벽을 진정하게 허무는 사건이었다. 나는 우리가 이 제도를 될 수 있는 한 오랫동안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료관람을 시행하기 이전에는 어린이 4파운드, 성인 6파운드의 관람료를 받았고, 관람료를 낮게 책정했지만 관람객들은 오지 않았다. 그러나 무료관람제도를 도입한 첫 해에는 관람객이 두 배가 되었다. 과거 무료관람제도를 시행하기 이전에는 연평균 관람객이 21만명인 것에 비해 2007년에는 41만명이 방문하였다.”

문화부 장관이었던 테사 조엘(Tessa Jowell)은 “국립박물관과 갤러리의 무료관람제도는 1997년 이후 정부문화정책의 일환으로 누구도 근엄하기만 한 문화유산에 관심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무료관람제도의 시행으로 관람객들이 몰려들었다”고 말했다.²⁴²⁾

2007년 4월부터 2008년 3월 사이 대영박물관의 관람객 수는 603만 7,930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약 113만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 뮤지엄들의 관람객 수는 전년도와 비슷하거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12월 1일은 영국이 무

241) http://www.culture.gov.uk/Reference_library/Press_notices/archive_2004/dcms025_04.htm

242) http://www.culture.gov.uk/reference_library/media_releases/2250.aspx

료관람제도를 시행한 지 6년이 되는 해인 동시에 무료관람시행 이후 가장 성공적인 해로 2007년 한 해 동안 박물관의 추가 관람객수는 7,700만명인 것으로 통계되었다.

한편 중국 국가문물국의 부국장(副局長)인 장보(張柏)는 “대략 2008년 4월 1일 이전, 2008년 무료관람을 시행하게 될 박물관이 약 600개관에 이를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는 2008년 무료관람정책을 시범 운행한 400개관 외에 200개관이 추가로 참여하게 되고, 2009년에는 800개관이 다시 무료관람에 참여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2008년과 2009년까지, 공공박물관과 전국의 애국주의 교육기지 등을 모두 합쳐 1,400개관이 무료로 개방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²⁴³⁾ 이렇게 되면 비록 후발주자이지만 ‘박물관의 인민화’를 선언한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대량의 박물관을 무료화해가는 셈이 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무료화는 어떠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2009년부터 적용해야 할 모델은 어떤 것일까?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하여는 선행적으로 실시해온 영국이나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실시해온 프랑스, 중국 등의 사례를 직접적으로 도입하거나 비교하기가 어려움이 있다.

그 이유는 각국의 박물관제도나 국립박물관의 운영시스템, 국영화와 민영화정도, 문화수준 등이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 3개국을 제외하고는 세계 문화선진국들 대다수가 무료화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매우 비싼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무료와 유료의 논쟁에서 나타나는 우려와 장단점은 ‘문화민주주의’ 즉 ‘국민문화향수권 신장’ ‘수익자 부담원칙’ ‘박물관 운영’ 등 어느 나라나 비슷한 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다는 점과 할인 및 면제제도 등을 고려해가는 데 상당한 참고가 되었다.

2) 유료화 복귀

(1) 유료화

이상과 같은 입체적인 국내외 자료분석과 이번 실시된 제반 통계조사, 설문, 현장 인터뷰 등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2008년 한시적인 무료화는 어느정도의 성과를 거두었지만 2009년부터는 아래와 같은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이상적일 것으로 판단하였다. 1안으로서는 ‘① 유료화’가 타당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으며, 제 2안으로서 ‘② 유료화, 1-2개관 무료화 연장’안을 선택하였다.

그 이유로는 아래와 같은 네 가지 원인과 타당성을 들 수 있다.²⁴⁴⁾

243) http://www.ce.cn/kjwh/scpm/zixun/200803/13/t20080313_14823815_1.shtml

244) 이 부분에 대하여는 올해 3월 18일 ‘문화관광체육부에 대한 대통령 지시사항’에서

· 건국 60주년을 맞아 올해 박물관 입장료를 무료로 하고 내년부터 유료를 하는 방안 추진

① ‘수익자 부담원칙’

국립박물관이 국가의 문화기반시설로서 언젠가는 무료화를 논할 수 있는 성격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하여 관람자들이 부담하는 형식이 긍정적이다.

이 부분은 반대로 무료화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들의 박물관유입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도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설문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지만 국립박물관의 관람객 증대에 낮은 관람료(성인 : 중앙/2,000원, 지방/1,000원)가 가장 큰 장애요인이 아니라는 것은 대다수가 인지하고 있다.²⁴⁵⁾ 다시 말해 박물관을 관람하는데 우리나라 수준의 관람료가 장애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2008년 5-8월 4개월간 무료화로 인한 관람객은 물론 258만 4,293명으로 2007년의 같은 기간 동안의 관람객 수인 197만 642명보다 61만 3,651명이 증가하여 매우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단기적 수치상의 증가도 중요하지만 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볼 때 관람자 스스로가 적정한 금액을 지불하여 박물관관람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문화의식의 고양’에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② 환경적 조건 미비

박물관은 이미 ‘국민문화기반시설’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체를 국가가 지원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그 운영체계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경영전략을 반영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점은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박물관의 전반적인 체계에 있어 단계적으로 연구해가야 할 부분으로 이미 세계적인 추세에 의해서도 증명되고 있다.

- 국립박물관은 무료인데 사립박물관도 무료로 강요하기는 어려움
- 금년 건국 60주년을 맞아 무료로 하되 내년부터 유료화하면서 소외계층, 장애인, 학교단체 등에 대해서는 무료입장권을 발급해주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등의 내용이 언급되어있으며, 이 부분은 여기서 도출한 이유와 결론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동일한 방안으로 판단됨.

245)

9. 국립박물관 관람을 더욱 많이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두 개만 체크)

문항	중앙박물관	경주박물관	광주박물관	계
① 문화생활의 여유가 없어서	1(321)	2(59)	1(123)	1(503)
② 관람료가 부담되어서(성인 기준 : 중앙박물관 2,000원, 지방박물관 1,000원)	5(47)	5(12)	5(18)	5(77)
③ 박물관의 서비스가 마음에 안들어서	6(35)	6(9)	6(12)	6(56)
④ 전시실이 자주 바뀌지 않고 비슷해서	3(238)	3(50)	2(110)	3(398)
⑤ 거리가 멀어서	2(276)	1(100)	3(76)	2(452)
⑥ 교통이 불편해서	4(141)	4(43)	4(67)	4(251)

특히나 무료관람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영국의 경우 뮤지엄 자체가 이사회를 두고 있으며, 거의 상당수의 결정권이 바로 이사회에서 의결되고, 후원제도가 매우 발달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와 함께 후원, 기부제도가 발달한 선진국과 비교하여볼 때 현재 우리나라의 체계로서는 환경적으로 영국의 무료화와는 많은 차이를 지니고 있고, 이번 실시된 프랑스와 중국과는 더욱 많은 여건상의 차이가 있다.

프랑스만 해도 이미 1793년부터 중앙 박물관(Musée Central)개관 후 시민들에게 주말무료 관람제도를 실시하는 등 오랫동안 부분적인 무료화를 실시해온 경험을 축적해왔으며, 국내외 관람객 수와 관람료가 우리와는 비교도 안될 만큼 높은 수준이며, 만일 전 국립박물관이 무료화를 실시할 경우 매년 3천억원 정도가 지원되어야 한다는 통계에서도 단적인 비교가 가능하다.

더욱이 현재 실시되고 있는 중국의 무료화 제도는 사회주의 국가시스템에서 아직까지 국립형 박물관들이 대다수이며, 국가 경제수준과 관계없이 문화에 대한 국민 수준이 매우 높은 국가라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영국과 같이 노동당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무료화 이후 체계적인 준비과정에 의하여 문화재 복권기금(Heritage Lottery Fund/ HLF) 프로젝트는 물론, 1994년부터 2003년까지 20억 파운드(한화 약 3조 7,955억 2천만원) 이상의 국립복권기금(National Lottery)을 투입한 것은 무료화와 더불어 병행되는 매우 중요한 사례이다.

여기서 문화재 복권기금(HLF)은 박물관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제도였으며, 1994년부터 2004년 사이 600관 이상의 뮤지엄에 막대한 자금이 지원되었다. 박물관과 갤러리들은 이러한 기금 외에도 밀레니엄 위원회(Millennium Commission/ MC)와 잉글랜드와 웨일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예술위원회(Arts Councils of England, Wales, Scotland and Northern Ireland) 등과 같은 다른 기금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와 같은 양면적 시스템, 즉 국가지원과 자체적인 경영자립도가 동시에 구축되는 영국과는 많은 차이가 있으며, 프랑스와 같은 문화대국 역시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③ 무료화에 가까운 수준

세계의 박물관 및 미술관 관람료 수준비교에서 우리나라 국립박물관은 이미 60% 이상 무료관람을 반영하고 있다. 즉, 현재의 관람료는 우리나라와 경제수준이 비슷한 B그룹 평균 7,939원의 3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국립박물관이라고 해서 공립이나 사립에 비하여 낮은 관람료를 책정해야 한다는 사고가 반드시 원칙은 아니다.

해외의 수준과 비교한다면 국립박물관의 관람료를 현재보다 4배 정도는 상향조정했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며, 현재 관람료는 그만큼 국민들에게 국가의 재원을

투자하여 할인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다. 물론 해외수준의 관람료를 즉시 시행하는 데는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당장은 불가능한 점도 인정된다. 그러나 적어도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되어 국가가 투자하는 박물관 진흥예산, 해외 우수박물관과 비교된 경영형태 등에 대한 이해가 확대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은 이후 박물관 진흥에 있어서도 매우 필수적인 부분이다.

한국과 외국의 박물관·미술관 관람료 비교

※ 관람료 : 성인(일반)기준이며, 무료는 제외함. 2008년 7월 19일 기준 한화

구분	국립박물관 미술관		공립박물관 미술관		사립박물관 미술관		대학박물관 미술관		계	
	관	관람료	관	관람료	관	관람료	관	관람료	관	관람료
외국A그룹	43	11,745	17	9,816	47	10,344	12	6,467	119	9,593
외국B그룹	43	7,939	5	3,612	8	5,203	1	8,985	57	6,435
외국C그룹	27	2,899	2	1,565	7	6,702	2	666	38	2,958
한국	24	1,054	68	1,356	149	3,956	-	-	241	2,934

여기에 프랑스와 영국 등은 이미 상당한 수준의 관람료를 징수해온 상태에서 무료화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그만큼 파장이 크게 나타났을 것으로 판단되며, 무료나 면제혜택 역시 상대적으로 큰 의미를 확보하게 된다는 점이 우리나라와는 판이하게 다른 상황이다. 아래는 프랑스가 무료화 시범실시전 3개관의 관람료이다.

가. 기메아시아미술관(Musée national des arts asiatiques Guimet, 파리)

- 18세 이하 무료.
- 정상요금 : 6.5€(한화 약 10,405원)/ 할인요금 : 4.5€(한화 약 7,204원)
- 기획전시 : 7€(한화 약 11,206원)/ 할인요금 : 5€(한화 약 8,004원)
- 박물관 입장 + 기획전시 관람권 : 8€(한화 약 12,807원)/ 할인요금 : 6€(한화 약 9,605원)

※ 참고

- 8개 국어 음성 안내 시스템: 무료 (개인 관람객에 한함)
- 아동을 위한 놀이기구 무료 이용권.
- 불교미술관과 일본 정원, 도서관, 사진 전시실은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 가능.

나. 자기박물관(Musée national de porcelaine Adrien Dubouché, 리모즈)

정상요금 : 4.5€(한화 약 7,204원)/ 할인요금 3€(한화 약 4,803원)

다. 클뤼니 중세박물관(Musée national du Moyen Age - Musée de Cluny)

정상요금 : 7.5€(한화 약 7,204원)/ 할인요금 5.5€(한화 약 4,803원)

④ 공립, 사립관들에 대한 파장 고려

국립관들의 무료화는 아직 견고한 박물관의 운영체계를 확립해가지 못하고 있는 사립관, 대학관, 공립관의 경우는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나 기부제도나 후원제도가 거의 희박한 상황에서 사립박물관 운영에서는 더욱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미 설문에서도 증명되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는 실시 전에 매우 면밀한 연구와 대비책을 가지고 구성원들 간의 소통체계를 통한 장시간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할 것이다.

⑤ 박물관 및 미술관 구성원들의 판단

다양한 성격의 박물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설문 결과를 보면 유료화를 찬성하는 숫자가 국립, 공립, 사립 모두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심층인터뷰에서도 공립과 사립은 유료화에 압도적인 표를 던졌다. 무료화에는 국립관의 일부가 당위성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관람객들은 ‘계속 무료화를 희망한다’라는 답변에 727명이 찬성하여 직원들과는 상대적으로 무료화를 희망하였다.

국립박물관의 무료관람은 12월까지 시행됩니다. 2009년부터 시행될 경우 유료와 무료화제도를 비교하여 어느쪽이 타당한지에 대한 설문입니다.

문항	국립직 원	공립직 원	사립직 원	계
① 계속 무료화를 희망한다	2(48)	3(11)	4(17)	4(76)
② 한동안 연장실시 후 다시 결정되었으면 한다	3(33)	2(12)	3(37)	3(82)
③ 12월로 종료하고 다시 원래의 유료제도를 적용해야만 한다	1(84)	1(20)	1(101)	1(205)
④ 상황에 따라 일부관은 유료로 환원하고 열악한 곳은 무료화가 적절	4(31)	4(6)	2(52)	2(89)

※국립직원 : 총 196명 응답, 공립직원 : 총 49명 응답, 사립직원 : 총 207명 응답

위의 분석에서 나타난 것은 무료화의 장점을 발견하고 장기적으로는 적극 검토해볼 수 있는 제도라는 사실에는 공감하면서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른 제도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관람객들의 설문에서는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무료

화를 찬성하였으나 상대적으로 관람료 수준을 묻는 항목에서는 ‘보통이다’와 ‘싼 편이다’에 총 895명으로 1, 2위의 답변순이 되어 대조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박물관 관람의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서도 관람료 부담은 5위에 처지는 등 무료에 대한 단편적인 선택이었음을 반증하고 있다.

(2) 유료화, 1-2개관 무료화 연장

이번 무료화실시에 대해서는 사실상 프랑스의 전략을 매우 의미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프랑스는 1-6월 사이에 이 제도를 실시하였는데 파리에 6개, 지방에 9개관을 실시하였고, 주제도 미술, 역사, 민속, 항공 등 매우 여러 형태로 분산하였다.

또한 관람객 수가 많은 곳과 적은 곳을 포함하였다고 했지만 대형박물관인 루브르박물관(Musée du Louvre), 오르세미술관(Musée d'Orsay), 베르사유 궁전 박물관(Musée des châteaux de Versailles), 퐁피두센터 내 국립현대미술관(Musée national d'Art moderne du Centre Georges Pompidou), 께브랑리박물관(Musée Quai Branly) 등은 모두 제외되었다. 베르사유를 제외하고 4개관은 다만 저녁 18-20시까지, 18-25세를 대상으로 ‘시간별 연령별 무료요금제’를 실시하는 매우 형식적인 제도를 실시하였다.²⁴⁶⁾

더불어서 프랑스 국내의 평가는 사실상 그리 성공적이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규모가 작은 박물관일수록 관람객수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소규모 박물관들이 매우 만족해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예를 들어 연간 5만명 이하의 관람수를 기록하던 박물관은 관람수가 157%까지 증가한 사례가 있으며, 10만이상의 관람수를 기록하던 박물관들은 약 47%, 30만명 이상의 관람객 수를 기록하던 박물관들(예: 기메박물관)은 약 17% 증가했다.²⁴⁷⁾

그런대로 효과적이었다고 생각되는 정책은, '일주일에 하루 야간에 18-25세에게 무료 관람을 허용한 정책'이라 생각된다. 그 덕분에 그동안 박물관을 관람하지 않던 젊은이들의 관람수가 40~60% 증가했다는 통계가 보고되었다.

프랑스의 이와같은 실시방법과 결과에서 볼 수 있는 참고사항은 우선 관람객이 많은 유명한 뮤지엄들은 무료화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대다수가 다소 소규모나 관람객이 적은 뮤지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관람객 상승률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이 부분은 영국 역시 환경이 갖추어진 박물관들이 시차를 두고 무료화를 실시해

246) · 퐁피두센터 내 국립현대미술관 : 수요일 저녁
(Musée national d'Art moderne du Centre Georges Pompidou)

· 오르세미술관(Musée d'Orsay) : 목요일 저녁
· 루브르박물관(Musée du Louvre) : 금요일 저녁
· 께브랑리박물관(Musée de Quai Branly) : 토요일 저녁

247) 파리의 최선희 객원연구원에 의하여 프랑스 문화부와 기메뮤지엄 등에 직접 연락하여 자료 요청을 하였으나 정부의 통계 최종발표가 3차례 이상 늦어지는 관계로 정확한 수치를 통계하지 못하였음.

가는 과정을 생생하게 볼 수 있어 매우 합리적인 방법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상 동시에 14개관이 실시되었지만 각관마다 규모나 성격, 가능성, 평가, 무료화 희망정도 등이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들을 읽을 수 있다. 4개월간의 통계로만 본다면 가장 많은 증가율을 나타낸 곳이 68.5%로 국립진주박물관이며, 두 번째가 국립춘천박물관으로 50.1%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국립춘천박물관이 2007년 1일 평균관람객이 369명으로 가장 적었고, 국립진주박물관이 596명으로 그 다음을 기록하고 있었다.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 있으나 위와같은 수치가 단순한 우연은 결코 아니다. 물론 각 관들의 노력도 뒤따랐겠지만 주변여건상 관람료가 미치는 파장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관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여러 가지 조건에서 무료화를 1년 정도 연장하여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로서는 특히 국립춘천박물관 같은 경우 지역적으로 유동인구가 적을 뿐 아니라 관광객유치 역시 제한적이며, 주변의 공립관이나 사립관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진주 역시 진주성 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관람료 이중부과 문제가 대두된 지 오래이고, 위치적으로도 성안에 설립되어 있어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만일 이를 확대한다면 광주, 전주박물관까지 실시될 수 있으나 이는 각 관들의 자율에 맡기는 제도로 까지 확대될 수 있다. 이 경우 상당한 혼란이 빚어질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일단 1-2개관의 무료화를 실시한 다음 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다음 대안을 마련해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실상 1-2개관의 무료화는 위에서 언급한 다소 열악한 지역적인 위치도 감안될 수 있지만 유료와 무료의 차이점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분석할 수 있는 모델이 된다는 점에서도 향후 관람료 정책수립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

무료화 이후 12개 국립박물관 일평균 고객 변동률(2007.5-8. 2008.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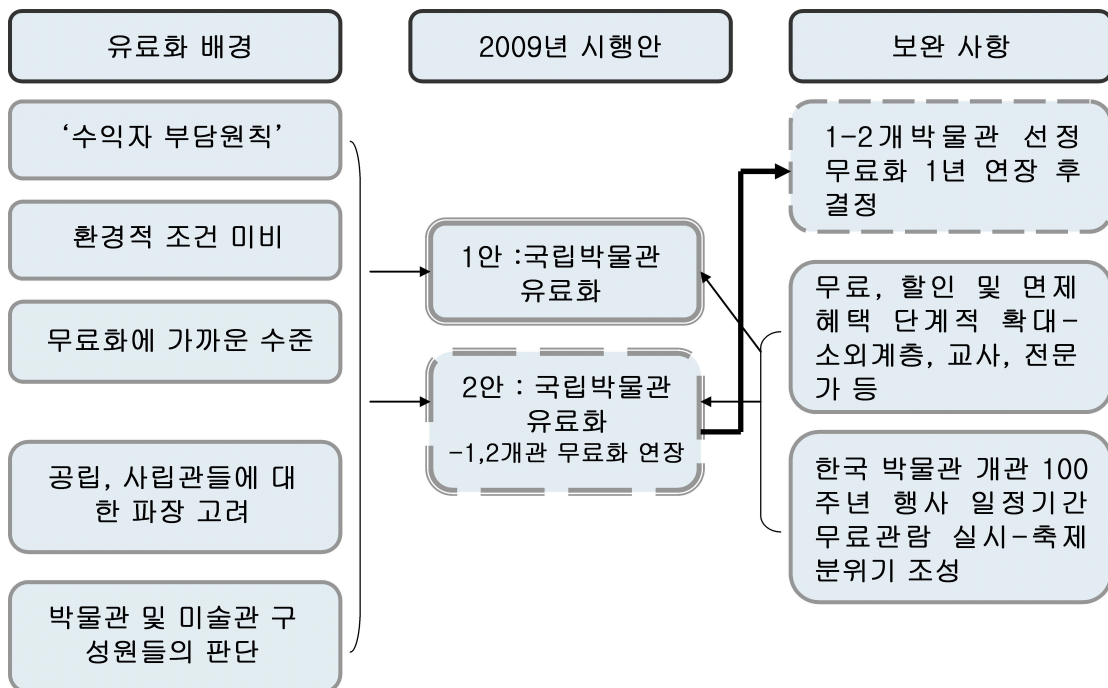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5월	6월	7월	8월	2008년 5-8월 변동률
국립중앙박물관	+ 23.5	+ 76.9	+ 55.4	+ 49.9	+ 46.2
국립경주박물관	+ 5.7	+ 40.6	- 1.4	- 6.3	+ 7.2
국립광주박물관	+ 19.6	+ 4.1	+ 7.4	+ 18.5	+ 13.3
국립전주박물관	+ 15.2	+ 34.7	+ 39.6	+ 12.7	+ 23.2
국립부여박물관	+ 15.6	+ 81.9	+ 67.9	+ 34.6	+ 39.9
국립대구박물관	+ 62.8	+ 41	+ 56.6	+ 27.2	+ 44.7
국립청주박물관	+ 24.5	+ 11.5	- 8.8	+ 18.9	+ 17.7
국립김해박물관	+ 4.2	- 6.7	+ 4.1	+ 68.2	+ 19.6
국립제주박물관	+ 36.8	+ 17.4	+ 51.1	- 12.8	+ 17.8

국립춘천박물관	+ 28.7	+ 34.1	+ 64.4	+ 98.2	+ 50.1
국립진주박물관	+ 96.1	+ 113.1	+ 11.5	+ 29.6	+ 68.5
국립공주박물관	+ 10.6	+ 77.3	+ 34.5	+ 26.8	+ 30.6
합계	+ 20.8	+ 50.7	+ 33	+ 27	+ 29.6

※ 《국립박물관 무료화 시범실시에 따른 관람객 분석 및 파급효과 연구》통계설문.
2008.10

국립박물관 유료화 배경과 보완사항



3) 관람료제도 보완점

(1) 다양한 혜택 등 단계적 확대

프랑스가 이번 무료화행사에서 실시한 대규모 관들의 나이트뮤지엄 등 행사는 이미 우리나라에도 ‘야간개장’프로그램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006년 11월부터 12개 국립박물관에서 초·중·고교생들에게 ‘놀토(노는 토요일) 무료화’를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에 실시하고 있어 상당한 서비스개혁과 개방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낮은 관람료를 징수하면서 이와같은 이벤트 행사들은 실시하는 것 또한 매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우선 관람객들에게 서비스되는 할인이나 면제특별행사가 커다란 실익을 거두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그 혜택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소외계층이나 학생, 반복입장을 해야하는 전문가 계층에 혜택개선안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래에서는 이후 단계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개선안을 정리해본다.

① 무료, 할인 및 면제 혜택

이미 앞서 말했듯이 국내 박물관들은 ‘야간개장’과 2006년 11월부터 12개 국립박물관에서 초·중·고교생들에게 넷째 토요일에 ‘놀토(노는 토요일) 무료화’를 매주 수요일에는 야간개장을 통해 ‘큐레이터와의 대화’를 실시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 국립박물관의 관람료할인과 면제내용은 현재 싼 관람료가 원인으로 보여지나, 매우 제한적인 부분이 많으며, 보다 실제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나 아래의 대상자들에 대하여는 사립관들에 대한 자생력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을 전제로 하여 1-3차단계의 단계적 할인과 면제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도 2009년에는 소외계층, 박물관 및 미술관 직원, 전문가들과 교사 및 연구자 등에 대한 혜택 확대를 적극 검토할 수 있으며, 2단계에서는 전문가 범위를 대폭확대하고, 장기적인 비전으로 3단계에서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방하는 점진적인 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면제나 할인의 폭을 대폭 조정해가는 사안은 비단 국립관만의 과제는 아니다.

공립관과 사립관 역시 장기적으로는 이와같은 제도를 도입해갈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사립관의 재정적인 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경영적인 전략을 수립하면서 뮤지엄샵, 아트상품 디자인, 교재개발과 유료교육프로그램 확대 등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을 늘려나가야 할 것이다.

박물관·미술관의 할인과 면제혜택 단계적 시행 방안

구분	1 단계	2 단계	3 단계
전문가	- 전국의 등록박물관 및 미술관직원, 박물관, 미술관관련 전문가 - 학예사 자격증, 준학예사 시험을 패스한 자	- 박물관, 미술관학 관련 전공자(각 박물관협회, 지역협의회 등으로부터 카드 발급)도서관 사서, 갤러리 큐레이터, 문화원, 문학관, 과학관 등 근무자 등 ※타 박물관들과의 협의과정과 증명서류 분류 등 기간소요 - 저널리스트와 프리랜서 학자	-
가족	가족단위(가족패스)	-	-

	· 가족패스 : 어른 2인과 18세 미만의 어린이 · 조부모패스 : 어른 2인과 18세 미만의 손자들		
교육, 연구	· 현직 교사 및 교수 · 학술연구목적 또는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	· 역사, 고고학, 미술, 뮤지엄, 조형예술 등을 전공하는 대학, 대학원생 ※공·사립박물관에 파장을 고려하여 신중한 준비과정 필요
소외, 저소득계층, 사회복지	·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저소득의 모자 또는 부자가정의 청소년 ·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보호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시에서 다자녀가정에 발급한 「가족카드」 소지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 · 국·공립기관에서 정양중에 있는 상이군경	-	· 초·중·고생 ※공·사립박물관에 파장을 고려하여 신중한 준비과정 필요
특별우대	-	· 유물 및 작품기부자와 후원자 · 혈액 기증자 · 사전 예약 한 10인 이상의 단체는 10% 할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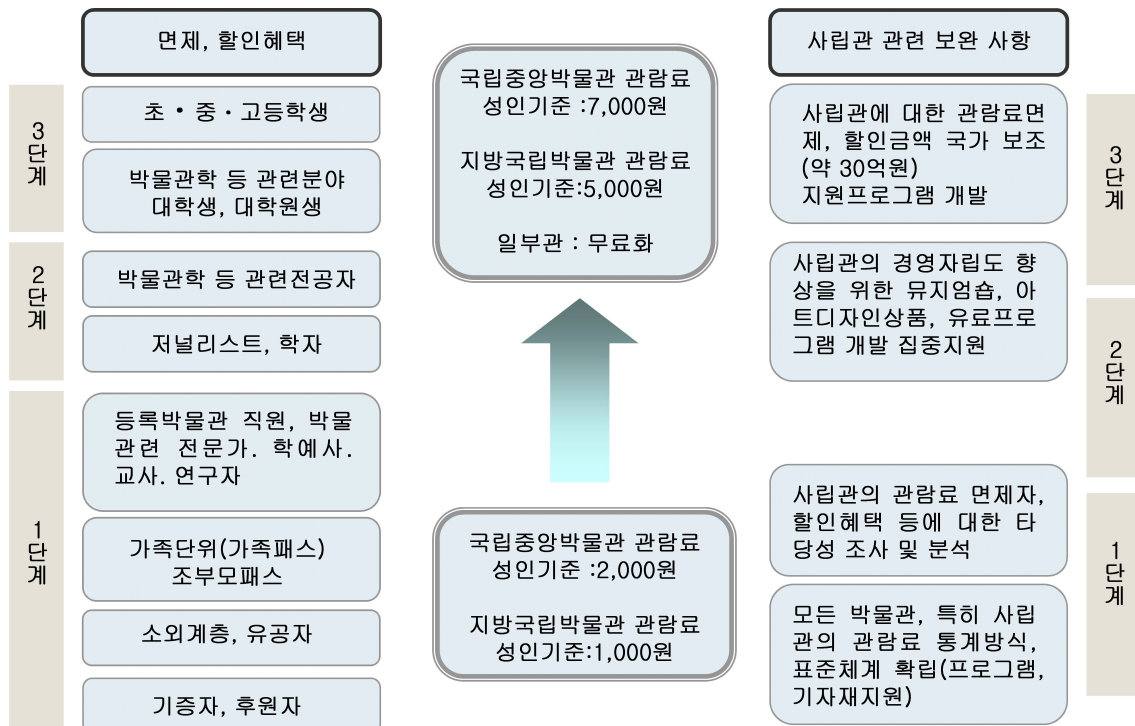
② 한국 박물관 개관 100주년 행사 무료관람 실시

2009년은 한국 박물관 개관 100주년이 되는 해이므로 이를 기념하여 해당되는 주 1주일간이나 1개월 간을 무료 개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기간에는 국립과 사립, 대학관 등이 모두 참여하는 기간을 2-3일 정도 정하여 상설전에 한하여 전국의 모든 관이 축제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사립박물관의 지원대책

국립박물관의 관람료 무료화가 가장 큰 파장을 미치는 것은 사립박물관·미술관이며 국립박물관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나 거리가 가까운 지역에 위치한 경우는 더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교육프로그램 등 단체로 관람을 해야하는 경우 관람료가 부담되는 부분이 많아 무료관으로 관람하는 사례가 많았다.

박물관 관람료 면제·할인 혜택과 사립관 지원책



또한 관람하는 입장에서는 사립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박물관은 정부기구’라는 고정관념을 갖는 경우나 정부나 지자체에 등록된 관의 경우 심리적으로 ‘국가자산이거나 기구’라는 생각을 갖는 예가 다수인 이유로 사립관도 무료입장을 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규모에서도 차이는 있겠으나 사립관들의 특성을 살려 테마로 차별화된 박물관들은 피해사례가 비교적 적었거나 없었다.

사실상 위와 같은 사안은 이번 ‘무료화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로서 사립관들이 담당해온 ‘국민문화향수권신장’의 중요한 위치를 재인식해야 한다는 점에서 아래의 표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 표를 보면 2005년부터 최근까지 100개 전국관을 대상으로 통계한 것으로 수치상으로 보아서는 상당히 객관적인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²⁴⁸⁾ 이 수치로 보면

248) 이 부분은 31개관만이 티켓발행과 넘버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신빙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수기표기, 엑셀을 이용한 계산 등 다양한 형식을 구사함으로써 최소한의 기준에는 부합하였음. 그러나 정확한 수치로 계산되기 위해서는 이후 표준화된 프로그램이나 계산법이 절실히 요구됨.

2005년에서 2008년 4월까지 약 7백만명에 가까운 관람객이 다녀간 것으로 통계되며, 응답관이 70-90개관에 그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전국 사립관이 2배 정도에 달한다는 추정으로 2007년 1년간만 해도 500만명에 달하는 관람객을 유치하였다.

사립박물관·미술관 연도별 관람객 및 관람료 통계(2005-2008)

연도	관람객 (명)	유료관람 자(명)	무료관람 자(명)	1관당 평균관람 객(명)	관람객 수변동 률 (%)	관람료 총액(원)	관람료 총액 변동률 (%)
2005	1,598,545	1,101,219(69%)	493,126(31%)	22,202	-	3,437,408,180	-
대상관수	72	47	68	72		40	
2006	2,059,483	1,549,369(75%)	513,244(25%)	26,404	+ 28.8%	5,537,492,100	+ 61%
대상관수	78	54	71	78		50	
2007	2,448,097	1,830,893(75%)	615,217(25%)	27,507	+ 18.8%	7,421,834,384	+ 34%
대상관수	89	68	79	89		64	
2008. 1-4	657,209	498,971(76%)	136,833(21%)	7,468	-	2,125,897,600	-
대상관수	88	65	77	88		62	
계(%)	6,763,334	4,980,452(74%)	1,758,420(26%)	-	-	18,522,632,264	-

※ 전국 100개관 대상. 응답관 수가 다르므로 전체를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움이 있음. 정확한 수치가 없을 경우 근접한 추산으로 표기

※ 세계술문화박물관과 우석헌자연사박물관, 남포미술관의 관람객수는 대략적 수치.

사립박물관·미술관의 관람료 집계실태

구분	내용	관수	내용
집계방법	· 티켓 발행넘 버	31관	월별 기록, 단체는 예약기록, 개인은 1주일 단위로 관람권, 교육 및 체험학습, 입장객수, 일일기록, 관람객 명부 작성, 집계기록대장에 正 자로 표시, 집계기록대장에 바로 체크 및 발권표 부착, 단체관람 중심으로 기록, 따로 기재, 일일 방문자현황작성, 방문객수 당일 공책에 기록, 임의기재, 방함록 기록, CCTV 이용, 입장료 영수증, 자연염색박물관은 관람객 수 일일기록표에 기록, 수기로 기록, 자동 집계 데이터 활용, 티켓과 수기 합산, 명칭/연/월/일/명시된 입장권을 분류하여 집계, 서류화, 자동집계프로그램, 계수측정기 넘버, 체크기/방명록기재 내용/매일방문숫자기록/당일근무

		자 확인집계/일별 집계 후 월별, 연말 합산/일일회계작성 및 티켓보유/티켓에 연령대 기재/수기/입구개수/티켓발행과 동시에 관람객 집계 기록대장 체크/방함록 기록/매달 번호 기입/티켓 발행번호 더하기 무료입장
무료관람자	· 무료 티켓발행 11관	· 티켓 미발행 73관
외국인관람자 집계	· 유 37관	· 무 52관
외국인 집계 방법	방명록 기재, 표기, 일일기록, 전산시스템, 집계기록대장 체크, 기록, 임의기재, 방함록 기록, 인적사항기록표, CCTV 이용, 입장료 영수증 발행, 수기, 방명록에 싸인(거절하는 자도 있음), 서류화, 수기집계, 방명록기록/방문숫자기록/티켓에 기재(외국인)/수기/방함록 기록/POS 티켓발행/일일 관람객 현황	
집계기록대장 보관	· 유 68관	· 무 22관
사용티켓 보관	· 유 34관	· 무 45관

각 박물관 2005-2007년 연도별 관람객 및 관람료 통계

구분		관람객(명)		
		'05	'06	'07
국립중앙박물관	관람객수	1,339,709	3,287,895	2,281,700
	변동률(%)	-	+ 145.4%	-30.6%
지방 국립박물관 (11개관)	관람객수	4,937,904	3,835,734	3,675,542
	변동률(%)	-	-22.3%	-4.2%
	대상관수	11	11	11
사립박물관·미술관 (100개관 대상/ 89개관 응답)	관람객수	1,598,545	2,059,483	2,448,097
	변동률(%)	-	+ 28.8%	+ 18.9%
	대상관수	72	78	89

소외계층, 장애인, 지역민, 성직자, 군인 등 전체 관람자 중 무료관람자의 비율은 2005년에 비하여 2007년은 6%가 줄어든 것으로, 전체의 25%이다. 이는 응답관수지만 약 61만명, 추산으로 120여 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계산된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해보면 우리나라 사립관들의 평균 관람료인 3,956원을 120만명에 적용했을 때 약 47억 4,700만원이 된다. 만일 여기에 할인액까지 포함한다면 약 60억원 정도의 금액이 매년 사립관에서 무료나 할인으로 관람객들에게 서비스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향후 국립박물관의 할인제도와 면제대상을 확대해가는 과정에서 이와같은 사립관

들의 역할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는 것은 국가가 담당해야 할 ‘문화유산의 전승과 문화예술보급’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사립관에 대한 지원책으로는 현재 복권기금과 학예사지원, 소액의 사랑티켓을 제외한 타 지원체계가 없는 실정에서 연간 60억원 정도의 관람료를 면제하고있는 점을 감안하여 최소한 연간 50%정도인 30억원 정도를 국고로 책정하고, 아래와 같은 지원제도를 수립하는 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지원대상자에게는 관람객 통계방식의 합리성을 위하여 티켓발행을 의무화하고 판매시점관리(Point Of Sales management/ POS) 등 관련시설을 설치하여 통일된 기준을 적용. 티켓비용과 시설설치 국가 지원²⁴⁹⁾
- 연간 무료관람자들에 대한 50%정도의 일정금액 국가 부담
- 경영자립도 향상을 위한 뮤지엄샵, 아트디자인상품 공동개발, 유료 교육프로그램 등의 개발, 관람객 창출을 위한 홍보책자, 홈페이지 보장, 공동티켓발행, 지역민을 위한 이벤트행사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

(3)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적정 관람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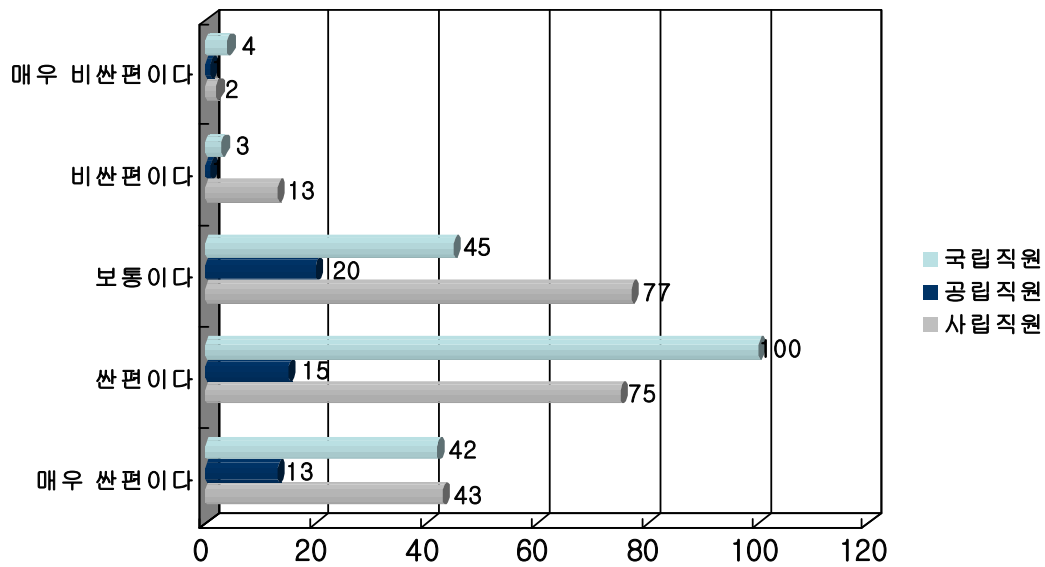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국립박물관 관람료는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이 성인기준 2,000원, 지방 국립박물관이 1,000원으로 책정되어있다. 그러나 이 정도의 수준은 이미 위에서 비교하였듯이 외국의 A그룹 국립박물관이 평균 1만 1,745원 인데 반하여 우리와 비슷한 국가들은 B그룹으로 7,939원으로 책정되어있다. 한편 경제수준이 우리보다 낮은 그룹인 C그룹에서는 2,899원을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계적으로 총 113개관을 조사한 것이어서 어느 정도 정확도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되며,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국립박물관 24개관의 평균관람료는 1,054원으로 통계되어 C그룹에 반도 못미치는 수준에 머물러있다.

이는 관람객들의 설문에서 나타났듯이 ‘관람료가 부담되어서(성인 기준 : 중앙박물관 2,000원, 지방박물관 1,000원)’는 6개의 항목 중 5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큰 부담이 되지 않고 있다. 한편 박물관 직원들의 설문에서는 아래와 같은 결과도 출되었다. 이 항목에서는 ‘싼 편이다’ ‘매우 싼편이다’가 가장 많은 응답수를 보여 주었고 공립과 사립관은 보통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249) 판매시점관리(Point Of Sales management/ POS) : 컴퓨터를 이용하여 각종 유통정보를 분석 활용하는 유통시스템. 동시에 품목, 가격, 수량 등의 유통정보를 컴퓨터에 입력시켜 정보를 분석, 활용하는 관리시스템으로서 박물관에서는 분류별 관람객수, 매일 통계는 물론 결제 종류, 시간대별 입장객까지 다양한 정보를 집계할 수 있어서 매우 편리하다. 관람료 수입 계산에 필요한 프로그램 초기 설치비용은 200여원, 매월 관리비용은 4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됨.

국립박물관 관람료에 대한 박물관직원들의 설문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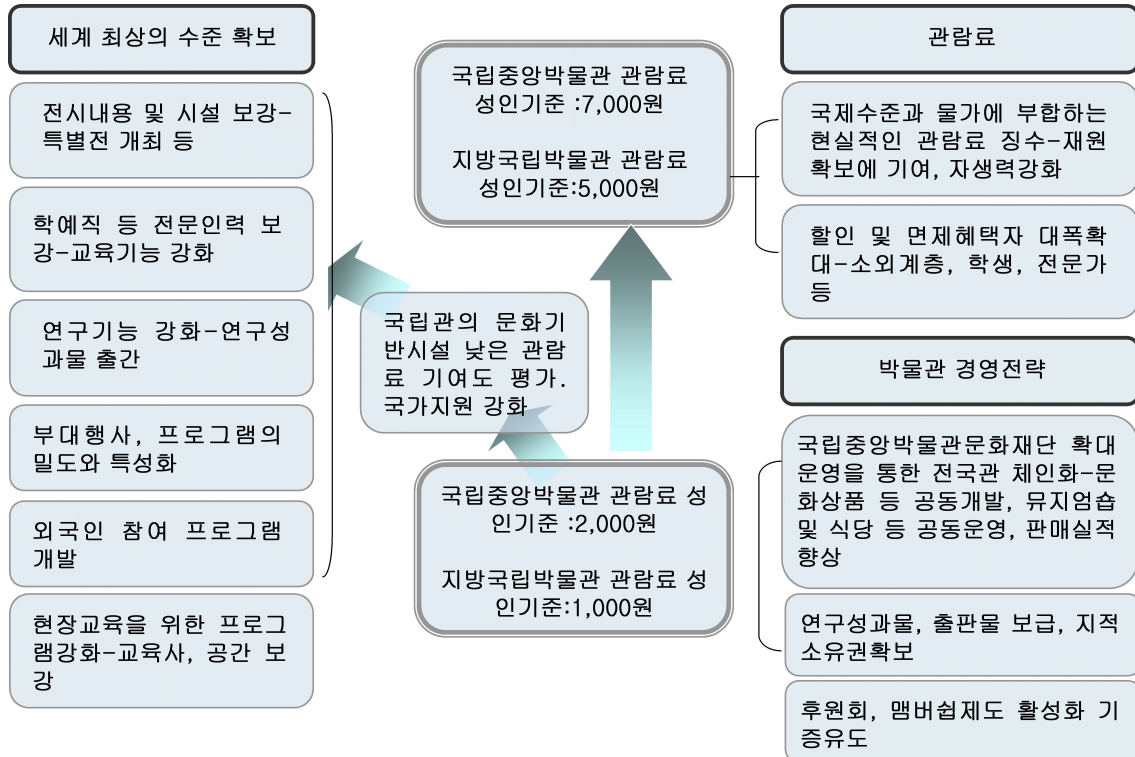
설문 : 우리나라 박물관의 관람료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내용	국립직원	공립직원	사립직원	계
국립박물관 관람료				
① 매우 비싼편이다	4(4)	4(1)	5(2)	5(7)
② 비싼편이다	5(3)	4(1)	4(13)	4(17)
③ 보통이다	2(45)	1(20)	1(77)	2(142)
④ 싼편이다	1(100)	2(15)	2(75)	1(190)
⑤ 매우 싼편이다	3(42)	3(13)	3(43)	3(98)
공립박물관·미술관 관람료				
① 매우 비싼편이다	5(4)	5(0)	5(0)	5(4)
② 비싼편이다	3(17)	4(1)	4(13)	4(31)
③ 보통이다	1(85)	3(11)	2(70)	1(166)
④ 싼편이다	2(65)	1(23)	1(76)	2(164)
⑤ 매우 싼편이다	3(17)	2(15)	3(47)	3(79)
사립박물관·미술관 관람료				
① 매우 비싼편이다	4(23)	4(3)	5(2)	5(28)
② 비싼편이다	1(86)	1(19)	3(44)	2(149)
③ 보통이다	2(73)	2(18)	1(85)	1(176)
④ 싼편이다	5(5)	3(8)	2(65)	3(78)
⑤ 매우 싼편이다	3(53)	5(2)	4(14)	4(69)

※국립직원 : 총 195명 응답(국립관만표기 : 5명, 사립관만표기 : 1명, 국립·공립표기 : 1

명, 국립·사립표기 : 1명), 공립직원 : 총 50명 응답, 사립직원 : 총 212명 응답(1개 체크 : 4명, 2개 체크 : 2명)

국립박물관 관람료와 세계적 수준의 박물관전략



국립박물관 관람료는 어느 국가나 박물관의 운영구조와 철학, 나아가서는 정체성과 맞물린다. 우리나라는 국립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을 국가가 전체를 책임지는 이른바 ‘국가주도형’을 구사한다. 외형적으로는 프랑스와 비슷한 구조를 지니고 있으나 운영 면에서는 30여개의 국립박물관들이 연간 관람료만 3천억원을 기록하는 구조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외에도 뮤지엄샵, 식당 등에서 올려지는 판매수입이 관람료보다 더 많은 수익구조를 기록하는 예도 많다. 우리나라에서는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사실상 이번 무료화과정에서 읽을 수 있듯이 관람료보다도 오히려 문화상품, 식당 등에서 판매되는 수입이 훨씬 더 많은 액수를 기록하고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이러한 구조를 적극 반영하지 못한 채로 과거에는 수익구조보다는 일방적인 대국민서비스에만 치중하면서 관람료가 결정되는 형태였음을 부인할 수 없으며, 이후로는 국립박물관의 정체성, 운영방향에 대한 논의에 따라 새로운 방향설정이 필요한 시점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여러 현상들을 감안해 보았을 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으나 현재 책정된 관람료를 장기적으로는 외국의 B그룹과 C그룹에 위치하는 적절한 관람료수준으로 상향조정하면서 서구 선진여러나라가 실시하고 있는 할인과 면제혜택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으로 진전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다소 가상적이지만 우리나라의 국립박물관 적정관람료를 구체화하여 책정해본다면 외국의 B그룹과 C그룹 상위수준 정도에서 고려해 볼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6,000-7,000원, 국립경주박물관은 5,000-6,000원, 다른 지방 국립박물관은 4,000-5,000원 정도의 수준이 적합할 것이다.

국립박물관 적정관람료

구분	현재 관람료	적정 관람료
국립중앙박물관	2,000원	6,000-7,000원
국립경주박물관	1,000원	5,000-6,000원
10개 지방 국립박물관	1,000원	4,000-5,000원

이와 같은 관람료의 책정은 박물관의 운영에도 매우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시스템이면서 국가적으로도 매우 신중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 더불어서 현재 우리나라의 관람료 수준은 국가가 수행하고 있는 대국민서비스의 폭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VI. 결론

2008년 5월 1일부터 실시된 관람료 무료화는 제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국가비전과 국정과제’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국민 문화향유권 신장과 건국 60주년을 맞아 국민적인 축제행사로 실시되고 있었다.

이에 대한 중간성과는 정성적인 면에서는 박물관 전문가나 직원, 관람객 등의 의견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문화복지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는 의견에 압도적인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2009년부터 실시될 관람료제도에 대하여는 많은 수가 반대의사를 표시했으며, 유료화에 정당성을 부여하였다.

더욱이 연간 500만명에 이르는 대영박물관이나 600만명을 넘는 루브르박물관에는 못 미치지만 풍피두센터, 오르세미술관 등에는 근접하는 수준의 관람객숫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국립중앙박물관은 2006년에 비하여 2007년 관람객이 약 1백만명 정도 줄어든다고 추측되었다. 소수에 그치는 외국인 관람객의 유입, 내실있는 교육프로그램, 부대시설 제공 등에서 보완해가야 할 부분이 많으며, 무료화 이전에 자체적인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정량적인 평가에서도 무료화 실시로 인한 전 국립박물관의 2008년 5-8월 통계를 보면 국립중앙박물관이 97만 7,981명, 11개 지방 국립박물관이 160만 6,312명으로 12개관을 통합하여 258만 4,293명이 입장하였다. 이는 2007년 12개관 통계 197만 642명과 비교하여 61만 3,651명이 증가한 수치이며, 31.1%의 증가세를 보여주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2007년 같은 시기의 66만 2,969명에 비하여 31만 5,012명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으로서 11개 지방 국립박물관 22.8% 보다는 높은 47.5%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또한 매출수입과 관람료 비교에서 매출수입과 관람료 비교에서 2007년 관람료 수입액인 약 9억 6,650만원보다 약 2억 4,781만 3천원 이익으로 통계되었다.

그러나 국립중앙박물관 매출액이 2007년도 관람료 수입액을 포함한 매출액을 상쇄하고도 4억 8,803만 5천원 흑자를 남겼고, 11개 지방 국립박물관 매출액은 3억 2,104만 8천원의 적자를 기록하였다는 점은 이후 12개 국립박물관 시스템의 부대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이 부분은 프랑스의 RMN이 실시하고 있는 국립뮤지엄 공동 상품개발 시스템이나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단의 전국관 연계운영 등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2009년 이후 관람료 실시에 있어서는 국립박물관의 지역, 규모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었으나 관람객을 제외하고는 박물관 운영자, 직원, 전문가그룹 모두가 ‘유료화’를 찬성하였다. 단 1-2개관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무료화를 연장시킬 수 있는 안이 제기되었다. 이는 전국의 관이 반드시 동일하게 관람료를 적용해야 한다는 이론과는 배치되는 내용이지만 주변의 관들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와 함께 적극 검토할 수 있는 안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제 1안에 ‘유료화’를 제 2안에 ‘유료화, 1-2개관 무료화 연장’안으로 제시하게 되었다.

또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관람료이다. 관람객이 상당폭으로 줄어드는 한이 있더라도 관람료의 책정은 세계적인 수준에 적합하도록 대폭 상향조정하고 할인과 면제혜택을 대폭 늘려가는 방안이 이상적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갑자기 이와 같은 조정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 정책적으로 다단계의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²⁵⁰⁾

결국 2009년부터는 관람료를 정상대로 유료화하면서 다소간의 소외계층과 전문가그룹, 교육 분야의 할인과 면제혜택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는 제도시행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나 2009년이 ‘한국 박물관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많게는 1개월, 적게는 1주일 정도를 무료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으며, 2-3일 정도는 국립 외에도 전박물관이 무료로 개방하는 것은 축제성격의 행사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250)이 점은 사실상 관람료가 연차적으로 인상되어왔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수 있었던 점과 연결되며, 이후 이 부분은 국가의 박물관 로드맵을 결정하면서 다루어져야 할 중요한 사안이다.

국문초록

국립박물관 무료화 시범실시에 따른 관람객 분석 및 파급효과 연구

연구책임자 : 최병식(경희대 교수)

국립박물관은 2008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범사업으로 무료관람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보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이번 사업의 중간성과를 파악하고 심층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하면서도 2009년부터 실시될 제도에 대하여 증대방안과 시행안을 제시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 가장 핵심적인 목적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이명박정부의 국정과제’와 ‘건국60주년을 맞은 국민적 축제행사’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무료화 시범실시를 계기로 관람객 성향을 분석하여 향후 관람객 증대방안을 마련.
- 무료관람 시범실시의 결과와 기대 효과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무료화 정책 실행의 타당성 및 방향성 검토
- 사립박물관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 영국, 프랑스, 미국 등의 박물관 무료관람제도 연구로 비교 및 반영

이를 위해서는 ‘제 3장 국립박물관 무료화 시범실시 실태분석’을 중심으로 주요 분석자료와 함께 1,000명이 넘는 관람객 설문과정과 전국의 국립박물관을 현장 방문하여 심층인터뷰를 실시하고 생생한 시행과정의 장단점을 파악하였다. 통계부분에서는 관람객 변화, 운영실태 통계분석 등을 비롯하여 관련매출현황과 통계비교 및 변동률을 분석하였다.

제 4장에서는 가장 먼저 전국적인 규모로 무료관람제도를 실시한 영국을 비롯하여 2008년 1월부터 6월까지 14개관을 실시한 프랑스, 2008년 3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는 중국 등을 연구하였다. 런던, 파리에서는 객원연구원이 현지 인터뷰를 통한 자료를 보완하여 실제 적용되어지는 사례를 구체화하였다.

이와 함께 역시 제 4장의 한국과 주요국가 관람료 비교분석에서는 국내외 300여 개 박물관 및 미술관의 관람료조사, 할인과 면제혜택 등의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박물관들의 관람료가 위치하는 적정수준을 파악하였다.

‘제 5장 국립박물관 무료화 정책에 따른 반응 및 영향’에서는 운영주체인 국립박물관 직원, 공립관, 사립관, 전문가들의 견해 등이 심층 인터뷰와 함께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입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제 6장 국립박물관 관람료 무료화 성과 및 향후 실시방안’에서는 위의 자료들을 토대로 관람료 무료화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2009년 이후 국립박물관 관람료 제도의 방향과 관람객 개발증대를 위한 안을 제시하였다.

분석범위는 연구기간의 한계로 인하여 2008년도 5-8월까지로 설정하였으며, 통계방식은 전체 국립박물관통계는 국립중앙박물관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자료에 의거하면서도 객관성 확보와 조사항목의 구체화로 인하여 12개 국립박물관으로 나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연구과정에서 통계된 결과들을 활용하였다. 양 통계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으나 집계항목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정도로 판단된다.

전체 연구 및 분석결과로서 2008년 5-8월 4개월간의 성과는 긍정적인 수준으로 판단되었으며, 이 과정에는 정성적인 성과로서 관람객과 박물관 주체, 공립, 대학, 사립관의 평가 등이 종합적으로 집합되어있다. 정량적인 성과로서는 4개월간 97만 7,891명 입장하여 2007년 같은 시기의 66만 2,969명에 비하여 31만 5,012명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으로서 관람객에서는 47.5%의 증가세를 보여주었다. 매출수입과 관람료 비교에서 2007년 관람료 수입액인 약 9억 6,650만원보다 약 2억 4,781만 3,000원이 이익으로 통계되었다.

2009년도 이후 관람료책정에 대하여는 2008년의 비교적 긍정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유료화 타당성’을 제시하였으며, 외국의 관람료와 비교하였을 때 턱없이 낮은 수준의 우리나라 관람료에 대하여 정부나 국민들의 재인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제기하였다.

아울러 유료화 이후에도 관람료에 대한 신중한 판단과 함께 1-2개관을 시범실시 연장을 하는 방안, 소외계층과 전문가들에게 무료개방을 실시하고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학생들에게도 개방해가는 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A Study of Visitors Analysis and the Effect of National Museum's Free Admission on an Experimental Basis

Head of Research: Choi, Byung-sik
Professor of KyungHee University

The Korean national museums have been conducting an experiment with free entry for visitors from May 1 to December 31, 2008.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interim results and provide an in-depth analysis of the project with a clear objective perspective, and to propose a scheme for a system to be put into effect from 2009.

Chapter 3 investigates the result of the national museum's free admission experiment based on the questionnaires submitted by over 1,000 visitors and in-depth interviews conducted at the 12 national museums in Korea. The survey reveals the benefits and drawbacks of the enforcement of the experiment, and the statistics analyze the difference in visitorship, the actual condition of management, the current state of earned revenue, etc.

Chapter 4 investigates the free admission policy at museums in the United Kingdom, France, China, the United States, etc. "Comparative Analysis of Admission Fees in Korea and Principal Countries Overseas" provides an analysis of the admission fee, reduced fee, and exempted fee offered at 300 domestic and overseas museums, and to comprehend the optimum level of the Korean museum admission fees.

In Chapter 5, "The Effect and Influence of the National Museum's Free Admission Policy," the results of the in-depth interviews and survey sent to the national museum's personnel, public and private museums, and specialists are revealed. Chapter 6 entitled "The Result of Free Entry to National Museum and Operation Scheme Henceforth" on the basis of collected data stated in the previous chapters, analyzes the experiment's problems and proposes a direction for the national museum's admission fee system, and a scheme for developing higher visitor numbers.

Due to the time constraints of the research, the analytical study was focused on the period from May to August 2008, and the statistics were provided by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and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d further detailed investigation of the 12 national museums was conducted on the basis of the findings in this research.

According to the research findings, the four-month period from May to August 2008 was marked by positive result. During the research process, qualitative evaluation of the visitors, national museums, public museums, university museums and private museums was comprehensively conducted. The quantitative result indicates compared to 662,969 visitors in 2007, the same four-month period reported 977,981 visitors in 2008, which means the visitor numbers have increased by 47.5%, that is an increase of 315,012 visitors. Compared to the 2007 earned revenue from admission fees, which was 966,500,000 won, this year's earned revenue so far reported a profit of 247,813,000 won.

Despite the relatively positive result of the free entry to the national museums in 2008, a proposal for the long-term feasibility of charged admission fee after 2009 is taken into consideration. When compared to the admission fees of overseas museums, the extremely low entrance fees of the Korean museums question the need for the government and the Korean citizens to take another look at this issue.

In addition, even after the entry charges are re-instated, a deliberate approach should be taken in regards to the admission fees, and the following proposals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such as, an extended period of the free entry experiment by one or two museums, free admission to low-income visitors and specialists, and in the long run applied to students as well.

국립박물관 무료화 시범실시에 따른 관람객 분석 및 파급효과 연구

A Study of Visitors Analysis and the Effect of
National Museum's Free Admission on an Experimental Basis

발행처 : 국립중앙박물관

발행인 : 최광식

연구기관 : 경희대학교 부설 현대미술연구소

연구책임자 : 최병식(경희대 교수)

자문위원 : 김종규(한국박물관협회 명예회장), 김쾌정(한국박물관협회부회장, 허준박물관
관장), 노준의(한국사립미술관협회 회장), 전보삼(한국사립박물관협회 회장, 경기도박물관
협의회 회장), 이원복(국립전주박물관 관장)

상임연구원 : 배현진, 박정연, 한혜선

객원 연구원 : 나애리, 유은복

자료조사, 통번역 등 지원 : 최선희, 송경은, 안주희

설문, 통계, 교열 : 이현, 박선민, 차성연, 이옥향, 주세나, 김근희, 김혜영, 성은경, 김호
영, 조순형, 김지아, 현주현, 최수형, 함태경, 노보람

업무협조 : 사단법인 한국사립박물관협회, 사단법인 한국사립미술관협회

인쇄일 : 2008년 11월 1일

발행일 : 2008년 11월 1일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5 Tel 02)2077-9000, 2077-9125

인쇄 : 스페이스 신정

